

진정한 삶의 책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

제7권

교훈 175 - 207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12권으로 구성된 『진정한 삶의 책』 (Libro de la Vida Verdadera)은 전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며, 멕시코 D.F.의

“교육부 저작권 총국(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및 독일어판 서문 작성 책임자:

독일어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참고 사항:

발터 마이어(Walter Maier)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denboth).

2017년 1월 기준

편집 (새로운 철자법 및 레이아웃):

부흐디엔스트 줌 레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진정한 삶의 책』은 이 버전을 바탕으로 DeepL Translator를 통해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트홀트 겔텐보트(Gotthold Gölttenboth)가 번역하고 라이클 출판사(Reichl Verlag)에서 출간한, 저작권이 있는 진정한 원본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본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죄가 되며, 신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작물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 글들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안나 마리아 호스타입니다.

(이메일: hoanna64@yahoo.com)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

(비즈니스 버전)

DeepL은 현재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Bookmundo 출판사에서 출간

제2호 - 2026년

ISBN:

에 수록

진정한 삶의 책	1
가르침 175	10
가르침 176	26
가르침 177	40
가르침 178	53
가르침 179	69
가르침 180	88
가르침 181	105
가르침 182	122
가르침 183	137
가르침 184	152
가르침 185	165
가르침 186	177
가르침 187	189
가르침 188	204
가르침 189	220
가르침 190	235
가르침 191	249
가르침 192	265
가르침 193	280

가르침 194.....	294
가르침 195.....	307
가르침 196.....	325
가르침 197.....	339
가르침 198.....	350
가르침 199.....	361
가르침 200.....	372
가르침 201.....	383
가르침 202.....	392
가르침 203.....	401
가르침 204.....	413
가르침 205.....	424
가르침 206.....	434
가르침 207.....	444
목차.....	456
1866-1950년 멕시코의 신성한 가르침	466

서문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영적 발전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 시대인 ‘첫 번째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두 번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인 ‘세 번째 시대’에는 소위 ‘음성의 전달자’ 들, 즉 소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러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는 1866년 멕시코에서 시작되었으며, 1884년부터는 평범한 서민들이 모여 소박한 모임 장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소에 소수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1950년 말 무렵에는 멕시코 전역의 100여 곳 이상의 다양한 모임 장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신의 영이 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방식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여러 차례 예고되었던 대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주님의 이 말씀들은 속기 및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기록 중에서 1950년 이후 총 366건이 선정되어, 1960년대 초에 12권으로 구성된 저서 『*Libro de la Vida Verdadera*』 (진정한 삶의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신성한 계시의 탄생에 관한 추가 정보와 역사적 배경은 이 저작의 제1권과 유니콘 재단의 『진정한 삶의 책에 대한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원문 발췌문은 독자들에게 본 권에서 다루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첫인상을 제공합니다:

나는 전쟁 소식, 사건들, 그리고 나의 오심을 예고했던 징조들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다. 이 침묵과 비참함, 이 땅의 한

구석(멕시코) 한가운데서, 나는 현재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올려 퍼지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삶으로 깨우며, 내 설득력 있고 사랑 어린 가르침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 안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일깨워 스승을 따르는 길로 이끌어 올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이 시대에 나는 너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종교적 광신과 우상 숭배에 얽매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동시에 너희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덕이 더 빈곤해져 있음을 보았다. 이제 나는 너희가 해마다 이 계시를 통해 나를 들어왔으니 묻노라. 누가 내가 자신의 삶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느끼는가? 누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믿거나,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다고 보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잊어버리거나 왜곡해 버린, 과거에 너희에게 계시했던 것들을 단지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숨겨왔던 것을 내가 밝혀냈고,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 간직되어 있던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다. 이 시대는 영적 자유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며,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188, 33-35)

이 소통을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 즉 어떤 이들은 과학에,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또 다른 이들은 미신적인 생각에 이끌려 만들어내는 것과 혼동하지 말라. (188, 45)

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품에서 그 누구도 외면한 적이 없으니, 유혹에 현혹되어 심연으로 떨어진 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다. 지상에서도, ‘영적 계곡’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는 없다. 너희 중 누가 죄인이라거나 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 품에서 쫓겨날 수 있겠느냐? 나는 양심의 목소리가 내뿜는 부르짖음을 귀담아듣지 않아 내 신성한 영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완고한 죄인의 마음속에도 살아 계신다. 그가 저지른 일련의 악행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 중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이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내 백성 중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영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어 그가 깨어나 유혹의 족쇄를 끊고, 그를 눈멀게 한 어둠을 몰아내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206, 36-37)

영성주의의 선한 씨 뿌리는 자들은 결코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허세도, 휘장도, 어떤 특별한 말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소박하고 단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들이 무언가로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실천적인 이웃 사랑과 영성일 것이다. 영성주의의 진정한 설교자들은 말솜씨가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지혜와 소박함으로,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실의 진실성과 삶의 의로움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지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겉으로만 아름다운 말솜씨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오히려 나는 사랑과 진실함, 치유의 힘,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알았다. 이것이 바로 내 뜻에 따라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본보기이다. 또한 나는 너희가 종교적 실천을 물질적인 예배 장소에만 국한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가두게 될 것이며, 영원을 정복하기 위해 그 날개를 펼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제단은, 내가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위한 것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삶이며, 모든 교파와 모든 교회, 모든 종파를 초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신성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4, 24-28)

나는 영혼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인 종교들이 지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했다. 선과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찬양하는 모든 종교는 빛과 진리를 담고 있기에 선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퇴보하여 본래 선했던 것을 악으로 뒤바꾸면, 그 길은 물질주의와 죄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길이자 생명의 본질이며 법인 나의 진리를 새롭게 보여 주노니, 너희가 등대이자 인도하는 별인 이 법을 형식과 의식을 넘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넘어 찾게 하려 함이라. 나를 이렇게 찾는 자는 영성주의자가 될 것이다. (197, 10-11)

사람들의 정신이 물질주의와 전통, 편견, 광신주의를 초월할 때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예배,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선을 위한 예배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인류는 완성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선하고 정직한 행동을 통해 나의 사역을 보여 주기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평화 왕국을 세우는 데 여러분의 씨앗을 뿌려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 씨앗은 다가올 세대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87, 43)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곳, 모든 나라, 모든 대륙에 빛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빛은 인간의 영적 수련 수준에 따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 창조에 대한 새롭고 더 정확한 관념, 즉 영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적·정신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200, 41)

가르침 175

1. 내 영의 빛은 너희 존재 속에 잠들어 있는 모든 재능, 즉 너희가 태초부터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발견하며, 너희의 유산이 무엇인지 체험하여 영적으로 위대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2. 나는 때때로 너희에게 계시를 주었다. 처음에는 율법이었고, 나중에는 나의 가르침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너희의 영적 사명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었다.

3. 너희는 내가 세 번에 걸쳐 사람들 곁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었다는 것이 옳다. 나는 첫 번째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의의 법을 계시하신 그 아버지이시며, 두 번째 시대에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나의 “말씀”을 육신으로 오게 하신 분이시며, 지금 이 세상에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분이다. 이를 통해 나는 시대를 초월하여 너희에게 신성한 비유를 주었으니, 그 의미는 너희의 영적 발전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 주며,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의 영, 오직 한 분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 준다.

4. 너희는 내가 이 시대의 인류에게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내가 추구하는 바는 너희가 빛으로 깨어나는 것과, 너희의 영성화,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분열되어 왔던 너희의 통합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영의 보화를 추구해 온 반면, 다른 이들은 세상의 부에 대한 사랑에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영성주의와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대립해

왔으며, 영성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은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5.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은 나의 진리를 믿는 자들과 부정하는 자들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으로 나를 기다린 자들은 믿었고, ‘육신’의 감각으로 나를 기다린 자들은 나를 부정했습니다.

6. 이 두 세력은 이 투쟁을 통해 진리가 밝혀질 때까지 다시금 맞서야 할 것이다. 그 싸움은 치열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그들의 과학과 발견이 마치 *자신들*이 창조한 세상, 자신들만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7.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온 지구를 지배하고 횡단하고 있다.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대륙, 국가, 바다는 없다. 그들은 육지, 바다, 공중에 길을 닦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물려받은 유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지배 영역을 갈망하며 창공을 탐험하고 탐구한다.

8. 나는 내 자녀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축복하며, 그들이 지혜롭고 위대하며 강해지려는 열망은 나의 전적인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나의 정의가 용납하지 않는 것은, 종종 그들의 야심 찬 목표의 토대가 되는 허영심이나, 때때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목적이다.

9. 나는 사람들이 지식을 늘리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들에게 과학의 빛을 숨기지도 않는다. 내가 인간의 씨앗을 땅에 심고 자라나 번성하라고 명했을 때, 나는 그에게 땅을 정복하라고도 말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의 법과 신의 공의를 알고 미덕을 실천하는 의식

있는 존재가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과 원소들이 그 주위를 조화롭게 맴돌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10. 인간이 이 땅 위를 걷기 시작한 이래, 얼마나 조화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의 끊임없는 추락과, 그가 견뎌낸 고갈될 줄 모르는 고통의 잔, 그리고 평화의 결핍이다.

11. 이제 나는 모든 인간을 위한 새로운 교훈을 너희에게 전한다. 모든 이가 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그들을 깨어 있게 하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

인류는 이미 제2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그 누구도 신성한 정의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으로부터 희망과 지식의 빛을 받기 원했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언의 은사, 신성한 지식, 그리고 영적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제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평범한 흙먼지처럼 보이는 거처에 머물고 있다고 말해 주겠다. 그러나 내 말씀과 약속이 초라해 보여 내 왕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영혼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육신을 입고 환생하는 자들에 속한다고 말해 주겠다. 그들은 금과 권력을 갈망했고, 정의롭게도 그들의 영적 속죄를 위해 의심스러운 부와 거짓된 권력이 있는 세상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성한 정의의 심판을 받았으나, 진리의 왕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에서 결코 배제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의 빛을 풍성히 내려주는 이 시점에, 나는 그들을 지칠 줄 모르고 찾아다닐

것이며,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이 바로 내가 유대 민족의
심판에 대해 말했을 때 언급했던, 시대가 끝나는 바로 그
‘제3의 시대’ 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12. 너희 모두는 나와 “약속” 을 맺었으니, 나를 듣기
위해 모여야 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모든 것은 나의 정의의 저울 위에 올려질 것이며, 그
저울에서는 아직 심판받지 않은 모든 행실이 저울질될 것이다.
나의 임재와 나의 권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혼돈이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14. 오, 백성들아, 너희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깨어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해 줄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을 것이다.

15.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리라. 내가 사람이 그
악의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타락에 한계를 정하리라. 내가
그에게 자유 의지의 길을 따라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에는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그가 세상에서 권력과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었다면, 나는
그의 길을 막아 세우고, 그가 자신의 양심을 통해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게 하여,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6. 나는 고통과 파괴, 그리고 죽음이 너희 삶 속에서 실감나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쓰라린 열매들을 통해 너희가 가꿔 온 나무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고, 영혼이 평온과 성찰에 이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혼으로부터 창조주에 대한 사랑의 찬가가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흰 승천의 옷을 입고 영을 감싸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졌고 기록되기도 했다.

17. 모든 이가 구원받을 것이며, 모든 이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이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에 있으며, 영원한 저주와 끝없는 지옥은 어디에 있겠는가?

18. 나는 죽음도 지옥도 창조하지 않았다. 내 영이 창조의 생각을 품었을 때, 나는 오직 사랑만을 느꼈고, 내 품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죽음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기에 인간의 소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인간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 들리는 그 순간, 이 백성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적 계곡’에 있는, 마찬가지로 신성한 빛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떨게 된다.

20. 그들에게는 인간의 말소리는 닿지 않지만, 내 메시지의 의미와 영감은 분명히 전달된다. 내 목소리는 보편적이며, 그 메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주하는 모든 세계와 거처에 닿기 때문이다.

21. 나는 모든 세계에 내 빛의 광선을 보내노라. 너희에게는 이 빛을 인간의 말의 형태로 보냈으나, 다른 거처들에게는 영감을 통해 전해지느니라.

22. 이제 모든 영혼은 이 신성한 광선의 빛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그 빛을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로 삼아, 나의 신성의 영적 일부인 너희 모두에게 약속된 영적 왕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23. 지상에서 여러분과 물질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세계 너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들이 듣는 목소리가 지구에서도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고, 여러분을 잊지 않았으며, 지상의 골짜기에 잠시 더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보살핌과 축복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 그곳에는 한때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 또는 은인이었던 이들이 거하고 있으며, 이제 영적 존재로서 단순히 여러분의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예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크며,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는 그들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5.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백성들아. 그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너희의 기억과 기도는 그들의 고난 속에서 달콤한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코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치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심판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웃의 사정을 올바르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하고 불공평한데, 어떻게 그들이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26.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기도와 선행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뿐입니다.

27. 그들이 뇌를 사용하든 다른 어떤 방식이든, 너희 삶 속에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느끼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영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을 부를 특정 날짜를 정해 두지도 말라. 영적인 세계는 세속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영적인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매 순간이 적합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8. 너희가 종종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어왔던 그 존재들 중, 정작 지상에 있을 때 스스로는 찾을 수 없었던 이 빛으로 가는 길을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 투쟁해 온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더구나 그들이 “영적 세계”로 떠났다고 해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순간보다 몇 순간 앞서 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내가 정한 바입니다.

29. 백성들아,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묘지에는 갈 이유가 없으며, 무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무지, 물질주의, 그리고 고집의 눈물이라고 말해야만 하겠느냐?

30. 너희가 울고 있는 이들의 영혼은 살아 있다. 그러나 너희는 땅속으로 사라진 그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을 죽은 자로만 고집하고 있다. 너희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기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너희에게 진리와 생명을 증언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희의 투쟁과 고난에 무감각하고 귀를 막고 있다고 믿지만, 그들이 너희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치워 주고,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너희를 구해 주는지 알지 못한다.

31. 무지함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이 없고 심지어 잔인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가르침 중 어느 하나라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32. 내 말씀은 너희 모두를 감싸 안아, 너희가 내 사랑의 불꽃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게 할 빛의 광선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실천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며, 나를 찬양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33.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통해, 지상 생활은 영혼의 고난의 길이며, 지상에서의 존재의 끝은 영혼의 골고타라고 말해 왔다. 이는 너희가 나의 모범적인 행적을 본보기로 삼아 나를 따르도록 노력하기 위함이다.

34. 믿음과 덕으로 정점에 이르는 영혼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육신을 벗어던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강인함과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의 어루만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틀거림 없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35. 이 시대에 내 말씀은 사람들이 내 율법과 가르침의 진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류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지 모를 인정은 그들에게 행복과 마음의 기쁨,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행복은 영혼이 속한 고향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모든 가정은 내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한 밭이다. 모든 도시와 모든 민족은 자비와 사랑을 갈망하는 땅과 같으니, 내가 너희를 씨 뿌리는 자들로 삼아, 너희가 사랑과 위로로 세상을 적시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리라.

36. 행실과 말, 기도는 너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할 수단들이다.

37.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는 영의 참된 언어로서 사람을 나와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이다.

38. 나는 너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으니, 이는 영 안에 존재하는 빛과, 마음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사랑의 표현이다.

39. 내 말을 듣는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희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약점과 결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연약하고 서툴며 무능하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먼저 너희를 치유하고, 내 평화를 느끼게 하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도, 의심을 품지도, 무능력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나를 듣고, 내 말씀으로 점차 힘을 얻도록 시간을 주었으며,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너희를 먼 땅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영이 내 본질로 충만해지면, 출발하기 위해 증거나 표적을 기다려서는 안 되니, 영은 영감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1. 기도하라, 백성아. 너희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나의 평화를 내려주겠고, 너희의 가정을 축복하며 너희의 길을 밝게 비추리라.

42.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겠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 바로 너희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것, 즉 어떤 이들에게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일이 너희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베푼 은혜가 곧 닿겠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랑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때 그 은혜가 너희 각자에게 닿으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43. 절망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 가르침에 따라 살며 기도하고 깨어 있는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깨달으라.

44. 너희가 영혼을 고양시키는 이 순간들 속에서, 너희의 고통을 잊고 내 평화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느냐?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힘쓰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내 평화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45. 너희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라. 너희는 내 씨 뿌리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다.

46.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이들은 경험의 빛으로 깨우침을 받고, 투쟁과 시련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어떤 고통의 모습도 그들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이웃의 어떤 불행 앞에서도 떨지 말아야 하고, 자비를 갈망하며 동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어떤 고통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47. 그곳에서, 악덕과 고통 속에 굳어져 버린 이들 가운데서, 너희는 갱신과 영성화를 갈망하며 빛으로 향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감이 그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형제애의 증거를 심어주어야 하며, 그 행위는 바로 그 사람들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광선이 되어야 한다.

48. 그러므로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따라다녔던 그 고통이, 까다로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내면적으로 다듬어 준 조각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49.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준 가르침은 과거 시대의 가르침들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새로운 성서이다. —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50. 나의 빛은 나의 모든 가르침을 한 권의 책으로 통합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의 이성을 비출 것이다.

51. 나의 영적 종들은 그 책에 어떤 흠도 없도록 나의 선택받은 자들의 손을 이끌어 줄 것이다.

52. 너희가 그 책을 깊이 연구하고 내 사역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있었던 분쟁과 토론, 그리고 불화는 사라질 것이다.

53. 오늘 너희는 너희의 불화가 너희에게 미칠 결과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일 너희는 그 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각과 행동, 그리고 영혼의 일치에 얼마나 많이 요구했는지! 그러나 그만큼 너희는 나의 신성한 조언을 듣지 않았다!

54. 나는 너희가 하나의 백성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너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나는 너희가 삶의 여정과 투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다양한 임무와 사명을 부여했는데, 이는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광야를 건너던 초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내 사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글로 남긴 단합의 본보기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본보기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마주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조화와 결속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55. 새로운 “약속의 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나, 너희는 아직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는 여전히 광활한

사막을 헤매고 있으며, “파라오”의 속박을 뒤로 하고 이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며,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

56.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과 저항, 박해를 겪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의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사역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다.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었던 것처럼; 시험을 통해 그들은 빛으로 깨어났기 때문이다.

57. 이제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성막이 되고, 성령이 너희의 언약궤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나의 율법이 주님의 백성의 길을 비출 것이다.

58. 이 시대에는 모세처럼 이 백성 앞에 나서서 기적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만 준비된다면, 너희는 이 여정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영감을 주는 엘리야의 영적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9.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직 나만이 그들의 탄식의 원인을 알고 있으며, 오직 나만이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마주치고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60. 무리가여, 굳건히 버티고 나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그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일할 때, 점점 더 큰 진실함과 순수함, 그리고 완전함을 다해,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서 삶의 우여곡절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필요한 힘을 얻으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길이 뚫리고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1. 너희는 현재 밀과 잡초가 나란히 자라고 있는 나의 밭이다. 아직 추수할 때가 오지 않았으나, 그 때가 오면 너희 각자의 행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나는 땅 위에 선한 제자들을 남겨 두고, 일치의 열매와 영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리라.

62.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내 말씀을 경청하라. 너희가 내 지극히 큰 사명과 임무를 받았다고 해서, 내 심판이 결코 너희에게 닿을 수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하라. 그들은 백성들의 눈에는 위대해 보였으나, 그 위대함 속에서 잠들어 버렸고, 율법을 어겼으며,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분께 징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무자비하고 지혜로운 나의 신성한 공의가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목격했다.

63. 오, 백성아, 새로운 세대를 생각하라.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라. 마치 조상들이 그들의 백성이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64.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영성의 발자취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깨달아라.

65. 그 흔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너희의 삶과 너희의 행실이다.

66. 모든 영혼은 아버지께 큰 빛을 지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공의는 너희가 나 앞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고, 영적으로 속죄하며, 정화되어 다음 고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67. 오, 축복받은 제3의 시대여, 너는 세상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자로다. 네 빛을 활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68. 너희의 온 영적 여정 동안,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시험하며 이 시대의 계시를 위해 준비시켜 왔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들을 형성하고, 정화하며, 고양시켜 세상에 보내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이 성장하고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고,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바다와 광야를 지나게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69. 이 백성은 인류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자각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을 향한 갈망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상향 발전의 이상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인간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70.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고 따르게 될 것이며, 영의 외침이 이해될 것이며, 영혼의 필요는 배려받고 존중받을 것이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불타는 소망이 빛날 것이다.

71. 이러한 예언들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사람들을 저항할 수 있는 한계까지 몰아갔을 때, 그들이 견뎌내진 자부심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이 나를 무시하려 했고, 나를 심판하고 부정했던 그 왕좌와 재판석,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를 향해

눈을 돌리고, 마치 아이들처럼 나에게 말할 때-수세기 동안
그들을 기다려 온 아버지께.

72. 인간은 물질주의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기에, 마침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는가!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이토록 어둠에 휩싸일 수 있었는가? 너희의 과학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생명과 자연을 모독할 수 있었는가?

73. 너희 과학이 발견하는 모든 작품 속에 나는 현존하고,
모든 작품 속에서 나의 법칙이 드러나며 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느끼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일까? 내 존재와 내 사랑, 그리고 내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진보와 문명의 표징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자연의
힘과 자연의 기적 속에서 신성하고, 높으며, 지혜롭고,
공평하고, 전능한 존재의 작품임을 알아차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선함을 그분께 돌리며 숭배했던 원시인들보다 더 나아간
것이 없다.

74. 그들은 점점 발전하는 지성을 통해 육체적 감각으로
인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내게 바칠 수
있었던 완벽한 숭배가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진리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탄과
믿음, 그리고 숭배는 내 영이 시대를 초월하여 가꾸어 나가야 할
광활한 밭의 첫 열매로서, 나에게 의해 받아들여졌다.

75.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 내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계시를 내려주었는가! 그런데도
— 이 인류는 이미 이해의 정점에 도달했어야 하고, 그들의
종교적 실천은 완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비인간적인 과학은 나를 부정하기 위해 부풀어
올랐으며, 기존의 종교적 의식은 관행과 전통이라는 잠에 빠져
있다.

76. 나는 너희에게 의지의 자유라는 선물을 주었으며, 내 자녀들에게 허락한 이 축복받은 자유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본성에 양심의 신성한 빛도 심어 두었으니, 너희가 그 빛의 인도에 따라 너희의 능력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과 물질 사이의 투쟁에서 영혼은 패배를 당했으며, 이는 영혼을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한 고통스러운 추락이었다.

77. 그러나 그 패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니,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굽주림과 갈증, 별거벗음, 그리고 어둠을 견딜 수 없게 될 때, 심연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바로 그녀의 구원이 될 것이며,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녀는 강하고 빛나며, 불타오르고 영감에 차서 일어설 것이며, 자신의 은사를 다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선이나 악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할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신성한 법칙을 성취하는 데에만 그 은사를 바침으로써,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176

1.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맞서 강해지라. 시련이 너희에게 고통을 줄 때마다, 제2시대의 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나의 본을 따르라.

2. 너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겪으실 수 있었는지 묻고 있느냐?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너희 스승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천한 유혹들이 아니었다.

3. 그분이 이 세상에서 지니신 육신은 인간적이며 감수성이 풍부한 것이었으며, 인류를 위해 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내 영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분은 내 영이 그분께 계시해 주셨기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알고 계셨고, 그 육신의 물질적 측면은 다가올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4. 나는 그 육신이 여러분에게 인간다움의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내 고통이 실재했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희생이 진실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했다.

5.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 희생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내 영의 힘을 세 번이나 부르시어, 그 혹독한 시련에서 승리하셨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감람원에서,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였다.

6. 내가 사람이 되어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맡겨야만 했던 것은, 그 몸에 사람들이 가할 고통이 실효를 발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내가 영으로 왔더라면 —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겠느냐? 내가 무엇을 포기했을 것이며, 너희가 내게 어떤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었겠느냐?

7. 신성한 영은 불멸하며, 육체적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고통에 민감하고, 그 능력은 제한적이며, 본성상 필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너희에게

나의 진정한 희생을 바치며,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8. 너희가 죄인인 한, 그 수난을 마음에 새기고 그 피를 기억하여,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화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무한한 사랑의 본보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라.

9. 너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 위에 계신 나를 기억하라. 내가 나를 처형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치유했듯이, 너희도 너희의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너희를 해치는 자들을 마찬가지로 축복하고, 너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베풀도록 하라. 그렇게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이며, 나는 그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의 고통은 언제나 잠시뿐일 것이니, 이는 내가 그가 시련을 겪는 순간마다 내 힘을 느끼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0. 스승의 모범을 통해 형제자매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공동체에서나 대다수의 종교 공동체에서나, 가르침은 말로만 전해지는데, 그 말에는 힘이 없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사랑의 행실과 모범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11. 이제 너희는 내 가르침의 해석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그 가르침은 너희 마음을 서서히 다듬어, 내가 너희 영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준비시켜 줄 것이다.

12. 내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희생과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에게 말하건대, 내 영이 그에게 건네준 성배를 비운 것은 오직 그 육신뿐이었으니, 다른 사람은 그것을 마시지 못했을 것이다. 내 육신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궁을 내어준 분, 곧 마리아의 덕과 순결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13. 백성들아, 묵상하라. 그리고 내 가르침을 들을 때 너희가 들어가는 이 축복받은 고요함을 활용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묵상과 영성의 순간들 속에서 내 씨앗이 너희 마음속에 싹을 틔울 것이다.

14. 너희는 오늘 너희 마음 속에서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어, 내 말씀을 전하는 이를 통해 내 말씀을 들을 때,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영을 받아들인다. 너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순수하고 소박하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나는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정당한 공물로 받아들인다.

15. 너희가 제기하는 가장 절실한 간구는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고, 옛 시대의 가부장적 삶이 사람들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평화는 너희,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초석을 놓았을 때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16. 너희가 모든 이웃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며 그들 안에서 나를 사랑할 때, 너희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삶은 밝아질 것이며, 나는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될 것이다.

17. 이 시대의 내 말씀은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과 같다. 그것은 너희가 팔레스타인의 들판을 가로질러 나를 따랐을 때 너희 영혼을 상쾌하게 했던 바로 그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다. 그 본질의 핵심은 너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너희는 결코 그 ‘맛’을 혼동하거나 착각할 수 없으니, 그 신성한 인장이 너희 영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남자와 여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려왔고, 너희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니,

너희는 그것이 오직 나에게서만 나올 수 있음을 깨닫고, 왜 내가 이 시대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묻는다.

18.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덕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내게 말한다. 모세도 없고, 초기의 선지자들도 없으며, 베드로나 요한도 없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든 시대에 덕이 있는 영혼들을 보내었으며, 그들 중에는 겸손하게 나를 섬긴 이들도 있다.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명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성과 마음을 맑은 샘처럼 지켜왔으며, 종종 고통이 그들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시대의 나의 사자들처럼입니다. 나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이렇게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19.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내 왕국으로 초대하노라. 또한 나는 어떤 차별도 없이 지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나, 모든 이가 내 목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임을 알고 있노라. 인류는 등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오직 혼란만이 감도는 그곳에, 내 주변에 빛을 비추는 내 깨달은 자 중 한 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깨어 있으면서 내 표징을 기다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동료 인간들을 깨우고 일깨우는 각성의 외침을 울려 퍼뜨릴 것이다.

그 사자들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결실을 맺는 씨앗이 되게 하라. 그들이 물질적 궁핍 속에서 너희 앞에 나타날 때 그들을 오해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활동하며,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니라. 그들은 너희에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를 얹매고 있는 물질주의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영적 자유를 주며, 너희가 내게로 올라갈 수 있게 할 것이다.

20. 나를 듣는 너희는 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인류가 나의 제자로 변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내가 어려운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자들 중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기다리는 싸움이 거대하므로 먼저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사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두가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다. 그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말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내 빛이 너희 모든 형제자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혜롭게 배치하였다.

21.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을 때,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나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의 영은 보편적이며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는데, 과연 누구라도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살아가고 나로부터 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보편적인 광선이 온 지구상에 내려왔고, 영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서 나의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22. 나는 너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삶의 여정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씨앗의 진정한 돌보미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제자매들의 영혼

속에서 그 씨앗이 꽃피울 때까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23. 나는 너희를 내 명령에 얹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감을 줄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의식적이고 준비된 영혼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그 어떤 성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법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워라. 그러나 순종하는 데 익숙해져라. 인간을 다스리는 두 가지 법을 지키라. 그 법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니, 둘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24. 모든 존재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이가 나를 향한 조화와 이해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며, 너희의 기도가 마치 노래처럼, 환호하는 찬송가처럼 하늘로 치솟아 영혼들을 고양시키고, 그들이 운명의 목적지에 도달할 길을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

25. 나의 가르침은 인간의 모든 본질적 측면을 발전시킨다. 그것은 마음을 민감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지성을 일깨우고 심화시키며, 영혼을 완성하고 고양시킨다.

26. 내 가르침을 철저히 연구하여,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의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가 고무해야 할 영혼의 이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이성만을 발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27. 너희 존재의 모든 소질은 나의 말씀 속에서 빛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길을 따라 무한히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다.

28.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 사이, 한때 어린아이로 왔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고, 청소년으로 왔던

다른 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길에서 성장하여 이제 나의 “일꾼” 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어 이제 나의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29. 나는 이 백성에게 확고하고 참된 믿음이 싹트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나의 사역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나의 말씀은 너희가 더 이상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너희가 내 임재를 느끼고 나의 영감을 받기 위해 마음 깊은 곳에 집중해야 할 그 시기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킨다.

30. 나의 가르침은 너희 양심에 새겨져 있다. 그곳이 바로 나의 율법을 가장 잘 간직하는 성궐이니, 시간이 흐르고 너희가 스승과 함께 보냈던 이 영적 위로의 시간들이 먼 과거로 사라졌을 때에도, 내 말씀의 정수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여 너희 영혼 속에서 생동감 있게 울려 퍼지게 하려 함이다.

31. 나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영성화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를 구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영성화 없이는 너희가 이웃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증언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32.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말씀을 마치게 될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사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 영혼도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적 계곡에, 지상에 환생하여 교회의 지도자와 예언자가 될 몇몇 존재들을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빛의 존재들로, 내 말씀이 제시한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33.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의 길을 돕기 위해 영적 세계에서 빛의 존재들이

오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고향들 중에서도 너희 중 일부가 나의 가르침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오기를 의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듣고 있는 이들 중 누가 곧 영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오랫동안 정화되어야만 했던 이유이며, 날이 갈수록 내 가르침의 빛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34. 나는 너희가 영적 군대와 하나가 되어,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존재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

35. 이 말씀을 너희 영혼에 간직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생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영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6.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시의 시간이었는지 깨달아라. 영혼을 고양시키는 빛의 시간이었다! 스스로 준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빛을 풍성히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7. 그러나 이것이 아직 시대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 시대가 인류에게 준비해 둔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계시된 것은 아니며, 너희가 받아들인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이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38. 이 인류가 그들의 영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이로운 빛의 메시지와 영적 계시를 목격하게 될 날들과 해들, 그리고 세기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39. 그 시대는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자리를 이어받을 이들을 위해 길을 마련해야 한다. 너희는 선한 행실로 그 길을 축복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참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를 이어갈 것이고, 나중에는 더 많은 이들이 와서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40. 나는 너희가 육신의 반항을 꺾기 위해 그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큰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그 본성은 양심의 지시에 반항하지만, 너희가 기도에 인내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마음을 영적 성취를 위한 최고의 협력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투쟁은 이 시대에 너희가 치러야 할 속죄의 일부이다.

41. 너희의 모든 성품은 너희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너희 안에 존재해 왔다. 지성과 감수성, 이성, 여러분이 마지막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이기고, 영혼이 육체를 이끄는 조종사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동료 인간들에게 나아가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빛나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강인함과 자제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을 보여줄 것이며, 그 행실은 내 법에 대한 순종과 경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42.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너희 영혼이 이 시기에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느낄 때, 나의 모든 제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무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며 인도해야 한다.

항상 자비를 베풀고, 사랑과 지혜로 바로잡으며, 오늘 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과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뚜렷이 임재하여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고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43. 누구에게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나를 찾는지 묻지 말라. 엘리야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의 때가

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늘, 다가올 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환영한다.

44.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기쁨” 이 되어, 이 고통의 시기에 스승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고, 모든 이가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45. 나는 너희에게 이 인류를 완전히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에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것은 너희 동료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듣고 해석하는 법을 안다면, 시련의 날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 그 신성한 본질을 너희 안에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온전한 다정함과 사랑을 받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느꼈던 그 시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요.

46. 오늘날 인류는 경작하기에 비옥한 밭이다. 밭은 매우 넓으나 일꾼은 부족하다.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대를 내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여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지금은 호기이다.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린 ‘성전’ 들을 다시 세우라! 가정을 재건하도록 돕고, 너희가 가는 길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영성을 설파하라!

47.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미덕이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굳건한 유대가 되며, 청소년들이 새로운 세대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의 형상이 되며, 너희를 돕는 수호천사들과 하나 되어 나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라.

48. 너희의 간구는 내게 닿으며, 내가 비추는 빛이 너희의 존재를 비춘다. 너희의 모든 행적은 현재에 드러나 있으며, 너희는 너희의 공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나갈 것이며, 평화가 온 지구상에 빛날 것이다.

49. 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곤경에 처한 이들과 너희의 빵과 옷을 나누십시오. 곡식 창고를 열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세계가 이 고난의 시기에 형제애를 보여 주라. 병자들에게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고, 저 세상으로 떠나야 할 영혼들을 준비시키며, 슬픔에 잠긴 이들의 믿음을 북돋우고, 모든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인류 가운데 기적을 행하리라.

50. 너희 세상은 노예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 안에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이 살아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위해 영의 법칙이나 인간의 법을 탓해서는 안 되며, 오직 너희 자신을 탓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법, 그것이 신성한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반드시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지만, 결코 얽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1. 너희가 신성한 본질, 즉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하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법칙, 창조주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종교적 광신과 우상 숭배, 미신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52. 마찬가지로, 인간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인간 법들 역시 민족들의 이기심과 불의, 거짓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법들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53. 통치자들과 영혼을 인도할 사명을 가진 자들 또한 내 신성의 자녀들이다. 양측이 적용하는 법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 그들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걷고 살고 있는가.

54. 인류는 언제 비로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황제에게는 황제의 것을” 바칠 수 있게 될 것인가?

55. 어떤 이들은 세상의 규범만을 따르는 데 만족하며 모든 신성한 법을 무시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이에 반발하면서도 여러 종교 공동체가 제시하는 길로 영혼의 고양을 추구하며, 세상의 법에 복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5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느 쪽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57.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왕의 별을 보라. 그 별은 어떤 피조물도 편애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고 온기를 전하지 않는가?

58.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러하듯이, 너희의 사랑과 정의도 그러해야만, 내 법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59. 신성과 너희 마음에서 창조된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사이에도 왜 완전한 조화가 있을 수 없겠느냐?

60. 이 부르심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빛의 시대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영혼의 상향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1. 너희는 이제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해들에 들어섰다. 그 말씀은 너희 삶 속에서 내 지혜의 불꽃과도 같았다.

62. 이 가르침은 책에 기록되어 남을 것이며, 진정으로 준비하고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품은 제자들과 함께,

내가 — 작별의 시간이 올 때 — 이 제3의 시대에 나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남기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63. 시련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64. 각자가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고, 영적 가르침을 위해 육신의 나태함을 떨쳐내며, 더 이상 물질적 삶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 영혼도 생각해야 한다.

65.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가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66. 너희가 내 “울타리” 안에서 내 말씀을 경청할 때 느끼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그 후에도 계속 간직해야 하며, 너희 삶에는 질서와 존중, 규율, 겸손이 깃들어야 한다.

67. 나는 너희의 영혼과 이성, 그리고 마음을 깨우치고, 너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68. 나는 나의 가르침이 너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너희가 그것을 잇을 수 없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고난의 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크게 그리워질지 알지 못하며, 이 땅에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가르침에 따라 선을 행하라. 그래야 —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 그 부르심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고, 선한 일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6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은 영성화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므로 이 세상의 도덕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는 마음속에 형제애를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70. 현재 나는 여전히 오해받고 있다. 무지한 서민들이 무지함 속에서 나에게 광신적인 숭배를 바치는 반면, 학자나

권력자로 여겨지는 자들은 스스로로 충분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71. 나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72. 사랑하는 백성아, 내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를 준비시키게 하라.

73. 육신이 잠에 빠지는 그 순간들마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화를, 너희 가정에 평화를, 너희 영혼에 자유를 주노라.

74. 이 은총을 간직하고 나의 축복을 받으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77

1.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와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 대표되는 인류여, 너희는 어떻게 사랑의 빛을 갠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겠느냐?

2. 내가 너희에게 이를 행할 방법을 알려 주리라. 곧 너희의 평화와 영혼의 상향 발전을 위해 분투함으로써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빛을 씻어내고 너희 영혼을 고양시킬 것이다.

3. 나는 너희에게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허락하노라. 새로운 시대가 약속과 계시로 가득 찬 찬란한 날처럼 너희 눈앞에 떠오르고 있다. 그 빛으로 그 시대는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싸워라!” 그리고 이 말 속에 아버지의 사명이 담겨 있다. 평화를 위해, 갱신을 위해, 영성화의 승리를 위해 싸워라.

4. 나는 이 말들을 너희 양심에 새겨, 너희가 걸음걸음마다 이 말들을 되뇌게 하리라.

5. 내 사랑은 너희가 정복해야 할 도시임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과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칼을 다루는 법을 안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검이 반짝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검입니다. 싸우고, 그 검으로 적을 물리치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사랑이 아버지를 정복했기에, 그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 나는 너희 가운데 화합하고 형제애와 환대가 넘치는 한 가족을 이루고자 했으니, 평화와 자비를 갈망하는 ‘유랑민들의 행렬’이 너희의 집으로 들어와, 내가 너희 안에 심어 놓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너희의 준비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너희는 늦어졌고, 고향을 잃은 이들의 행렬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별이 궤도를 멈춘 것을 보고 사막 한가운데서 발을 멈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너희를 ‘잠든’ 상태로 만나거나, 깨어 있을 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럴 경우 너희는 나의 재림을 증언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 주님을 배반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나는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가족을 버림으로써 의무를 저버린 가정은 일어나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8. 악덕에 빠진 자들과 어울린 자들은 일어나, 다시 온전해질 때까지 자신의 영의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육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 사역의 모든 종들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 그러면 궤도를 멈추어 “사막의 거대한 캐러밴”을 멈춰 세웠던 그 별이 다시 궤도를 이어가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땅으로 이끄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9. 전쟁과 죽음, 파괴를 피해 이곳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와 범죄의 기억을 품고 있던 그들이, 모든 가정에 참된 사랑의 성소가 세워지고, 모든 부부 관계에 내 율법의 빛이 비추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어린 아이들은 다정함과 지혜로 양육되고, 노인들이 존중받는 공동체에 들어서게 된다면 — 너희는 그들이 내 율법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의 표징을 마주하고, 이 공동체에서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 기인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고백하지 않겠느냐?

10. 오 백성아, 너희는 오늘까지 완고하고 배은망덕해 왔다! 나는 너희에게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때때로 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장애물도, 심연도, 불가능도 없다. 사랑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신성한 힘이기 때문이다.

11. 오, 수많은 사람들아, 내 발으로 오라. 들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의 사랑으로 뿌린 씨앗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품에서 솟아날 달콤한 열매로 너희의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이다.

12. 형제애의 끈으로 굳게 단결하라. 유혹이 내 백성을 노리고 있으며, 전쟁이 파수꾼이 잠든 틈을 타 침입할 문을 찾아가고 있으니,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특성을 지닌 질병들이 이 나라의 품속으로 침투할 것이다.

13.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불행을 물리치고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세속적인 지식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빛의 모든 적들, 건강과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자들이 굴복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이 지식은 기도를 통해 더욱 강해지는 사랑의 힘이다.

14. 오, 백성들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너희 양심이 권하는 바를 들어라.

15. 내 영은 너희에게 평화를 보내나, 너희는 이를 항상 간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언제쯤 너희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도 나를 밀어내지 않는 채로, 내 안에서 나를 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가?

16. 내가 너희에게 마음 깊은 곳에 나를 품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당황하지 말라. 이는 내 빛과 평화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7.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사역, 곧 너희의 소명인 이 일에 대한 너희의 의무 이행 부족과 사랑의 결핍을 꾸짖는 것은 바로 나의 심판의 목소리이다. 지금 양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와,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고 묻는 것은 바로 신성한 음성이며,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이다.

18. 잠시 동안 너희는 너희 영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희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빛줄기와 같을 뿐이며, 그 후 너희는 다시 연약함 속으로 가라앉는다. 너희는 스스로를 항상 미성숙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신성한 은사의 보물을 손에 닿을 곳에 두고 있음에도 말이다.

19. 너희가 내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는 나를 불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정말로 불의하다면, 그리고 너희가 흔히 말하듯이 내 안에서 ‘분노’를 마주하게 된다면, 나의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너희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작품을 파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 길을 따라 완전함에 이르도록, 너희를 발전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희가 예수를 통해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점을 깨달으라: 만일 내가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면, 내가 항상 그들을 찾아가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 임재는 너희가 내게로 올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니,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을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21.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준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할 것이니, 인류가 그 책에서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가르침에 대한 해명과 내 가르침의 올바른 해석을 찾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지식에서 진정한 경외심이 솟아날 것이다. 그것은 신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고, 창조주를 모욕하며, 영성화와 참된 지식의 길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더럽혀진 영혼으로 아버지께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슬픔이다.

22. 너희는 아버지께 진 사랑의 빛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너희의 모욕과 배은망덕함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 신성에 걸맞은 행실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갚을 수 있다.

23.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끝나가는 이 해에 대해, 나는 자연이나 그 요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 속에 나타나, 여러분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맡겨 준 시간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묻습니다.

24. 이제 막 저물어 가는 이 해는 나에게 너희의 투쟁과 눈물, 노력과 고생은 물론, 슬픔과 피, 폐허와 증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이 고통스러운 결산이 이제 지나간 해를 내 면전으로 가져왔다.

25. 내가 너희에게 새해를 허락하노니, 너희 눈앞의 지평선에는 미래에 대한 너희의 희망을 불태우는 빛줄기처럼 그 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빛은 매일 너희에게 “싸워라!” 라고 말해 줄 목소리이다.

26. 그렇다, 사람들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쇠신을 위해 싸우고, 정의를 위해 싸우라!

27. 내 말씨는 너희가 이 “날” 과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단 4년만을 허락할 것이다. 이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라. 내 사역은 1950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영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 시점에 너희의 사명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너희의 투쟁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니, 내 계시가 전해지는 동안 너희는 단지 준비 단계에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28. 영적인 사명과 세속적인 사명을 하나의 법칙으로 통합하는 법을 깨달아, 아버지께 훌륭한 성취를 바칠 수 있도록 하라.

29. 나는 너희에게 내게 마땅한 것을 내게 바치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마땅한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도 가르친다.

30. 세상은 곧 너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며, 너희를 통해 사람들은 나의 오심과 나의 기적,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임 장소를 찾아와 너희의 삶을 평가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권력자들, 종파와 교회의 성직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내세를 연구하는 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바는, 너희가 모임의 품 안에서, 그리고 너희 가정의 품 안에서 — 비록 완전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로 간의 조화, 도덕, 존중, 사랑, 그리고 영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31. 진리를 갈망하며 찾아오는 이들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 형태 속에서 광신주의를 발견하고, 사적인 삶에서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배우자가 갈라지거나 아이들이 버려진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32. 나무 가지에 동지를 틀고 있는 새들을 보라. 그리고 필요할 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에게 묻지 말라. 그 동지들을 올려다보라. 그러면 그곳에서 충실함과 다정함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33. 깨어 있으라. 그리고 싸우라. 그래야 1950년이 끝날 때, 아버지께 그분께 합당한 열매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때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작별을 고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큰 고통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34. 만일 너희가 내 말씀이 없는 시간을 견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 작별 인사와 내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작별 인사가 너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35. 내 영이 너희에게 평화와 축복을 가득 채워 준 이 날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느냐?

36.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며,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서로 사랑해 달라고 간청하는 자이다.

37. 열방의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인류의 고통을 깊이 느껴라.

3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염병과 죽음이 너희 나라를 에워싸고 있다. 너희에게는 재앙과 곤경의 침입을 막을 과학적 수단이 없다. 그러나 기도를 활용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이 불길한 위험들에 맞서 싸울 무기와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그 기도예 선행을 더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공로를 쌓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너희의 겸손함을 보시고 세상을 경탄하게 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39. 자연의 힘이 거침없이 휘몰아치며 심판의 징조를 보일 때, 기도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너희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올라. 그러나 너희를 갈망하는 이의 눈물을

닭아 주고, 그 탄식을 경청하며, 그에게 치유의 연고를 베풀어 주라.

40. 지극히 사랑하는 인류여, 내가 이 시기에 돌아온 것이 제2시대 에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그 생명의 정수는 너희 영혼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 때가 되면 그 피가 너희 각자에게서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와 그 피를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나는 현재 내 자녀들의 각 마음속에서 나의 신성한 수난을 겪고 있다.

41. 나는 사람이 믿음에 눈을 뜰 때, 그 사람의 순수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정욕이 풀려나 그를 채찍질할 때, 나는 그 안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그의 죄와 배은망덕함, 그리고 교만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인하고, 세상 외에는 다른 주님도, 다른 왕도 없다고 선언할 때,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곳, 그의 존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나는 나의 무덤을 찾습니다.

42. 때때로 그 마음은 마치 먼 메아리라도 되는 듯, 스승의 목소리를 들곤 한다. 바로 그가 자신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자기 안에서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그분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양심의 목소리로, 그 마음을 둘러싼 물질주의의 벽을 뚫고 마침내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될 때까지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43. 내가 인류의 모든 마음속에서 십자가와 무덤을 발견한 것처럼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이에게 세 번째 날이 올 것이며, 그날 나는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 부활할 것이다.

44. 오늘날 씨를 뿌릴 발은 불모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선을 심음으로써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곧 포기하고 그 시도를 한탄하곤 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농지가 아니라 돌만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리려는 밭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살살이 살펴보고, 준비하고, 깨끗이 정리하여 비옥하게 만드십시오. 내 자녀들아, 너희는 아직 이것을 행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선한 결심과 아이디어, 영감이 종종 실패로 돌아간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투쟁에서 낙담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이 시대의 진리와 빛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동료 인간들을 깨우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고통의 잔을 마시도록 강요받는 모든 아픔이 바로 잡음을 실현하는 낫이며, 잡초를 뿌리째 잘라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라. 이것이 바로 밭을 갈아엎고 준비시키는 현명하고도 무자비한 정의입니다.

그 후, 이 정의는 사람들, 민족들, 그리고 국가들을 깨우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고통 이 모든 잘못을 씻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대신, 평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회개와 성찰, 그리고 갱신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얻게 되면, 온 세상에서 이 말씀을 사랑과 평화로의 귀환을 노래하는 노래로 듣게 될 때가 올 것이다.

45. 오늘날 나는 너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고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무지와 혼란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46.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정반대를 증명하고 있다.

47. 그들이 선한 일을 하면 이를 널리 알리고 자랑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며 내게 용서를 구할 때는, 마치 내 용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48. 자, 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에 내 빛이 다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으며, 특히 인류가 머지않아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것임을 그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49.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다시는 인간의 피를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두 번째 시대’에 흘러진 나의 신성한 피가 신성하고 무한한 사랑, 숭고한 용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면, 너희는 그 피가 너희와 너희 존재 위에 쏟아져 내리며, 그 흔적을 통해 너희의 상향적 발전을 향한 길을 안내하는 것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50. 그 누구도 나를 인간으로서 기대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그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현현은 시대에 맞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스승께서 결코 불완전한 일을 하지 않으실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완전하며, 그분은 완전함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51.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사용해 온 이 계시 방식이 끝을 맺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간청이나 애원도 없을 것이다. 이 계시는 그 시간이 다하고 그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끝날 것이다.

52. 내가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계셨던 지 곧 2000년이 될 것이며, 내가 내 사랑의 증거로 너희에게 남긴 피는 여전히 생생한 유산이다.

53. 그럼에도 세상은 다시 한번 나의 피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려 한다. 그러나 육신을 살리는 피가 아니라,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피를 말이다. 나는 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내려주리라. 그것은 마치

추위에 떨고 있는 인류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54. 내 자비가 마치 새끼들을 덮어주는 종달새의 날개처럼 모든 이 위에 펼쳐질 것이다. 내 사랑은 너희 눈이 그토록 감탄하는 푸른 창공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너희는 마치 오직 너희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천상의 산들바람인 양, 나의 생명의 숨결을 느낄 것이다. 나는 시간이요, 생명이요, 또한 영원이다. 나는 너희 삶의 봄이자 여름, 가을이자 겨울이며, 이 삶의 각 단계는 신성한 스승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실감 나고 생생한 가르침이다.

55. 신성한 아침 이슬이 너희 영혼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영혼이 영원한 봄을 누릴 수 있게 하라. 삶의 투쟁이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마음이 지쳐도,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미덕과 믿음, 사랑의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도록 하라.

56. 왜 슬퍼하느냐? 너희는 그 이유를 모른다. 나는 너희가 영혼이 육체와 함께 병들게 내버려 두었기에 슬픔에 짓눌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욕이나 시련의 폭풍이 너희를 채찍질하거나, ‘겨울의 눈’이 너희를 얼어붙게 할 때, 너희는 모든 희망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57. 내 영도 슬퍼합니다. 이 인류가 여전히 울고만 있는 것을 보기에 슬픈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나 이 땅이 여전히 지상의 낙원임을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비옥함과 생명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8. 사람들은 절제나 목표 없이 과학을 쫓아다녔고, 많은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건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그 기적은, 지상의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며, 인간이 바로 도달하기를 원치 않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신성한 과학” 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59.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이 지상 생활을 더 아름답고 가볍게 만들어 줄 필요한 빛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0. 이제 너희는 신성한 사명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나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르려 노력함으로써, 나의 법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

61. 내가 너희 가운데 계셨던 지 오래되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며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62.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실 준비를 잘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은 제자가 스승 곁에 있고자 하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그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63. 너희에게 시작되는 올해에 시련을 마주하게 된다면, 강인함을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이웃들에게 너희 영혼 속에 존재하는 힘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때 너희가 마신 근원을 알고 싶어 할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근원이 바로 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6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이 이 근원으로 올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숭배 형태 속에 영성이 깃들여 있을 것이며, 결국 모든 이가 진리와 일치에 매우 가까이 다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65. 제자들아, 너희가 나의 공의를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으며, 내가 너희가 나의 신성한 영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너희의 죄에서 시선을 돌리고, 오직 너희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의 자녀라는 사실에만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방식이다.

66.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 아무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을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 더 나은 때를 기다리는 동안, 수확도 없이, 말은 사명도 완수하지 못한 채 죽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라.

67. 195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 해에 나는 이 계시에 관해 너희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것이며, 그 작별 인사는 내가 제2시대의 제자들에게 나의 이별의 시간이 왔다고 알렸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이 너희에게도 느껴질 것이다.

68. 그분들이 내 죽음 후에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위로를 얻었던 것은, 영적 삶의 진리를 불처럼 그들의 영혼에 새겨 넣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예수님의 인간적 형상을 보게 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을 깊이 느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과 영이 나와의 연결을 이루는 방식이 될 것이다.

69. 지상의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수많은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그곳에는 새로운 세대의 씨앗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78

1. 백성들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서 이런 질문을 듣는다. “주님, 올해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까요?” 이에 나는 너희에게, 삶 자체가 끊임없는 시련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깨어 있고 기도하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속죄의 길을 나아가며 운명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이 겪는 시련들은 그들이 거두는 열매이며,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이 수확은 때로는 전년도에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훨씬 더 먼 과거나 다른 환생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이기도 하다.

3. 새해가 시작되나요? — 그렇다면 먼저 씨앗을 깨끗이 씻어 비옥한 땅에 심을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는 현명한 농부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도 먼저 마음을 깨끗이 씻어, 내일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평화와 사랑, 그리고 만족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시오.

4. 온 창조물이 살아가는 조화를 보았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은 마치 두 팔을 벌려 모든 피조물을 생명과 사랑, 빛과 에너지로 가득 찬 포옹 속에 감싸 안는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따뜻한 햇살이 닿자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며,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왕 같은 태양에게 감사하는 사랑의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5. 이는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과 모든 영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6.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순종을 통해 얻는 이해에 따라 그들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오직 나만이 그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은 실로 너희 영혼의 평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7. 자, 사랑하는 백성아, 이제 너희는 너희의 행복이 너희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핵심, 즉 그들 생각에는 오직 괴로움과 증오, 원한, 후회와 눈물만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빛, 곧 영의 빛이 존재함을 가르쳐 주라.

8. 인류는 굽이치는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앞선 세대의 실수를 유산으로 물려받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오류를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는 이제 과거에 세상에 뿌렸던 고통의 씨앗이 맺은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들도 오늘날 너희가 뿌리는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9. 왜 너희는 너희의 신념과 노력, 학문, 이상, 소망을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유일한 정의의 길로 돌리지 않으려 하는가? 사람들은 언제쯤 비로소 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인가?

10. 나의 변함없고 영원한 법이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그들에게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것은 선을 뿌려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밭으로 이끄는 길이다.

11.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서둘러 신성한 가르침을 들으려 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 가르침의 영적 의미를 통해 그들의 지식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방벽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의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12.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 너희의 행실이 아버지의 눈에 기쁘게 여겨지도록 하리라.

13.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많은 초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지혜의 스승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길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각자에게 그분이 지닌 사명과 능력을 발견하신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4. 그러자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을 보여 주었고, 임무를 부여하여 너희를 ‘일꾼’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자녀들 중에 특권을 누리는 자는 없으니, 나를 섬기겠다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는 마음속에 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맡겨진 은사로 행한 모든 일이 나에 의해 심판받을 순간이 올 것이며, 너희는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5. 지금 나는 너희에게 아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희는 삶의 행실에서 내 율법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심판의 선고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각자는 내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의무를 다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이 유산 을 거절한 자들을 보라. 그들 안에는 슬픔과 공허함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크며,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드러난다.

16. 이를 이행한 자는 마땅히 나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그의 양심을 통해 찾아가 깨어 있게 하여, 영혼이 선한 행실 없이 죽음의 순간에 깜짝

놀라지 않도록 하리라.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영혼이 상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 내 가르침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라. 너희 동료들이 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는 예언이 담겨 있다” 고 말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이를 하찮은 가르침으로 여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매우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영적 이해력과 행실의 순결함에 따라 이를 해석할 것이다.

18. 겸손하라. 그래야 너희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고, 나의 일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 그러나 너희가 나를 듣는 짧은 시간 동안만 겸손하게 행동하지 말고, 너희의 온 생애 동안 겸손함을 보여라. 그래야만 너희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니, 말씀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보기가 될 준비를 하고, 심지어 희생까지도 감수할 준비를 하라.

20.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너희를 모욕한 자를 용서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병자의 침상이나 죄수의 감옥으로 가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사랑이 너희 안에 품고 있을지 모를 모든 교만을 꺾을 것이다.

21. 내 말씀은 경중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온순한 어린 양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서로를 ‘찢어발기며’ 용서를 거부한다.

22. 자만할 시간은 지났으며, 너희는 영혼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제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23. 영성화의 흰 옷을 입으라. 그래야 너희가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일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행실과 삶이 너희를 대신해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4. 대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내 말씀은 그 뜻이 동일하다. 나는 각 교회의 이해력과 수용 능력에 맞춰 말씀한다.

25.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너희는 그 첫 시간부터 이미 힘을 합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알려졌다. 너희의 결심은, 준비된 고랑에 씨를 뿌리는 선한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일이 끝날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다.

26. 그 씨앗은 너희가 이웃들의 마음에 뿌리는 빛으로 가득 찬 말씀이다.

27. 너희는 세상과 인간의 학문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식을 쌓은 자들이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 너희가 믿음에 확고하지 못하다면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다.

28. 내가 너희의 지성을 과학으로 채운 것은 과학자들과 논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깨우친 것은, 고양과 영감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도 너희가 이 시기에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기에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준 가르침 중 많은 것이 새로운 계시이기 때문이다.

29. 너희는 영혼과 그 불멸성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들에 대해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자칭할 수 있다.

30. 영성가는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이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다. 영성가는 영적으로 기도하며,

어떤 장소에서든 영으로 승화되는 사람이다. 영성가는 자신의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31. 영적 수행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라. 그는 말보다 행실로 더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노니, 사랑과 겸손, 자비의 본보기가 되어라.

32. 스스로를 영성주의자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영성주의자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라.

33.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지 않으면서도, 너희의 종교적 실천과 예배를 단순화했다.

34. 나는 형상을 통한 나의 신성에 대한 숭배가 불완전했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였으며, 너희는 모든 광신주의를 버려야 함을 알려 주었다.

35.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위해 그 힘을 제한하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가 믿을 때, 내가 너희 마음에 내려와 생명을 주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36. 여러분은 이 빛의 시대를 더 일찍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의 미약한 발전 수준으로는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니,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집니다.

37. 과학자조차도 “기적”을 발견했고, 여러분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38. 그 모든 기적들이 주님의 은총 덕분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겠는가?

39. 영성주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들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발견하도록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 속에서 창조주로서, 힘으로서, 생명으로서, 완전함으로서, 조화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누가 우주 속의 그 조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니, 여러분은 그분을 제한된 형태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 나의 가르침은 단지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짐이자 위로이기도 하다. 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불의를 견디는 모든 이 위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내를 위로하고, 처녀를 보호하며, 청년을 굳건하게 하고, 노인을 지탱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희망의 빛을 밝혀 줍니다.

41.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쏟아 부어, 너희가 계속해서 빛의 길을 따르도록 하겠으며, 어떤 고통이나 패배도 너희를 그 길에서 떼어 놓을 만큼 강하지 못하게 하리라.

42. 너희 영혼 속에는 이미 진정한 고향, 곧 너희 아버지의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 있다. 이곳에서 너희는 삶의 투쟁이라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번덕스러운 운명과 시련을 겪으며 정화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굳건함과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너희 안에 인내가 없다면, 그 여정은 더욱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3. 이 지상 생활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해도, 그것은 불멸하는 영적 삶에 비하면 덧없고 덧없는 것입니다.

44.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영광을 예감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육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45. 나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저 세상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돌보겠다. 그러면
너희는 때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동반한, 너희가 뒤로 남겨둔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46. 영적인 삶은 너희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때로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기만 해도 그 왕국의 기적들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47. 너희는 “영적 세계”와 너무나 가까워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데 단 한 순간이면 충분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시대에 내 진리를 증언한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시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내 왕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며, 내 자비를 위해 이를 위해 준비된 남녀들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8. 이 생에서 너희가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영적인 삶을 산다면, 영계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세계의 진리와 영광이 너희 삶의 모든 행동에
반영되도록 하라.

49.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가장 순수한 생각의
순간들을 바치십시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너희 영혼의 빛에
비추어, 1950년 이후, 즉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않게 될 때, 내 영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될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고양되지 않고서는 너희 영혼이 창조주와 나누는 그
대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내게로 고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남은 시간 중 일부를 내게 바쳐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51.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 동안 너희의 감각과 마음, 영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보아라. 육체와 영혼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다. 전자는 자신의 끝을 알고 받아들이며, 후자는 시야에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함에 이르는 목표인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영적 거리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누가 적어도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날 때 영원의 시계가 가리키는 그 시간을 알 수 있겠느냐?

52.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며, 깨어 있고 기도하라. 공덕을 쌓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등지를 떠나 첫 비행을 감행하는 어린 새들처럼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희생에 대한 생각으로 슬퍼하지 마라. 오직 물질주의자만이 갈망을 품고, 이 생의 쾌락을 회상할 때 고통을 받는다. 물질주의자가 되지 말고, 너희 영혼에 관한 일에 전념하되, 너희 인간적 본성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마라.

54. 모든 것이 너희의 활력을 되찾게 하려고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이 사랑의 잔치를 먹고자 하는 자는 내 식탁에 앉아 천사들처럼 그로부터 힘을 얻으라.

55. 너희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계시를 듣기 위해 내가 인도한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이를 나는 영적 삶에서 죽은 자로 만났으나, 나의 말씀이 너희를 되살렸다. 오늘 너희는 생명을 숨 쉬며, 너희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다. 나는 모든 이,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받아들인다. 여러

교회와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56. 너희가 나의 영감을 감지하고 그것을 생각과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단련하라. 너희 모두는 나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시므로, 너희를 영적 성전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신다.

57.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 과정에서 항상 너희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곧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이 날아오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평화의 고향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향한 길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길은 영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아직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영성화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보지 못한다. 물질주의는 아직 내가 정한 한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이 시대의 끝은 가까워졌다. 그 후 너희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자 간절히 돌아와, 공덕을 쌓아 너희 영혼의 승화를 이룰 것이다.

58. 죄와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는 어두운 안개는 걷히게 될 것이며, 참된 법이 모든 존재를 비추게 될 것이다.

59. 나는 너희가 이를 해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위대한 환상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를 너희 이웃들에게 증언하라. 그러나 머지않아 다양한 인종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나의 표징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며,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됨으로써 행복한 성취가 될 것이다.

60. 나의 가르침에는 너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영적 지식이 담겨 있다. 너희는 너희 영혼 속에서 발전의 여정 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준비할 줄 안다면 영적 상승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1. 너희는 기도를 통해 찬양의 노래를 하늘로 올려 보내며, 그것이 내게 닿게 한다. 너희는 내 사역 속에서 겪은 투쟁을 내게 바치며, 너희가 가꾼 씨앗이 훌륭하고 내게 기쁨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가 너희에게 확인하노니, 너희는 축복받은 밭에 나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 오직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에게도 속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노력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율법을 지키기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곧,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미덕을 드러내기를 바랐을 뿐이다. 내면과 겉모습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신성한 완전함이 너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라.

62. 때때로 나는 너희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모습을 보았다. 너희가 지상에서 보내는 이 세속적인 삶은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스승은 너희에게 말한다. 영혼의 진정한 고향은 내세에 있다. 인내심을 갖고, 용기 있게 시련을 헤쳐 나가며, 그 기간 동안 나의 율법을 따르라. 어려운 시기가 좋은 시기로 바뀌도록 힘쓰고, 전쟁과 파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기도하고 개입하지 말며, 어느 한 편을 들지 마라. 이러한 사건들과 그 밖의 수많은 불길한 일들이 거세게 몰아치며 인류 가운데 평화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영혼들의 유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영이 치르는 이 거대한 전투가 끝난 후, 더 나은 지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여 고된 여정에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63.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라. 그러면 인류에게 큰 시련을 예고했던 나의 ‘제2의 시대’에 관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4.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영적으로 고양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 투쟁은 우주적이며, 영혼은 지구에서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차원에서도 고군분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여전히 물질에 얽매어 살아가는 그 수많은 무형의 영혼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기도와 도움을 갈망하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혼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여러분의 연민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내 가르침의 빛을 얻게 된 이들은 깊은 감사를 품고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어,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힘을 보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사랑과 정의의 법칙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영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나 안에서 모든 이를 사랑하십시오. 또한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65. 너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너희 영의 모든 힘을 다해 싸우라. 너희의 결정에 따라, 너희는 너희의 미덕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사랑의 말과 행실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66. 이 시대에 스승께서는 제2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들 안에서 그토록 큰 소박함과 겸손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스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다.

67. 내 법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라.

68. 나의 법은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좋은 씨앗이며, 너희는 이를 이웃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야 한다. 나의 부르심에 믿음의 햇불처럼 타오르는 마음들이 있으며, 그들은 나의 사역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69. 너희는 투쟁 속에서, 내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서 꽃피게 하겠다는 고귀한 목표에 힘입어 종종 유혹을 이겨내었다.

70. 나는 내 지혜로 너희 영혼을 비추어,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이를 만날 때,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 주고, 동시에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돕게 하리라.

71. 사람들은 너희에게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여기는지, 영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것이며, 첫 번째 시대의 엘리야처럼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 순간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율법을 지키며,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72. 여기, 신성한 지성의 형상인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말씀하시는 스승이 계시니, 이는 내가 지구를 거하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한 은사이다. 내가 너희 각자에게서 이미 드러났는데, 어찌 내가 이러한 형태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심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발산되는 지혜는,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이를 통해 지극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영혼에게 열어주는 무한한 지평선이다.

73. 이 빛에 눈을 뜨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만든 형상들을 통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니, 그는 영적 고양을 통해 영감을 받고 나의 신성과 대화를 나누는 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74. 사람은 고양되는 순간 육신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그의 영이 저 세상에서 머무는 짧은 시간이 그에게 깨달음을 얻고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상향 발전으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계시들을 증언할 기회를 주겠다.

75. 오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힘쓰지 말고, 이웃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인류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6. 너희가 내게 구하는 많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내게 구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덕과 완전함, 그리고 사랑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는 너희의 운명은 내가 직접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77. 내 발에서 일꾼이 되도록 창조된 자는 그 발에 씨를 뿌려야 하며, 그 씨는 믿음과 사랑,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78. 빛을 찾되 찾지 못하는 목마른 영혼들이여, 이 샘에서 마시라. 너희 마음이 알지 못하는 이 달콤한 평화를 느껴보라. 그리고 그것을 느꼈을 때,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왜 다시 사람들에게 오셨는지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니, 너희는 그 답을 너희 자신 안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79. 세상에 무지가 없고, 피가 흐르지 않으며, 고통과 비참함이 없다면, 내 영이 너희의 감각에 감지될 수 있도록 물질화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오직 나의 사랑만이 이 시대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내가 온 것이다.

80.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파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너희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작은 일부이므로,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영감 속에서, 영혼에게 생명인 진리의 빛을 너희에게 준다.

81. 너희 마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빨리 뛰며, 너희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찬양할 뻔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을 사로잡은 그 기쁜 감동을 너희 입술로 표현할 필요는 없었다. 너희가 나를 들을 때 기뻐할 것을 나는 이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82.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제2시대에 세상이 희생시킨 바로 그분이며, 이제 인간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품고 다시 오신 분이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느꼈던 바로 그분이며, 물 대신 — 그것이 인간 측의 연민을 나타내는 한 형태나 증거가 되었을 텐데 — 경멸과 조롱, 무지의 상징으로 입술에 담즙과 식초를 받았던 그분이다.

83. 그러나 나는 인류를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영혼에 그토록 필요한 평화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고양시킬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

84. “내가 목마르다” 고 그 시간에 내가 말했듯이, “내가 목마르다” 고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라 — 너희의 사랑을,

너희가 내 영과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며.

85. 너희 또한 목마르다. 고통이 너희 마음을 태우고 있으니,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평화가 너희 영혼과 마음과 이성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영적인 물의 상쾌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86. 힘을 구하느냐? 가져가라. 치유의 연고가 필요하냐? 받아라.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책을 허락하리라. 나에게 너희의 가난을 보여 주느냐? 일할 열쇠와 일용할 양식을 받아라. 고통받고 있느냐? 울고 나서 내 겹옷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나의 어루만짐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어 삶으로 일어나라.

87.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승리를 기뻐하며, 너희가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79

1. 나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세상에 말씀한다.

나에게서 영감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의 말은 꽃을 피웠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지혜와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 태초에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깨달음을 얻고, 사상을 형성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영은 더욱 강해졌고, 그가 큰 경험을 통해 성장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내어 그들이 영적 나무의 본보기와 뿌리가 되게 하였으니, 그들은 수많은 가족의 조상이 되어 그 혈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되며,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이었다. 그로부터 힘과 권능으로 충만한 열두 지파가 나와, 열방에게 창조주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죄를 근절하는 사명을 전하게 되었다.

나는 이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으니, 인류 초창기에 많은 초기 어려움과 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요구했던 영적이고 단순하며 순수한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감각적인 의식, 그리고 가증한 행위로 타락해 버렸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멀리 “느꼈으며”,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다.

내가 인류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열정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멍니다.” 그러나 사랑이시며 모든 자녀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3. 오늘 너희는 제3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며, 나는 세상을 깨우고 인도하라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너희를 파송하였다. 너희가 준비한다면, 너희의 영감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1950년 이후에는 나의 제자로서 너희의 말을 통해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나의 뜻과 계시, 그리고 자비를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며, 너희는 끊임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아직 너희의 영적 수용력에 미치지 못하는 동료 인간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4. 높이 올라가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이 빠진 심연으로 내려가서 그 양을 구하고, 양 떼를 이루는 다른 양들과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듯이 말이다. 좋은 목자가 되어, 생명과 상승, 그리고 영광 그 자체인 이 가르침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가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5. 결코 너희 마음을 사랑에 닫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 너희 아버지의 무한한 일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6.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웃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7. 이웃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로 인해 분노하는 것을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마음의 순결함을 드러내며 자비를 베푸는 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8. 심판할 권리는 오직 심판하는 법을 알고, 또한 참된 사랑으로 바로잡고 가르칠 수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심판할 권리를 가진 이는 오직 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9. 너희가 미덕을 사랑하고 타인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며, 마침내 너희의 온 삶을 영혼의 성화에 바친다면, 너희는 진정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실과 말과 생각으로 가르치며 이웃들의 길을 밝혀 준다면, 너희는 지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완전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주신 신성한 스승과 닮아갈 준비가 될 것이다.

10. 나는 큰 죄인들, 즉 남자와 여자들이 내 곁에 오도록 허락했다. 나는 큰 위선자들이 내 길을 가로막도록 허락했고,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추궁하고, 조롱하거나, 나를 모욕하려 시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결국 모두가 나의 신성한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마디만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다른 경우에는 한 번의 눈빛이나 단순한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사역 속에 겸손과 위엄, 사랑, 연민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1. 겸손과 선함,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의 정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분만큼 무자비한 재판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참된 사랑과 절대적인 순수함, 신성한 빛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1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에 맞설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 원수들은 비참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적대 세력은 약하며, 진리 와 정의를 대적하려 했던 무기들은 언제나 허약하기만 했다.

13. 악의 세력이 신성한 정의에 대항하여 벌인 싸움은 너희에게 끝없는 갈등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면 그것은 한 순간에 불과할 것이며, 너희 영혼이

불완전했던 시기에 저지른 과오들은 너희의 미덕과 나의 사랑 어린 정의가 영원히 지워버릴 작은 얼룩에 불과할 것이다.

14. 수정처럼 맑은 물과 같은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가르침 속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인류에게 탁월 큰 시련 속에서 강해질 것이며,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15. 나는 너희가 놀라지 않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의 믿음을 불태워라. 폭풍우가 아무리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너희의 등불을 꺼뜨리려 해도, 깨어 있으라. 등불을 정성껏 지키면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16. 오늘날 세상은 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더 이상 미소 짓지 않는다. 영혼은 주님의 위대한 날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날에는 그녀의 모든 행실이 심판받아야 하며, 나의 시선이 그녀의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수확이 고통의 열매를 맺는 나쁜 씨앗과 섞여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에게 신성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순종과 복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가 매우 무겁다고 말해 주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잔을 주었으니, 그들이 사랑과 선한 행실로 그 잔을 채우게 하려 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오직 쓴맛과 독만 바치고 있다. 너희는 죽어가는 것을 느끼기에 그 잔을 치워버리고 싶어 하며, 해독제를 찾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게로 오라. 아직 너희는 생명을 되찾을 수 있으니. 내 말을 듣고 일하라.

17. 사랑하고, 증오를 떨쳐 버리며, 너희의 발걸음을 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옛 관습들을 뒤로 남겨 두어라. ‘모든 시대의 말씀’ 으로 너희의 길을 밝히라.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신성한 유산을 찾고,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진 나의

원칙들과, 예수를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과 본보기를 기억하라. 제3의 시대에 성령으로서 너희에게 주신 나의 계시를 기억하면, 너희가 왜 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그 잔을 치우고, 내 평화를 베풀어 주리라.

18. 이 시대의 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본질을,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너희에게 전했던 것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나의 길이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과 헌신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너희의 모든 공로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19. 선의의 사람들아, 나의 사랑을 느끼고 내게로 오라. 얼굴을 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20. 나는 너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며 내 가르침을 따르고, 강인함을 유지하며 시련 속에서 침착함을 보이겠다는 결심을 나에게 바치는 너희 영혼의 소박한 경배를 받아들인다.

21. 이 깊이 우러나온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너희 곁에 항상 함께 하겠으며, 너희가 겪게 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 내 임재를 가장 뚜렷이 느끼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22. 이 시대의 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장막을 찢어 버리며, 그들을 묶어 두고 참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사슬을 끊어 버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이 모든 지식 분야의 탐구를 금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관심과 경탄, 호기심을 일깨우는 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에게 사고 능력을 주었으니,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성의 빛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발견하고 탐구하되, 나의 신비를 파헤치는 너희의 태도가 경건하고 겸손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허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나는 너희가 사람들이 쓴 책들을 알아가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나, 너희는 실족하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인간이 어떻게 삶과 투쟁을 시작했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준비가 되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과 계시의 원천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미래와 목표를 보여줄 수 있다.

24. 각자는 자신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준비하라. 투쟁의 시기가 올 것임을 깨달아라. 그때 너희는 명상하기 위해 은둔처의 그늘을 찾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세상과 유혹에 맞서고 그 투쟁에서 단 한 순간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

25.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지 않는다면, 내일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틀렸지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론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내가 오신 것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6. 너희 자신의 힘을 활용하여 준비하라. 다른 이들의 행실을 판단하는 데 그 힘을 낭비하지 말라.

27. 나는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나가 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연합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단지 너희 교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온 지구를 아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8. 내가 너희에게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도록 영감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제2의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나는 너희가 나를 숭배하기 위해 마련한 예배실에서 왕좌나

명예의 자리를 찾지 않았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땅의 보물이나 인간의 허영을 내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자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니, 곧 내 왕국을 대가로 그의 왕국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되어 겸손히 태어나,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

29.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왜 내게 물질적인 부를 바치려 하십니까?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 곧 여러분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30. 내가 호소하는 대상은 바로 너희의 영이다. 그 영은 내 영의 일부이며,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그 영에게로 내려와야만 했다. 오늘날 너희의 영은 덕을 통해 높이 치솟아, 마침내 내 품에 닿아야 한다.

31.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내 앞에서 기쁘게 여겨질 생각과 행실을 너희 안에서 찾고 있으며, 너희의 사랑과 노력을 아시는 나는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며, 너희는 덧없는 기쁨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더 갈망한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곳에서 너희의 투쟁을 마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32. 내 말씀에 담긴 진리를 마음껏 누르라. 그리고 고통에 시달릴 때면, 그 고통 속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항상 밝혀 줄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라. 바로 이 고통이 영혼이 잠들거나 자만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33.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영생에 대해, 영혼이 걷는 끝이 없는 그 길에 대해 말해 왔다. 그 길 위에서 영혼은 성장하고, 온전해지며, 주님께 이르게 된다.

너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본보기를 갖도록, 나는 때가 된 때에 이 세상에 내려왔다. 나는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 사람으로서 살았으며, 신성한 법과 인간의 법을 따르고, 이 삶의 고난을 겪으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이행 외에도, 나는 세상에 사랑과 온유함의 메시지를 전했다.

34. 설교하고 행동할 때가 되자,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내 영혼을 바쳤다.

35. 모든 사람이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랑의 가르침에 대해, 너희는 나에게 아주 적은 열매만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가! 많은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내 가르침이 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6. 내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밝혔을 때, 그들은 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많은 이들이 내가 곧 올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비로소 이 시기에야 나는 모든 사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심판자로 왔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하얀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는 나를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무수한 빛줄기를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7. 내가 빛이자 신성한 사랑이며, 내 안에는 물질적인 형상이 없는데, 누가 감히 내 영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는 비참함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덕은 내가 제2시대에 설교했던 것과 동일하노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내게 더 가까이 이끌고자 하며, 너희가 나의 새로운 현현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38. 두려움이나 부지런함의 부족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세의 율법만을 따르는 이들이 많으며,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약속된 위로자 성령을 기다리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내려왔으나, 그들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39. 천사들이 이 계시들을 알렸고, 그들의 외침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웠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내 임재를 증언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영계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된 파멸은 인간의 교만과 허영을 물리칠 것이며, 그렇게 겸손해진 인간은 나를 찾고 나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 마음에서 열방의 평화를 바라는 기도가 솟아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너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인류와 언약을 맺을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40. 나를 기다리던 이들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에 놀라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스승이 이러한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탐구하며, 예언을 연구하고, 너희 마음 깊은 곳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전의 길에서 너희를 격려하노라. 나는 인간과 낮은 차원의 존재들에게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주었다. 너희 모두는 내 안에 살아 있으며 내 뜻에 복종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무의 잎사귀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고 말했노라. 살아가기 위해 너희에게는 숨 쉬는 공기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 그리고 너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물과 열매가 있다. 그러나 영을 부여받은 너희에게는, 너희의 영적 승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내 비밀의 보물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다. 오늘 존재하다가 내일 사라질 물질적 자연과는 달리, 너희의 영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인간의 종이 되도록 창조하였으니,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42. 땅과 식물, 동물들은 그들의 신께 감사의 예물을 바친다. 온 창조물은 법칙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종한다. 숲속의 야생 동물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동족을 죽이지 않고, 설령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먹이를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짝을 존중하며, 때가 되기 전에 번식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인간들은 자유의지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기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길을 밝히기 위해 양심과 율법을 주었다. 깨어나라, 내 가르침의 빛을 향해 눈을 떠라.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하는데 — 왜 발걸음을 늦추는가? 삶의 여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라. 영혼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 속에서 강해지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라.

43. 나는 너희가 열정을 다해 내 율법을 지키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

44. 나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나의 창조의 완전한 작품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맑은 시냇물 속에서, 푸른 들판 속에서, 너희 뺨을 어루만지는 공기 속에서, 별들이 수놓인 창공 속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말라.

45. 보라, 내가 너희 영혼을 기르기 위해 나의 창조의 힘으로 어떻게 넘쳐흐르는지. 나는 육체와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한다.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 또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사랑과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화 속에서 너희는 오늘 이 땅에서, 그리고 내일 영적인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46.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영감은 이를 위해 준비된 피조물들의 이성 능력을 통해 말로 전달된다. 그들은 나의 통역자이며, 나는 그들의 영적 준비 상태와 능력에 따라 나 자신을 드러낸다. 너희 모두는 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내 신성의 권능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리고 내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이성 기관에 제한된 빛을 보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스승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리 오라.

여러분 중 일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모든 자녀 곁에 있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를 품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까?

47.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컸기에, 너희가 나를 매우 필요로 하므로 나는 너희를 여러 지역과 민족 중에서 택하였다. 너희는 나와 약속을 맺었으니, 이는 과거에 너희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던 그대로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48. 너희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으나, 이미 시대의 완성에 이르렀다. 나는 오랫동안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 말해 왔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고, 최초의 대변자들이 전하고 기록한 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을 때, 너희는 나의 인내심에 감탄하고 너희의 태만에 대해 아픔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 나는 나의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었으며,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이웃을 이해하라.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49. 나는 너희 안에 있으며 나에게 속한 내 영의 그 부분을 되찾기 위해 왔노라. 나는 선전포고를 하러 왔노라 — 그러나 인류에게가 아니라, 죄와 악에게 말이다. 이미 너희 안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너희는 굳건히 버텨야 한다. 너희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선을 행할수록 그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고갈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했던 은혜와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너희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50. 내가 너희에게 “구름 속” 으로 오겠다고 말했고, 나의 천사들도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말인가? 나의 영적 세계가 말하지 않았고, 나의 모든 말씀을 확증하지 않았단 말인가?

큰 시련이 닥쳐와 지구를 뒤흔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심판자로 찾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랑, 겸손의 참된 길을 보여 주리니, 너희가 왕관도, 홀도 탐내지 않게 하리라. 위대해지고 싶다면, 겸손하라.

51. 나는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195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 영혼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한 용기를 갈망할 것이며, 너희 중 많은 이는 베드로처럼 약해질 것이고, 다른 이들은 도마처럼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요한을 본보기로 삼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선택받은 제자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슬픔에 잠긴 마음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아버지이며, 내 모든 자녀들의 아픔을 느낀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주는 키레네 사람을 아주 가까이 느낄 것이다. 시련 속에서 순종하고 강해져라. 그러면 너희의 고통은 더 가벼워질 것이다.

52. 나는 이 나라와 그 주민들이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니, 이는 백성이 영혼을 고양시키고 내세에서 ‘제2의 예루살렘’, 즉 약속된 영적 땅을 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끝날에 족장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나의 뜻은 이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지고, 전쟁과 분쟁에 지쳐 내 가르침을 묵상할 곳을 찾는 이들이 평화를 얻고, 영성을 갈망하는 이들이 빛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는 내 영의

계시를 받아, 이미 이 땅에서 영혼이 거하며 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더 높은 삶의 문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3. 나는 이 나라에 영광을 부여하리라. 이 나라는 영적으로 고양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들판은 비옥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활력과 도덕적 힘을 갖게 될 것이며, 내가 단련시킨 영은 고양과 내 율법에 대한 깨달음의 증거를 보여 줄 것이다.

54. 그때 세속적인 사람이 다가와 너희 곁에서 나의 일을 바라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싶은 갈망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자연의 원리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는 율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다시 나와 연결될 것이다. 나는 은밀하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며, 그를 그 길의 시작점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 여정을 마치고 나면,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산을 오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55.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 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내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찾을 것임을 알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안에 나의 영감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이를 증언해야 한다. 너희가 그들 앞에서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면,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길을 마련해 주라.

56. 내게 가까이 머물며, 너희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너희 마음이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 너희가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너희 존재 속에 간직하여, 내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할 때, 너희 이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57. 내가 지금 너희의 구원을 위해 주는 지혜의 책의 한 페이지인 이 교훈들을 놓치지 마라.

58.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며, 너희 안에서 나의 모든 자녀들을 받아들이다. 나의 지혜는 이해력과 마음을 준비할 줄 알았던 나의 모든 제자들에게 내려온다.

59. 나는 빛과 힘, 평화와 사랑으로서 너희의 마음에 임하노니, 이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약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60. 너희는 인내로 무장하고 있다. 너희는 세상에 형제애와 평화를 퍼뜨리는 고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명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아야 한다.

61. 내 목소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율법의 길로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 계시를 가장 먼저 받은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에 속하므로, 나의 가르침 안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동료 인간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62. 나는 너희가 맡은 사명의 위대함 앞에서, 여전히 ‘제3의 시대’의 사도들이 되기 위한 용기와 믿음이 부족함을 본다. 너희 삶에는 여전히 약함,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투쟁의 순간들이 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라. 너희 마음은 이미 내 사역의 위대함을 느꼈다. 너희는 내 말씀이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63. 스승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인류가 여러 면에서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라. 그러나

나는 너희의 진전이 완전해지기를, 인간의 삶과 영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64. 이 삶은 너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이다. 길을 떠나고, 성장하며, 발전하라. 창조물 속의 모든 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는지 지켜보라.

태초에 여러분은 미성숙한 상태로 마치 원자 같았으나, 내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지성 덕분에 마침내 자연이 지닌 물질들을 손에 쥐고 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법칙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적인 삶을 계시해 주셨고, 정화를 얻기 위한 투쟁을 마친 후 안식을 취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고향으로 향하는 길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65. 너희 양심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너희가 그 법을 지켰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하라.

(비유)

66. 들어보라. 한 남자가 높은 산 위에 있었다. 그는 산과 숲, 그리고 부족 동료들을 위한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던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고독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사람아. 네 고생을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네게로 오노라. 나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 맥박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들어라.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네 곁에 있는 이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네가 들은 것과, 느꼈으나 볼 수는 없었던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네가 이미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한 민족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라.” 그 남자가 그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꼈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기 위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치 천상의 빛이 그의 영혼을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존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가 잠잠해지자, 그는 몸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영혼에 책임감의 무게가 얹혀 있음을 느꼈다.

그 후 그는 일어난 일을 증언하기 위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나에게 한 길에 대해 말했으나, 내가 아는 수많은 길 중 어느 것이 그 길인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어떤 큰 도시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도밭으로 가득한 광활한 땅으로 이어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침상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맑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은 그 길을 알지 못하니, 그 길은 오직 영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율법의 길이다.” 그 후 그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들었는데, 그 계명들은 창조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상상이나 미신에서 비롯된 형상들을 통해 그분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 즉 사랑과 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에게 주어진 신성한 계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꿈에서 받은 내용을 증언했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 전체를 하나로 모아, 그들이 힘을 합쳐 강하고 위대한 민족의 씨앗이 되게 했다.

(비유의 끝)

67.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모세에 대해 말하는 이 비유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닮은 그 영에 관한 것이다. 조용히 기도하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 광야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율법판을 땅에 내던져 부숴버린 그분이다.

68. 그 사이 세 시대가 지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 중 누가 그 길을 아느냐? 누가 진정으로 영원한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 다른 시대에 너희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제 존재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뜻대로 저를 다루소서.”

69. 오늘날 나는 스승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 시대에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 나의 말씀을 알릴 수 있겠느냐? 내 사랑과 순결의 사역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만약 너희가 의례나 상징, 또는 신앙 고백을 통해 이를 제시하려 한다면, 너희는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뒤흔들지 못할 것이다. 반면, 너희의 행실로 사랑의 본보기를 보인다면, 내 법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이다.

70.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그 안에서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니, 그 음성은 너희 양심을 통해 항상 너희에게 길을 안내하고, 너희가 그분을 닮아 점차적으로 도달하게 될 완전함을 보게 해 줄 것이다.

71. 너희가 인간의 몸을 탐구하고, 단지 인간의 겉모습에 불과한 그것을 보며 놀라듯이, 너희는 영혼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2. 싸우라. 비록 그 싸움이 치열하더라도, 내 진리를 증언하는 데 지쳐서는 안 된다. 선을 행하라. 비록 그 과정에서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해야 한다 해도 말이다. 너희에게는 이웃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

73. 내가 너희에게 나의 축복과 용서를 내린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0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주어진 가르침)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준다.

2. “일꾼”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씨를 뿌려야 할 밭을 계속해서 가꾸고 갈아야 한다. 그러나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씨앗이 썩지 않도록 적합한 흙을 신중히 선택하여, 너희가 땅을 가꾼 사랑에 걸맞은 열매를 언제나 거두도록 하라.

3. 너희 모두는 “내 밭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사명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무지한 자들의 어두운 눈가리개를 벗겨내고,

“절름발이”들이 걸을 수 있게 하여,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눈을 빛으로 뜨고 자신이 무지했음을 겸손히 시인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준비시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리라. 또한 나는 너희를 통해 씨를 뿌리고 내 자비의 열매를 거두리라.

4. 너희의 동료들은 너희가 어떻게 이 가르침을 받았는지, 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길을 따르는지 물을 것이다. 모든 질문에 너희는 절대적인 진실함으로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강해지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씨앗은 싹트지 않을 것이다.

5.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내 길을 따르게 하고, 너희를 “내 제자”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텅 빈 손으로 서 있거나, 투쟁의 끝에 아무런 수확도 없이 남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시험을 견뎌낼 충분한 힘과 마음의 평안, 지식을 얻기 위해 내 일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수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실망과 괴로움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6.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단 하나의 교훈이며, 너희가 여기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겉으로는 이를 따르는 척하며() 마음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위선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나는 양심을 너희 존재 속에 심어 두어,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 그것이 함께 하도록 하였으니, 양심은 선과 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빛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속임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무지하다고 비난받지도 않을 것이다. 영적 신자가 자신의 본성 속에 창조주의 빛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웃을 속이거나 스스로를 속이려 할 수 있겠는가?

8. 그 당시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당신이 약속하신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9.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다. “네, 주님. 저는 금식하고, 이웃을 잘 대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제 재산의 일부를 성전을 후원하기 위해 바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는 자신의 부를

버리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주님과 헤어지기를 택했다. 그는 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말했느냐?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고, 이 미덕을 드러내되,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며,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11. 제자들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 양심의 빛으로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양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철저히 성찰하라. 그러면 그 오점을 발견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는 거울이 있으니, 그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너희가 순수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12. 영적 수행자는 그의 행실로 드러나야 하며, 그 행실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나의 제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13. 누가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 아무도 없다. 나는 너희가 하는 *행위*에 따라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의도에 따라 판단한다. 나는 너희의 양심 안에 있으며, 그 너머에 있다. 내가 너희의 행실과 그 동기를 알 수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14. 너희의 악한 행실로 인해 나의 사역이 공격받지 않도록 싸움을 준비하라. 많은 경우, 인류가 나의 사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너희에게 달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내 사역은 진리 그 자체이며 흠 없는 순수함인데, 무엇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공덕을 쌓고 영혼을 고양시킬 기회를 분명히 놓치게 될 것이다.

16. 누군가 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 진리를 깊이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랑에 목마른 모든 이의 입술에 수정처럼 맑은 물을 쏟아붓는 그 샘에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내가 족장들과 선지자들, 의인들에게 계시한 진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 너희가 오늘 받아들이는 나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법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상향 발전의 길을 제시하여 너희가 삶의 여정을 목적지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결코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와 다른, 복잡하게 꾸며낸 설명을 하거나, 나의 가르침을 변형시키거나, 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제공한다면, 너희는 나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18. 너희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매우 큰 은사를 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19. 나는 씨앗의 주인이요, 너희는 일꾼이다. 누군가 게으르며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길에서 벗어나면, 너희를 곳곳에서 부르시는 나를 탓하지 말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깨달아라.

20. 보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느끼며 “스승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1. 잘 들어라. 인류의 아버지는 모든 시대에 걸쳐 그분의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셨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해 온 이 사랑은, 바로 너희를 줄곧
어루만져 온 바로 그 사랑이다.

22. 나는 너희가 이 빛으로 마음껏 채워지기를 원한다.
사랑 없이는 너희가 내게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힘
없이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23. 나의 말씀은 너희 마음속 가장 섬세한 현을 울려,
너희가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고, 오직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만
살며 마음과 영혼이 그 능력을 키울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성장의 길에서 제대로 꽃피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한다.

24.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은 모든
것이 비롯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생명을 얻는 영원의 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25. 영은 몸을 통해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이용한다.
너희가 오직 물질의 법칙에 따라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한계가 있으므로 덧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감정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함없는 아버지의
감정과 같을 것이다.

26.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은 영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불꽃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꽃은 사랑에 있어 어떤 한계도 알지 못하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7.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모든 것이 그 본분에 따라 창조주에 대한 끊임없는
헌사와 지속적인 경배이기 때문이다.

28. 나는 모든 존재로부터 그 결실을 받지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생명을 주는 힘을 받는다.

29. 나는 너희의 영혼이 더 이상 감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가르침을 설명해 준다. 이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러 나설 때, 영혼이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발전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30. “발전” — 이는 사람들이 일단 영혼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 입에 자주 오르내릴 단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보, 상승, 변화,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1. 인간은 언제 비로소 편견에서 벗어나, 더 이상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자신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인가? 바로 영의 자유에 도달했을 때이다.

32. 이제 너희는 내가 항상 지혜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온 것이, 제한된 지성 능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성이 제한적이고 영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비록 인간은 발전 단계상 이미 명석하고 기민한 지성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원시 시대와 다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다른 이들은 과학 분야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허영과 이기심에 갇혀 지식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진보의 길에서 멈춰 서 있다.

34. 이 시대에 나를 접하고, 나의 가르침 속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들은 너희에게, 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위대함과 빛이, 인류가 언젠가 이를 깨닫게 될 때 인류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하노라.

35. 앞으로도 올바른 겸손을 통해 이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십시오. “겸손”은 비참함이나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6. 도덕적 힘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이 생의 고난을 통해 모루 위의 강철처럼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37. 나는 너희가 너희의 소명에 순응하는 것을 본다. 만일 너희의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더 이상 그곳에 시선을 두지 마라. 그것을 잊고 현재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38. 나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 작은 나라는 인류에게 “약속의 땅”으로 여겨질 것이다. 나는 그 땅에 사는 이들의 마음이 평화를 느끼고 영혼이 깨달음을 얻도록 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의 고위 통치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이 땅의 품에서 영감을 얻어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다.

39.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이 내 자비로 마련된 이 땅에 모여 내 평화를 느끼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40.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이웃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떻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41.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힘을 합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너희 이웃들이 주님의 백성 품에 들어왔음을 느끼고, 그곳에서 내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2. 나는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 준다. 그 “지파들”에 관해 말하자면, 내 지혜에 이끌려 그들이 이곳으로 와서 너희가 받은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노라. 그들은 우연히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나, 너희가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려면 너희가 단결해야 한다.

43. 제2의 시대에, 황제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때, 그곳은 내분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노예였으며, 폭정의 멍에가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었다.

44.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45. 그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며, 사람들의 이기심은 얼마나 컸던가!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말씀을 들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그 백성의 모든 상처에 바르는 향유와 같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었기에, 나를 믿는 자들은 “나사렛 사람만이 사랑하는 법을 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오해를 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희생 제물로 내몰았을 때,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예수여, 당신을 따르던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 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씨앗이 싹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인류는 그 열매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은 나서서 나의 말씀을 널리 알렸다.

46.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950년에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불순종과 분열로 인해 내가 다시 희생의 죽음을 겪게 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때와 같이 말하리라. “내가 이 마음들에 내 씨앗을 심었으니, 그것이 꽃을 피울 것이며, 그 열매를 먹고 성경에 기록된 내 말씀을 알게 될 민족들이 있을 것이다.”

47.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항상 선을 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48. 약 2천 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난 비극을 기리기 위해 기독교 세계가 마음속으로 집중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행실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유혹 앞에서 약해졌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49. 그러나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백성은 그 비극을 다시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존재하며, 영 안에서 존재하는 영광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고양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토마스처럼 의심했던 자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여전히 싱그러운 내 피를 보게 허락했으며, 그 피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사랑과 힘으로 모든 영혼에 쏟아지고 있다.

50.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매우 가까워서 너희 생각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나 계시므로 너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영감이나 빛나는 아이디어를 통해 너희의 이성을 비추는 빛이다.

51.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며, 너희를 심판하는 양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감각과 몸 안에 있다. 나는 온 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이다.

52. 너희 안과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나를 점점 더 깊이 느껴라.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이 왔을 때, 너희가 온전히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감각의 세계가 남길 수 있는 인상들로 인해 너희 영혼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무한한 순결의 근원이신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53. 너희는 이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유혹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나의 자비가 폭풍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을 약속한다. 너희가 넘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베풀겠다. 나에게서는 더 가치 있는 사람도, 덜 가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이며, 너희가 회개하며 내게로 올 때마다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공로에 따라 상을 주리라.

54. 깊이 생각하고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너희 영혼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으라. 내가 너희의 영적 성장을 깨닫게 해주리라.

55.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라. 탐구해야 할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너희를 인도하는 목표임을 분명히 알라. 내 대변자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순수하며 더러워질 수 없다.

56.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한 알의 씨앗을 주었다. 나를 본보기로 삼아 삶의 여정에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인류는 너희가 얻은 믿음과 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57. 끝까지 나를 따랐던 이들이 내 사역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58. 너희가 아버지의 방문을 기다리는 성소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 그분이 그 안에서 너희 사랑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게 한다면, 비로소 “종달새”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둘러싼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생명나무 위의 둥지 속 새들 같다.

59. 너희는 끊임없이 방랑하며, 열매를 판단하기 위해 땅속에서 특정 나무들의 뿌리를 찾아다녔고, 종종 그 뿌리 속에서 갇아먹는 벌레를 발견하곤 했다. 그 후, 여러분은 산과 계곡에서 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나 적어도 우정 어린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며,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불확실성에서 해방시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이제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현재 가지고 계신 것보다 더 완전한 영적 교감을 준비시켜 줄 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빛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과 이성이 나의 지혜를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약간의 빛과 평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루만짐이, 지친 노인들에게는 자녀들의 사랑 어린 시선이 그러하듯이, 이를 통해 그들은 지치고 슬픔에 잠긴 마음속에 빛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모든 이가 자신의 삶의 길을 밝혀 줄 빛을 갈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60. 지금 내 자녀들 중 많은 이에게 내 가르침을 듣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자녀 중 누구도 나를 듣는 데 부적합한 이는 없다. 모든 이가 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의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들의 하나님을 듣기 위함이며, 무지한 자들은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영혼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며, 죄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기 위함이다.

61. 한 목소리가 내게 닿아 말하되, “오셔서 보소서,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제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은 제 어둠 속의 인도자이시며, 제 고독 속의
도우미입니다.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 시간의 시련 속에서
저는 죽음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62.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누가 은혜를 갈망하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부르짖음을 전하는가? 혹시 *어떤* 마음인가?
아니, 백성아, 그것은 내가 사랑 그 자체임을 잊지 않은
인류이다. 그들은 자신의 치욕을 깨닫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

63. 너희가 영적인 고향을 떠나 이 땅으로 향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의 이별을 슬퍼하며 울었다. 그때부터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나의 눈물과 피였으며, 나의 자비롭고
평온한 목소리는 너희의 인생 여정에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조언해 주었다. 나의 그림자는 모든 길에서 너희를 따라다녔다.
사실 여러분을 그리워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여러분이 떠날 때, 여러분은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길은
자유 의지의 길이었고, 여러분의 감각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을 들이마시고 만져보기 위해 확장되었으며, 여러분은 다시
나를 바라보기 위해 아주 깊이 추락해야만 했다. 그때 이미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의 식탁에 앉았던 것을
기억해 났습니다. 그때 너희는 주님을 부르짖었으나, 사실 나는
이미 그보다 먼저 너희를 부르며 내 식탁에 함께 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 시절, 마음은 순수하지만 길을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자녀를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너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64. 너희가 내 말씀을 깊이 헤아린다면, 아버지가 너희를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너희가 그 길에서 길을 잃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들은 너희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고, 부족했던 경험을 쌓으며, 마침내 빛으로 가득 차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이 나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꽃으로 바뀌어야만 했던 불꽃과 같았으니, 이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너희의 빛이 신성의 빛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65. 나는 새로운 산의 정상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도착하는 날 이 왕국에는 축제가 열릴 것이다. 너희는 고통의 길을 따라 그곳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너희의 잘못을 씻어낸다. 이 길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다. 너희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희생과 고통의 길은 나의 피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었다.

66. 너희가 종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한한 공간에서 내 목소리의 울림을 들어라.

67. 심판의 때가 왔음을 명심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는 속죄될 것이다. 땅 그 자체가 인간이 땅과 그 자연의 왕국을 잘못 이용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파괴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창조주에 의해 사랑의 뜻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 유일한 뜻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축복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68. 한 영혼이 모독하고 파괴한 것들이 책임을 묻기 위해 그 영혼을 부르고 있는데, 과연 그 영혼이 이 행성을 평온하게 떠날 수 있겠느냐? 이들은 양심의 가책과 물질주의, 그리고 내 법에 대한 불순종의 삶이 초래한 결과들이 마치 어두운 안개

구름처럼 드리워진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에 차서 그 안개 속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그들 안에 빛이 비추어질 때까지, 그리하여 그들이 파괴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69. 그들을 돕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말하노니: 보라, 스승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계시도다.

70. 오늘 나는 잠시 낙담한 이들의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 왔노라.

71.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나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도 갈 것이다. 나의 사랑과 빛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72.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는 영혼 속에서 끝없는 기쁨을 느끼며, 비록 내 말씀이 짧더라도 만족해 한다.

73. 내가 너희가 나를 들을 때 경험하는 그 평화와 기쁨을, 기도 중에 나를 찾을 때에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내적 고양을 얻을 때마다, 너희의 생각이 불모의 들판에 내려앉는 결실을 맺게 하는 이슬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74. 세상이 혼란에 휩싸이고, 혼돈의 그림자가 열방에 드리워지며, 전쟁이 인류를 뒤흔들고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왜 그분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 안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평화도 그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은 엄격하고 지혜로운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75. 이미 세상에는 새로운 투쟁이 불붙었다. 온 나라들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어떤 이들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 우위를 차지하려 애쓰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인종이 모든 인종 중에서 가장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그들은 맹목적인 상태라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심연을 깨닫지 못한다.

76. 이 어둠과 혼란의 분위기 속에서 너희의 생각을 빛줄기처럼 뚫고 나가게 하라. 이를 통해 너희는 시련의 순간에 동료 인간들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77. 너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강해져라. 그러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모든 이*를 향한 연민과 형제애로 불타오르며, 이 인류를 괴롭히는 고통과 곤경에 내면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은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루며 뛰게 될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는 그 보상이 따를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너희 기도의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78. 보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 제멋대로 날뛰는 무리들 가운데로 보내어 설교하게 하지도 않으며,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를 넘기지도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너희의 생각을 정화하여, 그 생각으로 동료 인간들의 길을 밝혀 주기만 하면 충분하다.

79. 유혹은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여 너희에게 다가올 힘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이 너희의 선한 결심을 꺾고 의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싸우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유혹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라. 잠들지 말라. 유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80. 너희의 싸움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이 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종종 여러 곳에서 그를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는 너희 자신 안, 너희의 감정과 열정 속에 숨어 있다. 이 싸움을 위해 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

81.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비록 각 가르침의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과 의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82. 기념의 날들에는 가장 굳은 마음조차도 나의 현존을 느낍니다. 무한한 공간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성한 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마음은 얼마나 귀머거리인가!

83. 그때 사람들이 깨어나 내 말씀을 갈망하며 다가올 때면,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오직 내 계시의 증거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내가 나를 드러낸 곳에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한탄할 것이다.

84. 이 시대에 인류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영혼들이 다른 시대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의 공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고, 너희가 행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메시지의 빛을 통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내 재림에 대한 소식, 즉 내가 인류에게 남긴 가르침 이 모든 이의 귀에 닿을 것이다. 나의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연고를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설 것이며,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자들이 될 것이다. — 나는 너희가 내가 떠난 후에도 이를 잊지 않도록 이 지침을 자주 되풀이하여 말한다.

85. 깨어 기도하여 강해지라. 그러나 성령과 함께 기도하여, 주님과 온전한 교감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기도하는 순간 영감으로 받은 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스승과 영적인 교감을 나눈 순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86. 나를 찾고 기도하는 너희의 방식을 온전하게 다듬어라. 명심하라: 내 말씀이 더 이상 너희 모임 장소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를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며, 너희를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이 빛을 외면하고, 받은 사명을 제쳐 둔 채 대신 의식을 치르는 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87. 내가 때때로 너희가 비방받고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나의 신성한 법을 지키고 지상의 법을 따를 때,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88.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내가 너희를 “제자” 라고 불렀을 때, 너희가 그 칭호를 품위 있게 지닐 줄 안다는 것을 보여라. 너희 행위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보아서 가장 완고한 자조차도 굴복할 것이다. 그때 세상에 종교적 교리와 사상 간의 대립의 시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나의 영적 가르침의 선포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할 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기적은 가장 위대해질 것이며, 그 증거들은 세상을 떨게 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1

1. 듣는 이여, 빛으로 오라.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영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내 임재의 광채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옷으로 주려 하는 사랑과 지혜의 신성한 빛이다. 이 빛은 무지와 광신, 그리고 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2. 너희가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양육에 바친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이는 일주일 동안의 고된 수고에서 쉬며, 너희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길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일곱째 날이다.

3. 이 날을 너희 발전의 일곱 번째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바로 그 단계에서 마지막 인장이 열리고, 긴 삶의 여정을 마친 후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많은 이들이 내 빛이 오직 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내 영적 임재가 모든 이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빛을

‘보편적 광선’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 빛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추는 바로 그 순간, 모든 피조물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 백성들아, 내가 전능하고 전지전능하므로, 나는 모두 영적인 다양한 형태로 나를 드러낸다. — 너희가 제2시대에 나를 인간으로 보았던 것은, 내가 너희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영적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는 내가 너희의 영혼을 비추고자 하기 때문이다.

5. 너희는 나를 “구세주”라고 불렀고, 앞으로도 계속 “구세주”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다.

6. 너희와 온 인류를 짓누르는 시련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 혹은 복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러한 시련들이 인류를 구원의 항구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

7. 그것을 정의, 속죄, 혹은 교훈이라 부르라.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고 옳은 말이 될 것이다. 분노와 복수는 아직 영혼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에게만 내재된 인간의 정욕일 뿐이다. 내 모든 행적을 지배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저속한 이름인 ‘처벌’ 이라거나, 품위 없는 이름인 ‘복수’ 라고 부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8. 너희가 자발적으로 가시밭길이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섰으며, 나의 사랑 어린 부르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양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그로 인해 고통이 너희를 깨우고, 멈추게 하며, 정신을 차리게 하고, 참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했다.

9. 너희가 스스로 추구하는 영적 상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는 고통이 존재하고 빛 속에는 평화가 깃들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10. 내가 너희가 고통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모든 시련이 담고 있는 교훈을 얻기보다는 그저 울고, 저주하거나, 고통의 끝인 죽음을 기다리는 데 그치는 것을 볼 때, 그때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너희 마음에 말을 걸고, 위로와 희망을 주며, 너희 마음이 스스로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리라. 왜냐하면 그 승리 속에야말로 평화와 빛, 그리고 진정한 행복인 영적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11. 백성들아,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덮고 있던 끝없는 밤을 걷어내고,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기적을

이루어, 너희 마음이 영적인 것을 느끼고 모든 선을 향해 뛰기 시작하게 할 것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이 갇혀 있던 감옥의 빗장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기적을 이루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곧, 너희 행위의 공로를 통해 평화와 승화를 이루는 것이다.

12. 그때면, 너희가 발을 다치며 피와 눈물의 흔적을 남기고,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워 마셨던 그 길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인가!

13. 나의 신성한 소망은 너희를 구원하고, 빛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영혼의 고양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이상을 바탕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신성한 소망 속에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눈이 먼 자일 것이다.

14.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나를 파악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미성숙하고 물질주의적인 다른 이들은 나를 믿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의 본성 속에 나를 이해하고, 나의 현존을 느끼며,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더 높은 감각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은 오직 믿음과 영성화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15. 진정으로 고양을 추구하는 그 제자들은 내 영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그들은 — 비록 세상의 눈 에는 하찮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 마음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영감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며, 나의 뜻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16. 그들과 같이 되어, 너희 모두가 나를 느끼고 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라. 나는 모든 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나의 가르침으로 길을 닦은 후, 나는 이 시대에 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 중 소수의 마음인 너희에게 시선을 돌린다.

17.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빛의 말씀은, 제3의 시대에 내가 너희를 양육하는 영적인 양식이다. 나의 모든 자녀들은 신앙적 확신 속에서 이 양식을 갈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 외형적인 형태를, 또 다른 이들은 그 내적 의미를 통해 갈망한다. 나는 모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나의 은총을 베푼다.

18. 나는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빵을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내 피인 이 포도주를 받아라.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19.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생인 내 말씀을 받아 그 뜻을 간직하라. 1950년 이후, 이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때에도 이를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라. 내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바로잡는 법을 알고 겸손히 이를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여 이 영혼의 양식을 모든 굶주린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온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라. 그러면 땅 위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위에 더해 주어질 것이다.”

21. 이 씨앗에 관해서는 너희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내가 이를 언제나 너희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이다. 누가 스스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으며, 어떠한 흠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22.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 운명의 가장 높은 사명이다. 행동과 말, 심지어 생각 속에서도 이를 널리 퍼뜨려라. 사랑으로 보내진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너희 이웃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23. 나는 너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한다. 내면 깊이 “주님, 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를 나는 듣고 받아들인다.

24.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이 제3의 시대에 나를 배반할 자는 누구겠느냐? 너희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 때가 되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25. 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어떤 방식으로든 내 일을 모독하거나 더럽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폭도들에게 내어줄 것이며, 그의 행실로 인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행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묻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스승의 제자들인가? 그들이 과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인가?” 라고

26.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의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제3시대의 사도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27. 오늘 나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현존하며, 그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고발하느냐? 나는 진리를 말하였고, 선을 권면하였으며, 다시 오겠다는 나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제2부’에서 말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진실함의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내 몸을 상처 입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28.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나, 그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오늘 너희는 마침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29.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각자의 모습으로 나뉘어 조각난 채로 있기 때문이다. 내게 말해보라. 내가 너희의 고통을 느낄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왜 *너희*는 나를 느끼지 못하는가?

30. 나는 다시 희생되고 있다. 이 시기에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누가 나에게 “어서 가라!” 라고 소리치겠는가?

31. 나의 시선은 예리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가득하다. 그 시선에서 눈물이 솟아나면,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영혼 속으로 스며든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

32. 너희가 내 생각의 성소에 들어설 때, 너희 사이에 형제애가 느껴지는 때가 올 것이다.

33. 내가 온 곳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면전에 이르러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알아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자신의 희생으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죽음의 정복자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슬픔에 잠긴 영혼을 찾아가 평화를 주는 위로자이다.

34. 내가 지금 너희에게 비추는 이 빛은, 다가올 세대들에게 평화와 도덕이 될 것이다.

35. 진실로,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고통받는 모든 이 안에서 고통받는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은 곧 내 영의 굶주림과 갈증이기도 하다. 그들 안에서 나는 고통받으며, 그들 안에서 나는 찢리느니라. 그러나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아, 굳건히 서라.
위선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가
나를 인정했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며, 약해지면 그
사도처럼 “나는 그 갈릴리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고 말할
것이다.

36. 너희의 상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나를 위해 너희가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의 제자가 되어라.

37. 내가 너희 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겉으로만
십자가의 표를 그리지 마라.

38. 나는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축제로 나의 신성한 수난을
기념하는 모든 이들의 양심 속에 내 존재를 느끼게 할 것이며,
그들이 통회함을 느끼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일 것이니, 진리를
깨닫기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기 때문이다.

39. 죄에서 깨끗이 씻고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려놓고, 너희 마음이 그분의 수의가 되게 하라.

40. 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라. “성전” 은
파괴되었으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웠다. 이제 주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성소가 세워졌다.

41. 나는 경건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녀는 옛날처럼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사라지셔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육신을 찾아 나섰으나, 그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고개를 들어 보아라. 스승님이
네 곁에 계심을 깨달아라.”

42. “가서 형제자매들에게 말하라. 스승님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니 모이도록 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느낄 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보여 주리라.”

43.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의 본질과 인간의 영감 속에서 형체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기 위해 내 상처에 손가락을 대었던 그 토마스도 발견한다. 오늘 너희는 내 몸을 만질 수 없으니, 나는 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만질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44. 나는 영으로 너희에게 왔으며, 너희가 마음과 영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물질과 유혹,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나는 어둠의 동굴 깊숙이까지 들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건너간 이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었다. 양심의 가책과 자책의 사슬에 묶여 있던 그들에게, 나는 내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그들을 해방시켰다. 나는 빛 속에 거하지만, 모든 이를 위한 부활이기에 영혼들이 정화되는 심연 속으로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45. 이 계시들의 충실한 증인이 되라. 이를 깊이 느끼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하여, 그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을 수 있도록 하라.

4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가르침이 알려질 것이다.

47. 너희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련이 지나간 후, 세상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민족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충실한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을 명심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48. 너희가 물질적인 면에서는 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강하다. 너희는 인간 삶의 의미를 이해했고, 이제 영적 삶의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다. 너희 중 누가 내가 그에게 준 은사를 마음속에서 느끼지 못했겠느냐? 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스스로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49. 너희는 죽어 있었기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생명으로 깨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었고, 내 말씀의 빛으로 너희 영혼을 단장해 주었다. 이 은총을 간직하고, 참된 생명이 너희에게 다가옴을 느껴라.

50. 이제 너희를 모욕했을지 모르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욕이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 나, 곧 나를 향한 것임을 생각하라. 내가 모든 이를 용서하는데, 너희는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육신의 이기심과 허영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의 육신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것은 자신을 이루는 원소들과 합쳐지는 곳으로 가겠지만, 영혼은 육신의 외피를 통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살아남을 것이며, 창조주의 무한한 빛이 그 자녀와 사랑의 포옹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51. 그 순간, 누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기를 바라겠느냐?

52.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이 시기에 나를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던 이들이 느꼈던 기쁨을 느끼기를 바란다.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타난 것은,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기 하루

전에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나는 그들에게 영혼의 삶과 육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는 그들에게 내가 영적 존재로서 다시 돌아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해 주겠다고 알려야만 했다. 그 후, 이미 영적 존재가 되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갓 난 상처에 손가락을 대자,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성령의 빛으로 올 것이다.”

그들이 스승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려 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은 사라지셨는데, 이는 제가 그들에게 제 진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름 위”에서 사람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이 제자들은 영적 고향에서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너희*는 그 약속이 너희 세상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계시한 부활이다.

53.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남긴다. 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그 가르침에 이끌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 1950년 이후, 너희는 나의 신성한 영감의 성소에 들어가, 제2시대에 너희 형제들인 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가르치기 위해 나설 것이다. 너희는 의식과 전통, 허영에서 자유로운 나의 순수한 가르침이 꽃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물질적인 교회를 원하지 않고, 오직 내 자녀들의 마음을 원하노니, 그 마음을 여호와와 사랑이 거하는 참된 성소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54. 오늘 너희는 내 앞에 무엇을 가져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주었고, 나의 사랑과 다정함을 느끼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고 있느냐? — 너희는 나의 질문에 침묵한다. — 나는 너희를 은혜로 가득 채웠으나, 너희는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련의 시험대이며, 너희가 더욱 정화될수록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에 얹혀 있던 과거의 죄과들이 더 이상 너희 영혼을 짓누르지 않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고, 여러분의 소유물을 요구할 때, 그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자, 즉 여러분의 믿음을 말살하려는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이 재물은 단지 *여러분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에게도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의 보살핌에 맡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게 될 수단이다.

55. 사랑이 넘치고 이타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중보가 내게 닿으며, 목자 엘리야는 백성을 내게 간곡히 청원한다. 신성한 자비, 목자, 그리고 너희의 수호천사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인 나는 너희의 고통을 알고 느끼며, 나의 자비가 너희와 함께한다. 백성아, 치유받으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라.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었으니, 평화를 원한다면 선의의 사람이 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라.

오늘날 너희는 영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이웃 속에서 나를 닮은 모습, 내 신성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이 고통을 몰아낼 것이다.

56. 너희 모두가 내 것임을 깨달아라. 너희 구원의 대가는 내 피로 새겨진 본보기, 곧 사랑으로 인한 나의 희생적

죽음이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오셔서 그 영혼들을 “약속의 땅”의 문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나의 말씀은 정해진 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후 너희가 준비를 갖추면 여러 나라에서 너희와 나의 사자들을 통해 복음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은 탐구되고, 마침내 연구되어 이해될 것이다. *2000년 무렵이 되면* 인류의 영적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57. 준비하라. 머지않아 너희는 너희의 영적 은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두 창조된 그 순간부터 유산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활동할 수 있으며, 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58. 발은 이미 준비되어 씨앗과 가꾸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라. 때가 좋으니, 율법 안에서 드리는 너희의 기도와 활동은 너희 영혼을 평화로 채워 줄 것이다.

59. 너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을 되새긴 지 불과 몇 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60. 나는 그 이후로 지나간 짧은 시간이 인류에게 유익했음을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나는 나의 사랑을 증언하러 왔으며, 모든 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육신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너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는 빛의 시대이며, 성령의 때이기 때문이다.

61. 내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실천에 옮기라.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쁨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62.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밑바닥에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 고통받는다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의 희생은 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했고 인류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 희생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63. 너희의 영혼은 내가 너희의 완성을 위한 기회로 주었으나 너희가 활용하지 못한 삶들을 통해 만들어진 사슬을 힘겹게 끌고 다닌다. 각 생은 사슬의 한 고리를 이룬다. 그러나 너희가 내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율법을 지킨다면, 더 이상 고통을 겪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64. 너희가 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곧 시간 그 자체이신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자리를 내 사역 안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

65. 나는 나의 신성에 대한 오해와 다양한 견해가 끝날 것을 원한다. 너희 모두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달아라.

66. 나는 너희에게 나의 품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을 계속해서 가리켜 준다. 그 길은 멀고 험하며, 그 위에는 피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삶의 여정이 끝날 때, 너희는 향기로운 꽃과 맛이 좋은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7. 너희 중 어떤 이들은 행복과 평화를 누리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숨 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었으니, 이 은혜의 선물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68.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내게 세상의 것을 구한다. 그러나 진실로 —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무엇보다도

너희 영혼의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마라. 여기에는 도둑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두어라. 그곳에서는 너희의 재산이 안전할 것이며, 그것은 너희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 쓰일 것이다.

69. 세상의 보물은 거짓된 위대함의 부와 권력, 그리고 직함들이다. 영의 보물은 선한 행실들이다.

70. 나는 사람들이 이론 지식과 과학을 폄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통찰력을 밝혀 주어, 그들의 행위가 고귀하고 높은 목적을 갖도록 한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참된 위대함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71. 제2의 시대에 나는 믿음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려냈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었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였고,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게 하였다.

72. 나는 무덤 가장자리에 서 있던 자를 치유하고 죽음에서 구해낸 인간의 과학을 축복한다.

73. 이제 나는 모든 과학을 초월하는 나의 지혜를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위해 왔으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은 제3시대의 위로자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다시 사람들 곁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작별이 이미 가까워졌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

74. “제2의 시대”에 대한 나의 말씀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며, 나의 영적 군대가 나와 함께 내려올 것임을 너희에게 알렸다. 그러나 인류는 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모든 종교 공동체는 각자의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한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그를 몽상가로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75.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한, 너희의 길은 밝게 비춰질 것이다.

76. 나는 이 시대에 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왔다. 너희가 파괴해 버린 너희 마음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77. 너희는 모두 자신의 무장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때마다 평화를 느꼈다. 너희 중 나를 사랑으로 찾은 자 중에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희가* 이 자비를 얻었다면, 왜 이웃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가? 사랑의 실천 속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면, 이기심 없이 사랑하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너희에게 건강을 채워 준다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라.

78. 나는 너희가 내게 합당함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며, 너희 각자가 선을 가꾸고 장려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며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유)

79. 옛날에 한 겸손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며 떠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스승에게 물었다. “지혜로우시고 순수한 사랑을 가르치시며 영혼의 해방을 이루시는 스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우리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스승은 대답하셨다. “오, 제자들아, 벌써 내 가르침을 전하고 싶단 말이나? 이미 그 가르침에 만족했느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불신자들이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느냐?”

그러나 한 제자가 고집을 부리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셨으니, 우리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싶습니다.”

자애와 선함으로 가득 찬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뒤 떠나보냈다. 그리하여 제자는 길을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였다.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가르침으로 돌아서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꾼”은 새로운 제자들을 준비시킨 뒤, 자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교훈을 받기 위해 저를 가르쳐 주신 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스승님께서 곧 떠나실 예정이시며, 그분의 지혜를 가득 담아 여러분을 남겨두고자 하십니다.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80. 그들은 대거 그 스승에게로 모여들었고, 놀랍게도 그분이 모든 스승의 스승이시며, 무한하신 하느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깊은 회개를 느꼈으며, 그들의 영혼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넘쳐흘렀다.

(비유의 끝)

81. 오늘 나는 내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모든 영광을 뵈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땅과 그 주민들은 정화될 것이며, 영혼의 미덕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행복이 되어, 너희에게

끝이 없는 무한한 ‘낮’ 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기적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너희의 자녀들이 내 영과 교감하며, 죄에서 벗어나 평화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가?

82.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은,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일에 꾸준히 매진하라. 너희의 결심이 굳건하다면, 겉보기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도 이겨낼 것이며, 이 시대에 나의 오심을 믿지 않았던 세상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83. 백성아, 내 말씀이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것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게로 오라.

84. 강해지라. 너희에게 시련이 닥칠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이를 이겨내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2

1. 너희 자신보다 인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라. 인류는 어둠과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아서, 혼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비취야 할 ‘등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2. 나를 믿고 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계곡’에 있든 이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단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빛과 영혼 속에 살아 숨 쉬는 선에 대한 직관적 지식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특성들이다.

3. 기도는 시련의 시간에 마음을 위로하고 지탱해 주는 지팡이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율법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각자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 영적인 방식으로 내 가르침을 따를 때,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4. 내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며,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내 율법을 따르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5. 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똑같다. 내가 누구에게도 빛과 온기, 그리고 양식을 거절한 적이 없음을 보지 못했느냐? 영혼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나의 보호는 결코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6. 나를 믿고 나를 가까이 느끼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본질과 생명에 깊이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이 지구에 속한 모든 존재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7.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배부른 반면, 다른 이들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수고의 열매도, 너희의 집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8. 나는 너희 모두가 내게로 오도록 너희를 발전의 시작점에 두었다. 너희가 이 계시들 속에서 받는 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내게로 오라, 준비된 영혼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모두는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다.

9. 위대한 영적 업적은 겸손을 실천하고, 영혼의 순결을 지키며,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빛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너희의* 업적에 대해 말하지 말고, 신성한 업적에 대해 말하며,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의 노력을 보상하실 나를 의지하십시오.

10.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라. 그러나 내 고귀한 뜻에 함부로 간섭하려 들지 마라. 내가 지혜로 악한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엄격함으로 제도들을 징벌하게 하라.

11. 너희는 기도하고, 적어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12. 너희가 일단 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모두 한 무리의 양과 같을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목자처럼 너희를 영생의 샘으로 인도하리니, 그곳에서는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3. 스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며, 나는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너희를 준비된 상태로 남겨두고자 한다.

14. 세상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15. 인간은 물질주의에 굴복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남긴 본보기를 잠시만 떠올릴 뿐, 곧바로 다시 이 세상의 생존 투쟁과 순전히 물질적인 삶에 관련된 일들로 돌아갑니다. 그는 영성화에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인간은 예수님의 수난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연중 기념일이 있으며,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17. 그러나 내 말씀을 들은 너희는, 신성한 스승께서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거나 따르기 위해 정해진 시간이나 날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너희는 마침내, 신성한 사랑과 자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아 이웃을 위한 선행을 매 순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8. 나는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훈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첫 수확은 너희에게 기쁨과 하루의 일을 계속하고 싶은 열망을 채워 줄 것이다.

19. 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놀란 과학자들에게 마치 그들의 지성을 밝혀주는 빛줄기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 즉 인간 과학과 창조의 신비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 될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전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 인간과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완전함을 향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 현재 이 세기에 인간 과학은 크게 발전하였기에, 사람들은 이를 ‘빛의 세기’ 라고 불렀으나, 이 시대가 영혼에게도 빛의 시대임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현재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며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21. 위대한 인류의 업적 속에는 높은 영적 존재들의 영향과 작용이 존재하며, 이들은 끊임없이 지성 기관에 작용하고 그곳을 비추어, 육신을 입은 형제자매들에게 미지의 것을 심어주거나 계시해 줍니다.

22.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너희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영적 존재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자주 단지 도구로만 봉사해 왔는가! 너희는 너희가 이론 발견들에 대해 종종 놀라지 않았는가? 이미 성취한 일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자주 인정하지 않았느냐? 여기 그 해답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왜 그것으로 자랑하느냐? 너희의 일은 더 높은 존재들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들의 영감을 결코 바꾸려 하지 마라. 그 영감은 언제나 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나의 가르침은 무한하고 심오하며, 그 안에 모든 종교가 양분을 얻는 본질이 담겨 있다. 나의 가르침 안에서 나는 신앙 고백을 불문하고 너희를 모든 이의 형제자매로 만든다. 기도하기 위해 결코 작은 방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라. 이는 마치 인류와 단절하는 것과 같으며, 넘어질까 두려워 유혹을 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투쟁에 맞서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 진리가 빛과 같이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나는 너희에게 나의 발자취를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4. 나는 정죄를 받았고, 비방을 당했지만, 누구도 내게서 어떤 불완전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 너희에게 맡겨진 작품인 자연이 완전한데, 누가 내가 창조한 이 작품에서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자연과 동등할 수 있겠느냐?

25.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오류에 빠지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라. 어찌 내가 이성이나 진리를 담지 않은 생각을 너희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생각이 신성한 광휘에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라.

26. 너희는 너희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내 가르침을 선포해야 한다. 너희는 누구도 속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은 조만간 진실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

27. 여러분이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으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믿음을 단순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8. 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너희 기도의 힘은 너희가 믿음을 얻고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29. 나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예언 속에 감춰져 있던 신비의 빛과 해답을 너희에게 준다.

30. 빛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 교감이 있기를 원한다.

31. 내가 내 모든 말씀을 통해 흘려보내는 이 은총은, 내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이 은총을 통해 너희는 동료 인간들 가운데 스승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 너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이데올로기도 교리도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배운 모든 것이 불처럼 너희 영혼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33. 모든 교파에서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안식의 날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길이다. 사람이 실재를 깨닫기 위해 애를 쓸수록, 오히려 자신의 이성이 얽혀 버리는 수수께끼들만을 마주하게 된다.

34. 그러나 학문을 배우지 않은 너희, 이 소박한 제자들은 그 대신 나의 영감과 지혜로운 말씀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신비의 장막이 찢어졌고, 이 생이 끝나고 투쟁과 전투, 그리고 정화를 거친 후 너희 모두가 갈망하는 안식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35.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를 드러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36. 너희는 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동료 인간들은 너희 입술로 선포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가 진실하게 말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37. 평화는 국가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확신이 지배하는 듯하지만, 전쟁이 동쪽(멕시코에서 볼 때 유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38. 나의 자연의 힘이 풀려나와 광활한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할 것이며, “별의 비”가 너희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릴 뿐이다.

39. 나는 이 예언들이 실현되었을 때 너희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40. 너희는 나의 자연의 힘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들 또한 나의 종이며, 나의 공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거대한 재앙들이 닥칠 것이며, 과학자들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자연 그 자체에서 찾으려 애쓰게 될 것이다. 과학자는 세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 하면서도, 즉 영의 영역, 존재하는 모든 것이 솟아나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근원이라는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41. 너희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생을 위해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열려 무한함을 바라보게 될 때, 너희는 영의 삶 속에 더 큰 명료함과 빛이 존재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지, 지성, 이성,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것들은 영이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이다.

42. 종교 공동체에서는 악의 힘을 인정하고 이를 인간의 형상으로 의인화하였으며, 그에게 강력한 왕국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주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만, 유혹이 정욕과 약점에 기인하며, 사람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모두 솟아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악이 우세하며, 모든 것에 드러나는 힘과 권세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는 불완전하고 로 혼란스러워하며, 악과 복수심에 치우친 영혼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힘은 인간의 사악함과 합쳐져 악의 왕국을 형성한다.

43. 그 힘은 제2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분께 자신의 왕국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에 민감한 나의 육신은 유혹을 받았으나, 나의 영적 힘은 그 유혹을 이겨냈다. 이는 내가 세상과 육신과 유혹과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힘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내려오신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44.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혼란에 빠진 영혼들이 머무는 어둠의 심연으로 내려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 영으로 사도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영의 더 높은 삶을 보여주셨다.

45.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지옥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너희가 전쟁과 적대감으로 만들어낸 삶 외에는 다른 지옥이 없으며, 내세에는 양심이 영혼에게 그 잘못을 보여줄 때 느끼는 회개 외에는 다른 불이 없기 때문이다.

46. 나의 가르침은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에게 말을 걸 것이며, 그들은 나의 업적이 고갈될 줄 모르는 계시의 원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47.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옥을 없애게 될 것이며, 그때 그의 영혼이 내세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오직 빛과 조화, 그리고 은총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삶 속에서는 오직 인간의 미신만이 만들어 낸 것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8.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분히 하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빛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어서,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가 나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 속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흐릿하게 만든 그 특성이 다시 빛나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나의 영원한 은총을 소유한 자로서 스스로를 느끼고, 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49. 나는 너희에게 끝없는 인내를 베풀었고, 너희의 인정을 기다려 왔으나, 너희는 여전히 내게 ‘내 잠을 방해하지 말라’, ‘현실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서 내 선택받은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과 싸울 무기를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류에게 빛을 전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그 빛을 무시하는가? — 머지않아 너희는 평화와 진리, 그리고 사랑의 전사로 변모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시련은 너희 마음을 다듬어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너희는 곧 너희의 짐을 짊어지고 “오늘의 일” 을 시작할 참이다. 다른 이들은 영의 경지에 이르러 다른 삶의 차원에 머물 때, 성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50. 나는 너희 가운데 스승을 배반하고, 자신의 은사를 거짓된 부와 바꾸는 제자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 나의 상처가 다시 벌어져 연민의 물과 피가 흘러나와, 사랑하는 제자의 오점을 씻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1. 내 부르심에 달려온 너희는 축복을 받으라. 너희는 큰 사랑의 증거를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투쟁의 시기를 위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고통은 덜어질 것이며, 너희는 영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52. 너희가 나에게 사명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책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너희는 그 한 마디 한 마디 속에서, 너희의 영이 정복해야 할 세상에 대해 말하는 사명이자 변함없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할 때가 왔다고 느낄 때, 너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밭이 얼마나 광활한지, 씨앗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53. 나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가,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듣지 못할 이들에게 변함없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삶의 덕행 속에서, 너희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조언하며, 위로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과거에 내가 받지 못했던 수확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는 너희가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나의 모든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54. 인류여, 내가 제2의 시대에 사랑의 선물로 너희에게 준 그 씨앗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도, 자비도, 정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신을 숭배하며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곳에는 너희의 감정과 야망, 소유물, 이상, 그리고 부가 있을 뿐, 그 너머에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그저 그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또 하나의 이론으로만 여길 뿐이다.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내일 이 말씀을 접하게 될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에 분노하게 될 것인가.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 제3의 시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첫 번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주신 권능으로 어둠에 빠지고 그릇된 길로 들어선 그 백성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처럼 —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광선을 영혼들 위로 번쩍이게 하여, 너희의 우상들이 땅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무엇인가? — 세상, “육신”, 과학, 종교적 광신, 악덕, 돈이다.

55. 모든 영혼 안에 빛이 비추게 되면, 너희는 세상과 과학이 너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최고의 완전함일 수도 없으며, 오직 너희가 완전한 영이신 그분께 한 단계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길에 놓아두신 수단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56. 엘리야는 길을 닦는 자요, 예언자요, 사자이다. 나는 내 과학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통해 다시금 증명해 보일 빛이다. 그러나 시련의 순간이 닥치고 사방에 황폐함이 퍼질 때, 엘리야는 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의 과학을 동원하여 거침없이 몰아치는 자연의 세력을 막아라. 너희의 힘을 사용하여 폭풍우의 분노를 누그러뜨려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의 힘과 지혜를 인정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과학을 초월하는 힘과 지식을 불어넣고자 하며,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

57. 이제 엘리야의 검지가 너희를 가리키고, 그의 목소리가 너희를 부르는 때이다, 백성아. 새로운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기도의 진리와 영성화의 힘을 증명하라.

58. 너희는 영적인 방식으로 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시련들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훈들의 의미, 곧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그 부르심의 진정한 이유는 여전히 충분히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9. 비록 사람들은 신의 공의에 두려움을 느껴 자신의 그릇된 길을 깨닫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영혼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는 유일한 것인 빛이 있는 진리의 핵심에 이르지 못했다.

60. 나는 너희에게 이 빛의 시대에 과거의 모든 신성한 계시들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순례의 여정인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고, 무수한 경험의 길을 걸어오면서, 영적인 것과 접촉하고, 양심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61. 인간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운명적으로 맡게 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설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업적들은 영의 영감을 받고, 양심의 지시를 따르며, 감정에 반영되는 것들이다.

62. 언젠가 수많은 영성가들이 단합되고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들의 발자취는 지상에 빛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 공동체는 인류에게 마치 큰 형과 같아서, 작은 동생이 일어서도록 돕기 위해 너그럽게 손을 내밀 것이다.

63. 나는 너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품의 거친 부분이 누그러지도록 사랑 어린 말로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내일은 바로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나의 사역을 알리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의 섬세한 현을 울리고자 한다면, 너희는 큰 진심을 다해야 하며, 모든 행위에 사랑과 자비가 스며들어야 한다.

64. 말 없는 기도, 즉 생각이자 감정이 되는 기도를 통해 나와 영과 영으로 교감하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나의 신성한 현존에 가장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이다. 내일 여러분은 이 모든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새로운 제자들은 지금부터 나의 가르침이 전한

바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실로 가르치고 선한 본보기로 설교할 때, 인류는 여러분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귀머거리이고 생명이 없는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마침내 오직 영적인 세계에만 거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원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65. 기도는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난파당한 모든 이들의 구명정이다. 왜냐하면 바르게 기도할 줄 아는 자는 힘을 얻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느끼며, 평화가 올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다.

66.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 중 많은 것은, 가장 큰 괴로움이 닥칠 때 너희를 위협하는 위험들로부터 경고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너희는 영적 존재들의 군대와 항상 연합해 있는, 빛과 평화의 나의 군대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수호자이자 보호자가 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무리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임무는 가장 높은 목표, 즉 우주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조화로부터, 이 공동체를 무적의 존재로 만들 힘이 태어날 것입니다.

67.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며, 말하고 이해하는 데 서툰 이들은 진리와 생명이 스며든 말의 흐름을 자유롭게 구사하게 될 것이다.

68. 나는 이미 그 길에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준비된 자는 그 걸림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직 지금,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잠들어 있는 자들만이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길에 나타난 바위들이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69. 기도와 명상, 기쁨과 고양된 마음은 너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스며들어야 할 가치들이다. 그래야만 너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70. 내가 지난 모든 시대를 통해 너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고 말해 온 이유를 깨달아라.

71. 지금 나는 너희에게 양식이 될 빵을 건네고 있다.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안에는 영생이 담겨 있다.

72. 내 가르침으로 너희를 곤경에 빠뜨리기보다는, 너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의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 나는 너희를 나의 평화의 장소로 올라오도록 초대하며, 그곳에서 너희는 나에게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헤아릴 것이며, 엄하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고통이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나는 바로 너희 가운데서 이웃에게서 자비도 이해도 얻지 못한 자들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곧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한다.

73. 나는 너희가 말하기를 너무 서툴게 느껴서 내 일을 증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의 이성과 입술을 단련시키고 있다. 너희가 사랑을 느낀다면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74.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얀 종이를 한 장을 주며, 그 과정에서 양심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언제 너희 아버지를 공경했고, 언제 그분께 불순종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75. 너희는 오늘 나에게 간구하거니와, 내 사랑이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랴? 그러나 너희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 쓴 잔을 마신다면, 나를 탓하지 말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담긴 잔을

마시게 하지 않았는지 묻지 말라. 평화를 얻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한 것은, *너희가* 길을 선택하고 너희의 공로로 나에게로 나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왜 너희는 선한 제자들을 본보기로 삼지 않는가? 왜 너희는 족장들의 삶을 살지 않는가? — 그것은 너희가 아직 너희의 행실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6. 베풀어라, 너희에게는 언제나 베풀 것이 있다. 부유한 구두쇠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병든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어리석다고 여겨 쫓아내지 마라. 굶주린 자들을 경멸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들의 고통을 깨닫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고통을 치유할 사랑의 연고를 주었다. 자비를 베풀 때 나를 닮게 된다는 이유로 비판받을까 두려워하는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의하고 이기적인 인류를 무엇이 그리 두려워하는가? 와서 나의 변함없는 법칙을 따르고, 나의 영의 정수를 마시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느껴라.

77. 진리는 나의 사랑과 빛, 그리고 정의의 왕국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율법이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진리는 너희가 마침내 위대하고, 행복하며, 완전하고, 불멸하게 되도록 나의 사랑이 미리 그려 놓은 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3

1. 제자들아, 내 말씀을 간직하라. 이미 이 나라에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나는 지금 너희에게서 고통과 질병을 제거하고 있으니, 너희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라.

3. 내 가르침은 이를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쁨을 채워 줄 것이다. 그것은 목마른 입술에 맑은 물이 되고, 굶주린 자에게는 양식이 되며, 지친 영혼에게는 안식과 평화가 되고, 모든 이에게는 용기와 빛이 될 것이다.

4. 나는 통치자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님을 갈망하며 다가올 그 무리들에게 두 팔을 벌리도록 하리라.

5. 어떤 이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게 올 것이며,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올 것이다. 고통이 그들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들의 양심이 말하여 모든 영혼에게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이를 위해 구원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두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믿음이 깨어날 때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왜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6. 내가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제2시대에 말했던 것을 지워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잊었기에 상기시켜 주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설명해 주려는 것이다. 나는 그 당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고, 너희 영혼이 성장한 이 현시대를 위해 아껴 두었던 것만을 너희에게 계시할 뿐이다.

7. 사랑과 피와 눈물로 나의 말씀을 기록한 이들은 자신의 기억과 영감에 순종하였으며, 나의 뜻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이들이 등장했고, 나의 말씀은 왜곡되었으며, 그 본래의 의미는 나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이념과 숭배 형식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빛은 나의 진리의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장막을 찢어 버립니다.

8. 나는 너희에게 내 사역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지 말고, 부당한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이다.

9. 오늘 내 식탁에서 떡을 먹는 많은 이들이 내일은 오직 자신의 물질적 안락과 권세, 그리고 찬양만을 추구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0. 이 대의를 위해 깨어 있을 충성스러운 제자들아, 너희의 싸움은 험난하리라. 나는 이 책임을 짊어질 14만 4천 명을 준비된 자들로 남겨 두리라. 그들 중에는 내게 등을 돌릴 자들, 곧 내 이름을 빌려 “여기 스승이 너희 앞에 서 계신다” 라고 말할 자들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제때에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도 있을 것이다.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로 향하여 미혹당하게 될 것이다.

11. 검손을 실천하고 동료들에게 아첨하지 말며, 그들이 너희에게 아첨하는 것도 허용하지 말라. 너희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욕망으로 너희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로부터 등을 돌리라.

12.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권세는 너희가 영적인 일, 즉 사랑과 자비의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13. 결코 내 가르침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지 마라.

14.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백성아. 내가 너희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겨 주어, 1950년까지 너희가 평안히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리라. 이 시기에 내 재림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가 ‘찢겨 나간다’ 해도, 내가 너희를 변호하리라. 너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그 문을 열어 줄 것이며,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단 한 가지만 말하노니, 내 율법을 지키고, 이윤 추구와 비밀주의에 빠지지 말라. 병자를 고치기 위해 부름을 받으면 자비를 베풀고, 너희의 행위가 영적인 것이 되도록 주의하라.

15. 제2시대, 제가 떠나신 후,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께서 남으셔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셨다. 제자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마리아의 사랑 가득한 마음 속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녀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했고, 신성한 스승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격려를 받아, 그들은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마리아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그들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제3의 시대에,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마리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6. 너희는 점차 마음을 열어 나를 느끼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따를 줄 알라. 나만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를 부당하게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의로운 일이나 부당한 일은 나의 정의에 맡겨라. 오직 나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며, 심판할 권리는 오직 나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나는 이 길로 들어오도록 초대한다. 그러면 그들은 곧 내게로 올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첫 번째 인간의 양심에 새겨 넣었고, 그 후 모세를 통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린 바로 그 율법과 같다.

17. 너희 동료들의 말이 내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말에 이끌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빛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며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거창한 표현은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단순하게 말해 왔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면, 그 핵심, 즉 사랑과 자비와 평화, 즉 나에게 속한 것을 취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심판자를 주었으니, 그분은 바로 너희 자신 안에 계시며, 그것은 양심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명상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참된 지혜와 고양된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18. 세상은 너희를 실망시켰고, 오늘날 너희는 그토록 하찮은 존재들을 통해, 소박한 모임 장소에서 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궁전을 지을 필요가 없으며, 내 가르침을 제한하거나 물질적인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 제3의 시대에 세상에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 너희는 다시 한 번 권능으로 충만한 빛의 영으로서 육신을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바로 이 은총의 선물들 때문에 너희 동료 인간들은 너희를 오해했다. 그들은 너희의 믿음과 나에 대한 신뢰를 비웃었으나, 내가 누구도 편애하지 않았으며, 모든 이를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회개의 마음으로 내게로 온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너희의 회개를 통해 너희는 병든 자들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사랑과 자비의 선물을 전할 자격을 얻었다. 너희의 믿음은 말을 할 것이며, 쇠약해진 이들에게 힘을 채워 줄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잃어버린 아들들”이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며, 나는 그들의 귀환을 기리며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가족의 마음은 고양되어 계속해서 더 많은 마음을 끌어당길 것이다.

20. 내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에게 헌신함으로써 지혜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를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라. 그를 통해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며, 그 은혜는 너희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1. 시기심은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 너희 모두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나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22. 너희의 이성을 활용하여, 모든 피조물의 운명에 얼마나 많은 정의가 담겨 있는지 깨달으라.

23. 너희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기이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해 놓은 목적이 있다.

24. 내 율법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라. 기도를 통해 너희 영혼이 내게로 나아가게 하여,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치유의 힘이 가득 차게 하고, 너희의 병든 몸을 치유할 치유의 연고를 받게 하라.

25. 너희가 준비하면 세상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닥쳐올 전쟁은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은 너희 자신 안에서 메아리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남을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재어질 것이다.”

26. 와서 내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라. 그리고 먹은 후에는 굶주린 자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라. 내 말씀에서 정수를 추출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여 힘을 기르며 형제자매들과 나누라.

27. 너희는 이 땅의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평화의 장소를 짐작하고 있다. 너희는 끊임없이 나에게 그 “약속의 땅”의 빛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곳에서 멀지 않았으며, 그곳으로 이끄는 길 위에 서 있고, 너희가 그 성문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28. 그 길은 나의 법이다. 너희가 이를 따를 때, 너희는 약속의 도시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여정에서 용감하고 덕을 갖추며,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어 너희 삶의 길을 행복하고 견딜 수 있게 하라.

29. 너희는 운명의 시련을 겪어 보았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정함을 느낄 때 추위에 떨며, 나에게 너희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너희는 절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며, 너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너희가 겪고 있는 밤의 별이심을 알기에 신뢰하며, 그로 인해 용기를 얻는다.

30. 이 교감의 순간에, 여러분은 슬픔에 잠겨 평화를 갈망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조용히 나에게 맡기며, 나는 여러분을 나의 은총을 전하는 청지기로 삼아, *여러분이* 그 은총을 가족과 모든 이웃에게 전하고,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사자이자 이웃을 위한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31. 너희가 이웃들에게 환영받고 그들이 너희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그들을 불타는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무한한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깨우시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32. 나의 현존을 믿는 자들을 환영하라. 의심하는 자들도 환영하라.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이끌려 이곳에 왔으니, 그들 안에도 믿음이 깃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 이 시대에 자신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분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비록 이 시대가 빛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사방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너희는 내 말씀을 통해, 내가 세 번째 오실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이 나라를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비밀을 남기지 않으려는 스승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비밀 그 자체였다. 너희가 질문하는 이들에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밝혀 주겠다.

나는 이 땅의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나를 찾고 사랑해 왔음을 보았으며, 비록 그들의 경배 방식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의도와 사랑을 순결과 희생, 그리고 고통의 꽃처럼 받아들였다. 나의 신성의 제단 위에는 이 향기로운 꽃이 항상 놓여 있었다.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마쳤다.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생시켰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존재 속에 살아 있는 씨앗과 너희를 인도하는 내면의 빛이, 내가 이미 제1시대에 야곱의 집안에 내려주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34. 너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지니고 있다. 너희는 인류에게 그들과 열매를 선사할 그 축복받은 나무의 가지들이다.

35.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장자’ 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이 시대에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통해 세상에 나의 세 번째 계시를 선포한 이유이다. — “ 이스라엘 백성” 이 영적으로 인류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그들이 참된 “육신의 부활” 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36. 그렇다, 제자들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단지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저 세상, 즉 우주로 날아갈 뿐이다. “육신” 또한 사라지지 않고 썩어 “자연의 원소들” 과 섞이게 되며, 나는 그것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영혼을 불어넣는다.

37. 이처럼 육신이 부활하고, 육신을 입은 영혼들이 사람으로 변하여 지상에 나타나듯이, 나 또한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새롭게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땅을 주지 않을 것이며, 지파로 나누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들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그들 사이에 대대로 이어져 온 분열을 없애 주겠다. 나는 르우벤의 자손들과 유다의 자손들, 아셀과 스불론의 자손들, 납달리와 베냐민의 자손들을 서로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모든 분열을 사라지게 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8. 나 외에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낼 수 있겠느냐?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가나안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단지 그 상징일 뿐임을 확신시켜 줄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 오직 나뿐이다. 너희의 영혼을 다른 인종이나 다른 나라에 숨겨 두신 분은 바로 나이며, “너희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신 것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맡겨진 크고 수행하기 어려운 사명을 지상에서 완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십자가이다.

39. 또한 너희는 오점을 씻어내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빛을 갹기 위해 돌아왔다.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다시는 연약함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고통은 너희로 하여금 빛과 평화를 찾게 했다.

마찬가지로, 밀이 부족하여 너희 땅에 빵이 없던 그 초창기에, 너희는 풍요로운 이집트로 이주했다. 훗날,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 너희는 길을 떠나 사막의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섰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 모습으로 나를 찾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분노를 맞서 견뎌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고양과 영성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40. 여러분은 “탕자”와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그를 상석에 모십니다.

41. 너희는 긴 여정 끝에 지쳐 도착했고, 너희 영혼은 더러워졌으며 육신은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멀리서 “도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은 너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내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내 새로운 오심의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기 위함이었다.

42. 과거에 너희의 조국이었던 가나안에서 지금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시대도, 그리스도의 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말씀을 듣고 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나에 대한 믿음을 불태웠던 첫 번째 시대의 그 만나와, 두 번째 시대에 내가 식탁에서 너희에게 건네주며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던 그 빵은, 너희 영혼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빛을 얻고 다시는 굶주림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이 시대에도 제공하는 양식이다.

43. 내가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영적 순수함을 활용하여, 다른 시대에 이 백성 중에서 족장들과 예언자들, 사자들, 사도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나의 대변자들과 새로운 예언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고 있다. 오늘 나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설명해 준다. 나는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한 인류의 형제자매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44. 그때 내 새로운 제자들이 강해지면, 내 왕국의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내려올 것이며, 그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마음에서 비롯된 악, 우상 숭배, 거짓말, 그리고 모든 어둠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45. 너희 아버지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뿌리에서 나온 자라면, 나의 평화를 불러오고 그것을 너희 이웃들의 마음에 전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임을 깨달아라.

46. 백성들아: 이 시대에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도 있고, 기독교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감하거나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르침을 익혀서 좋은 목자와 좋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되라. 땅을 일구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씨를 뿌린다. 자라는 시기가 좋았고 씨앗이 잘 자랐을 때, 그들은 기도를 드리며 창조주께 감사한다. 날씨가 험악하여 씨앗이 썩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음 해를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다시 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려, 이전의 씨앗을 보충하고 배가시킬 때까지 계속한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활용하여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려 나선다면, 내 은총의 이슬이 내 권능으로 불모의 밭을 비옥하게 만들 것이며, 사랑과 선의로 뿌린 여러분의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파종을 지켜 주겠으며, 내 영의 찬란한 태양이 이삭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너희의 수확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의 노래 속에서 거두어지도록 하리라.

47. 이 나라를 폭풍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나임을 명심하라. 나는 이 나라를 평화 속에 보존하고 있으니, 이는 나의 높은 뜻에 따라 이 시대에 인간적·영적 차원에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48. 혼돈이 닥칠 것이다. 땅 위에 권력자와 제국이 존재하는 한, 권력 다툼과 적대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평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9. 사람들 사이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나의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진정한 형제자매도, 부모도, 자녀도 없기에 혼돈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50.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나로부터는 어떤 악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혼돈은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속삭임에 이끌린, 내적 준비가 부족한 인간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나 너희는 — 너희의 굳은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라며 이 모든 시련이 닥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 아니,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고, 지금부터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공덕을 쌓고, 스스로를 새롭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깨어 있으라’, 기도로 나의 축복을 끌어들이고, 동료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나의 법에 충실하라.

51. 나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나 나의 가르침을 나누게 될 것이며,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52. 나를 둘러싼 모든 영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이룹니다. 인류의 미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백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의무를 다한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53. 너희는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해 훈련시킨 최초의 전사들이다. ‘위대한 도시’의 첫 번째 돌들을 단단한 땅 위에 놓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해야 할 자들이다.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나는 1950년의 마지막 날까지 내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이며, 그 후에는 너희가 인류 가운데 남아 너희의 권능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54. 나는 영적 삶의 신비를 파헤치고자 갈망하며 고군분투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들은 너희가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의 계시를 소유하고 있고, 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기에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내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일 것이며, 너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게, 내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또는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면 그렇게 말할 것이며, 내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하늘을 향할 때, 내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나를 섬기던 장소와 사람들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들은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나, 여러분은 그들에게 오직 내 가르침의 핵심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너희 말의 진리를 통해 이 백성의 일원이 될 것이다.

55. 이 백성의 길은 길었다. 나는 항상 그 가운데로 목표를 가리키고 율법의 수호자가 될 강하고 열정적인 영적 존재들을 보내왔다. 그러나 세 시대에 걸쳐 시련과 재앙, 투쟁을 겪으며 단련되어 온 이 백성-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며, 한때는 자유로웠고 또 한때는 포로가 되었으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다가 그 후 사랑받고 인정받기도 했던-은 언제나 나의 특권을 누려왔다.

56.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었다. 너희는 갈보리 산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럴 자격이 있을 때에는 내 정의의 엄격함도 받았다. 너희는 세 시대에 걸쳐 나를 영접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오늘날도 제2시대와 마찬가지로, 나는 겸손한 자들과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나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하였다.

57. 너희는 인간이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나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사명을 잊고, 내가 그의 육체의 생명과 활력을 위해, 그리고 그의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 그의 봉사, 즉 그의 이성 능력의 경험 영역 안에 두었던 자연을 경멸한다. 사람은 자신 안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 즉 내가 항상 찾아온 이유인, 나에게 속한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습이 변하듯이, , 사람도 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물질적인 그의 이상은 영적인 목표로 변모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그 시련 속에서 영혼은
정화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58. 1866년부터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나는
그 시대에 선택받은 자들을 차근차근 준비시켜 왔다. 이
백성에게 사명을 부여하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확증해 주었다. 나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가 속한 지파와 그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었다. 나는 나의 영적 군대를
하나로 모았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이들은 육신으로,
다른 이들은 영으로 모였다.

59. 나는 각 공동체마다 대표자가 있도록 지도자들을
임명하였으며, 백성이 강해지도록 모두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60. 나는 내가 훈련시킨 피조물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인류에게 나를 계시할 대변자의 임무를 주었으며, 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도록 그들의 수를 늘렸다. 나는 영적 세계가 인간과
소통하며 치유와 조연을 통해 자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일꾼”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였다.

61. 나의 뜻은, 모든 모임 장소에서 지도자의 조력자이자,
지도자와 임무를 맡은 자들 사이의 중재자이며, 백성의 신뢰받는
인물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을 “초석”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62. 나는 선지자들을 임명하고 훈련시켜, 그들이 환상을
받아 백성들이 이를 해석함으로써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63. 나는 기록을 담당할 자들에게 “금 붓”이라는 사명을
주었다. 나는 그들의 지성을 단련시키고, 다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지켜왔던 영적 존재들을 그들의 보호자로
보내어, 나의 말씀이 인쇄되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하였다.

64. 나는 교회의 질서를 감독할 “수호자”들을
양성하였고, 그들을 “기둥”이라 불렀다.

65. 나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며, 나의 영감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제 나는 이 직분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직분이 내포하는 바를 이해했는지 묻는다.

66. 나는 너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노라. 그 후 이 직분들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너희 모두는 “신성한 발의 일꾼”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내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자들 이 너희에게 맡겨져 너희가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4

1. 인류여, 너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빛으로 올라갈 때가 왔다.

2.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가 너희를 무기력함에서 끌어내게 하리라. 깨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 임재를 느낄 수 있겠느냐?

3.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 세상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 교훈은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비록 내가 영으로만 너희와 함께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드러내 온 방식보다 더 높은 계시의 형태임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는 내가 너희를 과거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유능하다고 여긴다는 증거이다.

4.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육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내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 반드시 인간의 목소리가 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스승이자, 심판자이자, 의사로서 제한 없이 너희 곁에 모시게 될 것이다.

5. 너희 영혼은 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능력과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까지도 너희 본성에 존재하는 그 능력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나를 보고, 너희 귀로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는 순간 영감의 빛이 너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때, 이 생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6. 너희는 아직 빛이 없는 영혼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서 영감, 고귀한 사상, 순수한 감정, 선한 행실의 형태로 빛의 불꽃이 뿜어져 나오게 할 것이다.

7. 너희는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아서, 영적인 삶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에 너희는 일어나 나를 따르고, 나의 진리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8. 매일 지구상의 민족들을 뒤흔드는 그 사건들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와 기도, 기억과 정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정의의 외침이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간은 사람들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누그러지고, 그들이 오만과 불경함을 버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구상에서 들리는 것이 항상 정의의 부르짖음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류가 정화되었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신성한 영감과 영적 계시들이며, 자연의 계시들이 될 것이다. 어떤 것은 너희 영혼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 다른 것은 세상에서의 너희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9. 사람들이 더 많은 은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은사나 미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고귀해지고, 영혼이 이웃에게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며, 믿음의 씨앗을 가장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들판”과 “밭”은 비참함과 고통,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에 굶주린 이 밭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단 한 알의 씨앗과 약간의 비만을 기다리고 있다.

10. 현재 지상에서 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죄의 확산과 적대감 및 정욕의 거센 물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사람들이 선과 의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11. 큰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보느냐? 그들의 법과 교리가 가진 힘을 아느냐? 과학자들이 무모하고 오만하게 자연의 신비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오만과 능력, 그리고 모든 지식을 품은

채로 내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업적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의 파급력, 과오의 무게, 그리고 그릇된 길로 빠진 정도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이 말을 통해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이웃을 위해 이룬 선한 일은 너무나 적고, 행한 선행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정의의 저울에서 더 무겁게 저울질되는 불의와 악을 내 법이 심판하는 편이 낫다.

13. 인류에게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신성한 심판자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 그분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아직 주어져 있다.

14. 그동안 나의 빛은 전진하며 퍼져 나가, 모든 곳과 모든 영혼 속으로 스며든다.

15. 내 뜻은 — 이 계시의 때가 오면 — 내 표식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미 준비되어, 깨어 기도하며 내 오실 시간을 기다리고, 내가 너희에게 계시할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의 몸과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진정한 형제애를 찾지 못하였노라.

16. 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백성은 동료 인간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스승으로 만들어야 한다.

17.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단지 땅 위에서 사는 너희만을 깨우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의 세계들에서 길을 잃은 모든 영혼들도 부르셨다.

18. 영적 존재들이 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꺼이 순종하는지 보았노라! 육신에서 해방된 그들의 영혼은 이 시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는 데 더 수월했다.

19.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긴 속죄의 시간을 거친 후, 그릇된 생각과 잘못에서 벗어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여섯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일곱 봉인’의 책 일부를 계시해 주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고양되었고, 그 고양된 상태에서 그들은 너희를 격려하며, 너희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자로서 너희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부여해 주었다.

20.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율법을 탐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인류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존경과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너희 뇌의 수용 능력에 맞춰 말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온전한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전한 이 간결한 말씀에 너희의 이성에서 비롯된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되며,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신성한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21. 이 어려운 사명을 수행할 때, 너희의 뇌가 내 빛을 온전한 선명함 그대로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도록 준비하라.

22. 나 곁에서 살라. 나는 생명이며,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자 끝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와 같은 사명을 맡긴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3. 마음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24.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믿음과 영적 힘을 스스로 느낀다면, 고아원과 빈민원으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고, 넓은 땅을 누비며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 길을 준비하리라.

25. 깨어 있으라. 양의 옷을 입은 많은 늑대들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를 현혹하여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너희는 그들의 마음속 의도를 알아차릴 것이다.

26. 너희 이웃들이 고통 속에 다가와 너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을 베풀어라. 그러면 나중에 저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베푼 것보다 더 큰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27.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의 기도는 마치 태초에 성전에서 너희의 시편이 내게 닿았던 것처럼 내게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났고, 너희의 영혼은 성장했다. 예루살렘의 위대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내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물질적인 형태는 돌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8. 언약궤도 없고, 제단 위의 율법석도 더 이상 없다. 너희의 영은 과거에 믿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나를 경배하도록 가르쳐 주었던 형상과 상징을 넘어 진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 영은 그 의미가 영으로 이해되었으므로, 그것들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 상징들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신성한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물질적인 대상들에 불과했다.

29. 그러므로 제자가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더 높은 영감과 더 영적인 예배에 대한 갈망 속에서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옛 예배 형식을 잊어야 한다.

30. 명심하라: 나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라도 눈앞에 두어야만 한다면, 너희는 신성한 영과 직접 연결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영과 영 사이의 이 대화를 사용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달아라.

31. 이 생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반영이며, 이해될 수 있도록 물질적 형태와 사물을 통해 설명되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32. 너희는 아직 그 경이로운 교훈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인간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마치 영원인 양 여겨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류를 범해 왔다. 인간은 삶의 겉모습에만 머무르는 데 만족해 왔으며, 그 안에 담긴 신성한 계시, 즉 온 창조물에 내재된 본질과 진리를 모두 거부해 왔습니다.

33. 이 “책”이 영혼 속에 빛을 남기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해되었을 때, 인간은 지구를 떠나고, 그의 영혼은 새로운 안식처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로 깨닫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물질 세계에서의 삶을 통해 계시된 수많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4. 너희 스승께서 그토록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전하신 이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 빛을 통해 너희의 행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파헤쳐, 앞으로는 이를 피하고 너희의 발전의 길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35. 내가 지상의 내 백성에게 맡긴 사명은 위대하고 매우 까다롭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대에 그들을 찾아가 내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율법의 내용을 조금 더 계시해 주었다.

36. 사랑과 선행, 그리고 정의의 법은 내가 모든 시대에 그들에게 물려준 영적 유산이었다. 교훈을 하나씩 전해가며, 나는 인류가 그 법이 단 하나의 계명, 즉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일부인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명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37. 사랑은 지혜와 위대함, 권능, 승화와 생명의 근원이며 시작이자 씨앗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창조주가 영혼이 단계마다, 거쳐마다 나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 둔 참된 길이다.

38. 만일 인류가 태초부터 우상 숭배의 의식과 종교적 광신에 빠지는 대신 영적 사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면, 오늘날 사람들의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인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이 세상은 영혼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찾아오는 평화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이며, 이 생을 마친 후 영혼이 그 여정에서도 달해야 할 영적 고향에 이르렀을 것이다.

39.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시대에도 인간에게 내 율법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인 신성한 불꽃으로부터, 그의 영혼에 빛의 불꽃 하나, 그의 이성엔 직관 하나, 혹은 그의 마음에 예감 하나가 결여된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혼은 눈앞에 어두운 눈가리개를 두른 채 저 세상으로 돌아갔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련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담고 있는 교훈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속죄를 완수하고 무엇보다도 배우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40. 너희가 지상 생활의 의미,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대다수의 신자들은 어느 정도 의롭게 살거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그로 인해 평생 동안 율법을 꾸준히 지키지 않게 되며, 결국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영적 세계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상상했던 기적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믿었던 지극한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41.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존재들이, 정작 그곳에 가보니 혼란스러운 것들만 마주하게 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육신의 거점이 없어 더 이상 지구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영적 빛의 영역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없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이지도 않고 깊이 영적이지도 않은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자 영혼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천국인가? *이것이* 영혼들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한 끝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처인가?”

42. 아니요 — 다른 이들은 말한다 — 이곳은 오직 빛과 사랑, 순수함만이 존재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일 수는 없다.

43. 점차적으로, 사색과 고통을 통해 영혼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영혼은 신성한 공의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영의 빛에 비추어 과거의 행실을 판단하며, 그것이 보잘것없고 불완전했으며, 자신이 믿었던 것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이러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겸손함이 드러나고,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 오점을 지우고, 실수를 만회하며,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공덕을 쌓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

44. 인류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야만, 물질 세계에서의 삶이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할 수 있다 — 그 공덕은 영혼을 고양시켜, 더 높은 영성 영역에서 살 자격을 얻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뒤처지지 않고 단계별로 계속 상승하기 위해 다시금 공덕을 쌓아야 한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기” 때문이다.

45. 너희는 아버지의 영원한 법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랑을 통해 이러한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영혼은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알게 될 것이다 — 영혼의 완전함 그 자체인 참된 천국으로 말이다.

46. 평화와 사랑의 길을 찾기 위해 내게 오는 너희를 환영한다. 나는 그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사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47. 제자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싸울 것이며, 너희 스승 곁에서 일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너희를 산 정상으로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너희는 겸손함으로 내 곁에 머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저러한 선물을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그분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48. 너희는 영혼 속에 빛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 준 시련의 길을 이미 멀리 걸어왔기에, 더 이상 존경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위대해지려는 허영심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49. 나 외에 누가 영혼을 다스리고 그 운명을 이끌 수 있겠는가? —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자는, 자신의 성향과 취향, 권력욕, 허영심에 따라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다 — 물질과 저급한 정욕, 비천한 감정이 지배하는 왕국을 말이다.

50. 너희는 영을 복종시킬 수 없으니, 그 안에는 완전한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서 오직 순수함만이 고귀한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오직 선함만이 영혼을 움직인다. 한마디로, 영혼은 오직 진리와 선함으로만 양육된다.

51. 그러므로, 오 제자들아 — 비록 너희가 풍성한 은사를 받았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선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대의에 바쳐라. 그 대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는 온 생애를 그 대의에 바쳐, 그로써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52. 너희가 만들어낸 허영의 왕국을 무너뜨려라. 인간의 정욕을 다스리고, 너희 영혼이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사랑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라. 그 사랑과 빛이 너희에게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삶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분은* 어떤 잘못을 속죄하거나 아버지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오늘 다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내려오셔서, 그들 안에 사랑과 정의, 진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물질주의적인 가르침도, 불의한 법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탐욕을 일깨우거나 그들의 정욕을 부추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혼의 도덕인 사랑의

가르침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53. 너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위대한 영적 존재들이 반항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묻는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거스르는 자들은 아직 진정으로 위대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중 일부만을 발휘할 수 있었을 뿐, 나머지 발전은 소홀히 한 불완전한 영적 존재들이다. 그들의 지성은 발달되었으나, 영혼의 고귀한 감정은 발달되지 않았다.

54. 이것이 바로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던 이유이다. 왜냐하면 땅이 그에게 전해 주는 세속적인 가르침 외에도, 그는 완전한 성숙을 위해 오직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의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55. 너희 인간들아, 수 세기 동안 너희는 지상에서 방황해 왔으며, 항상 너희 정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러나 그 끝이 왔으니, 너희는 이미 영적 해방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 시대에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육체는 영혼의 종이 될 것이며, 영혼은 무한을 고향으로 삼게 될 것이다.

56. 머지않아 너희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니, 그리하여 세상이 너희 삶에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영혼이 너희 존재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리를 허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7.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 이는 너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너희가 힘써 노력하며, 미래에 희망의 빛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8.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으며, 그들이 정화를 이루어 내 제자의 수를 늘릴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59. 영성화가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의심을 떨쳐내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며, 진리의 빛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눈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60. 너희는 이 시기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이제 너희 마음이 알지 못하는 빛을 갇고, 오랫동안 너희 안에 있던 오점을 지우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걸어온 긴 여정에서 너희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이 계시를 아는 너희는 인내와 순종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는 너희를 고양시키고, 너희가 정화를 이루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61.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당분간은 너희가 과거를 알 필요가 없다. 다른 시대에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직관이나 예감만 있어도 너희에게는 충분하다. 반면, 나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빛은 너희 마음속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성장하는 평화와 빛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싹트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와 영혼 사이에 조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62. 나의 빛은 모든 길을 비출 것이며, 각종 종파와 종교들은 그들 앞에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법, 곧 신성한 영의 사랑의 법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을 하나로 묶어 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5

1. 너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가르침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전해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이라고 믿기에,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2. 너희는 말을 전하는 이의 불완전함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신성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이야말로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내일 길을 떠날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했던 이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 계시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의 물질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이자 생명인 본질인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에게 시험을 주었는데, 이는 동시에 깊은 교훈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의 이성을 매개로 하여 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말씀의 겉모습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핵심을 파고들어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지침을 통해 이 백성은 나의 이전 메시지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각 가르침과 본문, 비유의 내적 의미를 영적으로 발견하는 방법, 즉 오직 하나뿐인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나는 이 백성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의 준비가 클수록 대변자를 통한 나의 가르침이 더욱 풍성하고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도 본다. 아, 이 모든 무리가 진정으로 나의 은총에 합당해지는 방법을 추구한다면 — 나의 계시는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내 현존을 믿기 위해 겉치레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솟아오르도록 허용하기는커녕, 물질적인 제단 앞에 묶어두고, 쓸모없는 의식으로 산만하게 하며, 익숙한 전통들로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있어 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너희는 교회의 화려함에 감각을 달래왔고, 오랫동안 너희는 동료들이 만든 예술 작품을 감탄해 왔다. 이제 너희는 영혼이 본래 의도된 경이로운 삶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 안에서 빛으로 충만해지고, ‘ ’ 황홀경 중에 받는 모든 기쁨과 영감을 육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신성을 표현하려 했던 형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투박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5. 너희 영혼은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으므로,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6. 과거에는 너희의 영이 내게 바친 모든 헌물을, 비록 그 안에 많은 무지와 불완전함이 담겨 있었더라도, 내가 받아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순수하고, 진실하며, 참된 것만이 내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

7. 너희가 때때로 나에게 바치는 너희 정원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는 그 선물조차도 내가 받아줄 수 없으니, 그 꽃들은 너희의 작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할 것은 너희 마음의 영적인 꽃들, 즉 너희의 선한 행실, 순수한 기도, 그리고 미덕들이다.

8.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깊이 영적이어야 할 것을 겉모습으로 대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허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오직 용감하고 열정적인 자들의 것입니다.

9. 너희가 마음속의 모든 광신과 우상 숭배를 없애고,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너희는 주님의 참된 제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제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제단 위에서 너희는 너희의 선행이 될 제물을 바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내 눈에는 너희 정원의 꽃들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너희 영혼의 선행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오,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 마음을 열어 내 은총의 이슬이 그 안으로 흘러들게 하라. 나는 이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정원과 같기를 원하노니, 그곳에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며, 바로 그 꽃들을 내가 가꾸고 돌보리라.

11. 백성들아: 내가 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명료함으로 너희에게 경건한 실천과 헌물에 대해 말할 때 —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의 신앙적 신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해서 너희는 고통을 느끼느냐? — “아니오, 스승님” 이라고 너희는 내게 말한다.

12. 그 이유는 내 말씀 속에 어떤 마음에도 혼란이 생기게 하지 않고, 어떤 마음도 슬퍼하게 하지 않는 치유제와 빛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동료들의 눈을 빛으로 열어 주려 할 때,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명료함과 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빛을 남기게 될 것이다.

14. 신성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나를 드러냈다. 이 말씀의 핵심에 담긴 의미 속에서, 나는 온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 의미를 발견한 자는 나를

느꼈다. 반면, 나의 계시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데만 매달린 자들은 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15.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듣고 지극한 경이로움에 빠진 반면, 다른 이들은 조금도 전율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임재를 깨닫지도 못했고, *나*를 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6. 언젠가 이 목소리 전달자들을 통해 내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면, 이 시대의 끝을 애도하는 많은 마음이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했던 선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몰라 잃어버린 이들도 있을 것이다.

17. 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전파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너희는 내 가르침을 들을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이 지닌 신성한 의미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확신과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스승님의 말씀이다!”

18. 너희는 내 메시지에 내면이 뒤흔들려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후회를 느낄 것이며, 오직 너희의 증언을 통해서만 이웃들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19.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들, 영감을 받은 이들, 영과 영의 대화를

예감하는 이들, 예언자들, 그리고 영의 은사와 능력을 온전히 꽃피운 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 너희는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니, 이 나의 새로운 계시 또한 과거의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단 하나의 민족에게만 나를 드러냈을지라도, 그 민족은 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 메시지에서 받은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지녔던 것과 같다.

21. 내 씨앗이 다른 나라들에서 오로지 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가장 큰 힘으로 싹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2. 사랑하는 백성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다른 민족들이 그 증언들을 믿은 것은, 그 증언을 전한 이들이 그들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를 믿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 사도들의 사랑과 겸손, 영성과 믿음에 본받아 그렇게 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은 이 가르침을 진리로 여길 것이며, 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동료 인간들이 내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열망하며 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이를 알게 하려고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3. 너희는 이곳 백성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가장 많이 들었던 자들에 의해 그토록 편해졌던 이 말씀이, 내일 지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마치 오아시스처럼 될 것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사랑,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가진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치유제와 생명, 양식과 빛이 될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24. 오랫동안 내 말씀을 들어왔고, 나아가 이 사역 안에서 임무를 맡아 온 남성과 여성들아: 내 말씀이 너희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라. 너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었으나, 그 씨앗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뿌리는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씨앗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나?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의 보살핌에 맡긴 씨앗에 너희 자신의 씨앗을 섞어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너희 중 누가 이 순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25. 내가 이 말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어떠한 부정직함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그대로 *나의* 진리를 더 이상 뿌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내일 너희의 영혼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이 오면, 그 열매가 바로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뿌린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26. 나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나의 무한한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모든 육체와 모든 형상 안에 있다. 나는 너희 각자에게 있지만, 너희가 나를 느끼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27. 나는 모든 존재를 위한 생명의 숨결이니, 이는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모든 행위에 있어 나를 마음에 새긴다면, 나를 숭배하거나 나와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 흠이나 대리석으로 내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했다. 이러한 오해는 인류를 우상 숭배로 이끌기만 했을 뿐이다.

28.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과 맺고 계신 조화를 예감하게 되며, 내가 모든 존재를 양육하는 본질이며, 너희가 나 자신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29. 너희가 삶의 의미와 영혼의 소명, 그리고 발전의 목적을 이해하는 만큼, 너희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나를 찾기 위해 나에게 부여했던 형상들을 잊게 되며, 수세기 동안 인류가 얽매어 있던 그릇된 신앙적 확신과 잘못된 관념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30. 영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의 발전의 길에서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스승이다.

31. 너희가 선의의 사람들이 된다면, 너희의 삶은 온 창조물의 완전함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너희는 참된 지식의 빛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 행위의 열매는 너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의 육체는 물질로서, 창조물 속의 원자들로 분해될 것이다.

너희는 이를 깨달았으나, 많은 이들에게 영혼의 불멸의 삶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혹은 과학이 증명하는 것만 이해할 뿐이다. 이 지상 생활에서 너희와 함께 살았던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기껏해야 그들이 빛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할 뿐이다. 이에 대해 스승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너희 곁에 있다. 영혼은 아버지께서 저 세상에서 정해 주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곁에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32. 너희는 아직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제2시대에 너희에게 말한 바가 너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즉, 사람은 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순수함에서 아이와 같아야 한다.

33.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빛의 영이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세계는 인간의 이성 기관에 작용하여 이를 인도합니다. 그 세계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빛과 완전한 조화의 세계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하나 되어 창조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34. 그러나 너희는 이 가르침을 알고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계속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제 순수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떠올리는가?

35. 오늘 나는 너희가 ‘다른 삶의 신비’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36. 오직 나만이 이 가르침을 너희에게 계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숨겨진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37. 내가 너희가 나의 성소에 들어가 또 다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감각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눈은 내 현존을 말해 줄 수 있는 형상을 찾았고, 너희의 귀는 세상의 근심에서 마음을 해방시켜 줄 찬송가의 선율을 기다렸으며, 심지어 향과 꽃의 향기조차도 비록 잠시일지라도 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전례적 요소들을 오직 이 예배에 봉헌된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었기에, 교회 밖에서는 나의 현존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느낄 수조차 없었다. 반면 오늘날, 너희의 영적 준비는 육체의 감각을

발달시키는 대신, 육체적 감각과 관련된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너희의 영혼을 깨우는 데서 시작되었다.

38. 너희의 눈은 더 이상 너희에게 신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형상을 찾지 않으며, 너희의 귀는 더 이상 잠시나마 세상의 유혹을 잊게 해주던 그 소리들을 갈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더 이상 내가 오직 그 행위와 그 장소에만 현존한다고 믿기 위해 예배 의식에 참석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39. 오늘날 너희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는 유일한 것은, 내 말씀의 신성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너희의 이성을 맑게 하고 마음을 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를 위해 명상과 기도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0.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할 것이며, 가장 훌륭한 음악조차도 내 말씀이 선사하는 천상의 연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경건한 기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결국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계시를 받는 동안 눈을 감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고양에 대한 지극한 갈망 속에서 물질적인 것과의 모든 접촉을 떨쳐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41. 예전에는 너희가 나의 신성을 위해 세웠던 제단이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날 너희는 그 제단을 너희 마음속에 세웠다. 오랫동안 물질적이었던 너희의 제물을, 이제 너희는 영적인 표현으로 대체했다. 너희는 내 눈에는 너희의 사랑이 너희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과, 너희가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가 예전에 너희의 죄를

씻어내려 했던 참회보다 나에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씻어내려 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2. 나는 침묵 속에서 너희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를 위해 너희가 입술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 나는 다른 죄인의 말을 듣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영 안에 있으며, 내가 듣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며, 바로 그 영혼이 일어나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 애쓰고 있다.

43.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내 말씀을 들었으나, 모두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물론 모두가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모든 시대에 부름받은 이들은 많았으나, 결국 선택받은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는 바와 같다. 바로 제때에 이해하고, 느끼고, 믿는 자들만이 끝까지 남아 나를 따를 준비를 하는 자들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너희는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발전한 듯 보이고,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듯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들이 나의 말씀에서 받은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 사랑이 깃든 영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반면 또 다른 때에는, 교육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심지어 내 말씀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이 내 설교에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들이 보여준 섬세함과 분명히 얻은 이해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겉모습이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서툴러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높은 영적 성숙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44.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항상 첫 순간부터 믿음에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이들이 내면적으로 갈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 혹은 이와 유사한 — 질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내가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오랫동안 불치라고 여겼던 나의 고통에 대한 치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를 치유하신 분이 *그분일까?*”

하지만 내 목소리를 들은 첫 순간부터 믿은 사람들도 많았으며, 심지어 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힌 것은, 내가 드러낸 그 초라함과 빈곤함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의식과 물질적인 교회들의 사치스러운 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한때 내 소박함을 그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허영을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는 허위적인 과시를 피하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자 했다.

46. 내일 사람들이 차분히 내 계시의 방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에 담긴 예언들과 비교하며, 내가 나타난 곳과 내 계시가 펼쳐진 영역—내가 택한 나라와 내가 부른 백성—을 더 면밀히 조사한다면, 그들은 모든 일이 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언들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성취되었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47. 이제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나의 신성한 본질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이해력 범위 내에 있는 말과 개념으로 말하노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신성한 본질만으로도 나를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믿기 위해 너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제2시대의 백성과
같은 백성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자들을
내게 데려와 내 능력을 시험하려 했던 바로 그 백성이다.

48. 나는 어떤 이들은 눈이 멀고, 어떤 이들은
절름발이이며, 많은 이들은 나병 환자이고, 또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영에 사로잡힌 채로 만난다. 너희 모두를 내가
치유할 것이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기적들은 너희의 고양된
영혼 안에서 육체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9. 나사로만이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알게 해 줄 유일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나는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이다.

50. 오, 수많은 사람들아, 여기 내 말씀이 있다. 너희는
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혜의
교훈과 신성한 말씀들을 너희는 이 형태로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다. 1950년 이후에 나를 듣고자 한다면, 너희는 영으로
저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6

1. 지식을 넓히기 위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제자들을 환영한다. 내 가르침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과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찢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숨겨진 지혜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모든 이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그들은 도대체 언제쯤 육신이 주는 쾌락에 싫증을 내게 될 것인가? 언제쯤 이 쾌락들이 영혼의 위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인가? 그들은 죄의 왕국의 속국이며, 정욕의 노예로서, 자신의 길 잃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귀머거리, 눈먼 자, 절름발이, 나병 환자처럼 이 세상을 헤매고 있다.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깨닫더라도, 내 영으로부터 비추는 빛 속에서 그 치료법을 찾지 못한다.

3.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의 많은 나라들, 지상의 민족들 중 상당수가 그러하다. 미덕은 약해졌고, 선한 감정은 사라져 버렸다. 모든 고귀한 감정과 고양된 생각을 불어넣어야 할 인간의 마음은 오늘날 이기심과 악덕, 그리고 타락의 근원이 되어 버렸다.

4.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너희 주님께서,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만연한 악과 싸울 무기를 주기 위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5. 내 가르침이 마음을 찌르고 인간 내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무기이자 빛의 검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악을 물리치기 위한 의지가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며, 너희 영혼을 위한 그 힘을 내 말씀이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가 승자로 서기를 바라는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전투는, 너희의

정욕과 이기심, 감각적 쾌락을 다스리기 위해 너희 자신과 벌이는 싸움이다. 어떤 기회가 닥칠 때마다 너희 내면에서 그 위대한 전투가 불타오르도록 하라.

6. 한쪽에는 선한 의지, 이성,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파멸을 부르는 인간의 정욕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알았다면, 너희가 너희 영혼에게 무익하고 결실 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7. 너희가 족장들과 선지자들, 혹은 나의 사도들을 떠올릴 때, 그들을 비범한 사람들로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너희가 창조된 것과 동일한 본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빛의 길에 머물고, 진리를 지키며, 나의 율법을 항상 준수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업적을 남겼다.

8. 즐거움과 안락함, 혹은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쫓아다니며, 영의 은사에 무관심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드러내는 진리들에 무감각한 그 사람들을 알아보느냐? 훗날 너희는 그들이 참 교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영적 성소로 열망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9. 사람들이 빛을 찾을 곳은 바로 나의 신성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혼이 내면에 간직한 힘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삶 그 자체인 시련의 길을 확고한 발걸음으로 견도록 이끌어 줍니다. 나의 빛을 보는 자는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10. 너희는 내 말씀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승께서 너희에게 명확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신 곳에서도 비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숨길 비밀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빛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다가, 또 다른 때는 계시를 너무 일찍 알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빠진 더러움 때문에, 이미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11. 너희는 너희의 종교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너희의 삶이 그 종교들이 권고하는 원칙들을 따르지 않고, 또한 그 원칙들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이러저러한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2. 너희가 신성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13.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천국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영적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맞이할 것은 바로 그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느낄 것입니다.

14.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맺어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적 고향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언약을 맺으라고 권고한다. 그 공로는 바로, 세상이 어린 양의 피를 사랑의 씨앗으로 받아들였던 이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과 너희의 가장 훌륭한 제물, 즉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내는 순종을 바치는 데에 있다.

15. 영혼의 불멸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죄 속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들의 존재를 소멸시키고 영생에서 배제하며, 대신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6. 그러한 관념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나의 계시 중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그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옳고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은 마치 사랑과 선과 정의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인간이 된 것, 즉 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인간으로서 너희 가운데 머무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내가 죄인들과 병자들, 노예들과 굶주린 자들,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17. 너희의 영적 영혼은 신성한 영을 통해 부여받은 영생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에게서 죽는 유일한 것은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뒤로 남길 껍질, 즉 육신뿐이다. 만약 영혼이 죄를 품고 있다면, 그 죄 또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무지의 어두운 장막은 시든 열매처럼 영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 경험하게 될 이러한 ‘죽음’ 들 각각을 겪은 후, 죽지 않은 채로 더욱 강해지고, 더 자각하며, 더 빛나고, 더 순수하게 승화할 것이다.

18. 여러분은 인생에서 온 존재를 사로잡아 양심과 도덕,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 어떤 육체적 열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는 육신에 거하는 악의 짐승의 유혹과 권세에 굴복하여 영혼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서 벗어나 그 영향력을 극복해 냈을 때, 여러분이 깊은 행복감과 평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9. 이러한 평화와 기쁨은 영혼이 육신을 이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헤아릴 수 없는 투쟁, 즉 ‘피비린내 나는’ 내적 전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양심의 자극과 조언을 받아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기만 해도, 이미 육체의 충동을 제압하고 더 이상 파멸로 끌려가지 않도록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포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에 깃들어 있었으나 여러분의 삶 그 자체는 아니었던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미한 정열에 불과했습니다.

20. 그러므로 깨달으십시오. 사람이 양심의 인도에 따라 모든 행동을 더 높은 계명에 복종시킬 때, 그것은 마치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죽음이란 없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육체를 단지 영혼을 위한 필수적인 외피로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이 진정한 고향으로 떠날 때, 육체는 대지의 품으로 가라앉아 그곳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원한 죽음”은 없으며, 영원한 속죄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해로운 것, 즉 쓸모없는 것과 악한 것만이 죽을 뿐이며, 정화가 이루어지면 속죄도 끝나야 한다. 이미 그 당시에 도 나는 너희에게 내 사역 안에서 아무것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한 나는 내 자녀 중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나아가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함으로써 영혼의 불멸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22.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의 육신의 눈을 감고 “구름 위”에 계신 나의 현존을 느껴 보아라. 너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상적 진동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대변자가 전하는 목소리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상승하면, 나의 영적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오, 축복받은 제3의 시대여, 그 때면 모든 눈이 주님을 뵈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는 무너져 내릴 것이며,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23. 이 시대를 열기 위해, 나는 너희가 나를 더 가깝고, 더 친숙하며, 너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제2시대에도 나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 그들의 곁에서 살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눈앞에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었다.

24.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어나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 공동체의 대다수는 지상의 가난한 이들, 즉 너희가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이라 부르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실 그들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중 그 어떤 것도 결여된 바 없다. 나의 가르침 덕분에 이 사람들은 무기력함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 안에서 영적 성장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서툰 모습은 점차 사라졌다. 직관이 싹트어 그들의 본성을 비추었고, 영감이 그들의 이성을 어루만졌으며, 기도 중에 받은 예지력이 그들의 시야를 비추어, 영적인 것의 베일을 걷어내고 미래가 품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그들에게 드러내 주었다. 치유의 은사 — 단순한 말이나 “기름 부음”, 혹은 생각 자체를 통해서든 — 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으며, 이 사역에 헌신한 겸손한 제자들에게서 다른 많은 능력들도 드러나게 되었다.

25.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그들이 —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음을 느꼈을 때, 온 마음과 열정을 이 대의에 바쳤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으나 알지 못했던 많은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6.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세상의 부를 소유하기만을 갈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이 지닌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27. 만일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마음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이해하며, 가장 사소한 소망조차 파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음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창조주께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세속적이며, 신에 대한 숭배와 영적 발전을 물질화해 버렸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그들의 오류를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겠는가? — 영적인 백성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 백성의 자녀들이 내 가르침이 전하는 그 더 높은 도덕 안에서 살게 함으로써 말이다.

28. 인류는 그들의 과학과 죄, 전쟁, 가르침, 그리고 물질주의를 통해 신의 공의를 도발하였으며, 그들의 모독이 너무나 컸기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위로와 계시, 용서와 평화인 나의 신성한 빛을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비추고 그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이에 응답한 방식이다.

29. 인간은 나중에 마셔야 할, 쓴맛으로 가득 찬 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고통을 통해 그는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마음에 부드럽게 다가올 빛을 가져다주리니, 그 빛은 사랑과 참된 지혜를 통해 너희의 영을 설득할 것이다.

30.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너희 수많은 사람들아, 이 큰 영적 갈등의 시대에 내 빛을 보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라.

31. 잠들지 마라. 내가 이 목소리의 매개자들을 통해서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이 평온을 되찾고, 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고양될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32. 너희가 너희 마음을 인도자로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마음을 다듬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그 마음을 통해 신성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3. 너희만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종교에 따라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영인 내가 슬픔에 잠긴 모든 마음과 영혼에게 평화를 준다.

34. 인간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어 캔버스에 옮겼는데, 창조주의 영을 묘사할 수 없었기에 그분께 인간의 형상을 부여했습니다.

35.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는 언제나 그들의 경배와 번제, 의식과 제물을 받아들여 왔으니, 내게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선한 의도이기 때문이다.

36. 비록 사람들이 나를 묘사한 형상들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알아보는 그 조각상을 바라보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에 담긴 선한 의도가 내게 닿는 것이다.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인류가 이 백성처럼 영성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백성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피상적이고 겉치레적인 것들을 벗어던지고,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나를 품고 있음을,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너희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나와 대화를 나누려 할 때 내가 너희의 생각 속에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38. 이 음성을 듣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육신의 비천함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영혼이 없는 물질인 빵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창조물 중 가장 완전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신의 자녀인 인간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보다 더 기쁘시겠는가? 왜 빛이시며 신성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특별한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인류는 가장 신성한 감정이 수없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단지 *듣기만* 할 뿐,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한다.

39. 형제애와 고귀함의 감정이 솟아나도록, 인간의 마음은 사랑의 끌로 다시 다듬어져야 한다.

40.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굳어져, 이웃의 고통이나 불행을 마주해도 무감각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 원인을 이해해야만, 자신의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41. 사람이 이웃을 판단하는 데 그친다면, 오판만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웃을 돕겠다는 고귀한 의도로 그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고통의 숨겨진 근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42.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믿음이 부족하여 자신의 삶을 건딜 수 없게 만드는가? 그들은 물질적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영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과 그 밖의 슬픈 고찰들은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43. 너희가 장차 제자들에게 줄 첫 번째 교훈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발전의 길에서 첫 단계부터 위로 올라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로, 각 영혼이

완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어떤 육체적 존재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고통받으며, 안락으로 가득 찬 삶도 있고, 또 다른 삶은 괴로움과 속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44. 고통도 없고 큰 시련도 없이 사는 지상의 주민들 때문에, 많은 무지하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나를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45. 너희의 여정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넘쳐날 것이며, 너희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 생이 끝난 후 보상이 있거나 벌이 있는 것이 확실한지 물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필요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 땅에 환생해야 하며, 매번의 지상 생을 이전 생의 진전에 따라 거치게 된다고 대답해야 한다. 때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이고, 다른 경우에는 어떤 죄를 갚거나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46. 그러면 영혼이 지상에서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진 모든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영적 고향으로 승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과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여정의 연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7. 어둡거나 불분명한 점을 남겨 두지 마라. 너희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불신자들의 의심조차도 그들의 생각을 파악함으로써 너희가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나중에 만날 다른 사람들을 논쟁 속에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4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은 인류에게 마치 봄날 아침의 깨어남과 같을 것이며, 메마르고 건조하여

죽음의 밭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세상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49. 내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나아가라. 내 희생이 모든
이를 위해 이루어졌는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 어린 이름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50. 너희 이웃들이 너희가 지금 산기슭에 서서 스승의
생명을 불어넣는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내
말씀은 너희 영혼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51. 나는 흰 식탁보로 식탁을 차리고, 너희 영혼이 힘을
얻도록 그 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올려 두었다.

52. 성령의 빛은 너희 영혼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나니,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었고, 은혜의 삶과는 죽은 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53. 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배은망덕함에 빠졌다. 너희는 빛을 버리고 어둠을
택하였으며, 흰 옷을 벗어 던지고 수정처럼 맑은 물 대신 탁한
물을 마셔 스스로를 독살했다.

54. 나는 제2의 시대에 인간이 되어 너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왔으며, 겸손과 온유함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왔고,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갔고, 너희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55. 오, 내가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한 백성아! 나는 너희를
찾아다녔고, 카타콤베에서 너희를 발견했으며, 너희가 일곱 가지
죄를 키우던 광야에서 너희를 발견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로서 모든 길과 오솔길을 따라 너희를 찾아 나서며,
심연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느끼며, 너희 영혼에 부족한 모든 것을 나에게서 받았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증거를 주었고, 너희를 깨우쳐 주었으며, 나의 가르침이 담긴 책에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다.

56. 오라, 나의 백성아,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라. 올라가는 동안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의 교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산 정상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와 너희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57. 제3시대의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 너를 가르치시고 예언하시는 네 스승의 말씀을 듣고 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백성아? — 내 신성한 은총을 통해 네가 빠져 있는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58. 눈이 있는 자는 보라. 머리가 있는 자는 생각하라. 귀가 있는 자는 스승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내 검지손가락이 지목한 자들이다 — 내가 생명을 불어넣은 죽은 자들 — 내가 시력을 되찾아 준 맹인들 — 내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잃은 자들, 그리고 내가 구명정을 보여준 난파당한 자들이다.

59. 회오리바람에 시달리며 괴로움의 잔을 마시며 파멸에 이르렀던 “탕자”를 위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잔치를 바라보라.

60. 나를 느끼고, 너희 마음속에 나를 모시며, 제2시대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제3시대의 너희에게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노라.

6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칠 195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씀을 풍성히 받았으니, 너희 스승처럼 길을 떠나야 한다. 너희는 인류를 위한 등대처럼 되어, 동료 인간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187

1. 와서 스승의 식탁에서 영생의 빵을 먹으라. 천사들이 잔치를 준비하였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모두를 맞아주신다. 먹고 마시되, 이 음식들이 지닌 천상의 맛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신 뒤, 누구 곁에 있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떠나버리는 어떤 이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2. 오늘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빵은,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두 가지 모두에서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나는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러 오며, 나를 따르려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따르라.” 그들은 십자가가 겸손과 사랑, 자비와 포기,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짊어지는 자는 이미 따라야 할 길을 알고 있다. 나는 내 길이 장미꽃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함으로써 누구도 속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병사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르침의 진리를 보여준 후, 나를 따르는 자들이 삶의 모든 행실에서 충실하고 진실할 것임을 안다. 나의 충실한 자들 가운데는 돈을 받고 일하는 종은 없을 것이며, 오직 열정적인 제자들과 이타적인 추종자들만 있을 것이다.

5. 만일 누군가 이 사역을 잘못 해석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그는 스스로 ‘배신자’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며, 그의 양심이 바로 그 자신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6. 너희는 이미 제2시대의 제자 중 한 명을 통해 고통스럽고 슬픈 본보기를 보았으니, 이를 피하고 어떤 이유로도

따라 하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한때 나의 충실한 자녀 중 하나였던 자가, 자신을 더럽힌 과오를 숨기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 마치 유다가 성찬식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처럼, 그는 곧 신성한 스승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 곁에 단 한 순간이라도 더 머무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를 따랐던 이들은 나의 대의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 오늘, 나의 가르침을 갈망하며 이곳에 온 너희가 나 또한 따르기를 원하노라 —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이나 나의 공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 만이 너희에게 영감을 주기를 원하노니, 너희는 그들을 통해 너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를 사랑하고 찬양하기 때문이다.

7. 만일 내가 두려움이 너희를 설득하기를 원했다면, 내가 단지 원하기만 해도 자연의 힘이 풀려나와, 내가 유일한 전능자임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각자에게 겸손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공덕이 쌓이기를 원한다.

8.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된 이유이다. 인류가 기대하는 과거의 사건들은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인류가 똑같은 교훈을 반복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9. 예수님의 군병들아 -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명을 맡기기에 너희를 이렇게 부른다.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확신을 얻었을 때, 다시 잠에 빠져서는 안 되며, 신학자들이 그들의 질문으로 너희를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밝힌 바가

그 어떤 비밀도 담고 있지 않음에도 말이다. 비밀의 보물창고가 너희의 영 앞에 열렸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점점 더 잘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비밀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그 비밀들을 계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10.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약속했으니, 그 영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이전에 가르친 것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11.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하며, 나중에 실천함으로써 내 제자가 되는 것을 깨달으라.

12.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 말씀을 통해 나를 알아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행실을 통해 너희를 알아본다.

13. 함께하면 너희는 나의 교훈을 더 잘 배울 것이다. 이 가르침은 상세하고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는 말씀 속에 흘러넘치는 아버지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훌륭한 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14. 너희의 세상은 사막이며, 나는 오아시스이다. 너희는 목마른 방랑자들로서 나를 부르며, 정의와 사랑에 대한 너희의 모든 갈증을 내 앞에 드러내 보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순수하고 수정처럼 맑은 물과 같은 내 말씀을 보내 주었노라. 때로는 만나와 같았지만, 언제나 그것은 길고 힘든 사막 횡단 여정에서 너희 영혼을 복돋워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15. 때가 되면, *너희*는 고통받는 여행자에게 그들과 물, 그리고 상쾌함을 베푸는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은 너희 곁에서 마음을 치유할 것이니, 이는 내가 지금 너희를 치유의 연고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6. 지금은 빛의 때이며, 너희 모두는 그 빛으로 옷 입혀졌다. 이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신성의 한 원자가 존재함을 깨닫게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 영혼의 지성은 양심의 인도에 따라 그를 평화로 이끌 것이다.

17. 이러한 은총들은 그를 고통스러운 속죄에서 해방시켜, 완전한 지혜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게 할 것이다.

18.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을 외면하고 인류에게 영적 모범과 영감을 남기기 위해 내 율법의 길을 걷는 많은 내 자녀들을 보아왔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며 오직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던 이 피조물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며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

19. 나는 너희가 모든 시간을 나에게 바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육체는 단지 영혼의 외투나 껍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고통이 솟아나는 육체이다.

20. 너희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너희 이성이 만들어내는 불완전함과 유혹으로 이 육신이 가득 차게 내버려 두었다.

21.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너희의 마음과 감각은 세상에 기울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해롭고, 무의미하며, 부도덕한 것들에 맞서 싸워라. 나는 너희가 수도원에 틀어박혀 세상과 이웃과의 교제를 외면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내 신성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봉사가 잘못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교도가 되려고 애쓰다가, 자연의 법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2. 창조주가 너희에게 부과한 법칙들을 지키라. 어떤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다른 것은 육체에 관한 것이니, 나는 단지 너희가 해로운 것, 오만, 위선을 물리치라고 명할 뿐이다.

23. 오,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을 어떻게 일깨우는지 보아라.

24. 너희는 이것이 이미 이 모습으로 너희 곁에 머무는 나의 마지막 순간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귀중한 순간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에 이를 떠올릴 때,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와 상관없는 일들에 신경 쓰지 말라. 너희 안에 영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나는 너희의 투쟁이 치열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너희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서하도록 가르친 다음, 너희를 인류 속으로 보내겠다.

26. 지치지 마라. 영혼을 위한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너희에게 속죄나 벌로 보이는 것들도, 너희 영혼이 위로 향할 때 보상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은 사랑하고 선을 뿌리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7. 준비된 마음은 향기로운 장미와 같아 그 향기를 뿜어내니, 복이 있도다. 내게로 솟아오를 수 있었던 인간의 생각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복이 있도다.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법을 아는 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이며, 그의 이성은 더 나은 세상을 이해하고 창조할 것이다.

28. 나는 너희가 선이 지배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켰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지고한 것, 즉 영적인 사랑의 파괴에 일조해 왔기 때문이다.

29. 그토록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라.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려라. 더 이상 불만스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갈망하거나 기대하는가? 너희는 이미 영예와 즐거움, 찬사를 누렸다. 어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다른 이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모두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은 채 있는 것을 본다.

30. 너희 스스로에게 공정했는지 자문해 보라. 너희는 지성을 지녔고, 이성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무지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형태가 없는 무한한 곳에서 나를 찾도록 배웠다. 나는 신으로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1. 나는 너희 자신 안에 있다. 왜 사람들은 항상 ‘하늘’이라 부르는 그 푸른 곳에서 나를 찾아야만 하는가? 이것도 너희에게 말해 주마. 나는 그 하늘 너머에 있다. 겸손과 경외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리라.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고로 하나님의 권능이 계신 곳까지 도달해 보았는가? —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르는 길이나 사다리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32. 인간은 아직 자신의 세계인 지구를 알지 못하며, 그 지구의 본질은 여전히 그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둘러싼 이 세계와 같은 세계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러나 내 작품의 일부에 불과한 창조물조차 알려지지 않았는데 —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과학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33. 나는 언젠가 나를 향한 참된 길을 걸어가며 나의 신성한 영광을 보게 될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

34. 이해심 깊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 평화의 사람들이 되라.

35. 너희는 내 말씀이 너희 영혼의 유일한 양식임을 알기에,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너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입에는 쓴 맛이 남아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내 말씀으로 달콤함과 다정함을 베풀고, 모든 것을 채우는 나의 사랑으로 너희의 갈증을 달래 주리라. 그러나 너희보다 훨씬 더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내 계시의 청지기로 남겨, 그 사람들이 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리라.

36. 너희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마지막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너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 스승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진보한 이를 불러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느낄 것이며,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입술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37. 그러나 너희는 머지않아, 1950년 이후 내가 내 말씀을 거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힘을 빌려 너희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해 온,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와 완전히 똑같은 황홀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향해 마음을 드리고

너희 영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며, 그러면 영감이 너희의 이성 속에 깃들게 될 것이다.

38.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경건함, 그리고 준비를 통해 너희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말씀이 진정으로 신성한 영감을 전하는 것이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9. (계시의) 형식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해질지 보라. 사람은 명확함을 원하며, 더 이상 자신이 알 수 없다고 여기는 교훈을 해독하느라 지성을 지치게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계시의 마지막 시기에 너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40. 제2시대에도 스승께서는 (가르침의) 마지막 시기에 가르침을 더 명확하게 하셨으니, 이 마지막 교훈들은 이전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41.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모든 행위가 진리의 불꽃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가르침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보여 주지 말라. 모든 것에는 명쾌한 설명과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하는 모든 것에 있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가르침으로 이웃을 속였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선한 의도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나의 진리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전할 준비가 된 자들만이 나의 사역에 남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자라는 가라지는 비옥한 밭에서 제거될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인류는 성령의 참된 사역을 깨달을 것이다.

42.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나의 제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영적이며 나를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성주의자이기 때문이다.

43. 사람들의 영혼이 물질주의와 전통, 편견, 광신주의를 초월할 때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예배,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선을 실천하는 예배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인류는 완성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선하고 정직한 행동을 통해 나의 사역을 보여 주기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평화의 왕국을 세우는 데 여러분의 씨앗을 뿌려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 씨앗은 다가올 세대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44. 내 밭의 씨 뿌리는 자들아, 준비하라. 밭이 내 가르침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45. 스승께서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을 갈망하며 바다를 건너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 대륙은 형제애와 평화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인종들은 서로 섞이게 될 것이며, 그들의 관습과 사상이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인류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진실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이다. 너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준비를 위한 것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투쟁이 길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순식간에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라져야 할 세상과 이를 대체할 내일의 세상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46. 너희는 아직 투쟁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일의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왔다. 나는 너희가 결심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주며, 인류를 축복한다.

47. 축복을 받으라. 너희는 지극히 높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지식을 넓히려 하고, 영적인 길에 들어설 때 명확히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가 떨어질 준비가 될 때까지는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48. 인간은 자신의 영적 후진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과 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마땅한 삶의 차원으로 승화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방종에 빠져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며, 병들어 “마비된 자” 처럼 비틀거리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조금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49. 나의 가르침과 희생적인 죽음은 거의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이끌고, 절름발이들이 마비된 자들을 걷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슬픔에 차서 지켜보고 있다.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그저 미약한 피조물일 뿐임을 확인한다. 이는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욕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 마음속에 싹트며, 너희에게 해를 끼치도록 내버려 둔다.

50. 너희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성과 의지를 영의 봉사에

바치도록 정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행동과 삶의 주인이 되고 훌륭한 입법자가 되어, 영과 육체 사이에서 벌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성취한다면, 여러분은 선한 의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훌륭한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복했기에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서로를 존중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보다 낮은 존재들, 즉 여러분의 작은 형제들조차도 그때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51. 너희가 “위대한 사람들”이라 부르는, 해방을 이룬 고대의 예언자들이 단지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고귀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투쟁했고 평화와 사랑의 참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얻기 위해 가장 애쓰는 이들도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고양을 통해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적을 물리쳤으며, 그로 인해 그들 안에 있던 빛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52. 너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원리, 즉 이 빛은 나의 신성한 영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보물을 경시해 왔고, 불멸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박탈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이고 힘을 잃어버린다. 나는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느끼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 후 자신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 존엄성을 되찾고, 영의 충만함과 기쁨을 추구하며, 덧없는 즐거움들을 영원히 뒤로 남기게 하려 한다.

53. 항상 나의 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의 힘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세상을 점령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나의 참된 제자로서 일하라.

54. 나는 너희가 나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비나 비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 시기에 너희가 준비한다면, 너희는 나의 신성에 대한 진정한 숭배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율법을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행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 오늘 너희는 비로소 나의 뜻과 지시를 알게 되었으나, 너희가 준비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55. 그때 너희는 나를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어떤 편애도 없이 형제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강하고 순수함을 느끼기 위해 이 땅을 떠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내 약속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56. 식탁이 차려졌다. 자리에 앉아라, 너희의 자리를 잡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대접하게 하라. 나와 함께 진리의 빵을 나누고, 사랑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으며, 너희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57.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울려 퍼지는지 들어보라. 너희의 사랑의 찬가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라. 그러면 천사들의 목소리가 너희의 목소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58. 너희의 고통을 나에게 맡기고, 근심을 나에게 맡기며, 더 이상 그것들에 익숙해지지 마라.

59. 너희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인류도 내 뜻에 따라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진실하게 행동하여, 내 가르침이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주는 열매 덕분에 모든 이에게 인정받게 하라.

60. 내 신성한 말씀은 너희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너희의 영 안에서 울려 퍼진다. 나는 너희가 내일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내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가르침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이 기본 원리는 바로 사랑이다. 게다가 나는 너희에게 이 기본 원리를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을 소유하고, 느껴야 한다.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서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이웃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느냐?

61. 내가 가르침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62.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일 너희가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했노라. 이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나의 말씀이 마치 정교한 끌처럼 너희를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을 — 때로는 너희의 이해력을 어루만지고, 때로는 너희 마음의 현을 울리며, 또 때로는 너희의 영을 통해 그 빛이 너희를 비추게 하노라.

63. 나는 너희의 인간적 본성에 이렇게 말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할 너희의 영에 대해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만들려 한다. 바로 그 영이 이를 위한 힘과 빛을 지니고 있다.

64. 오늘날 나는 인간이 영적 길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과학과 권력, 그리고 정욕의 길을 택했다. 만일 그가 영적 발전, 즉 사랑과 선,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멈춰 서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가 전쟁의 화형을 지켰겠느냐?

65. 영성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만일 사람들이 내 빛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조차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66. 내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 너희는 자신의 공로로만 내게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세상과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았으나, 그것들은 너희를 약하게 만들었을 뿐이며 너희 영혼을 어둠으로 가렸다. 그러나 너희가 지상에서 엎매여 있고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조차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말라.

67.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영적인 영혼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인간으로만 여기는 한, 그는 동료 인간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불화와 전쟁이 존재할 것이다.

68. 사랑이 그 본질인 내 말씀의 보편적인 언어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말씀이 사람들을 서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의 사이에 하나로 묶어 줄 것이다.

69. 오, 백성들아, 깨어나라. 1950년이 되면 내 말씀이 이 대변자들을 통해 끝날 것이며, 그때부터 너희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훗날 그들의 자녀들은 인류의 마음속에 내 가르침을 지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8

1. 이리 오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스승이 여기 계신다.
너희는 내 말씀의 뜻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 나는 너희의 행동을
통해 너희를 알아본다.

2. 세상에서 내 제자들은 그들의 행실의 순결함으로 드러날
것이며, 그들이 의무를 잘 다하고 내 면전에 나아올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였으니,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3. 영성화에 이르기 위해 힘쓰라. 이는 영혼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넘치고 오류가 없는 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 물질적이든 영적이든,은 나의 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4. 창조물 안에서 완전한 작품인 인간은, 창조주가 그 안에
심어 주신 은총에 따라 살아야 한다.

5.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보존과 만족, 그리고 완성을
위해 내가 마련해 둔 세상의 의무들로부터 등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균형 잡히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너희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

6. 나는 태초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였으나, 그의
자유는 언제나 양심의 빛과 함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의 심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의 길에서
멀어져, 마침내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살인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들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인간성,
자비, 존중, 영성이라는 모든 감정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7. 인간들은 고통스러운 속죄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파괴와 전쟁을 피했어야 했다. 너희는 그들이 내게
이르기 전에 선함으로 정화되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눈물과 피의 골짜기로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두라. 왜냐하면 완전함을 거스르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

8. 이 말씀이 어떻게 인류에게 전해질 수 있겠는가? — 내가 과거에 행했던 방식대로, 즉 사자, 예언자, 제자들을 통해 전해질 것이다.

9. 나는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니, 너희가 나의 가르침과 계시를 땅의 모든 곳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라.

10. 오늘 너희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내일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도들의 사명은 이 인류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은 치열할 것이다.

11. 힘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악의 짐승이 수천 가지 모습으로 영혼을 노리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12. 나는 내 말을 이슬방울처럼 너희 마음에 떨어뜨려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 그 길을 얼마나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겠는가! 나는 평화와 나의 빛을 너희의 생각 속에 흘러들게 하니, 이를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3. 스승께서 영적인 언어, 즉 인간을 창조주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의 보편적인 언어로 너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경청하라.

14. 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을 위한 평화의 새로운 여명 같으며, 너희의 길을 비추는 빛줄기와 같다. 너희는 이미 이 목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으며, 점차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 가고 있다.

15. 나는 지금 온 인류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온 세상이 영성화를 알게 될 때이며, 영적 교제의

때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그리스도는 이제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 안에 스며들고 있다.

16.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나를 들은 것처럼 나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영의 투쟁의 시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를 위한 때가 왔음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의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인간이 사고적 대화를 깨닫고 발전시키며, 직관과 영감을 통해 나의 지혜를 받게 될 시기가 올 것임을 이해시켜 주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내게 다가와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라.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하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17. 진실로, 나는 언제나 사람 안에 계셨다. 그러나 나를 느끼기 위해서는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깨어나 내가 그에게 계시한 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는 삶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더 이상 고통과 시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과 감각을 영을 섬기는 데 바쳤기 때문이다.

18.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너희에게는 결코 파멸에 이르지 않을 길을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너희가 거주하는 세상의 한 구조이자, 너희가 숨 쉬는 공기이다. 나는 인간이 더 높은 삶으로 승화하게 하는 힘이며,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은 단지 눈물의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너희가 만족과 기쁨,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 나를 알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20. 너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항상 고통을 통해 정화되어 온 것을 보아 왔다. 이는 너희가 이 생의 덧없음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주는 나의 빛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영적인 표현 방식으로 너희에게 말하며,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인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21. 청중으로서 너희는 이해하고 진전을 이루었다. 너희는 이 계시를 단순히 세속적인 존재의 일부, 즉 겉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갈망하며 깊이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 음색을 귀로 인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말씀의 신성한 울림이 너희 영혼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쳤기 때문이다. 이는 내 신성의 또 다른 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의 “말씀”인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한계가 있는 너희의 이성이 아버지의 무한한 이성과 소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22. 내 은총을 받으며 영광으로 여기는 너희 영혼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은 참된 사랑의 숨결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2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한 번이라도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너희는 천상의 교향곡을 듣기 위해 헛된 허영과 무의미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영성화를 얻게 될 것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지적하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과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할 때 그 완전함에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이 생에서 덧없는 존재인 그 육체가 이토록 놀라운 완전함을 지녔다면, 불멸의 본성을 지닌 영적 영혼의 영광을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25. 바다의 광대함과 너희 행성의 규모에 경탄해 보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모든 경이로운 창조물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한 순간에 그 경계를 넘어 로 너희를 이끌어 줄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그 영혼이 정화되어 아버지의 왕국에 거하게 되면 모든 세계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6. 나를 들은 자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된다. 비록 자신이 창조의 한가운데에 있는 원자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해도,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내면의 기쁨을 느낀다.

27.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는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슬방울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창조물 안에 계시며,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본질이다. 그분은 피조물들 속에서 그분의 작품이 지닌 모든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분의 영감의 결실에 존재하는 행복을 체험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을 말하며, 모든 것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이다.

28. 그분은 삶의 모든 현현 속에 계시니, 이는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9.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 교훈 또한 내 뜻에 따라 후손들을 위한 유산이 될 그 책, 즉 『제3의 성서』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30. 이제 너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제3의 시대가 왔다. 상징을 통해 나를 찾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희 눈앞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만, 새로운 길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씨앗을 파괴하러 온 것도 아니며, 낯선 말들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과거에 내가 남긴 영적 메시지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두 번째 부분에서 중단했던, 이미 시작한 나의 가르침을 이어갈 뿐이다.

31. 그 당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을 때, 의식과 예식을 거행하던 그 백성들을 놀라게 하셨기에, 그들에게 전통을 따르기 위해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내 말씀과 행실로 모든 불필요한 숭배 형식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신성한 율법만을 남겨 두었다. 아무도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부인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나는 내 삶과 행실, 그리고 내 피로 너희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가 오신 시대에 걸맞고, 너희 영혼의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훈들도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지혜가 담긴 위대한 책의 두 번째 부분이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더 순수한 형태의 기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32. 그 당시 너희는 나를 사랑으로 인식했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온 이유를 알려 주었고, 영적인 삶을 계시해 주었으며, 나의 재림과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고, 때가 되면

너희가 나의 세 번째 교훈, 즉 오늘 너희 영 앞에 펼쳐진 그 책의 세 번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된 상태로 남겨 두었다.

33. 나는 전쟁 소식과 사건들, 그리고 내가 오심을 예고했던 징조들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느끼지 못했다.

34. 이 침묵과 비참함, 이 세상의 한 구석 속에서 나는 지금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삶으로 깨우며, 내 설득력 있고 사랑 어린 가르침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 안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일깨워 스승을 따르는 길로 이끌어 올리고 있다.

35. 나는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이 시대에 나는 너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종교적 광신과 우상 숭배에 얽매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동시에 너희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덕이 더 빈곤해진 것을 보았다. 이제 나는 너희가 해마다 이 계시를 통해 나를 들어왔으니 묻노라. 누가 내가 자신의 삶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느끼는가? 누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다고 보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잊어버리거나 왜곡해 버린, 과거에 너희에게 계시했던 것들을 단지 상기시켜 준 것뿐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숨겨왔던 것을 내가 밝혀냈고,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 간직되어 있던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노라. 이 시대는 영적 자유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며,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36. 나의 광선과 나의 영적 사자들은 물질주의와 죄의 어두운 안개가 떠다니는 분위기를 뚫고 들어갔다.

37. 너희는 이 순간들을 되새기며, 너희가 예전에 숭배하던 분 외에는 진정으로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도 동정녀이자 우주적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음을 —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영적 영혼의 영생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 주었음을, 그리고 내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는 그 지극히 중요한 계명들을 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 놓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38. 나는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해로운 것들, 즉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영적 자유를 허락한 것은 너희가 매 순간, 어디서나 나를 찾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세상이 너희에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묻는 대신, 영적으로 너희 아버지께 묻고 그분의 자비로 영의 양식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의 모습 속에 계신 너희 하나님을 상처 입혔다면, 그가 너희를 모욕했을 때는 그를 용서해야 하고, 너희가 그를 상처 입혔을 때는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모욕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악에 대한 용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이다.

39. 제자: 너희는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온 것에 더 이상 놀라지 않으니, 영적 세계가 너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에도 놀라지 않는다.

40. 인류 발전의 시작부터 아버지께서는 그 세계, 그 생명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자 계시로 영적 존재들의 현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세계는 나의 뜻에 따라 항상 인간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너희 발전의 초기에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영적 존재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지했다. 육신을

가진 자도, 육신을 떠난 자도 이 소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41. 이 제3의 시대에 내 오심을 위한 선구자인 엘리야에게, 나는 열쇠를 건네주어 영적 빛의 세계의 문을 열게 하였으니, 그 세계의 주민들이 물질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 또한 내가 인간으로 하여금 저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처럼, 양쪽 사이에 친밀감, 조화, 그리고 사랑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다.

42. 내 목소리가 이 소통의 시기를 정하기 전부터, 지구상에는 금지를 무시하고 다른 종류의 소통을 주도한 불순종하는 자들, 호기심 많은 자들, 그리고 참을성 없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소통에서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존재들이 드러났는데, 이는 그들이 내 신성에 의해 정해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3. 나의 사역은 다르다. 내가 너희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준비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너희가 성령을 통해 보고, 묻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법을 배우도록, 내가 이 세상에 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이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지평을 열어 주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장사를 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시기에,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이들은 불신을 품었으며, 심지어 당혹감을 느낀 이들도 있었고, ‘영’이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창조주가 그들에게 주신, 그 자체로 영인 그 영을 자신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까? 누가 너희로 하여금 영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가?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육신이 단지 흙에 불과하여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오직 영으로만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너희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너희는 스스로로부터 도망치려 하는가?

44. 너희의 사명을 돕기 위해, 나는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너희의 생계와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종들, 즉 자비와 빛과 평화의 진정한 천사들을 보내노라. 이 소통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성한 영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45. 이 계시를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 즉 어떤 이들은 과학에,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또 다른 이들은 미신적인 생각에 이끌려 만들어내는 것과 혼동하지 마라.

46. 너희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인류에게 이 두 가지 영감의 유형이 첫 번째 인간 때부터 존재해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인간은 빛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준 주님의 음성 외에도, 불순종과 교만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이미 인간은 선의 힘과 악의 힘, 이 두 힘의 영향 아래에서 투쟁해 왔음을 깨달으라. 인간이 그때부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영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유혹으로 인한 시련을 겪어 왔던 것이다.

47. 나는 너희의 믿음과 지식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이 말을 한다. 나의 영적 사자나 사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깃든 숭고한 은총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솔로몬조차도 그의 왕좌의 영광 속에서도 이 종들의 위엄을 지녔던 적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48. 피를 흘리며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평화와 자비의 세계가 나타나고, 위로와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49. 너희는 이 존재들이 너희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치유하는 그 힘을 ‘플루이둠’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플루이둠 속에 치유의 힘이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름발이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병어리에게 말을 되찾아 주신 것과 같은 힘이다. 그 힘으로 그분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50. (너희 중) 그 누구도 순수한 상태로 내 면전에 나아올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순수한 자로서 온다 해도, 이 길을 거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가 신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주었던 이 시기에, 나는 인류가 이 교감이 그것을 행한 자들의 불경함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할 것이며, 그 은혜가 1950년 이후, 그 은혜가 다시 너희에게서 거두어질 때, 영과 영 사이의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임을.

51. 나중에 속임수와 오도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드러내기 위해 마련한 교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상상력이 거짓 계시나 영감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라. 하늘로부터 빛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여, 그가 나의 진리로 이웃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52. 사람들이 무기와 권력 추구, 적대감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군중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이념과 종교, 세계관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53. 그 전투는 거대할 것이며, 세속적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야기된 전쟁들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다.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사고는 광신주의의 어둠에 가려질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양심과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신주의는 뿌리까지 뒤흔들리며 그 힘을 배가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자신을 과시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 매달려 파멸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눈을 빛으로 뜨고 그 심연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54. 오늘날 너희에게는 이 모든 예언들이 멀게만 보일지 모르나, 그 성취는 가까워졌다. 사람들의 눈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 그리고 교회의 자만과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교회 건물들이 그 받침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임무는 다른 이들이 수행할 것이다. *너희*는 말씀과 마음, 그리고 이성으로 준비되어, 너희의 영이 참된 사랑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거세계 몰아치는 회오리바람 앞에서 너희는 도망치지도 말고, 몸을 숨기기 위해 지하 묘실을 찾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이 무기력함에서 깨어나,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종교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되면, “영성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나의 사자와 사도들은 과장된 선전이나 헛소리, 그 어떤 종류의 허세도 없이 이 가르침의 진실성과 소박함, 그리고 빛을 보여 주어야 하며, 세상은 그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56.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박해받고 비방받을 것이다. 너희는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때로는 중대하고 타당한 반론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진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헛된 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57.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준비한다면, 나는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입을 통해 말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는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58. 인류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곧 성령을 통해 참된 길을 예감하고 나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품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자신의 형제와 이웃의 적이 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그러면 용서와 화해, 이웃 사랑, 형제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59.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흘린 피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60. 백성들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자와 타락한 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노라. 나를 사랑하는 자도 있었고, 내게 등을 돌린 자도 있었노라. 이는 모두가 나의 자녀들이며, 내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또한 모두가 나를 똑같이 사랑하며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61. 오늘 내가 너희 모두를 하나로 모으러 온다. 제2시대에 내가 흘린 피만으로는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한 형제애와 사랑의 한 사명을 완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62. 너희는 언제 비로소 내 율법을 이행할 때에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인가? 너희는 물질적 삶에는 생존하기 위해 적응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영역에도, 인간이 신성 안에 존재하는 영생의 샘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존중해야 할 법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63. 이 시대에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 물질에 매몰된 자들과 불신자들은 나를 *들어야만 할* 것이며, 나는 내 씨앗을 받아들이기에는 불모의 땅과 같았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 씨를 뿌려, 바위 틈에서도 꽃이 피어날 때까지 가꾸어 나갈 것이다.

64. 나는 모든 영혼이 정화될 때까지 그들에게 내 은총의 샘물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내 은총과 의의 빛일 것이며, 이 빛이 그 영혼을 스치면 그 영혼을 깨워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며, 그 목소리는 그들을 기도와 회개, 그리고 갱신으로 이끌 것이다.

65. 이제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고 있다. 나는 내 말씀을 통해 평화와 영성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너희가 깨닫게 했을 때, 이를 너희에게 예고했었다. 이제 너희는 전통과 의례, 의식, 상징과 형상들이 사라지고, 너희의 (인간적인) 영이 편견과 광신,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어 대신 하느님에 대한 참된 숭배를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66. 이 말씀이 물질주의자들의 귀에 닿으면,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예언을 듣고 불신 어린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심은 나를 결코 상처 입힌 적이 없다.

67. 제2의 시대에, 나의 가르침이 담긴 기쁜 소식이 로마와 같은 대도시와 대제국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분만큼이나 가난하고 겸손한 몇 명의 어부들이 그분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찬가지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권능이 바로 그 겸손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많은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이들에게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말씀 속에 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68.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인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이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피가 소수에게만 뿌려졌던 씨앗을 결실 있게 만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9. 의심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싹트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희생 정신이 드러났으며, 노예들과 억압받는 자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빛이 비추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외치고 사랑을 말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구세주의 신성한 가르침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더 높은 힘이 믿는 이들의 영혼을 감쌌고, 그 쏟아져 나온 힘은 더 이상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센 물줄기와 같았다.

70. 그것은 도시에서 도시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쳐흐르며,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산속 깊숙이까지 밀려들어간 거센 물줄기였다. 오두막이든 궁전이든,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것은 죽은 들판에 쏟아진 생명의 강이었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그들의 행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에게 임한, 너희 아버지의 변함없이 자비로운 정의였다. 그 거센 물줄기가 흐르기를 멈출 때, 새로운 세상이 빛을 보았고, 새로운 인류가 지상에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같은 인류였다.

71. 새로운 가르침의 빛이 그들을 무기력함에서 끌어내어 영적으로 더 나아가도록 도왔고, 이는 그들을 ‘하나님’ 이자 ‘아버지’ 라 부르는 완전한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회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내 가르침에 담긴 교훈들을 알게 되었다면, 비웃는 듯이 미소 짓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간곡히 권하는 이 일, 즉 내 사역의 교훈들이 실현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로 여기지 말라. 나중에 그 가르침이 꽃피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너희는 그것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센 물결의 힘이 너희 문짝을 흔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문을 열고 그 물결이 들어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오직 더러운 것만이 씻겨 나갈 뿐이니, 너희 삶에 있는 선한 것은 그분이 건드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72. 이를 통해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함을 깨닫게 하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진리에 깊이 몰입해 가면서 점차 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깊은 성찰을 통해, 여러분은 마침내 과거에 주어진 많은 예언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진리의 영이자 위로의 영의 오심을 예고하며 내 사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했던 많은 예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가르침 189

1. 인류여, 나는 너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온다. 나는 너희를 마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백성인 것처럼 보며, 너희를 하나의 자녀로 여기고자 한다. 여기에는 내 제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명책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있다.

2. 내 백성아, 내 대변자들을 통해 그 영을 드러내고 빛과 예언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는, 첫 번째 시대에 그의 권능으로 세상을 경탄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가 두 번째 시대에도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때는 세례 요한으로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밝혀 주더라도 너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실에 놀라지 말라. 내가 이 가르침을 오늘에서야 너희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그 증거는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

4. 내일 이 계시를 성경을 깊이 연구해 온 사람들이 살펴본다면,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이 시대에 와서 제2시대에 그에게 맡겨졌던 것과 동일한 사명, 즉 훗날 성령의 제자가 될 자들을 정화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오늘 나는 과거에 지상에서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시절 나는 이방인들의 조롱과 박해의 괴로움을 견뎌야 했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 모든 악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6. 오늘 그는 성령으로 오셨으므로, 사람의 손이 그를 건드리거나 해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이 백성은 그에게 배은망덕이라는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였다.

7. 엘리야는 길을 잃은 양들을 사랑으로 찾아내는 목자입니다. 때로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다시 모으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 떼를 이루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한 마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양은 바위 틈의 가시덤불 속으로 길을 잃은 것을 보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스는 서둘러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위험에서 그 양을 구해냈을 때,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는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양을 동료 양들의 무리로 데려가고 싶어 할까요. 그러나 양 우리로 돌아와 보니, 다른 많은 양들이 자유 의지의 충동에 따라 울타리를 뛰어넘어 멀리 떠나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8. 엘리야의 현현을 목격하고 그가 예고했던 사역이 꽃피는 것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가장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이 백성의 증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여, 이 사역이 진리이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분의 선구자였음을 확신하며 사방으로 선포할 사람들이 올 것이다.

9.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은 너희에게 양식이 되고, 위로와 용서를 베풀어, 너희가 용기를 얻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리라.

10. 내 말씀을 듣는 동안에만 나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너희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느껴라.

11. 인류가 처해 있는 도덕적, 영적 후진성은 실로 크다! 이 시대에 내 말씀의 은총과 빛을 받은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12. 제자들아, 스승이 되어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너희 마음에서 떨쳐내고, 무관심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너희가 진정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임을 깨달아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이에게 해명을 해야 할 자들은 바로 너희이며, 인류가 잊어버린 내 가르침의 원리들을 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할 자들도 바로 너희이다.

1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만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라. 세련된 웅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말을 찾지 말라. 영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소박한 방식으로 말하라.

14. 너희는 언제 너희 자신이 말하는 것이고, 언제 내가 너희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 너희가 자신을 잊고, 형제의 고통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보잘것없고 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 바로 그 순간이 내 신성한 영감이 너희의 마음에 내려오는 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희의 온 존재가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5.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이루면, 그것을 잘 활용하되, 결코 이유 없이 그에 대해 말하지 마라.

16. 나의 모든 일에는 공정한 균형이 있다. 주는 자는 받게 될 것이며, 거절하는 자는 결국 궁핍 속에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자비와 사랑이 기초가 되는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17. 너희는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러나 너희의 육신의 본성이 저항하는 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이유는 너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고, 너희의 길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너희 발은 이 세상의 진흙탕에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18. 제2시대의 제자들도 내가 그들을 택했을 때 ‘의로운’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실로 자격을 갖추었고,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더 높은 영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너희가 마찬가지로 변화하여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며, 너희의 행실이 너희를 고양시키고 나를 더 가까이 오게하기를 원합니다.

19.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고 묻는다면, 너희는 그중 아주 적은 부분만 활용했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자 한다. 너희의 죄는 온 인류의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20. 나는 너희를 나의 사자로 부른다. 너희는 이웃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설득력 있는 말과 행실로 그들의 불신을 이겨낸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큰 공로가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의 목적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도록, 너희의 증언을 온전히 전하도록 주의하라.

21.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힘쓰라.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22. 이와 같이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내어준다. 지혜인 그 본질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완전한 것을 활용하라. 너희의 이상이 훗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3. 지금은 좋은 시기이니, 이를 활용하라. 이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되면 인간의 이성 능력은 더 이상 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나 전달자로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24. 내가 빛으로 가득 찬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이 시기에, 나는 이 인류에게 나의 가르침을 올바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5. 오늘 나는 스승 주위에 모인 나의 제자들 각자가 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노라. 그들이 서로의 견해를 나누다 보면 토론과 비판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생각의 일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며,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26. 오늘날 너희는 나의 가르침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너희 모두는 동일한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투쟁하는 데 용기를 줄 것이니, 너희 모두가 하나가 되면 더 강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항상 말해 왔다. 나의 가르침과 계시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지 말라. 그러한 이론들은 내가 너희에게 입혀 준 진리의 힘을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8. 내 가르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자유를 발견하여, 그것을 토대로 삼고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달으라.

29. 내가 너희에게 올 때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너희가 영을 억누르기만 하는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찾지 않도록, 너희 자신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인류는 유년기를 지나 이 빛의 시대로 진보해 왔으며, 이 시대에 영과 인간의 이성인 무한함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 왔다.

30. 이 시대를 비추는 빛이 모든 이의 눈에 보이게 하려면, 너희가 종교적 광신주의라는 눈가리개를 찢어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모세에게 준 율법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겼다. “너희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숭배해서는 안 되며, 마치 너희의 신인 양 물질적인 것들을 숭배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모든 피조물보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31.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묻는다. “왜 세상이 광신주의와 겉치레적인 숭배 형태로 빠져들었는가?” — 그것은 내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영예와 축제 의복, 허영을 거부하기는커녕, 세상의 부와 지위, 겉모습의 화려함 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무오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는데, 오직 한 분만이 무오하시며, 그분은 바로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32. 그러므로 너희 영혼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혜와 영성을 가지고 삶의 투쟁을 이겨내고,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며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진전을 이룰 것이다.

33.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겠으며, 이제 너희의 십자가를 덜 무겁게 만들기 위해 너희 길에 놓인 바위들을 치워 주겠다.

34. 나는 너희 마음의 내면을 보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지성을 단련하고, 사고력을 높이며, 감정을 하나로 모으라.

35. 기도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라. 세상의 평화는 너희의 성장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 너희는 기도해야 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기도의 힘과 그 영향력, 그리고 빛을 깨달은 백성이다.

36. 모든 사람은 밝은 지평을 찾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형제애가 없기 때문이며,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암울한 전경을 볼 때, 지구 어딘가에는 평화로운 구석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이 그들을 용기 내게 할 뿐입니다. 그 구석은 멀리서 보면 빛나는 별처럼 보이는 바로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37. 이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이 민족의 책임이다. 그들은 병자를 치유하든, 용서의 표시로 적의 손을 잡든, 형제애와 내적 고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38. 내 발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그러면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더 큰 아름다움으로 단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때 비로소 너희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체와 관성에 빠진 자는 자신의 영혼이 고양되어, 내 법에 따라 살 때 삶이 품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39. 너희 자신을 잘 관찰하여, 육신의 욕망에 끌려 내려가면서 너희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때를 알아차리라. 나는 너희가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나, 그 열매는 너희 자녀들을 위한

평화의 열매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너희 마음이 꽃피게 될 것이며, 그 열매들이 바로 너희의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0. 너희를 통해 나는 1950년 이후에 세상에 알려질 이 시대의 내 말씀을 전할 것이다.

41. 이 계시들은 온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금 깃털’이라 부르는 이들을 훈련시켜, 내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양심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게 하여, 내 말씀이 글로 남도록 하였다. 이 글들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마련된 것이다.

42. 내 말씀의 위엄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단순함과 의미에 근거한다. 너희가 내 사역을 말할 때에도 너희의 언어가 이와 같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의 행실에 순수함을 지니라.

43. 매 순간 너희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힘과 빛, 평화를 나로부터 받는다. 나의 축복도 받으라.

44.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온 인류를 나의 제자로 삼을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나의 빛을 쏟아붓고 있다. 그 후, 나는 오늘 너희에게 주는 바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의 증언과 기록, 그리고 모범은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양심의 빛 속에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4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이며, 우리를 기다리는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46. 나에게 이렇게 묻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이다. 그들은 타락과 물질주의가 절정에 달한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줄기인 나의 빛을 비추어, 폭풍우가 지나가고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까지 계속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47. 바로 이곳, 이 지구의 한 구석에서, 나는 내가 이 계시를 전하기 위해 선택한 깨달은 자들을 통해 육신을 입은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말 중 일부를 아이들에게 바치며, 그들에게 덕을 굳건히 다지고 수많은 마음을 파멸로 몰아넣은 타락의 거센 물결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48. 나는 이 피조물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미래가 그들에게 정해 놓은 사명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 또한 『』에서도 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불확실한 삶의 여정에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그들을 거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연약한 배로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눈앞에 나의 업적을 등대처럼 세워, 그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하였다. 청소년들은 바로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다.

49.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일 때 기도하며 하느님을 생각한다. 인생의 정점을 넘어서 해가 지는 것처럼 쇠퇴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날고 싶어 하는 새와 같고, 세상의 유혹에 닿을 때 육신이 떨리며,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는, 그는 신성한 가르침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전하는 겸손과 사랑, 희생의 교훈이 자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의 행실과 말, 생각을 책망하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50. 인간의 마음이 비로소 자신의 정욕이라는 바다에서 난파당하고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그 빛이 구원의 항구로

이끄는 길을 보여 줄 신성한 등대를 갈망하며 시선을 하늘로 향한다.

51. 나는 과부들의 마음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영적 여정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떠난 그분이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곁에서 돕고 보호하고 계시며, 그에게 맡겨진 모든 존재들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해 잠시 앞서 갔을 뿐이라고 말해 주었다.

52. 그러나 너희가 그분을 느낄 수 없다면, 너희 삶 속에서 그분의 존재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하리라. 어떤 이에게는 그분이 지팡이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버팀목이 되며, 또 다른 이에게는 그들을 인도하고 삶의 여정에서 곁을 지켜주는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될 것이다.

53. 숲속의 야생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초원의 꽃들이 매 순간 아버지께서 내뿜으시는 사랑과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희는 본성 속에 내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1초라도 너희에게 내 신성한 사랑의 은총을 거절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54. 한 가정의家長이 자신의 곤란과 근심을 나에게 털어놓기 위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며, 아버지의 조언을 거스르는 적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55. 나는 너희의 사명이 매우 어렵고, 너희의 십자가가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너희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이웃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너희는 삶의 여정에서 나를 본보기로 삼게 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56. 백성들아: 너희가 내 일이 온 땅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 내 교훈을 적용하며, 이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너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의 과거는 봉인된 책이며, 이제 삶은 너희 눈에는 낯선 새로운 길로 펼쳐져 있음을 깨달아라. 그 길은 너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오늘날 너희는 태연하며, 내 말씀 중에서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내 가르침을 원할 때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한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이다.

57. 이 나라가 이미 오랫동안 지상에서 영적 사명을 수행해 왔으며, 인류 가운데서 높은 소명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님의 자비로 인해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면, 비록 단 한 알의 씨앗일지라도 그곳에 뿌려라. 그러나 그 씨앗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영성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지상 여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금부터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 두노니, 이 나라의 소명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약속의 땅’ 이나 ‘새 예루살렘’ 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구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혼란에 빠지지 말라. 주님의 제자들, 즉 영성주의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물질적 재물을 유산으로 주실 수 없었다. 이 땅의 사명이 크고, 이 나라가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해야 하므로, 그 주민들은 세상에 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자들이어야 하며, 그들의 모범과 행실을 통해 내 가르침의 위대함과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58. 나는 너희 가운데 내 계시의 빛나는 흔적을 남겨 두리니, 너희는 그것으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에 따라 기록된 나의 말씀이다.

59. 먼저 그것은 물질적인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나의 비밀 보물창고에 다가가고 나의 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그 본질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되면, 주님의 백성의 영 안에 진정한 책이 나타날 것이다.

60. 내가 음성 전달자들을 통해 내 말씀의 진동을 울려 퍼지게 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은총의 선물을 아낌없이 내려주었다. 나는 내 영적 세계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이 내 메시지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게 하였다. 나는 너희의 길을 기적들로 가득 채웠으며, 너희가 영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경탄하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현을 기뻐하고 앞으로 기뻐할 이들은 너희만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눈이 나를 볼 것” 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세상은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영적 세계 또한 그 존재를 드러낼 것이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현들은 결국 가장 불신하는 마음들조차 떨게 할 것이다.

61. 사람들은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 물질화되고 신성한 것이 인간화되기를 갈망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일부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62. 백성아, 지금이 유리한 시기인 만큼, 네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진 소명을 깊이 깨닫고, 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라.

63. 나는 너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겠다. 세상 또한 준비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싹트게 될 것이며, 지구의 구석구석에 그 씨앗을

뿌린 너희는 너희 수고의 결실을 보게 될 때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여정에서 스승을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고,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이다.

64. 모든 나라에서 화해와 형제애,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다.

65. 나는 너희를 준비시켰고, 너희가 이미 안식 없이 방황하는 이들, 곧 너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내가 영감 받은 계시로 너희에게 준 지혜를 보여주고, 그들의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누구에게도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지식으로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

66. 내 모든 자녀들이 너희가 낯설다고 부르는 지역까지 직접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종종 그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그들의 영이 어떤 거리에서도 이웃들에게 드러나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통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67. 너희는 영적 세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고통을 막아줄 방어벽을 함께 세워야 한다. 여러분은 폭력을 통해 영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척하는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지배한 것이 권력이 아니었음을, 형제애와 정의를 지배한 것이 권력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며 세상도 경악할 것입니다.

68. 겉으로만 자선을 베풀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기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하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법인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혼의 승화를 위한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그대로 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라. 이는 내가 옛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69.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은 내가 모든 시대에 전해 온 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나의 사역은 완전하며, 물질적인 말에 근거하지 않는다.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가 같은 사랑과 자비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대에 너그럽게 내 씨앗을 너희에게 주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70. 너희는 의식이나 겉치레를 통해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 마음의 성전이 드러날 것이며, 그 안에서 너희 이웃들은 영원한 빛과 그 제단을 보게 될 것이다.

71. 지금부터 나를 느끼도록 배우라 — 선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빠진 진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에도 말이다.

72. 나는 너희에게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가르쳤다. 스스로 만들어 낸 복잡한 과학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할 때, 인간의 이성 얼마나 한심한가! 너희 안에 나를 품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먼 곳에서 나를 찾으려 하는가?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영과 지성과 의지처럼 신성한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73. 나는 제2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살며, 너희의 빵과 집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그분의 겸손에 뿌리를 두고 있다.

74.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는 스스로를 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칙이라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너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모든 것이 지극히 완전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이 겪는 일은 과거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제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5. 인류의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상에서만만이 아니다. 다른 세계들에서도 영적 세계가 인류의 구원과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종교 공동체의 품속에 심겨진 영적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큰 논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이것이 불화를 조장하는 새로운 종교라고 말할 때, 너희는 영성주의가 하나의 가르침이며, 바로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가르침이자 영혼을 다스려 온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희 마음속, 즉 너희의 감정이 깃든 곳에서 나올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나, 이웃의 기쁨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가르쳐 온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6. 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빛과 은총이 그 이성을 관통하여 말로 변하며, 바로 그 말은 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 즉 감정의 순수함과 겸손의 길을 가리킨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0

1. 백성들아, 인류여: 이 시대에 엘리야의 임재는 모든 이와 함께한다.

2. 이 계시를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아,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어라. 비록 내가 타보르 산에서 너희에게 그의 사명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계시를 깊이 탐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엘리야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의 임재를 느끼고 있으며, 마치 그의 불타는 수레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3. 엘리야는 내가 너희의 길을 비추기 위해 항상 너희에게 보내 온 빛의 광선이다. 너희가 길을 찾아, 너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너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분을 따를 수 있도록 지구를 비추신 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너희가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설명해 준 영혼의 위대한 신비들을 전하는 중재자이다. 오늘날에도 그는 첫 번째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단에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세상에 참된 영적 신 숭배를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엘리야를 통해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격렬히 반대하는 환생의 법칙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예언자 엘리사의 입과 이성을 통해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한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과 해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엘리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고 위대한 가르침을 항상 전해 주었는지, 그가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십시오. 그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위대한 계시들을 어떻게 알려주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지식들은, 이제 이 제3의

시대에 모든 것을 그 진정한 의미대로 회복시키려는 사명을 띠고 오신 바로 그 엘리야에 의해 여러분에게 설명될 것입니다.

6.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의 빛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엘리야가 왔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덧붙이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 마치 그 ‘두 번째 시대’ 에, 사람들이 요한이 천국(天國)의 기적들을 예언하고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혹시 엘리야인가?” 라고 말했던 것처럼.

7. 위대한 예언자, 길을 닦는 자, 사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으며, 그가 자신을 드러낸 빛의 광선은 거짓 신들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고, 주님의 백성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태우게 했던 바로 그 빛이다.

8. 영혼들이여, 그분을 따르라! 인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분은 너희를 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시며, 구원의 항구로 이르는 길을 밝히 비추고 안내하는 등대이다.

9.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내가 더 이상 이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형태로 나의 임재를 헛되이 찾게 될 많은 ‘고아들’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을 것이며, 영과 영이 서로 교감할 준비를 한 모든 이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10. 여러 종파와 종교 단체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며,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때가 왔다고 말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진리를 아는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전해야 한다. 1866년부터 나는 위로의 영으로 나타나

내 백성들, 즉 내가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아다녔노라, 오 인류여!

11. 너희는 - 비록 나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 앞선 징조들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직관이 알려준 바를 너무 늦게 깨달은 이들에게서 멀어진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너희 자신을 오해하지 말라. 그들이 나의 현존을 목격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쳤고, 그들은 올바른 길 위에 있다. 너희 모두는 그 이상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12. 나의 선택받은 자들은 나무의 여러 가지에 흠여져 있다. 많은 이들이 1950년이 되기 전에 내 계시를 듣기 위해 모여들 것이나, 다른 이들은 시간을 두고 올 것이다. 대변자를 통해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그 목소리가 이미 익숙하며, 그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마음속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13. 나는 너희에게 양심의 인도에 따르라고, 스스로를 해방하고, 불완전한 숭배 형태와 편견, 교리에 너희를 복종시키려는 자들의 노예가 다시는 되지 말라고 말하러 왔다.

14. 너희 모두는 나의 “일꾼” 이 될 수 있으며, 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자가 될 수 있다. 너희의 투쟁 속에서 너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나의 품 안에서 너희는 안전할 것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15. 온 피조물 위에 계시면서도 그 안에서 맥박을 뛰게 하시는 나, 나는 나의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말씀하신다.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과 무식한 자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비참함과 가난이 가득한 곳에서 나를 나타내신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너희에게 궁전으로 보이는 곳이 나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반면,

너희가 오직 가난과 비참함만을 보는 곳일지라도,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진정한 영적 광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16.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왜 내가 거대한 회당이나 호화로운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메시아가 시온 성전의 그늘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었다.

17. 오늘날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직접 닿는 것은 너희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가르친다. 너희 심장의 박동 하나하나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나에게 말해 주기 때문이다.

18.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다가왔던 그 겸손함을 보아라. 내가 언제나 왕좌도, 홀도, 궁전도 없이, 오직 소박함과 온유함으로 감싸여 왔음을 명심하라. 가난한 자들, 천민들,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이 내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에 둘러싸여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본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굴욕감을 느끼고,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반면, 지상의 귀족들과 부자들, 권력자들은 나를 그들의 사회 계층과 지위를 대변하는 신이라 부를 것이다.

19. 세상의 가난한 이들이 십자가의 무게 아래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는 나를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의 겸손함에 깊은 연민을 느끼며 전율하고, 그분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반면 부자들은 — 비록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 평범한 백성들과 같은 감정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 속에 계신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는 나를 묘사한다고 주장하는 형상 위에 자줏빛 비단, 금, 비단, 그리고 그들이 보석이라 부르는 것들로 덮어씌운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며, 그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즉 허영으로 나를 둘러싸고자 했던 것이다.

20. 내가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나는 그 어떤 교회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니, 그 모든 교회는 나 안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내가 스승으로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명명해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언젠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너희가 혼자서 언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21. 내 진리가 빛을 비추게 하고, 모든 사람, 모든 종교 공동체, 모든 민족에게 사랑이 닿게 하라. 마치 내가 *너희의* 진리, 혹은 너희가 진리라고 정해 놓은 것이 내게 닿도록 허락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모든 이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너희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기도요, 너희의 믿음이며, 너희의 희망이다.

22. 각 영혼이 나를 향해 올라가고, 나에게 말을 걸 때 그 안에 존재하는 이 빛은, 오직 그 영혼이 품고 있는 진리만을 내 앞에 드러내기 위해 모든 어둠과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조차도 나에게 고백할 때, 나를 속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치욕스러운 점을 내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3. 사람은 다른 이들이 나를 찾는 방식을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완성하며 지상의 삶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너희 행위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24. 우상 숭배자부터 영성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나의 빛과 시선 아래에 있다. 너희가 영적으로 뒤쳐진 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종종 그의 고양에 대한 위대한 증거를 얻듯이, 나는 또한 너희에게 확신시켜 주노니, 스스로를 영성의

선구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서 종종 큰 퇴보의 증거를 얻기도 한다.

25. 이 시대에 오직 *한* 믿음의 백성만이 나를 받아들였으며, 나는 그들에게 내 지혜가 담긴 이 책의 한 페이지를 맡겼다. 그러나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책의 한 페이지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26. 나의 빛은 신성한, 우주적인 여명처럼 모든 이를 깨울 것이며, 그때 인간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때, 그의 감각은 신성의 가까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7.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국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28. 왜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러 오게 만드는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를 위로하고자 오노라. 이는 너희 영혼에 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9. 때로는 내가 심판자로서 너희에게 나타나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너희 곁에 있으며, 언제나 스승으로서 나를 드러낸다. 이 세 가지 현현 형태 속에 너희는 하나인 신성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곧 법, 사랑, 그리고 지혜이다. *이것이* 내 영 안에 존재하는 삼위일체이다.

30. 눈을 감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스승과 하나 되는 이 순간들을 깊이 체험하게 하라.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하라. 마치 제2시대에 스승을 따라 길과 계곡, 마을, 강, 사막을 헤매며 그분의 가르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이들처럼 말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때때로 지상의 사물을 빌려 영적인 것을 묘사하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말씀이 너희 영혼을 천국에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31. 이리 오라,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 아니면 고통이 너희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교훈을 주기를 바라는가?

32. 내 농장으로 와서 형제애의 씨앗을 밭에 뿌리십시오. 이 일이 세상이 그러하듯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장담합니다.

33. 여기, 너희 영혼 바로 앞에 너희를 초대하여 그 길을 걷고 결코 멈추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다. 그 길 위에서 너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너희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고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34. 내가 이 형태로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은 이미 매우 짧아졌으니, 나는 너희가 공덕을 쌓아 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내 말씀이 이 대변자들을 통해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

35. 신성한 계시가 너희의 공로에 대한 보상처럼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영성을 꽃피워야 한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사랑이 지배해야 하며,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3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뜻대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너희의 삶이 너희가 설교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를 흠어 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쫓아낼 것이다.

37. 만일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서로 다른 예배 방식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너희를 가르치신 분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8. 나는 이 백성의 통합을 위해 너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 계시의 마지막 3년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 통합은 영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너희의 헌신이 조화와 일치로 가득 담아, 서로 다른 교회와 서로 다른 지방에 있는 너희 모두가 오직 한 분의 스승, 곧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39. 너희 모두가 영의 눈으로 인류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보지는 못하였다. 너희 모두가 그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수많은 백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제 인간의 마음을 결실 있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만들고 있다.

40. 내 말씀의 씨 뿌리는 자들아, 밭에서 일할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믿음으로 충만하여 나서라. 조롱이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고, 바위 위나 모래밭에는 뿌리지 말라. 그곳에서는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다. 가시덤불과 잡초 사이에 뿌려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영감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러면 너희는 준비된 땅을 골라낼 줄 알게 될 것이다. 땅의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경작할 넓은 땅을 주리라. 큰 일할 의지로 가득 차라.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수확한 밀로 생계를 위한 빵을 만들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비유적인 의미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는 이 수확을 내세에서야 비로소 거두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41.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몸을 통해 너희가 이루어내야 할 업적은 크다. 그 몸은 너희의 버팀목이니, 너희는 그것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야 한다.

42. 세상은 내가 예고했던 전염병과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세상은 서서히 두려움에 휩싸여 일어나려고 애쓰며, 구원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찾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그 구원이다.

43. 너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분의 바지 하나도 챙기지 말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가라.

44.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사명을 보여 주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말했노라. 왜 너희는 이 땅의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하느냐? — 너희는 나에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 사명이 요구하는 희생과 육체적 절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먼저 나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시대에 있든, 너희의 상황이나 기분이 어떠하든, 너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도 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45. 너희의 모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한 편견을 없애며,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가 아닌 낙원으로 만들어라.

46.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을 허락한다.

47. 너희는 자녀들에게 영성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의 후손 중에서 내가 나를 드러낼 축복받은 세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혼들 가운데에는 나의 말씀을 해석할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며, 인류에게 길을 안내할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48.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나를 듣고 나를 따르려는 너희를 내가 축복하노라. 너희 마음은 은혜로 넘쳐흐르고 있다. 그것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라.

49. 이 시대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제자로서, 어떤 이들은 초심자로서,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왔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평화와 마음의 평온, 그리고 이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들의 성취를 찾고 있다.

50. 여러분은 종파와 교회에서 내 재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를 파견한 곳은 바로 그 밖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영혼을 심판하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적 질서의 초석을 놓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이 세상에서 의인들의 영혼이 머무는 “영적 계곡”의 완전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승천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나와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곳의 이 소박한 백성들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빛이 쏟아져 내렸고, 너희 눈을 가리던 장막이 찢어졌기 때문이다. — 나는 영적이며 신성한 것에 마음을 달았던 영혼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을 되찾았으며, 나에게 의해 인도받고 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육신을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가득 찬 영혼이 나의 발자취를 따를 때, 그 빛이 축제 의상처럼 너희를 감싸줄 것이며, 너희 주변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게 될 것이다.

51. 너희는 선의 전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준 것은 *죄와* 싸우게 하려는 것이지, 이웃과 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나며,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이 땅에 가져온 축복받은 사명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을 때, 너희는 강해지고 무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를 넘어뜨릴 유혹은 없을 것이며, 그렇게 준비된 너희는 일어나서 단순한 인간을 넘어 — 인류의 복지를 위한 육신을 입은 천사가 될 것이다.

52.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으며, 그중에서도 특권을 누리는 자는 더욱 적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지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지혜와 은총과 권능을 부여하고, 다스릴 백성을 맡겨 준 솔로몬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높은 영성을 증명했던 영적 위대함의 시기가 지나자, 그는 깨어 있는 것을 그쳤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사랑과 정의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모든 업적은 자만심과 육신적인 행동들로 인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를 통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더라도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너희를 택하여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너희가 내 영감에 따라 의로운 법을 제정하게 된다 해도, 사람들처럼 자만하지 말라. 그때 너희는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고 내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

53. 많은 이들이 내가 선택한 이 땅으로 와서, 그 주민들을 통해 비추는 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를 알게 되고, 내가 제3의 시대에 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한데 모았던 이 땅을 밟을 때 행복을 느낄 것이다. 1950년 이후에 도착하는 자들은 경전을 갈망할 것이며, 내 계시를 알게 되면 내 가르침에서 발산되는 능력을 느끼고, 너희를 축복하며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곧 내 명령을 따르기 위해 너희와 합류할 14만 4천 명의 표를 받은 자들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54. 오늘날 열방은 물질주의와 방황 상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셨으며, 내 씨앗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에 뿌려져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이가 영적인 길을 걷도록 도와주어라.

55. 지금 이 순간 나를 둘러싼 제자들의 수는 적다. 그러나 나의 말씀은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말씀은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56. 지금이 바로 너희가 인류에 대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될 적절한 때이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물질적 장벽 너머에서 영적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 ’ 를 준비해 두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57. 영혼이 육체와 하나 되어 있는 한, 영혼은 자신이 전생에서 이룬 공덕을 깨닫지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영혼은 자신의 삶이 곧 영원이며, 최고점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끊임없는 고차원적 발전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너희는 자신이 어느 높이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

58. 나는 너희가 혼란스러운 정신과 미숙한 지성을 지닌 채 삶의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너희를 지켜보아 왔다. 나는 너희가 점차 깨어나 성장하여, 현실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을 얻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너희가 역경과 시련, 유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영적 삶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나는 너희 영혼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평화와 만족,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영혼이 다시 뒤쳐지고, 이

세상에서 더러워지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은 탄식했고, 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정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조차도 그 영혼은 빛, 즉 경험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59.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명료함을 가리던 눈가리개를 나의 빛으로 찢어 버렸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넓은 지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60. 그 길을 비추는 빛은 분명하다. 너희가 세속적인 쾌락과 소유물의 거짓된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리 그 자체에 대항하려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길을 잃을 수는 없다.

61. 또한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희가 모든 유혹의 충동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너희와 함께 세우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세력들은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숨기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2.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인간의 소명은 진리를 깨닫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멀어서, 너희가 그 길 위에서 모든 능력을 펼치고, 나를 보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길은 가시가 있고 돌투성이이며, 너희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가졌던 힘과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그 길을 다 걸어간 후, 영혼은 정화될 것이다.

63. 다른 길은 방향과 우회로이지만, 즐거움을 주고 명백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삶을 만끽하느라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길에서 죽음의 시간이 닥쳤을 때,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64. 나는 인간의 눈앞에 펼쳐지는 길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줄 수도 있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65. 영혼이 지상에 거하기 위해 왔을 때, 그 발전과 완성을 위한 기회로서 물질, 즉 인간의 몸이 주어졌는데, 이 놀랍고 완벽한 구조 덕분에 영혼은 자신의 영적 능력에 따라 이를 통해 느끼고, 생각하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66. 영혼은 육체의 만족에 동참하는 동시에, 육체의 고통을 통해 시험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 존재 역시 영혼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낀다.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의 존재를 이룬다.

67. 인간 피조물 안에는 완전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말씀” 이신 그리스도는 너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깊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을 그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고통받으셨다.

68. 영혼이 온 힘을 다해 육신의 완고함과 반항심을 이겨내지 못할 때,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너희를 돕기 위해 다가오시니, 마치 선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구원하듯이 말이다. 내 자녀 중 누구도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1

1. 내 식탁의 빵과 포도주에는 영생의 씨앗이 있다. 그분께 나아와 먹고 마시라. 더 이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울지 말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탄식과 흐느낌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보고 싶다. 아버지로서 나는 온전히 사랑이며, 스승으로서도 여전히 사랑이다. 설령 내가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나타난다 해도, 그 정의 속에도 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2. 그 이유는 내 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 안에서 너희는 시작과 끝을 찾는다. 제자들아, 가까이 와서 스승 주위에 둘러앉아라. 내가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계셨던 그 시절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너희 영혼이 예수이셨던 신성한 스승의 사랑 어린 음성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기 위해 계곡과 강가, 사막과 산으로 나를 따랐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라.

3. 너희 영혼은 그 스승의 말씀을 듣는 동안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그분은 지상의 형상과 피조물들을 활용하여 비유를 지어내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의심했다. 하지만 모든 마음에는 평화가 넘쳤고, 모든 병자들은 치유되었다. 나는 너희가 내 곁에 있을 때 마치 외딴 계곡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를 원한다. 너희의 영혼이 내게로 올라가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모임 장소의 벽과 상징물들이 너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라.

4.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곧 사랑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다른 공동체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언젠가 모든 이가 나를

알게 되면, 나는 그들을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리라.

5. 어떤 민족이나 인종에게도 영적으로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오직 자신들만이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신성한 계시와 예언을 주었던 것은 너희가 가장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인류 중 맡아들이기 때문이었다. 자만심 대신 너희의 책임을 느껴야 함을 깨달아라.

6.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라.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산과 은총을 다른 민족들과 나누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과 가르침이 명한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고립되어 자신들만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했다.

7. 이 시기에 나는 너희 영혼을 다시 준비시키고, 빛을 비추어, 너희가 운명을 이루고, 이웃을 경고하며, 축복하고, 구원해야 할 길로 다시 인도하였다.

8. 머지않아 너희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떠나버렸다고, 너희를 고아처럼, 성장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로 홀로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의 신성한 영은 너희를 준비된 상태로 남겨두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마치 신성한 그림자처럼, 나는 너희의 발걸음을 따를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너희 입을 통해 말하며, 너희를 매개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너희 목소리를 통해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며, 너희가 하나가 될 때, 나는 너희 안에 나의 참된 성소를 세울 것이다.

9. 이 시대에 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메마른 것을 발견하였으니, 마치 돌로 가득 찬 땅, 돌로 굳어진 땅처럼, 잡초와 쑥기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 사방에 잡초와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물은 오염되었고, 샘은 마르고, 우물은 탁하며, 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정원에는 꽃이 없고, 설령 몇 송이 있다 해도 시들어 있다. 나무에는 둥지도, 새도 없다. 재앙들이 모든 것을 삼키고, 갹아먹는 벌레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인류가 내 눈앞에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씨앗과 물, 농기구를 가져다주기 위해 왔으니, 너희에게 할당된 밭으로 가서 경작하라.

10. 내가 너희 곁을 너무 일찍 떠난다고 말하지 마라. 이번에는 제2시대 때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기간이 단지 3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 당시에는 3년이면 내 기적에 대한 소식이 유다의 경계를 넘어 왕국과 제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 3년 동안 내 제자들은 스승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일깨워 주었고, 인류가 배은망덕하지만 그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고귀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고귀함은 모든 인간이 내 신성의 자녀로서 내면에 품고 있는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다.

11.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를 뒤흔들었다. 그곳에 나는 여전히 거하고 있는 성전을 세웠다. 그러나 권력과 부, 세상의 명성, 쾌락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삶과 관습, 법과 원칙들을 변질시켜 버렸기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고 다시금 길을 안내해 주셔야만 합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으며 1866년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연이은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질, 똑같은 계시와 예언을 전하고 있다.

12.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 3년이 지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마침내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내 설교 기간을 연장해야만 했다. 내 제자들 중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뒤, 내 진리의 현현과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며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가 파멸로 빠져들 때면, 그는 탄식하고 회개하며 내게 말하곤 한다.

“주님, 당신은 스승이시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한한 사랑과 인내 그 자체이신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로 끌어당겨 내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며, 그가

“탕자” 라고 말해 줍니다. 나는 잔치를 베풀고,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승은 그다지 아니하겠지만-그가 영원히 회개했다고 믿을 때쯤, 그는 다시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수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몇 번이나 지켜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내 계시를 전하는 기간이 1950년까지 연장된 이유이며, 너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맞이하여 마침내 너희가 삶 속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세상이 너희에게 어떤 새로운 매력과 경험을 더 줄 수 있겠느냐? 과학이 너희를 위해 어떤 기쁜 놀라움을 준비해 둘 수 있겠으며, 육신이 너희에게 어떤 새로운 쾌락을 선사할 수 있겠느냐? 악과 죄의 길에서 너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새로운 만족을 갈망하고 참된 기쁨을 원하며, 가르침과 평화를 갈구한다면, 내 영지로 와서 내 길을 걷고, 내 씨앗을 뿌리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갈망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것이다.

14. 이 일을 순수하고 완전하며 무한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지혜의 보물창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시야를 예리하게 다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미성숙하여, 내가 그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바를 여전히 눈앞에 보여 주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이 선포의 마지막 3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 3년은 내가 제2시대에 설교했던 그 3년을 상징할 것이다.

16. 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내 율법이 아니라, 너희의 예배 의식에 대한 개혁이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나, 너희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나는 1950년에 내가 떠나겠다고 너희에게 예고했다. 그때가 되면 내 음성을 전하는 자들과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의 뇌는 이러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영과 영 사이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그들은 계속해서 나의 신성한 광선을 불러내려 할 것이나, 그 광선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마치 내가 여전히 그들의 지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말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은 내가 그곳에 현존한다고 증언할 것이며, 치유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영적 세계가 말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뜻을 따랐던 자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총이 거두어졌다고 말할 것이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17. 명심하라. 만약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선구자이자 사자로 나서게 된다면, 너희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오류와 기만으로 가득 찬 발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세상이 너희에게 질문할 그

시기를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 세상은 내 말씀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 말씀은 언제나 순수한 채로 발견될 것이지만 - 오히려 그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서 맺은 열매를 찾아낼 것이다. 그 후, 너희의 동료 인간들은 내 가르침과 계시의 확증을 찾기 위해 너희의 삶과 행실, 그리고 예배 의식을 탐구하려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오로지 내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인류는 모세 시대부터 율법의 계시를 통해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스승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나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오른편으로 인도할 것은 바로 사랑과 겸손, 자비의 행실임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 한다. 그 당시 내 사도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말로만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행실과 자신의 삶, 그리고 피로 그것을 확증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18. 오늘 나는 오직 너희 마음의 문이 이웃에 대한 연민으로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인류가 내 새로운 제자들의 덕행 덕분에, 이 일이 단지 또 다른 가르침이나 새로운 이론이 아니며, 인간의 공상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정신의 산물도 아니라, 태초부터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정해 놓으신 길의 연속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예고와 예언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늘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제2시대에 활동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19. 세상이 전쟁이 내미는 고난의 잔을 비우려 준비하는 동안, 나는 너희에게 꿀을 주어 너희가 땅 위에서 달콤한 맛이 되게 하리라. 사람의 이성에 비추는 빛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게

한다면, 과연 영적인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나의 신성한 지혜의 빛은 어떠하겠는가?

20. 내 영으로부터 너희에게 비추는 신성한 빛, 즉 지혜는 너희의 수용 능력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지만,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내적 깨달음을 너희에게 선사한다.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 즉 내 말씀을 경청하는 데 시간을 쏟기 전에는 너희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했으며, 너희 이성이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비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1. 오늘 나는 인간의 이성에서 그 어둠을 제거하며, 사람이 더 이상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진리를 의심할 수 없도록 그를 가르치고 있다.

22. 너희를 굴복시키려 하는 의심과 약함이 존재하는 한,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은 없을 것이다. 믿음은 느껴지는 것이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것은 진리, 즉 그 길의 최종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다.

23. 너희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니, 믿음이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믿음이 불타오르면, 너희를 노리고 있는 유혹의 세력과 싸울 것이다. 너희가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이를 위한 무기를 찾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현존과 나의 음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나에게로 솟아오를 수 없는 상태에서 보고 듣는 것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감각을 달래주는 전례적 화려함을 필요로 하며,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영감’이나 ‘영혼의 고양’ 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4. 나는 너희 영혼이 더 이상 음악적 음표의 소리에 의해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제2시대의 내 제자들은 저 세상의 영적 평화를 느낄 때까지 내면적으로 고양되었으며, 그 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오직 하늘의 천막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스승의 울려 퍼지는 음성을 느꼈기에 고양될 수 있었다.

25. 이 시대에 나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였다. 내가 너희 자신의 이성과 언어를 사용하는 이 방법 외에, 너희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26. 이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고양을 이룰 것이니, 모든 것은 발전하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하나의* 원리, 즉 선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너희의 미덕을 꽃피워라. 너희에게는 내 빛이 있으니, 이를 통해 내일의 세상을 세울 기초를 다질 수 있다.

27. 너희는 영적 발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님과 다르며, 너희 자녀들은 너희와 다를 것이다. 너희는 이를 피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를 이끄는 더 높은 힘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이 승리하지 않을 것이며, 미덕이 승리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기적일 수 없고, 사랑을 느끼는 자는 미워할 수 없으며, 빛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나는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길을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걷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조언은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 그러면 내 말씀이 필요한 이의 마음에 제때에 닿을 것이다.

29. 자신의 악덕 때문에 스스로와 싸우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웃을 자신의 형제처럼 사랑하기 위해 나의 빛이 필요할 것이다.

30.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치워 주리라, 백성아.

31. 사랑하는 백성들아, 오늘 이 잔치에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잠시나마 너희 스승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2. 와서 너희 마음을 나의 평화로 채우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평화, 너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바로 그 평화 말이다.

33. 소수만이 나를 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들은 내일 동료들에게 그 증언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이에게 부름을 보낸다면, 대다수는 세상의 일로 바빠서 서둘러 오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34.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소박한 곳들의 한적한 곳에서, 나는 내 씨앗이 싹트게 한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무리로 모으고, 그들이 물질주의적 삶의 소란에서 멀어지면, 그들에게 사랑과 영원, 영혼,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영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이를 통해 그들이 감각이 아닌 영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35. 나는 이 초보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며, 한 번도 무엇을 소유한 적이 없고 이웃에게서 주목받은 적도 없었던 그들은, 나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만족감으로 가득 차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다. 그들은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기쁨을 안고 길을 떠났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심어 주시고 사랑의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36.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들에게 이 은혜가 부인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37. 사람들은 천국이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 있어, 내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국’이 우주 공간의 특정 장소가 아니라, 모든 영혼이 도달해야 할 완전함과 순수함, 그리고 빛의 상태임을 알지 못합니다.

38. 영혼이 고양될수록, 그 영혼이 거하는 세계나 거처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완전함에 도달하면, 무한함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어디로든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안의 모든 것이 빛이 되고, 아버지와의 조화, 그리고 모든 이와와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천국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천상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평화, 지혜,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 외에 무엇을 더 바라볼 수 있겠는가?

39. 내가 사람들 가운데 거했던 지 약 이천 년이 지났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그들은 이제 내 행적의 역사와 내 말씀에 대한 기억을 환상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마치 그 당시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의 땅과 사람들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직 그 시절 사람들만이 내 임재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거해 왔으며, 때때로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 비록 그 ‘두 번째 시대’ 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을지라도, 혹은 오늘날처럼 영으로 드러났을지라도 말이다.

40. 사람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아는 자는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1.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는 맹인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다시 오셨으니, 사람들에게 숨겨져 온 진리를 밝혀내고, 그들이 영적으로 처해 있는 슬프고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할 새로운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42. 나는 사람 안에서 선의 길을 따라 나에게로 승화하려는 고귀한 열망을 일깨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참된 천국, 새로운 ‘약속의 땅’의 존재를 드러내 보일 것이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인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인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43. 제자들아,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간직하여, 명상과 묵상 속에서 내 율법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란다.

44. 내가 사랑의 근원임을 깨달아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는 연민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채우게 될 것이다. 모든 이성을 비추는 내 영의 빛을 보고, 유익하고 결실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 예전에는 너희가 자신의 발걸음조차 이끌지 못했으나, 오늘날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45. 많은 이들이 심연으로 향했으나, 내 목소리를 듣고 돌아섰으며, 오늘날 그들은 산을 오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교제를 맺었으므로, 너희가 하나의 뜻으로 연합하여
내게로 올 때에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46. 이 공동체 안에는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잘못된 해석들도 많으니, 그로 인해 분열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직은 내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그 오류들을 바로잡고, 신자들의 무리 속에서 해로운
잡초처럼 싹튼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낼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가장 먼저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은 나를 가장 오랫동안 경청해 왔기 때문이다. ,
내가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채우고, 가장 나중에 온 자들을 너희의 어린
형제자매로 여기라. 너희의 모범과 삶, 그리고 말들이 신자들의
무리들에게 내 사역의 완전함과 위대함, 그리고 탁월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47. 교회 지도자들은 나의 가르침과 계명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그들을 선지자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

48. 너희가 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희는 크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 후 너희의
연약함이 다시 너희를 넘어뜨리고, 너희는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한 “광야의 시련”에 빠지게 된다.

49. 오늘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의 모든
자녀들이 언제 너희와 하나가 될 것인가?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무리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길을 떠나 그 무리에 합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 길은 마음속에 있으며, “약속의 땅”은 영혼의 평화

속에 있으므로, 그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로 모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50.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감과 형제자매들의 생각을 받아 위로를 느낄 것이다. 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의 모든 곳에 나타나 진정한 순수함으로 영성화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51. 백성아, 너희가 서로 다른 모임 장소에서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너희가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오직 무지함만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로 묶는 영적 유대를 깨닫지 못하게 할 뿐이다.

52. 너희 영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라. 그리하여 직관과 계시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은사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

53. 이 시기는 너희 영혼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새로운 기회를 주는 신성한 선물을 안겨 주었다.

54. 메시아로 오셔서 땅 위를 걸으시며, 말씀과 행실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오시어 양심을 통해 정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55. 나는 많은 이들에게 부르심을 보내어, 그들이 와서 이 선포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였노라. 그러나 부름받은 모든 이가 서둘러 온 것은 아니니라.

56. 나를 따르는 무리들은, 마음속에서 이곳으로 와서 위대하신 나무의 그늘을 누리고, 훗날 온 세상에 전할 씨앗을 유산으로 받기를 갈망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처럼 씨 뿌리는 자가 되고자 했다. 점차 그들은 내일 아버지의 집이 주는 온기를 떠나, 사랑과 진리,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겪는 모든 이에게 선물을 전하러 갈 것임을 아는 제자들이 되어 간다.

57. 내가 이 백성이 학자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도록 내 말씀을 위엄 있게 선포하였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름받은 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학문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58. 행실, 말, 기도 — 이것이 바로 이 백성이 이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그들은 그 신성한 자비가 자신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59. 여러분은 종종 마리아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에 감동받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녀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에 휩싸인 한 여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느끼신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수많은 구경꾼들이 과연 그 여인의 존재를 눈치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그분은 인간적으로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영적으로는 인류의 어머니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그 천상의 모성애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60. 밭에 물을 주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양육해야 할 사람들, 가족, 혹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나에게서만 밭이 충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수정처럼 맑은 물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61. 스승으로서 나의 마음은 먼 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찾아오는 그 사절들을 감동으로 맞이한다. 나는 그들을 통해 그 마음들에 나의 평화의 메시지와 지혜의 가르침을 전한다.

62. 너희는 나를 가장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들의 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옳으니,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찾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내 존재를 느끼기 위해 너희가 넘어야 할 유일한 거리는, 너희의 물질적 사고와 영적 가치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리뿐이다.

63. 평화롭게 너희의 집, 고향, 혹은 너희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그 전에 열정과 정의, 그리고 활력을 갖추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누구도 자신의 행실로 이 가르침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며,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줄 치유의 연고를 마음속에 품고 가십시오. 매일같이 너희의 자비를 갈망하며 너희 문 앞에 찾아오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치유의 연고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라. 너희의 행실을 통해 내 가르침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즉 사랑과 용서, 구원의 진정한 근원임을 드러내도록 하라.

64. 너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깊이 성찰하라. 그러면 너희는 실제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너희에게 확신시켜 줄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삶의 여정에서 보내준 증거들이다. 이 가르침의 진리를 확신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사랑을 다해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65.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리 순수해 보일지라도 습관적인 일상의 흐름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주님,

주님의 일은 참으로 완전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보는 것 너머에는, 너희가 내일 도달하게 될 더 높은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영원히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내 지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결코 엿볼 수 없을 것이다.

66. 멈춰 서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도 마십시오. 걸음을 조율하고, 공부와 명상을 통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확고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2

1. 인류가 인간의 지성 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이 기념일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월이 흘렀고, 나는 내가 사용했던 자들과 내 말을 들었던 자들의 영적 수용 능력이 발전했음을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도 아니며, 신성의 계시에 대해 무지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론 내적 고양을 통해, 그들은 스승의 빛이 인류 가운데 드러나 여러분의 영적 삶을 완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 인류가 처해 있던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는 나의 빛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인간은 전능자의 권능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제한을 두어,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들리고 느껴지도록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3.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이제 사람들은 이 사역에 담긴 은총을 통해 영혼을 기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그때부터 나의 모든 제자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경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릇된 믿음이나, 죽음의 순간에 흠이 전혀 없을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에서 해방되었다. 너희는 깨어나서, 영혼이 더 이상 지상에서 살 필요 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환생을 거듭하며 따라가는 발전의 길을 예감하게 되었다. 너희는 속죄의 이유와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5. 내게로 온 죄인들은 영원한 저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희망과 믿음을 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6. 영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그들의 마음에 형성되었고, 믿음상 죽은 자였던 자는 그 삶을 위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 기적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내가 전한 계시를 통해 실현되었다.

7. 처음에 나는 너희가 종교적 관습과 의식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그것들로 흠뻑 스며들어 있었고 너희 감각이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이 너희 영혼에 빛을 비추는 만큼, 그 의식과 예배 행위는 점차 사라져 갔다. 믿음을 통해 얻은 기적들에 고무되어,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2시대에 말씀하신 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는 말이 다시 실현되도록 만들었다.

8. 1866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모세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 준 율법과, 제2시대에 너희를 가르치신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9. 오늘날 여러분이 그 법이 이미 첫 번째 시대에 선포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0. 너희가 내 율법을 실천해야 할 범위는 무한하다. 오늘은 이 방식으로, 내일은 다른 방식으로, 너희는 항상 이웃을 위한 선을 추구해야 한다. 내 율법은 강제로 부과되는 계명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영원한 권유이다. 나는 너희에게 선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선을 심어주고 너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돌보아, 너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11.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왔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숭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신념을 실천하는 데 있어 오류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사자와 사절들-내 신성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잘못된 관념들을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준비시킨 나의 대변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통해 너희가 나의 빛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이들은 신성한 메시지를 흥미롭게 경청했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관습이 도전받고 있음을 깨닫자, 나의 사자들의 부르심에 반감을 느꼈다.

12. 나의 신성을 대변하는 모든 사자들은 조롱을 견뎌야 했으며, 그들 모두는 인간의 잔혹함과 배은망덕함을 경험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선구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맡긴 바를 설교하고 실천해 왔으며, 이는 언제나 인류의 영적 진보와 조화를 이루었다.

13. 나는 항상 우주 창조주로서의 내 존재를 너희에게 계시해 왔으며, 태초부터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는 사랑과 자비임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자 너희는 너희 존재 속에 육체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예감이 너희 마음속에 구체화되자, 그것은 너희에게 영혼의 존재를 드러내 주었고, 이 생이 끝난 후에도 그 영혼을 위한 또 다른 삶, 즉 영원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14.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그분은 너희가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끊임없이 새로우면서도 영원히 유효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의 시대에 너희는 다시금, 이번에는 성령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15. 내가 너희에게 올 때마다, 나는 너희를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된 길로 인도하였다. 신성한 영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강림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사랑의 씨앗으로서 태어나고 자라나며 완성되어 가는 생명 그 자체임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임무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새로운 교훈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16. 그리고 지금 스승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어, 새로운 가르침을 계시해 주시고 잊혀진 것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적 영혼이, 아버지의 눈에도, 동료 인간들의 눈에도 창조주의 진정한 형상이 되어야 할 의무를 항상 명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 내가 예수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시절 이후로, 나는 항상 “군사” 나 사도로 온 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행실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확증하고 인류가 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막게 하였다. 그러나 내 말씀을 불완전하게 해석한 많은 “귀머거리” 와 “눈먼 자” 들은 의견이 분분하여 여러 종파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라져 있다면, 어떻게 내 율법의 가장 높은 계명에 따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문명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니,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나의 정의와 사랑의 법칙을 기초로 한 세상을 세우지 않는 한, 그들은 평화와 영의 빛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그 미덕을 바탕으로 영적 영역은 물론 과학과 도덕의 영역에서도 진정한 발전의 세상을 창조하고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18. 만일 너희가 이미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신성은 너희에게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물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예수이신 완전한 인간의 피가 너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면, 너희는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나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를 잊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나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여전히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 주고자 한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계시를 가져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지극히 중요한 계명을 이루도록 너희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19.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더 오래 듣고 나로부터 더 많이 배울수록, 너희의 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니, 심판자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 행실을 정당화하려 해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니, 양심이 너희가 그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이 너희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죄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이 생을 마친 후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게 될 자리를 지정해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내세에서 누릴 빛과 평화를 스스로 얻도록 이끌어 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 드립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상상할 수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에게서는 형상이 없으며, 그저 사랑이자, 능력이며, 지혜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예수를 통해 나를 보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20. 너희가 사랑할 때, 자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용서해야 할 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라.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빛이기에 영적으로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너희 아버지의 ‘이웃’ 이 될 것이다.

21.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너희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짐 때문에 지치고 피로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해 줄 치유의 연고를 나에게 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너희 내면을 탐구하며, 너희 자신을 알아가라. 양심의 빛 아래에서 너희 자신을 판단하여, 왜 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서, 너희는 악의 싹을 뽑아내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 불 속에 던져져야 한다. 땅에서 자라는 잡초는 사람이 아니라, 번식하여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죄와 무지이다. 그러나 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고, 나의 영감과 계시는 악의 침투를 막아내며, 사람의 마음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나는 그 밭에 내 씨를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22. 나는 병자를 찾아가는 의사이다. 너희가 고통받는 데 지쳤고, 너희를 치유해 줄 자비로운 손을 찾을 수 없다면, 나에게로 오라. 기도하고 나와 하나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위로를 베풀어 주리라. 나는 너희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율법을 실천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너희를 선의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것이다.

23. 스스로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라. 내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육신은 연약하여 너희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시련이 닥칠 때 절망하지 말고, 신성모독을 하지 마라. 폭풍우를 건디고 시련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정화되어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25. 나는 사람들의 권력 추구를 저지할 것이다. 파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한 그 날, 즉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날 이후, 나는 각 피조물에게 그 공로에 따라 평화를 베풀 것이며, 이 세상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누가 나의 고귀한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내가 너희 안에 창조한 것을 파괴하려 하겠느냐? 영혼은 신성불가침하다. 육신이 파괴되더라도 그 본질이 불멸인 영혼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은 법칙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그들이 내게 도달할 때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26. 신성한 심판에 순종하는 모든 이는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영혼의 운명을 기록해 두었으니, 그들의 시작과 끝은 내 안에 있다. 그들의 여정 내내 큰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한 번 또 한 번의 싸움을 치르게 되겠지만, 모든 길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의 사랑이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와 헤어지지 않으실 것이며, 자녀가 신성한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이 세상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때 스승과 제자는 하나가 되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세상에서도 영혼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듣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심지어 자신의 승화와 깨달음으로 인해 스승이 된 이들조차도 신성한 스승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가옵니다. 너희 세상에서 각자가 지닌 영적 성숙도에 따라 육체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28. 너희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알기 위해 나를 듣기 위해 모여들듯이, 빛의 존재들도 아버지께 더욱 잘

섬기기 위해 나를 듣기 위해 준비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마다 나는 항상 천사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 그 순간 그들은 신성한 사랑의 유대로 너희와 하나가 된다.

29. “영적 계곡”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지 않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사이에는 큰 끌림과 깊은 연민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각국의 영성 공동체와 교회, 종파들이 인류 간의 형제애를 이룰 때까지 실천해야 할 바입니다.

30. 새로운 제자들은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고했던 예언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 다른 세계에 거주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나를 섬기며 나의 명령을 받고 있음을 알라. 그들은 도우미이자 길동무로서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여정에서 그들의 힘과 빛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미래 세대들은 그들의 지성 속에서 위대한 영들의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32.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을 통해, 너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소행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영적 세계가 너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라.

33.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광신과 무지의 눈가리개를 찢어 버릴 만큼 충분한 지식을 주었다. 바로 그 눈가리개가 너희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34.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는 너희 영혼을 자유롭게 하라. 너희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형태만을 믿도록 영혼을 강요하지 말라. 영혼이 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고, 새로운 발견을 하며, 볼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리하여 영혼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의 위대함을 원한다면, 그 영혼이 펼쳐지도록 돕고, 광신주의에 갇혀 뒤쳐지지 않게 하라. 모든 것은 발전하고,

변화하며, 완성되어 간다. 오직 나의 법만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니, 그것은 항상 존재해 왔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의 인도자이며, 신성한 조연이자, 선을 고무하는 빛이다.

35. 내일 너희는 나의 영감 아래서 말할 것이며, 그 때가 오기까지 영적 세계는 인류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인류를 평화의 왕국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36. 나의 뜻은 죄인들을 택하였으니, 의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의 자비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의 삶을 동료 인간들에게 거울이자 본보기가 되며, 갱신의 증거로 보여주라.

37. 나는 너희 영혼 속에 벌어지는 투쟁과 너희 마음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때로는 너희가 시련에서 승리할 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안다. 그럴 때 너희는 스승님께 간청하며 도움을 청하고, 내 은사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분 앞에서 고백한다.

3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 말씀의 정수를 마시라. 그것은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고 구원해 줄 내 피 그 자체이니라.”

39. 영혼들은 나를 들을 때 황홀해하고, 마음은 내 말씀의 빛을 받을 때 더 빨리 뛰며, 입술은 영성화의 첫 표현들을 더듬거리기 시작한다. 이들은 참된 삶을 위해 태어난 새로운 제자들의 모습이다.

40. 나는 너희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보았으며, 동시에 너희 영혼 속에 있는 큰 겸손과 순종도 보았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와서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을 가져다주었다.

41. 군중들이 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오직 버림받은 마음들만을 보았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본질은 강력한 치유
연고처럼 기적을 일으켜 너희를 생명으로 부활시켰다.

42. 오직 나의 말씀, 오직 이 가르침만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 본성 속에서 영혼의 존재와 그 능력, 특성, 사명을 찾도록
가르쳐 줄 수 있었다.

43. 이제 너희가 스스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너희는
점차 삶에 대한 큰 신뢰와, 나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믿음,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4. 너희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원했던
바이다. 내가 이미 그 옛날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길이요, 이 길을 걷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45. 이 목소리의 매개자들을 통해 나를 듣는 사람들만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 나는 내 말씀이 더 이상 이
전달자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메시지는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46. 병든 채로 이곳에 와서 내 말씀의 치유 연고로
치유받은 사람들아, 너희가 단지 너희를 괴롭히던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라. 내 부름의
진정한 목적 은 너희가 이웃들에게 수행해야 할 영적 사명을
밝혀주는 것이었음을 깨달아라.

47. 평화를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데 그치지
마라. 자비의 행위가 주는 기쁨을 너희 영혼을 위해서도
추구하라. 여러분의 간증은 “스승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이상으로
이웃에게도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와 그들에게 합당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48.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기 위해 내 길에서 반드시 밟아야 할 그 한 걸음을 내디디지 못한 것이다.

49. 나는 너희가 타인에 대해 마음이 굳어 있고, 무관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았기에,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쏟아부어 너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연민을 일깨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너희가 훗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0. 오늘날 세상은 내가 언젠가 온 세상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백성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는 새로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즉 그들이 싸움에 맞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니, 이는 그들이 미리 내 진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51. 인류는 내가 현재 이 백성에게 드러내고 있는 은사들, 즉 모든 사람과 모든 영혼이 지닌 그 영적 은사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펼치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포괄적이고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2. 이 백성은 아직 자신의 준비와 영성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군분투를 해야 한다. 그들에게 여전히 붙어 있는 흠을 씻어내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선포한 말씀은, 과거에 인류에게 계시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너희는 영적인 씨앗이 마치

멈출 수 없는 수정처럼 맑은 물의 흐름처럼 — 정화하고,
정련하며, 모든 악을 무너뜨리며 — 들판을 비옥하게 하고, 모든
땅에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53. 내 권능에 비하면 인간의 힘이란 무엇이겠느냐?
물질주의적 민족들 의 저항이 영성화의 무한한 힘에 대항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인간이 권력에
대한 탐구의 한계와 오만의 정점에 이르도록 허용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의지의 자유라는 선물이 진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한계에 도달하면,
빛과 사랑에 눈을 뜨고, 너희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적 권능과
유일한 보편적 지혜 앞에 굴복하며 내 임재 앞에서 머리를 숙일
것이다.

54. 싸우고 굳건히 버티라, 백성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리라.

55.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신성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느껴보아라. 그때 내 영은
기꺼이 사람들 가운데 머무르리라.

56. 너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지혜와 끝없는 인내로
너희의 불완전함을 바로잡아 주신,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나를 경험해 왔다.

57.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영성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설명을 쉬운 말로 남겨 주겠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리니,
그리하여 이 사역의 제자가 영원부터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미리 정해 놓은 길 위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리라.

58. 영성주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가며 모든 시대의 법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밝혀줄 뿐이다.

59. 영혼은 본래 순수하나, 세상에서 불순물에 오염되었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

60. 확고한 신념을 가진 영성주의자는 자신에게 후퇴를 의미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은 두려움을 통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그 진리와 사랑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회심시키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제2시대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강요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61. 오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은 믿음이 일으키는 것이다.

62. 이 시대에 누가 나의 현존을 의심하겠는가?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작용의 가능성을 누가 제한할 수 있겠는가? 누가 스승이 자신의 걸작인, 영적으로 자신의 형상과 비유로 창조된 인간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63. 이 설명의 의미를 무기로 삼아, 내일 불신자들에게 이 계시들을 설명하라.

64. 너희는 무지한 자들과 이 대의의 적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전에 나는 너희에게 길과 함정, 위험들을 알려 주리니,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너희가 언제나 올바른 길을 찾아내어, 너희가 나온 근원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65. 사람이 땅에 거주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 쉬고 살아간다. 그리고 너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며 선과 악이 그분께 다가오게 하시고, 그분의 겸손함으로 시험을 받으시려고 이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 내가 사랑으로 인간이 되어 너희 가운데서 살았으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구원을 찾도록 돕고자 찾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66.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끼며, 때로는 자신을 향해 뻗어 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손길을 갈망하기도 한다. 고통이 마음을 꿰뚫을 때, 그는 순종을 갈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응답받기를 바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친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창조주께 닿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그분께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 그의 영혼에는 아버지를 예감하고 알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땅에서 갈망하는 것을 찾지 못할 때, 그분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차츰 이해하게 된다면 —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인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67. 아무리 물질주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위에 계신 힘을 직감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직감이나 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계시들이 진리, 정의, 사랑의 원리에 따르고 있음을 확신하게 할 것이다.

68. 물론, 이 사역을 맡은 사람은 것처럼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확신을 가져야만 했으며, 또한 그가 제 신성한 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해 제때에 약점과 물질적 경향을 떨쳐내지 못했다면, 그 계시는 청중들이 항상 바랐던 외적인

화려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지만, 뒤에는 언어적 표현의 불완전함 너머로 신성한 영의 본질과 진리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69. 내 말씀을 연구할 때 표현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라. 영감은 모든 대변자에게 닿으며, 그들은 자신이 언어적으로 이론 완성도에 따라 그 영감에 언어적 형식을 부여한다.

70. 그 의미에 충실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3

1. 너희 영혼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며, 나는 그것을 환영한다.

2. 제자들아,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내 사역을 탐구하기 위해 나설 것이니, 어떤 이들은 그것이 세속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가르침으로 널리 알리어야 한다.

3. 과학이 지식이자 통찰이며 빛이기 때문에, 내가 과학의 적대자로 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인식 위에 있습니다. 나의 사역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성주의, 즉 영적인 것, 신성한 것에 대한 인식과, 물질 너머에 있는 더 높은 삶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 줍니다. 진실로 나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람들이 발전시켜 온 과학을 축복합니다.

4. 지금이야말로 영혼과 과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될 때입니다. 과학은 그것을 알기 위해 육체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에서 비롯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5. 나의 신성한 가르침은 너희의 영혼을 완성하도록 이끄는 더 높은 과학이다. 또한 나는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뇌와 마음을 주었다.

6.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지식은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을 아우르고 무한하다. 그 안에서 너희는 영적 삶과 물질적 삶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7. 이제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파헤칠 능력이 있다고 본다. 물질과 관련된 과학을 통해 너희는 온 창조물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법칙들이 너희 자신의 몸 속에 응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여 예전에는 여러분에게 비밀이었던

법칙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저 세상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매 순간 여러분과 소통하려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가르침을 안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소박한 가르침은 너희에게 더 높은 깨달음을 주며, 그 깨달음은 이 세상의 학자들 앞에서 너희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9. 자연이나 너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과학 서적을 찾아 헤매며 질문할 필요는 없다. 너희의 통찰력을 단련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너희 입술에서 영감이 흘러나오게 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10. 너희가 내 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여기고,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외면한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부를 것이다.

11. 깨달아라. 내가 이 시대에 무지한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계시를 위해 너희가 학자나 철학자라고 부르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감을 전달하는 두뇌는 영혼 속에 빛을 비추며, 그 빛은 지혜이다.

12.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라. 싸워라. 영혼이 발전의 길에 있는 한, 유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힘을 주어, 너희가 악한 성향을 이겨내게 하리라. 너희 영혼이 강해지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 이성에는 힘을, 마음에는 확고한 의지를 부여할 것이다. 사람에게 빛이 부족하면, 그의 영혼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삶의 우여곡절이 그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는 폭풍 한가운데서 전복되는 배와 같아진다.

13.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마치 유혹의 시련에 맞서 파괴될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14. 내가 너희에게 이 가르침을 밝힌 것은, 너희가 길에서 잠시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의 길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15.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풍요로움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며, 그 평화는 여러분의 존재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충실한 수호자로서 지키고, 고통받는 이에게는 위로가 되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이에게는 평화가 되어줌으로써 아버지께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16. 이 순간 여러분에게 나의 임재를 알리는 것은 단지 나의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깊이 느끼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입니다.

17. 나는 너희를 환영한다. 여기 너희의 마음이 영혼과 조화를 이루도록 양육하는 내 말씀의 정수가 있다. 너희는 과학이나 철학을 알지 못하면서도 지혜를 얻는다. 너희는 예언자이며, 직관과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있어 이를 통해 나의 영감을 받는다.

18. 사람들이 내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되기 전에, 전쟁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인류는 정화될 것이며, 그 후에 성령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19. 너희의 사명은 스승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나의 신성한 가르침에서 너희를 분리시키는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가르침은 너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줄 보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20. 너희는 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육체의 반항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너희 영혼에 빛과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다.

21. 나는 너희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한 책임자로서 너희를 남겨두며, 너희는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순수함 그대로 전해야 한다.

22. 이 시기에 내가 오신 것은 율법의 길로 다시 초대하는 것이며, 이 말씀의 모든 의미는 내가 한때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삶의 규칙,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요약되어 있다.

23.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너희는 상속권을 박탈당한 백성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항상 나의 은혜를 누리 온 백성임을 깨달아라.

24. 자애로운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또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낙담함이 깃들지 않도록 기쁜 용기로 여러분을 채워 주십니다.

25. 영혼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니 참으로 복되도다. 생각의 자유를 얻고, 나를 찾기 위해 겉치레의 예배 형식과 교리를 버린 너희는 참으로 복되도다. 나의 가르침이 너희의 깨달음의 능력을 밝혀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행실과 감정, 그리고 마음의 순결함이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창조주와의 완전한 대화, 즉 영적 교제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녀는 “아버지, 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는 그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응답하실 수 있다. 이 목소리는 내면적으로 고양되는 모든 이의 영 안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목소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의 마음과 영혼을

다듬어 줄 것이다. 이러한 일체감은 이 생에서 물질을 통해
정화되고 맑아져 지혜를 얻고 창조주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에게 마치 향유와 같을 것이다.

2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영혼을 영생 으로 이끄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생에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그 교훈을 활용한다면,
육신을 떠날 때 너희는 꽃에서 풍기는 향기처럼 될 것이니,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함을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27. 너희 영혼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그분 안에 거하는
지극한 기쁨을 느껴라.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계시며,
내가 다시 오셔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더욱 커져야 한다. 너희의 기쁨을 내 영적 세계에서
넘쳐흐르는 기쁨과 하나로 합쳐라. 그 존재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세계가 너희의 세계보다 무한히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의 세계에서 단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28. 너희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헛되지 않았으니,
그것은 너희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 너희 영혼은 스승의 지혜로
인해 빛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스승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생의 고통을 견뎌낼 힘과 희망까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솟아오른다면 — 진실로,
그때는 너희 영혼이 말한 것입니다.

29. 오늘 너희는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내 가르침의
영적 의미로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30. 마지막 은총의 시기인 이 때에, 나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사랑의

유산을 남길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그리고 모든
이가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31. 너희 마음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1950년이 지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내가 유언으로 남기고 인쇄될 내 말씀을
의지하라.

32. 너희는 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잠시 동안 더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며, 내가 곧 떠날 것임을 너희에게 알릴 때, 나는
그 당시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지금 갈 수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도
내가 지금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33. 너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의 위로의 말씀이 너희에게 내려온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빛의 광선과 같아, 너희의 마음을 밝혀 주어,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합당한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4. 영성가는 표현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은
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35. 영성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타인을
위해 헌신할 줄 알 것이다. 이 제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 줄 것이다. 그는 동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진실로, 섬기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36. 이 가르침의 사도들은 세상에, 아버지나 이웃에게
저지른 모욕에 대해 나를 달래기 위해 호화로운 모임 장소나
교회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37. 사람이 자신이 물질보다 영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주님께 자신의 존재 중 영원한 부분인 ‘영혼’이라는 꽃을 바칠 것이다.

38. 적대적인 세력들은 영성의 꽃피움을 방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지배해 온, 사람들이 믿고 실천해 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나의 신성한 가르침은 강제로 주입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주지도 않는다. 그 가르침은 설득력, 진실성, 정의로움을 통해 영혼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것이다.

40.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현상’이라 부르는 것, 즉 창조물 전체의 발전에 내재된 발현들의 원인을 찾고 있다.

41. 인류는 많은 것을 배웠으며, 오늘날 지구를 거주하는 인류와 과거의 인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영적인 면에서도 너희는 큰 진보를 이룰 것이며, 오늘날 너희가 처해 있는 영적 후진성과 비교할 때 그 진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42. 투쟁의 시기를 대비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고, 너희를 대적할 자들을 맞설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라. 아직 내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여 마지막 자극과 마지막 지침을 주고 있다.

43.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깊이 확신하고 굳건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이 내게 말하길, “스승님, 혹시 우리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겠다고 수없이 맹세해 왔으면서도, 시련의 순간이 오자 의심이 들지 않았느냐?

44.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며,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은 곧 너희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임을 알려줄 뿐이다.

45. 내 가르침을 전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선행을 베풀어라. 누구도 속이지 마라. 너희의 행동에 아직 진실함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변해야 할 때이다. 나, 너희의 스승을 믿어라.

46. 때때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 자신도 가난한 자들임을 잘 알면서도,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내 힘을 간절히 구하곤 한다. 너희는 비참함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낙담한다. 그런 순간에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47. 고통이 너희를 감싸면, 너희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보이기 때문에 즉시 사라지기를 간구한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완전함이 없기 때문이며, 너희 영혼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정화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통이 종종 그 후 고통받는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48. 지상에서 너희의 삶을 온전히 활용하고, 사랑과 고양된 마음, 인내로 고통을 견뎌내어, 바로 이곳에서 너희의 오점을 씻어내라. 그러면 고통이 지나가고 너희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 그 평화를 기뻐하며 굳게 붙잡아라. 너희가 고통을 견디는 방식 그 자체로도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영성주의자들이 말솜씨는 뛰어나지만 행동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는 항상 칭찬받을 만한 행실로 너희의 믿음과 말을 뒷받침해야 한다.

49. 너희가 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내가 이미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해 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50. 너희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심판의 순간이 왔을 때 너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 나로부터 어떤 형벌도 기대할 필요는 없다. 나의 정의는 결코 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할 것이다. 각자는 스스로의 재판관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자신으로부터 구해내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희는 악의와 이기심, 허영심인 적을 스스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51. 이 모든 것을 통해 너희는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생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52. 너희가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와 함께하여 어려운 순간에 너희를 도와주리라.

53. 너희는 마음속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축복받으소서.”

54. 내 계시를 전하는 그 사람은 너희 눈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나의 신성한 본질만이 남을 것이며, 너희 영혼은 내가 계시를 전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본질을 받아들일 것이다.

55. 너희는 이 육신에 신성한 것이 전혀 없으며, 단지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현존을 누리기 위해, 모든 육체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너희 영혼을 해방시킨다.

56. 나는 종종 너희에게 ‘목소리 전달자’가 수행하는 진정한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는 너희가 그가 자신의 말에 어느 정도까지 완전성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의 전달 능력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계시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혜와 영적 의미와 같이 *나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과, 대변자의 철저한 준비와 같은 점을 그에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말이다. 이처럼 너희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매개체의 불완전함을 나에게 돌리거나, 반대로 *나* 영이

그 매개체를 통해 전달한 지혜와 권능을 그 매개체에게 돌리는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57. 너희는 이 말씀의 외형적 형식에 대해 광신적으로 변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나는 앞으로도 자주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형식은 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인 대변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58.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제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외형적인 예배 행위에 대한 너희의 집착이 너무나 커져서, 시험의 순간이 닥쳤을 때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 ‘시험의 순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대변자를 통해 너희에게 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할 그 날이다.

59.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60. 이 백성은 크고, 그 가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나의 계시를 끝내겠다는 나의 뜻이 표현되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61. 너희 모두는 이 계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내가 계시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 백성에게 이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일정 기간 동안뿐임을 알려주었음을 알고 있다.

62. 내 말씀이 울려 퍼진 모든 교회에서 내가 주신 또 다른 계시는, 너희가 장차 영과 영이 서로 교감하며 나와 연결 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이나 상징, 혹은 외적인 예배 형식을 통한 중재 없이 말이다.

63.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 장소에서든, 소수의 제자들만이 모이는 소박한 장소에서든 - 대도시에서든, 지방이나 작은 마을에서든 - 내 사역의 본질이 드러났다. 너희는

영성화로 나아가는 길을 확고히 걸어갈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스승에 대한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랑을 증명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필요할 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분을 따를 줄 알도록, 모든 가르침을 통해 너희를 굳건히 세워 주었다. 오랫동안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며, 그 포기가 온 민족을 위해 영성화의 길에서 큰 진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64. 너희가 이 준비적인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현재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 깨달음은 내가 떠나는 날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65. 나는 불순종이나 잘못된 해석, 혹은 어리석음이 너희를 빠뜨릴 수 있는 시련을 너희가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과 경고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나보다 더 강하다고 여기거나, 나보다 더 현명하고 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의로 내가 명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그로 인해 자신의 심판을 스스로 내리고 확정하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무게는 그의 과오의 정도에 상응할 것이다.

66. 내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꽃피운 곳일수록 가장 큰 책임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내 가르침이 가장 밝게 빛났고, 내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곳들, 즉 미미한 곳들을 위해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바로 이러한 곳들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리하여 모든 이가 내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67. 어떤 이들은 먼 곳에서 찾아오고, 다른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오지만, 모두 너희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 주는 이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 인류에게 내가 이 시대에 나를 드러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지 말라. 나의 오심과 나의 새로운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말씀이 있으며, 너희 스스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8. 내가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셨다. 이는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내 뜻이 너희를 이 겸손한 곳으로 이끌어 내 말씀을 듣게 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듣도록 부르셨으니, 이 계시는 곧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일찍 와서 오랫동안 힘을 얻었고, 다른 이들은 늦게 왔지만, 그들도 이 가르침을 잘 활용할 줄 알게 될 것이다.

69. 너희를 이 길로 인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희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나만이 너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이 주어진 백성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낮과 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인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가 영적으로 과거에 생명과 진리의 길이 제시되었던 그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 주기 위해 왔다.

70. 이 지상 생활은 너희가 이를 활용하고 나의 법과 계명을 따르도록 허락된 또 하나의 기회이다. 그 시절은 지났고, 오늘 나는 나의 신성이 준비한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부르심을 전하기 위해 왔다.

71. 엘리야는 내가 그 후로 사용했던 지성 기관들을 통해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으며, 너희는 이 전달자들을 통해 과거 계시의 해석을 받았다. 첫 번째 대변자들의 지성 능력을 통해, 이 길을 따라야 했던 자들, 즉 나중에 그 수가 불어나 여러

지역에서 나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 자들이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이들을 대변자라고 불렀습니다.

72. 이제 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오늘,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순수한 영감을 전하는 그 마음들에게, 자신의 양심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이 마지막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사역과 내 말씀 모두가 절정에 달해야 함을 깨닫기를 간청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린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갖추기 위해 희생을 바쳐야 한다.

73. 유혹이 그들을 노리고 있겠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이다. 내가 그들의 좌우에 천사들과 빛의 영들을 세워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74. 오늘날까지 인류는 나와 영적으로 직접 소통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빛의 존재들을 보내어, 그들을 통해 세상에 말해 왔습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인류에게 말해 왔는데, 지금 무엇이 그리 놀랍습니까? 저 세상 많은 존재들이 나에게 이를 간청한다. 나는 파멸해 가는 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을 세상에 환생시키곤 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자들은 이미 지구에 있으며, 나의 사자들은 이미 정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나의 백성의 일부이며, 그들의 용기와 고양된 정신을 증명해야 한다.”

75. 너희는 빈손으로, 혹은 썩은 밀알을 들고 내게 올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나를 생각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76. 세계 각지와 다양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 빛의 광선을 기다리며,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희망하는지 살펴보자. 그들의 간청과 애원을 들어보자. 그들이 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 왔으나
당신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 구세주이신 당신은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77. 제자들아, 너희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야 인류가
나의 영적 사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리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너희가 내가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순간이 올 것이니.”

78. 제자들아, 내 말씀으로 용기를 내라. 오랫동안 열매
없는 밭에서 고생한 끝에 잠시 낙담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휴식을 줄 것이니, 그 후에는 큰 삶의 용기를 가지고 길을 떠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깨어 살아가라.

79. 너희 자신의 행실을 통해 인류가 나의 오심을 믿게
하도록 하라. 너희의 집을 선과 자선, 사랑에 바치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 그 문을
통해 궁핍한 자, 병든 자, 슬픔에 잠긴 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라. 내가 이 모임의 장소에서 너희를 맞이했던 그 자비로,
너희도 너희 집에서 이웃들을 맞이하라.

80. 내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깊이 탐구하라.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의 책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내가 바로 너희의 책이었고, 나의 영적
세계는 그 책의 한 페이지였다. 그 말씀을 따르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4

1.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노라. 삶의 순례자들아, 이 샘으로 다가오라; 오, 두려움에 떠는 마음들아, 와서 마시라. 도움을 청하며 내게 뺏은 손들아, 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너희 모두 이곳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어 가라.

2. 너희 모두가 울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 모인 이 무리들 중에서도, 최근에 받은 은혜로 기쁨에 차서 다가와 마음속으로 내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이 큼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3.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영원한 사랑의 영이니, 바로 다른 시대에 인간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악덕과 죄, 그리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4. 나는 변함없는 그분이다. 나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며, 시간은 오직 나의 뜻에 복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고, 너희가 내일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려 준다.

5. 나는 제2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 놓았던 그 말씀들과, 이 세상에서 나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갈보리 산에 남긴 피 묻은 흔적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6. 내 말씀 속에는 너희의 존재를 달콤하게 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 삶의 씩씩한 맛이 되어 온 괴로움을 영원히 몰아낼 수 있는 꿀이 있다.

7. 예전에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땅을 맡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너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8. 정체 상태를 극복하라. 모든 영혼의 사명은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며, 새롭게 되는 것이다.

9.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 즉 너희가 영적 나태함을 떨쳐내고 산 정상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새로운 시기를 예고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발전과 완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의 말씀만이 아니다. 너희를 둘러싼 자연 또한, 너희가 듣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그만의 언어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 역시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의 품은 더욱 고도로 발달하고 완전한 존재들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보금자리는 그곳에 거주하게 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0. 자연계와 사계절, 창공과 육지, 바다에서 어떤 징조도 눈치채지 못했느냐? 너희는 눈이 멀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징조들을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귀가 먹어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옛날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에게 알리십시오. 곧 너희 행성은 모든 면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나무를 휘두르듯, 땅도 흔들릴 것이며, 나무 가지에는 생명이 있는 잎들만 남을 것입니다. 시든 잎들은 떨어져 나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그 날들은 모든 사람에게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며, 오직 기도와 선행 속에서만 그들은 보호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지상에 마치 구원의 문과 같고, 어둠 속의 등대이며, 혼란 속의 평화와 같은 백성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이 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말씀에는 시련의 순간에 인류를 위한 보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3. 너희 가운데 내 임재와 내 말씀의 선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너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받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 이 가르침이 그 순수함과 진실함 그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목마르고 지친 여행자가 사막을 가로질러 오아시스로 향하듯, 이 가르침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15. 너희는 아직 이 가르침이 지상에서 뚜렷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없으니, 너희는 나의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6. 이 백성이 나서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빛과 의미를 담은 영적 씨앗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실수와 반항, 그리고 신성 모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17. 올바른 행실, 참된 경배, 그리고 임무의 충실한 수행은 제3시대의 제자들이 내 말씀에 올바른 해석을 내리고, 그들의 행실로 내 가르침을 증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18.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성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내 영적 가르침에 외형적인 행동 방식과 숭배 형식을 섞어 넣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역의 진실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나는 내 보물창고에 위대한 기적과 업적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 백성이 준비되는 대로 그들을 통해 세상에 쏟아 부을 것이다.

20. 나는 이 무리의 영성화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가르치고 영감을 주어 왔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내가 기대하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조화와 형제애는 어디에 있는가? 이기심 없는 순종과 겸손, 자선은 어디에 있는가?

21. 이 백성은 세상에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 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내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는 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22. 나는 너희에게 인류 속에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이 만연해 있으며, 오직 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은 가르침만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 말씀과 이 사역이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과연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나의 계시가 일단 끝나면, 나는 이 백성에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할 시간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서서 나의 말씀의 전령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는 제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증언은 진실될 것이다.

23. 이 백성이 세상에 전할 모든 메시지는 위로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 영혼이 품고 있는 비밀, 즉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풍부한 자질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영혼과 영혼 사이의 대화를 가르쳐 줄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4. 영성주의의 선한 씨 뿌리는 자들은 결코 외형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허세도,

휘장도, 어떤 특별한 말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소박하고 단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들이 무언가로 두드러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천적인 이웃 사랑과 영성일 것이다.

25. 영성주의의 참된 설교자들은 말솜씨가 아니라, 그들의 말씀에 담긴 지혜와 소박함으로,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실의 진실성과 삶의 의로움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26. 내가 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걸으려면 아름다운 말솜씨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오히려 나는 사랑과 진실함, 치유의 힘,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내 뜻에 따라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본보기이다.

27. 또한 나는 너희가 종교적 실천을 물질적인 예배 장소에만 국한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가두게 될 것이며, 영원을 정복하기 위해 그 영혼이 날개를 펼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제단은, 내가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삶이며, 모든 교파와 모든 교회, 모든 종파를 초월한 것이다. 이는 그것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신성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9. 제자들아: 너희 중 많은 이가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노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듣고 내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일 때, 내 지혜 앞에서 너희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함을 고백해야만 했다.

30. 너희는 제3시대의 시작에 지상에 머물며 이러한 형태로 나를 들어야만, 세상에 나의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의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31. 내가 ‘영적 빛의 시대’ 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시작과 함께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들 속에는 큰 의문과 깊은 의심, 불확실성, 그리고 영혼의 갈등이 생겨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영적 삶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32. 그때 내 모든 제자들이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에서 모든 무지를 없애거나 폭풍을 가라앉히는 말씀이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영의 가르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마치 물이 목마른 이의 갈증을 해소하듯 고통을 달래 줄 것이기 때문이다.

33. 그때 삶은 변화할 것이다. 종교, 도덕, 과학, 철학, 모든 관념은 큰 변혁을 겪게 될 것이며, 마침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자비의 완성에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34.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왕국이 나의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속하며,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나 인간적인 외피는 단지 영혼이 시련과 속죄의 이 세상을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마침내 이 삶이 단지 경이로운 형상과 이미지로 묘사된 위대한 교훈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자들, 즉 모든 인간이 삶이 주는 교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면 영혼의 발전을 이루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투쟁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 그들을 갈고 닦는 고통, 그들을 고귀하게 만드는 고난, 그들을 깨우치는 지식, 그리고 그들을 고양시키는 사랑을 말이다.

35. 만일 이 현세가 유일한 존재라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속에서 고통을 없애

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오직 고통의 잔을 마시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고통받고 울고 있는 자들은, 과거에 방탕하게 향락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들을 정화시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주님의 거처에서 더 순수한 형태로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할 것이다.

36. 그 당시 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순수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배우게 하기 위해 가르쳤다. 오늘 나는 너희가 영성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일 ‘영적 계곡’에서 빛의 존재들과 함께 살 준비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37. 인류여, 육체는 영혼을 위한 도구나 외피로서 그 임무를 다한 후에야 비로소 소멸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존재 안에 있던 영혼, 즉 지성의 빛과 이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은 결코 죽지 않으며,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상에서 그 존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불멸의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38.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 교파의 길에서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의식, 형식, 전통, 겉모습만으로는 현대인의 영혼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빛과 의미, 진리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안전함을 느끼고, 시련의 순간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39. 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나를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지식이 너무나 뒤죽박죽이라,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고, 방향을 알려줄 이끄는 별이 없는 방랑자 같으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

40. 나는 너희에게 이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몇몇 형제자매들을 통해 전한다. 나는 그들의 지성을 빌려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41.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도시의 구석구석, 가난의 그늘 속에서, 그리고 소박한 삶의 고요함 속에서, 내가 아버지이자 심판자이자 스승으로서 내 가르침을 전하는 모임 장소들이 문을 열고 있다.

42. 장차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대했던 무관심, 즉 많은 이들이 인간들 가운데서 내 새로운 임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보였던 무관심은 정반대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 다른 이들이 보였던 경멸은 그 후 관심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증언과 기록, 증거를 갈망하며 나서게 할 것이다.

43. 나는 그 마음들이 이 시대에 나의 발자취를 찾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내 앞에 서면 그들에게 말하리라. “환영하노라, 사랑하는 백성아,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씀을 들으라.”

44. 사랑은 내가 모든 시대에 너희에게 드러내 보인 것이며, 오늘 내가 선택한 자들의 이성을 통해 선포함에 있어, 나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낼 수 없었다.

45. 오늘의 이 가르침은 너희로 하여금 제2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교리를 이해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너희는 그 본질을 마음속에 깨어 있게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본질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46.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니, 모든 것이 모든 사람과의 나의 영적 교류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증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47. 너희의 영혼은 항상 나를 찾았으며, 나는 결코 그 영혼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너희가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든, 어디에서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나의 사랑이 너희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48. 모든 시대에 걸쳐 나는 너희를 찾아갔으며, 너희 영혼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음을 보았다. 이제 영혼은 육신의 약점 앞에서 자신을 관철시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이 은총의 시대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육신에게 깨닫게 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49. 나는 너희를 부르셨고, 가르치셨으며, 너희는 곧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뇌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멈추는 순간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너희의 이해력은 나의 말씀을 파악하기에 충분히 단련될 것이며, 너희의 영혼은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50. 나는 너희의 영, 곧 나로부터 태어난 그 원자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가 그 당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 ” *너희의* 나라도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모든 것, 변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너희의 이성을 초월해 있다.

51. 지금이야말로 모든 영혼이 깨어 진정한 삶으로 깨어나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준 것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머무는 한, 그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하루 중 짧은 시간을 나에게 바쳐 너희의 자매인 인류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뿐이다.

52. 내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너희 안에서 내가 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노라.

53.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 날, 너희 영혼이 쉼을 얻게 하라. 내가 제자들을 택했던 그 시절, 그러나 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도 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는 오늘 나를 따를 자들을 택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말씀이 수많은 군중에게도 전해지도록 허락하노라. 이 길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나의 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모든 이가 동시에 올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일찍 올 것이고, 다른 이들은 나중에 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54. 마음속에 성소를 세운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다.

55.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는 씨앗은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합한 경작지를 찾을 것이다. 그 전에 나의 의가 마치 낮처럼 발을 뒤덮은 잡초를 베어내어, 씨앗이 싹틔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발은 다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세상도, 사람도, 죄도, 정욕도 지울 수 없었던 나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발자취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56. 사람들은 깊은 무기력에서 깨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나의 신성한 발자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를 통해 그들은 서둘러 내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내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야 할 것이며, 그 후 상을 받기 위해 내게 올 때, 비록 이삭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로 오라. 그러나 그 이삭은 양질이어야 한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맞아 주리라. 나는 사랑과 자비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반쯤만 하고 남겨둔 파종은, 나중에 다시

이어받아 너희의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때까지 잡초가 다시 발을 뒤덮지 않았는지, 해충의 재앙이 그곳에 침입하지 않았는지, 너희가 과연 알 수 있겠느냐?

57. 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느낄 때 즉시 따라와야만, 내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맡겨 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번영과 평화라는 상을 얻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심판을 서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58. 내 말씀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다. 내 망토가 너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를 덮기 위해 펼쳐지는 모습을 보아라.

59.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그것은 너희 영혼을 비추어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빛이다. 지금은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닿는 은혜의 때이다.

60. 나는 너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이니, 너희가 인류의 고통을 내 앞에 가져오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 계시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 마음속에 거하고자 하노라.

61.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피가 땅 위에 쏟아졌는가! 내 자녀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 사자들이 평화의 실현을 위해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때가 왔음을 내면의 직감이 말해 주는 가운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아라.

62. 모든 종교 공동체는 각자의 예배 방식 안에서, 신앙 고백의 틀 안에서, 혹은 경배의 형태 속에서 내 재림의 기적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63.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재림을 믿으며, 나와 교감하는 법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이다.

64. 보라, 사람들은 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어둠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

65. 고통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를 향해 시선을 들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마치 너희가 너희의 길에서 멈춰 서서 영의 눈을 뜨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말씀을 알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 ’를 통해 재능이 성장한 자뿐만 아니라, 발달 수준이 미미한 자에게도 말이다.

66. 복음을 듣는 자는 처음 순간에만 놀라게 될 것이니, 그 후에는 메시아가 제2의 시대에 오시기 전에도 예언자들을 통해 그분의 오심이 예고되었음을, 마치 이 시대에 나의 오심이 예고된 것처럼, 기억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이를 알렸고, 나의 도래를 증명할 징조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다.

67.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람들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시대에 걸쳐 너희를 비추어 온 성령의 빛이 있다. 신성한 빛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8. 나의 진리는 광신, 우상 숭배, 종교적 열광이 솟아나는 무지를 다시금 물리칠 것이다. 왜냐하면 광신은 맹목적이고, 우상 숭배는 물질주의적이며, 열광자는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69. 나는 심연의 깊은 곳을 비추어, 모든 영혼이 그곳에서 순수하고 깨달음을 얻은 채로 올라오게 하리라.

70. 영원 속에서 영혼의 전개나 발전이 결코 멈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완성에 이르는 법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71. 때로 영혼이 그 길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육체의 영향 때문이다. 그럴 때 영혼은 걸음을 재촉하거나 새로운 육신으로 환생함으로써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벌이 아님을 깨달아라. 항상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 속에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너희 영혼은 불안해하지 말라. 죽음은 단지 무덤의 부드러운 품에 안길 육신만을 찾아올 뿐이니라.

72.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시대, 곧 진리의 영의 시대가 세워졌음을 깨닫고, 평안히 영적 고향으로 가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5

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

2. 대변자의 영감을 통해 가르침으로 가득 찬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다. 이를 들음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작용하는 힘이자 치유제이며 갱신을 의미함을 깨달았으며, 그 본질 속에서 영혼의 생명을 엿보게 되었다.

3. 스승님께서 너희가 주위에 있는 것만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스승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것이다. 바로 너희가 스승님께 지고 아직 갚지 못한 그 빚을 갚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아온 모든 기간 동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빚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 말씀의 어루만짐 속에서 책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은 계명을 발견하고, 그 본질 속에서 법을 발견합니다.

4. 너희의 이성만은 때때로 이 속죄의 의무에 혼란을 느끼고 이에 저항하는데, 이는 오직 영혼만이 그 빚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이 세상의 쾌락에 휩쓸려 내려간다면, 영적으로 천민이 될 것이다.

5. 나는 내 제자들이 믿음과 신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발밑의 사막 모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 이 세상의 부를 뒤로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은 단지 위선자일 뿐이며,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다.

6. 이 길이 장미꽃으로 뒤덮여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시덤불로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며, 갈보리 산 정상으로 이끄는 길이다.

7.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내 말씀이다.

8. 지금은 모든 이성과 영혼이 나의 빛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각종 교파와 가르침이 온전한 명료함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동료 인간들이 영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게 될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9.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비가 너희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었음을 깨달아라.

10.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세대들이 와서 이를 보고 놀라워하며, 기록될 책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감에 압도될 것이다.

11. 너희는 내가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비록 그것들이 모두 같은 목표로 이끄는 길들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가장 짧은 길을 보여주고자 했다.

12.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라.

13.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즉 너희가 오랫동안 인간의 이성을 통해 받아온 이 아름다운 교훈을 멈출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아무것도 놀라지 않도록, 내 사역의 적들이 내 증인들 안에서 믿음의 무적의 힘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너희가 혼자가 아니며 내가 모든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14. 오늘 너희 존재에서 일하도록 재촉하는 힘이 솟아나고 있다. 그것은 내면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양심이다.

15. 물질 세계에서는 법의 권능이 너희의 행동 방식을 규정한다.

16. 영적인 영역에서는 만물을 아우르는 나의 사랑의 법칙이 작용하며, 이는 너희가 숨 쉬는 공기 속, 너희를 둘러싼 세계들, 그리고 온 창조물 속에서 드러납니다.

17. 모든 것은 이 법칙의 리듬에 맞춰 진동합니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며,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 법칙을 알지 못한 채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8. 그러나 왜 인간은 영의 빛과 양심, 지성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법이 제시하는 길에서 그토록 자주 벗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나를 인간이 고안해 낸 형상으로 한정 지어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며, 내가 영적 본질이자 권능이며 모든 것이 나의 뜻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창조물을 탐구하려 할 때, 그는 씨앗도 관찰하며 그 안에 담긴 신비에 몰두한다. 그는 씨앗이 땅에서 식물로 솟아나는 것을 보고, 다양한 종류를 연구하는데, 비록 그 특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같은 품, 즉 땅에서 양분을 얻는다.

19. 씨앗은 생명과 증식, 변화, 그리고 발전을 상징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토록 작은 것 속에서 창조주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거나 우주를 관찰하거나 영혼을 연구할 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20. 너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특정한 형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연 속에서도 모든 것에 존재한다. 나는 생명이며, 우주이며, 빛이다. 나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악에 대한 치유제이다.

21. 영적인 세계에는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악에 대한 해독제가 존재합니다. 마치 인간이 자연 속에서 과학을 통해 육체적 고통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아버지의 무한한 완전함이 드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호기심은 때로 여러분이 속한 세상을 넘어, 다른 세계에도 인간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구에서와 비슷한 삶과 발전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실천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은 별들의 삶에 깃든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베일을 자신의 공덕으로 찢어내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인간은 자신의 발전의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내 뜻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동료 인간들의 상상 세계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넘어짐을 겪지 않고는 그곳까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뇌는 고뇌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2.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발전이 너희가 성장하는 리듬에 맞춰 서서히 진행되도록 허락하였다.

23. 인간은 큰 갈등 속에서 빛을 얻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발견을 해낸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모든 진보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이성 속에서 지혜인 창조주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잊곤

한다. 여러분이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물질보다 영혼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현재 너희에게 계시를 주는데, 이 계시는 영적인 피조물과 인간적인 피조물에 대한 실재적인 인식을 너희 안에 심어주며, 그 단순함 속에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지식을 담고 있다.

24. *너희*는 그 삶을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곳에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25. 지금 여러분은 전쟁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며,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26. 자연의 격렬한 분노는 무엇이 초래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27.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따르는 발전 과정을 깨달아, 그 영혼이 진보했는지 퇴보했는지를 가늠하고, 진정한 진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는 단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직 현세적인 삶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8. 그러면 그는 나의 율법, 즉 내가 모세 때부터 인류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갈망하며 시선을 돌릴 것이며, 이러한 탐구를 통해 사람들은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계시한 가르침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9. 나의 자녀들아, 힘을 합쳐라. 너희가 현재 얻고 있는 이 지식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라. 단지 이 모임 장소에서만

모이지 말고, 야외로, 산으로 나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존재를 드러내리라.

30. 너희는 이 시대를 ‘빛의 시대’ 라고 부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단지 사람들의 발견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모든 지성 기관에 쏟아져 인류에게 더 높은 삶, 즉 영적인 삶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한다.

31. 이 시대의 내 말씀은 미래의 인간이 자신의 영혼과 이성적 능력을 꽃피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들의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32. 이를 위해 나는 빛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가올 세대를 준비시키고, 너희도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33. 이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속에 평화를, 입술에는 유창함을, 말에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34. 스승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게로 오라.

35. 나는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왔으며, 너희가 준비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너희의 부름에 응하였다.

36. 인류는 이 시기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기리기 위한 전통으로 삼아 왔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그 존재들이 있는 곳과 그들을 둘러싼 삶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려보려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그분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의 수많은 진실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으니, 비록 사람들 사이에 영적 삶에 대한 다양한 관념이 존재함을 알더라도, 너희는 영적으로 모든 이와 하나가

되어야 하며, 모든 이가 영적 진동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37. 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긴 이 책을 동료들 앞에서 펼쳐, 이 지식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8. 모든 영혼의 목표는 정화되고 완성된 후 신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의 길을 빛으로 비추고, 너희 영혼에 힘을 주어 너희가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리라. 여러분이 이 지구를 떠날 때 도달한 발전 수준에 따라, 내세에서 거하게 될 영적 고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영혼이 완전함에 이르는 사다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39. 너희가 이곳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되면, 너희 영혼은 다른 세상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인류의 평화와 진보를 위해 지켜보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40.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비밀스러운 보물창고로 들어갈 것이며, 영혼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선을 향한 더 큰 열망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영혼을 신성함에 더욱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41. 공간을 떠돌며 더 높은 세계의 빛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재들은, 육체와 지상 생활이 그들 안에 남긴 불행과 인상들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끌림과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끌어당기는 두 힘, 즉 영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42. 기도를 통해 그 존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들의 빛과 힘만으로는, 그들이 뒤로 남긴 것들에 묶여 있는

사슬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세상과 죽음을 극복한 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으며, 생의 여정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빛으로 변화시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중재자이자 수호천사이며,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십시오.

43. 영적 세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최근에 이 세상을 떠난 이들로서, 아직 잠들어 있는 자신의 능력과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목소리가 그들의 영혼에 메아리쳐 그들을 깨우게 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말씀과 십자가의 피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4.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을 애도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날들에도, 영혼의 삶을 아는 이에게는 슬픔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 육신을 벗어남으로써 해방을 얻었고, 완전함이 주는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완전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서둘러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 육신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삶 속에서, 모든 괴로움과 운명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발전을 위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46. 육체는 영혼이 경험과 발전, 혹은 속죄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수없이 갈아입는 일시적인 옷일 뿐이다. 이 신성한 정의의 법칙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어린 제자에 불과하다.

47. 너희가 환생의 법칙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영성주의자가 아닐 것이다. 이는 내가 많은 이들에게 새롭게 계시하고, 이에 대한 예감이나 직관을 가졌던 이들에게 확인해 주는 근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법칙에는 빛처럼 명백한 이성과 정의가 담겨 있다.

48. 그러나 이 가르침을 믿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자는, 육체가 영혼의 외피이자 옷이라는 점, 그리고 이 육체가 영혼이 자신을 표현하고 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영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영혼과 육체 사이의 내적 투쟁, 즉 선 악에 대한 투쟁은 공덕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육체의 고통과 충족되지 못한 갈망은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겉보기에는 쓰라린 경험이지만 나중에는 깨달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통해 정화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품 안에는 고통을 겪지 않고도 사랑에 의해 정화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49. 그러나 고통받고,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간의 운명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육신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비록 육신은 연약한 ‘피조물’ 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비치고 있으며, 너희는 그 육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을 정할 때까지, 그 몸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몸을 사랑하라” 고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깨달아라. 나는 너희 안에 허영이나 이기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존재의 고귀하고 숭고한 부분이며, 너희 아버지 자신의 일부인 너희 영혼도 사랑하라. 아무리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라. 비록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나의 신성함의 불꽃, 곧 영이 깃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모든 자녀들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는 언제나 순수함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이 무시된다면, 영혼은 그 반항심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한 채 머물게 될 것이며, 창조주의 품에 도달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이다.

50. 비록 나의 말씀과 행적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러한 모순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순결과 완전이시며, 너희의 영혼은 신성과 닮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영혼이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타락하면,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서 창조주와의 닮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은총과 임재가 영혼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혐오스럽거나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은총과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51. 너희 영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 그렇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나 나중에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거나 빛을 갇아야 할 일이 없도록, 해결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52. 선한 일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53. 운명론자가 되지 마라. 너희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길에 놓으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너희가 고통받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고, 삶을 즐길 때는 그것 또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이미 확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잘 들어라. 때로는 그 결실을 즉시 거두게 될 것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너희가 뿌린 것을 베어 수확하기 위해 새로운 지상 생활로 들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내 정의에 대한 많은 잘못된 판단과 많은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54. 나를 이해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그 어떤 의심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매개로 하여 인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비밀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고 자처한다면, 내가 너희 입을 통해 내 말씀을 선포하리라. 너희 입술의 서툰 표현이 내 사역의 위대함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5. 자신이 따라야 할 길을 이해하게 된 영혼은 더 이상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지 모르나, 양심이 가리키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에서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 영혼에게는 빛이 되는 깨달음이 부족할 것이며, 상승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혼란이 사람들 속에서도 그 해로운 영향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는 영적 경지의 높이로 올라갈 수 있었고, 자신의 고양을 통해 우주 공간의 스승이 되어 형제자매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들과는 대조적이다.

56. 후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완전함이 이상인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그곳은 사랑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왔으며 다시는 떠나지 않을 영원한 분을 더 잘 알아가는 곳이다.

57. 나의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거부한다. 사랑을 갈망하는 자는,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마르지 않는 강인 나로부터 마시라.

58. 실패한 자는 나를 바라보아, 내 빛의 광선을 보고 그 빛에 이끌리도록 하라.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받는 자는 내 용서와 자비의 망토로 몸을 가리도록 하라. 의심하는 자는 자신의 이성을 단련해야 한다. 나는 지혜이기에, 그 지혜를 통해 그에게 계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에 잠긴 자는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사랑의 잔을 마셨을 때, 그 안에 믿음이 타오를 것이다.

59. 고통받는 이들의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걸보기에는 저주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60. 나는 “말씀” 이며, 나는 말씀이니, 내 말을 들으라.

61. 너희는 마음속 깊이에서 나에게 수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말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류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어쩌면 다른 이들도 잘못으로 이끌게 될까요?”

62. 아니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바로잡고 나의 가르침으로 너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강해지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게 될 것이다.

63. 영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첫 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너희를 비추는 여섯 번째 봉인의 빛만이 너희의 존재를 밝혀준 유일한 빛은 아니다. 너희는 완전함을 향한 광대한 발전의 길 위에서 성장해 온 성숙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껴라. 이는 너희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64. 첫 번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이교가 만연한 이집트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그 이교도들의 품에서 살며 변성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 내 존재와 권능에 대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65. 노예 생활의 고통과 괴로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의 은총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나의 영감이 빛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며, 그에게 명령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은 사슬과 모욕, 고난에 짓눌려 있다. 파라오의 멍에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여 광야를 가로질러 인도하라.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나의 신성에 걸맞은 예배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나의 뜻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66. 모세는 어떻게 백성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원했는가? 설마 그가 백성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었던 말인가? 아니, 그의 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67. 그 파라오가 나의 명령이었던 모세의 요구를 거역했을 때, 나는 그 이방인에게 그의 반항과 불신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의 심판과 권능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열 번이나 무시했고, 나는 열 번에 걸쳐

이집트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으며, 그 재앙들은 마침내 그들의 고집을 꺾고 폭군의 완고한 마음을 굴복시켰다.

68.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떠나 사막으로 향하여 시나이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백성이 모세의 귀환을 기다리는 동안, 모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며 여호와로부터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율법판을 받았다. 이 순종적인 종은 자신의 영으로 그 신성한 계시를 받아들였으며, 인간 삶의 모든 사안과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을 제정할 준비도 갖추게 되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투쟁한 끝에, 그들의 운명이 이끄는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집을 짓고, 밭과 정원을 가꾸며, 가정을 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영의 법을 따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과 자비의 증거를 베풀어 주신 분께 바치기 위해 하나의 유일한 신 숭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숭배는 아직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물과 헌금은 물질적이었고, 그들의 제사는 무고한 생물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간 생활 속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정의로 행동하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보복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간통을 저지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그녀를 성 밖에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판결하는 법이 있었다.

69.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가? —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기 때문이다.

70. 시간이 흘렀다. 나는 너희 밭의 첫 열매와 수확의 첫 결실, 그리고 너희가 제단 위에 나에게 바친 무고한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았다.

71. 그 백성의 전통은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야 하고, 그 법들과 그 예배 형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누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겠는가? 모세도 아니었고, 선지자들도 아니었다. 모세는 그저 길을 열었을 뿐이며, 선지자들은 단지 설교했을 뿐이다.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신 분은 약속된 메시아, 신성한 스승이셨으며, 모세가 받은 율법의 계명 중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전통과 예배 형식을 없애시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빛과 지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72. 나는 율법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실천 방식만을 개혁했을 뿐이다.

73. 그 백성의 영적 유년기는 지나갔고, 그들은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낯선 양식을 먹게 하였고, 너희 무지의 장막을 찢어 버렸다. 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 율법이었다.

7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서 다시 오겠다고 예고하고 약속했다. 그 당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고, 내가 계시한 것 중에서도 너희가 모두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75. 1866년에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렸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 즉 제3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76. 인간의 영혼은 영적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로 접어든다. 영혼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러 그 열매가 완전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77.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었으나, 인간은 영적 수준이 낮은 영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식과 형식을 씌워 주었다.

78. 너희는 영의 시대, 즉 위대한 계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는 모든 종교에서 물질화, 기만,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을 통해 온전히 영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길을 통해 그는 완전한 대화의 형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79. 내가 이 형태로 처음 나타난 그날부터, 너희는 이 위대한 사업의 위대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그 깊이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80. 누가 이를 이해했다고, 혹은 완벽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아직 그 완전함에 도달하기에는 한참 멀었다.

81. 나의 법, 나의 사역은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 한 단 올라갈 야곱의 사다리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이다.

82. 1948년이 시작되면,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 가운데 계실 마지막 3년 중 첫 해가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용기를 내어 나서서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떠나는 날, 오랫동안 너희를 가르쳐 오신 스승님께 고양되고 사랑이 넘치는 경의를 표하고자 할 때, 그 경의가 너희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83.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나는 세상에 외침을 보내리라. 그 때 너희가 말과 행실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나를 드러내며 너희에게 말씀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84. 너희는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주변에서,
너희를 비추는 등잔의 빛, 곧 여섯 번째 봉인의 빛을 잠시나마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안개를 보지 못하느냐?

85. 인간의 법을 어기지 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적
기운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라. 너희를 위한 선행과 영성화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게 하라. 그러면 과학자들은 너희를 조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인간의 사법부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며, 교회들은 너희가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86. 너희는 예배 의식에 상징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과거의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예배는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87.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오셨다가 작별을 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비록 이 일이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훗날
지구 끝까지 그 여파가 퍼져 나갈 것이며, 그때 세상이 호기심을
갖게 되면 신의 말씀이 들렸던 장소들과, 그 말씀을 전한
‘사자들’, 그리고 보존된 경전들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생각입니까? 그때 서로 불화하거나, 여러분 사이에 불화가
팽배해 있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족,
사랑이 없는 부부, 또는 무례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영적·물질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실망할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성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영적 고양 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신주의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88. 백성들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새로운 교회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89.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심판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달아라. 이것은 위협도, 정죄도 아니며, 단지 경고일 뿐이다. 내 심판은 완전하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가르침 196

1. 여기, 모든 시대에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해 온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러 오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너희가 우는 것을 보노라. 너희 뺨을 따라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나, 이는 나의 신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너희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느끼는 고통 때문이다. 너희가 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가르침을 잊고, 책을 닫아버리며, 그 안에 담긴 계명들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2. 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아! 열국들만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도 분열이 있다. 너희가 1931년에 새 언약의 언약궤 앞에서 연합과 순종을 서약했던 것을 잊었느냐? 너희는 너희의 규정과 뜻을 내 뜻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전통과 불완전한 율법을 파괴하여, 사람들이 나의 일을 깨닫고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하리라. 나는 나의 심판으로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모든 악한 씨앗을 벌하리라. 이 백성 가운데서 ‘주인’ 들은 사라지고, 오직 제자들과 종들만이 남을 것이다.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억압하려는 자에게는 차라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편이 낫다.

3. 1947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으며, 그 마지막 날에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내 심판이 너희에게 길을 깨닫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이 가르침이 세상에 드러나 인류가 이를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도록 돕는 대신, 그 길에서 내 발걸음을 막는 데 힘써 온 자들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 계시를 깨닫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맡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5. 만일 누군가 그 나무의 가지를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게 돌려주라. 너희가 그것을 뒤틀리게 자라게 두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되찾는 편이 낫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선의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을 보고, 밖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흐느끼는 것을 보며, 죽은 자들을 보시기 때문이다.

6. 내 사역의 종들아, 내 지시를 듣고 따르라. *사람들은* 너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사역을 어떤 비밀주의도 없이 제시한다면, 아무도 내가 너희에게 일부를 맡긴 이 신성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내 계시가 끝나는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이룰 수 있는 일이다. 1950년에는 “급하지 않는” 목을 가진 사람들이 올 것이나, 그들은 내 계시의 위대함과 너희 예배 행위의 순수함에 압도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 기간은 짧지만, 너희의 신 숭배에 병들게 하는 물질주의, 광신주의, 그리고 모든 결점을 제거하기에는 충분하다. 나의 가르침은 영적이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영성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말로만 영성주의를 설교하면서, 행동으로는 정반대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되는가?

7.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내는 이 빛을 활용한다면, 너희는 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순수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8. 백성이 영적으로 고양되어 나의 계명을 따를지 여부는 각 교회를 이끄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 비록 나의 황금 깃펜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백성의 영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나의 말씀을 남기리라. 그러나 너희가 일단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되면, 너희 눈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할 기적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말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내 임재를 가까이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없어지더라도, 너희의 영적 은사가 더욱 강하게 펼쳐질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는 큰 기쁨과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감, 영적 환상, 예언적인 꿈, 직관 속에서 나를 도우미로 모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말씀을 듣고, 병든 이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9. 점점 더 많은 빛과 더 큰 능력을 지닌 영적 세계는 백성의 선한 보호자이자 충실한 수호자가 되어, 모든 이가 내 발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육신에 있는 자와 육신에서 해방된 자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영혼들만을 본다.

10.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나의 자비로 풀려난 여섯 번째 봉인의 빛이다. 나는 이미 그 당시, 땅 위에서 나의 계명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유일한 분인 나의 신성한 아들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보내신 것은, 그분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스승을 따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나에게 어떻게 돌려주었느냐? 오늘 나는 다시 너희에게 온다 —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위로의 영으로서.

11. 나의 사랑 어린 도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빛으로 깨어나, 너희 마음이 예민해지도록 하라. 너희 영혼이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하고,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내가 현재

대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본질을 느끼고 그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라.

12. 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지도록 내가 사용했던 대변자들은 참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뜻을 실행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계시들은 1950년에 중단될 것이며, 그 자리는 더 높고, 더 순수하며, 더 영적인 계시가 차지할 것이다. 그것은 영과 영 사이의 대화로, 자녀가 사람이나 영적 존재의 중재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직접 말할 수 있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그분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13.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당분간은 이 형태로 나를 듣는 것에 만족하라.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그 의미로 마음을 채우라. 영혼이 나를 향해 솟아올라, 갈증을 해소할 때까지 샘물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라.

14. 내가 사용하는 대변자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가 왜 선택되었는지 파헤치려 하지 마라. 이 어려운 사명에서 그의 기원과 소명을 아는 이는 나뿐이다. 이 사명은 어떤 이들에게는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속죄와 매우 큰 시련을 의미한다.

15. 너희 모두는 나를 섬기게 될 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너희의 임무는 악을 물리치고, 너희 뒤를 이을 자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가 되는 법을 아는 인류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16. 나는 너희가 발전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활동할 기회를 주었다.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르침과 승천할 수단을 주었다. 그러나 생의

여정을 마치고 ‘영적 계곡’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것을 헛되고 공로 없는 것으로 여긴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게서 빼앗았던 존엄과 은총을 되찾아, 나에게 더 나은 사명 수행을 바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청한 선물을 허락했고, 그들은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7. 나는 영혼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함정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할 수 있도록 지성과 의지를 부여하였다. 나는 선과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인간이 나를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악을 이겨내고 그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하고, 너희가 별이나 자연의 힘, 혹은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그러하듯, 자연 법칙의 힘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너희의 사명을 완수했다면, 너희가 미덕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 어떤 공로도 없을 것이다. 너희 영혼 속에는 투쟁도, 분투도, 경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발전의 길을 제시하고 너희를 그 시작점에 세웠으니, 너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승하고, 너희 모두가 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길을 알게 하려 함이다.

18.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의무를 저버리거나 나쁜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너희는 동료 인간들을 이끌고, 오늘날 그들을 괴롭히는 많은 악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지니고 있으니, 이를 그들에게 숨기지 말라. 너희 영혼이 이런 경험을 통해 말하게 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이 위대한 사역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바를 세워 나갈 것이다.

19. 그러면 너희는 길을 잃은 양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내가 곧 목자인 내가 그들 전원을 양 우리로 모이게 하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는 영혼의 승천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에게 요청했던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20. 오늘,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 감사와 사랑, 경외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마치 잃어버린 물건인 양 그들을 위해 울거나,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눈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떠난 이들을 위해 가슴이 한숨 짓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그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을 비추는 빛과 그들에게 깃든 생명에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반면, 죽은 자는 우리입니다.”

21. 생명이 없는 육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진동하며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너희는 과연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22.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 삶으로 들어간 이들과, 그 전통에 따라 그들에게 하루를 바치는 대신, 기도의 끈으로 항상 하나 되어 있다면, 그들의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존재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 여러분의 투쟁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여러분이 행하는 고귀한 일과 계획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되어, 그로 인해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23. 나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죽은 자들’ 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너희가 주의 깊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내 말을 깊이 헤아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24. 나는 너희 모두가 마음속과 생생한 기억 속에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 즉 육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본다.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이 땅의 육신을 입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세상을 떠난 사람은 노인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육신을 벗어던지거나 고통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런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 사이의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죽는 곳에서는 영혼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의 빛을 향한 한 쌍의 눈이 감기는 곳에서는 영혼의 영생을 비추는 신성한 빛을 향한 또 다른 눈이 열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 나는 한때 너희에게, 인간은 본성상 우상 숭배적이며, ‘죽은 자’에 대한 이러한 숭배를 통해 자신의 우상 숭배를 명백히 드러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너희 삶에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닌 새벽빛처럼 나타나, 사람들이 늘 방황하며 살아왔던 무지의 긴 밤의 어둠을 몰아냈다. 그러나 신성한 별처럼 무한한 우주로 치솟는 이 빛은, 너희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빛의 불꽃을 비추며, 너희가 모두 궁극적으로 상향 발전을 통해 들어서게 될 그 삶에 참여하도록 확실한 발걸음으로 이끌어 줄 수련을 통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26. 여러분은 더 이상 더 나은 삶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쓰라린 눈물 을 흘리는 자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뒤로 남긴 이들을 위해, 혹은 평생 동안 자신의 외피 역할을 해 온 그 육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 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7.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육신의 썩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인간 육신이 수행해 온 임무가 끝났음을 볼 때, 창조주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28. 오늘 나는 너희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며, 동시에 신성한 생명의 책의 한 페이지를 보여 주노니, 그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영혼과 지성을 깨우쳐,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께 합당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9. 너희는 이제 인류에 대해 큰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너희가 나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을수록 이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영성화에 대해 말해야 할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안에 심겨져, 인류에게 우상 숭배적인 의식과 예배 행위 없이, 단순히 영과 영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와 대화하는 완전한 방법을 남겨두겠다.

30.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축복받은 씨앗은, 너희가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양식이 될 것이며, 또한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될 것이다.

31.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고 말했을 때, 그것이 단지 이웃에 대한 존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대하는 존중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떠난 이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멀리 있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무감각한 존재로 상상하지도 말라. 그들을 사랑하고,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로서만 기억하라. 그들은 영원 속에 살아 있으며, 너희 곁에 있기 때문이다.

32.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여러 단계를 겪어 오며 이 시기에 이르렀으나, 태초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들이 ‘죽은 자’로 오해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여전히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다.

33. 그러므로 이 땅의 주민들아,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노니, 너희는 저 세상으로 떠난 이들보다 빛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영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34. 그 존재들에게는 너희가 기도하는 순간 너희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허락이 나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제 빛의 영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인간의 모습으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35. 세상의 전통에만 매몰되어, 이 시기에 너희에게 쏟아지는 은총을 외면하지 말라. 명심하라. 너희가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저 세상의 영혼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36. 영적 해방과 승화를 위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신을 다스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영의 세계로 불러들여야 할 것이며, 그때 너희는 발전의 법칙을 이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은 육신이 땅속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37. 혼란에 휩싸인 채 영원의 문턱에 다다르고 싶지 않다면, 너희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나의 사역에 가까이 이끌고, 민족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이 세상에서 공덕을 쌓으라.

38.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 “주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단지 뜻만으로도 지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께 그렇게 말하다니, 너희는 얼마나 미숙한가.

39. 나는 내게로 와야 할 영혼, 곧 나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 안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한다. 너희의 육신은 물질이며, 나는 그 약점을 용서해 준다.

40. 오, 백성들아, 너희 영혼을 육신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너희 자신의 공로로 내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화하라. 사람들이 여러 교회와 종파에서 나를 찾게 내버려 두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너희 또한 아직 완전한 행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41. 우상 숭배자들, 아론의 후손들과 그를 흉내 내는 자들, 신들의 형상을 빚어낸 자들이 계속해서 우상 조각상과 그림 속의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게 두어라. 그들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42. 너희의 사명은, 내면의 하나님 숭배가 아버지께 가장 기쁘게 여겨지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영성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기 위해 보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이며 신성한 존재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향기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도록 여러분을 초대하는 유혹처럼 다가온 그 영적 존재들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존재들은 이 세상의 허영에 대한 욕망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다가오며, 오직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43.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죽은 자’이며,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자들은 무지 속에 갇혀 물질적

세계에만 매몰된 자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울음과 슬픔은 믿음의 흔적조차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사실 살아 있지만, 단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육신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자”를 위해 울고 있기 때문이다.

44.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평안 속에 머물라. 그분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서로 사랑하라.”

45. 내게로 와서 힘을 얻고, 은총의 삶으로 부활하라. 나의 제자가 되어, 기쁜 소식의 전령이 되어라. 세상은 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으며, 나는 너희를 통해 내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온 이들도 있고, 이제 세상에 내 임재의 시간이 도래하여 영혼들을 진보와 영성화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예감했던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훈련해야 한다. 고통이 너희를 짓누르고 피곤함을 느낄 때,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데 힘을 보태어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지 않도록 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의 사명을 다할 때, 너희를 약하게 만들 시험이나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희망을 품은 채 너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향한 모든 악의적인 판단이나 음모는 무효화될 것이다. 비록 큰 시련을 겪는다 해도 나를 부인하지 말라. 시련의 절정에 이르러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줄지, 그것이 나의 뜻인지 너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6. 내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47. 자비를 갈망하는 굶주린 자, 병든 자, 별거벗은 자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한 집으로 다가갔다. 그 집의 관리인들은

지나가는 이들을 식탁 에 대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를 마쳤다. 그 땅의 소유주이자 주인인 지주가 연회의 주석을 맡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다. 시간이 흘러도, 궁핍한 이들은 그 집에서 언제나 음식과 거처를 얻었다.

48. 어느 날, 그 신사는 식탁 위의 물이 탁하고, 음식이 건강하지도 맛있지도 않으며, 식탁보가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식탁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식탁보를 보고, 음식도 맛보고, 물도 마셔 보았느냐?” “네, 주인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먼저 너희 자녀들에게 먹여 보아라. 아이들이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 그 후에야 이 손님들에게 내어주어라.”

아이들은 빵과 과일,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어 보았으나, 맛이 역겨웠고 이에 대해 불만과 소동이 일었으며, 아이들은 격렬하게 불평했다.

그러자 지주님은 아직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무 아래로 오세요. 제가 저/ 정원의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너희가 실망시킨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 흥한 맛을 없애라.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이를 맞아들여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맑은 물을 대접하라고 명령했건만, 너희는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일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49. 그 땅의 주인은 이제 직접 잔치를 준비했다. 빵은 영양이 풍부했고, 과일은 건강하고 잘 익었으며, 물은 신선하고 상쾌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기다리던 자들-거지, 병자, 나병 환자들-을 초대했고,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기쁨이 컸다.

곧 그들은 건강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 그 영지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농부가 되었으나, 힘이 약해 그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렸고, 수확물은 변질되었으며, 밭은 잡초에 눌러 죽고 말았다. 수확 때가 되자 영주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관리만 맡겼을 뿐인데,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뿌린 씨앗은 좋지 않다. 밭을 가꾸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가서 밭에서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한 다음, 다시 집안 일을 관리하라. 우물은 말라버렸고, 빵은 힘을 주지 못하며, 열매는 쓰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행하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이웃의 고통을 없애 주었다면, 내가 내 집에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유의 끝)

50. 나의 신성한 영은 너희가 삶의 길을 걷는 데 인도하고, 너희를 노리고 있는 위험들로부터 경고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한다.

51. 너희는 제3의 시대, 즉 영성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52. 나는 너희 마음에 평화와 믿음, 그리고 희망을 주며, 너희가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신성한 뜻이다.

53. 너희의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라. 그분은 너희를 창조하셨으며,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54. 이제 너희는 스승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할 때이며, 또한 이 숭고한 사랑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단합해야 할 때이다.

55.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있습니다.

56.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일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그 오류는 너희 영혼의 진전을 가로막고, 너희를 길 잃음의 진흙탕 물속으로 가라앉게 할 것이다.

57. 내가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볼 때, 나의 진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무지한 자들이며, 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도 전하노니, 너희는 영성화의 길, 즉 끝이 없는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7

1. 스승의 사랑은 제자들, 곧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로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요, 스승에 있어서는 너희는 나의 제자들입니다.

2.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창조주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칼로 삼는 강하고 방어력이 뛰어난 영혼을 유산으로 남기셨으니, 이 영혼은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의 마음을 먹여 살리던 악을 몰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인간이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지혜도 부여되었다.

3. 제2시대에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제자 요한은 환시 속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인류가 얽히게 될 위험들, 세상을 뒤흔들 불행들, 사람들 간의 투쟁과 분쟁, 그리고 그 모든 일 후에 찾아올 평화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계시나 예언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글로 기록되어 보존될 방식도 그에게 계시되었다.

4. 나는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그 계시들의 의미와 내가 현재 너희에게 주는 말씀의 본질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는 영성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투쟁 속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그 가르침은 바로 나 자신이니, 그러므로 그것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순수함과 진실함 그 자체이며, 흠집 나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셔서 매개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분을 정화하신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매개체들은 선에 대한 일정한 성향만을 보일 뿐이지만, 신성의 접촉을 받기 위해 영적으로 무한한 차원으로 승화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영감과 계시, 그리고 신성한 지식을 얻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직 매우 미숙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6. 그러나 나는 사랑의 영이시며, 의인들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 살지 않는 곳, 그러나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는 곳에도 찾아가, 그들을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고자 한다. 이미 구원받은 이들보다 그 아이들이 나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의와 사랑의 불길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얼룩을 씻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능력과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나 자신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보게 되어 창조주와 하나가 된다.

7.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은총이 죄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제2시대에 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과연 의인들이었는가? 내 제자들조차 이미 완전함에 이르렀던가? 아니라, 백성아, 나를 경청하던 군중들 가운데에는 죄인들과 완고한 방탕자들, 불신자들이 있었으며, 나의 사도들 가운데에도 인간의 비참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신성의 부르심을 느끼고 나의 가르침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 인류에게 또 다른 교훈을 남겼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두었다.

8. 영성가는 이러한 모범들을 항상 인정하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내 씨앗을 뿌린 진정한 파종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그 사도들의 초상화를 보게 될 것이나, 이 그림들을 통해 그들에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들을 향한 기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덕을 본보기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형제자매 안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음을 기억하라.

9. 너희는 묻는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안에 있다. 또 다른 이가 물었다. “진정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찾았으며 율법을 성취한 것이다.”

10. 나는 지상에 영혼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 종교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였다. 선과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찬양하는 모든 종교는 빛과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선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타락하여 본래 선했던 것을 악으로 뒤바꾸면, 그 길은 물질주의와 죄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11.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길이자 생명의 본질이며 법인 나의 진리를 다시금 보여 주노니, 너희가 등대이자 인도하는 별인 이 법을 형식과 의식을 넘어, 모든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여 찾게 하려 함이라. 나를 이렇게 찾는 자는 영성주의자가 될 것이다.

12.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인류를 강하게 만들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영성가는 기도하기 위해 세상과 사람들을 등지는 위선자나 수도사라는 점으로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맞서 싸우는 법을 알고, 심지어 회오리바람 한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식별될 것이다. 미래의 영성주의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세상에 맞설 수 있을 것이며, 예언자이자 선지자로서의 그의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할 것이다. 그는 파멸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13. 영성의 메시지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이며, 영혼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법칙이다.

14. 내 일을 마음 깊이 느껴라. 그리하면 너희의 겸손과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말씀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설득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 말씀이 승리할 이유이다.

15. 영적으로 나는 너희가 어떤 교리를 따르든 모든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리라.

16. 겉보기에는 너희가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미 내 식탁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17.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고 너희의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 내 보좌를 떠났다. 너희 또한 나와 함께하기 위해 고향 땅과 집,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 하고 떠났다.

18.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비할 데 없는 기쁨을 느꼈고, 이를 따르며 평화와 조화의 비밀을 발견했듯이, 많은 민족들이 내게로 와서 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19. 이 시대에 내 가르침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 내가 제2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었던 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아무도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전의 길에서 결코 멈추지 않도록, 이 가르침이 영혼의 무한한 길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내 영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0. 영원을 꿈꾸고, 진리를 사랑하며, 인간 삶의 비참함을 초월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야말로 이 일에 매달릴 자들이며,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육체의 화려한 옷차림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일 것이다. 이들에게서 여러분은 이해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사명이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는 데 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나의 약속이 고통의 해방 그 이상의 것, 즉 영생을 포함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21. 내 가르침의 진의는, 너희가 창조해 낸 물질주의적 세상을 파괴하고, 그 위에 너희가 갈망하는 평화를 누리며, 지금까지 너희 존재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모든 능력이 드러나고 발전하는 영적 세상을 세울 수 있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준다.

22. 혼란에 빠진 이성 기관들 속에 깨달음의 빛이 비칠 것이며, 증오가 깃들어 있던 사람들은 화해와 회개,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23. 나의 부름은 영적 수고에 대한 요청이며, 이 일에는 모두를 위한 몫이 있다. 누구도 나의 일에 몰두하기 위해 물질적인 삶에서 몇 순간을 ‘빼앗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영혼이 그 대가로 너희에게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24. 내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가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풍요와 윤희, 쾌락을 봅니다.”

내 백성은 이러한 사례들을, 나를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는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삶의 일부를 선을 행하는 데 바치는 이들이 누리는 평화를, 너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자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부를 다 바친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25. 어떤 이들은 세상의 재물과 영적인 재물을 동시에 소유하는 법을 안다. 다른 이들은 영적인 재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얻지 못하며, 또 다른 이들은 신성한 법이 세속적인 부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재물에만 관심을 둔다.

26. 재물은 재물일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것 중 모든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로부터 받은 것을 보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소유한 모든 것을 훔친 자들도 있습니다.

27. 사람들이 인생에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동전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평화이다.

28. 내가 온갖 방법으로 너희에게 말씀함으로써, 이 시대에 나를 따를 자들의 지식을 넓혀 주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어리석거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일지라도, 내가 내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했던 그 명확함으로 동료들의 질문에 답할 자들이 될 것이다.

29. 나는 내 말씀을 들은 이들의 기억 속에 빛나는 추억을 남기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를 떠올릴 때, 그들이 받았던 사랑이 가득한 가르침의 메아리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려 함이다.

30. 내 계시의 증인들은,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내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운명에 놓여 있다.

31. 너희가 내게로 왔던 때를 기억하느냐? 너희는 패배하고 낙담한 채로 왔었다. 너희는 자신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너희는 지식을 가진 이들을 찾아갔으나, 그들은 너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너희는 병들고, 지치고, 쓰러진 몸을 보여 주었지만, 그들은 너희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그리고 실망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너희를 형제자매가 아니라 낯선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믿음과 희망을 잃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신성모독을 했고, 어떤 이들은 저주를 퍼부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32. 그리하여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내게로 왔고, 비로소 나의 자비의 샘만이 결코 마르지 않는 유일한 것임을, 그리고 그 샘을 찾지만 하면 그것이 모든 슬픔에 잠긴 영혼 위에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다.

33. 머지않아 너희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인간적 힘과 부, 과학조차도 그들의 의문을 해결하고, 영혼에 평화를 주며, 고통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 너머, 인간과 그들의 허울뿐인 권력 너머에 있는 진리의 근원을 찾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4.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찾고, 영과 영이 직접 소통하며 묻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의 길을 지나가며 너희에게 묻고, 빛을 구하겠는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35.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과 빛, 영성으로 이웃에게 베풀 때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들 안에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다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 줄 것이니,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가져야 할 그 신뢰이다.

36. 나는 너희의 공로를 알고 있다.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은 이들, 나와 함께하기 위해 어떤 쾌락의 충족이나 몇 시간의 휴식을 포기한 이들, 혹은 가족들의 비판이나 험담을 견디며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이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37. 내 축복과 평화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나는 스스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을 축복하며, 진리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가진 이들을 축복한다.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삶과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의 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룰 것이다.

38. 주님의 뜻은 모든 신자들이 깊은 영적 갈망으로 내게로 나아와 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며, 너희가 오직 삶을 개선하는 것만을 꿈꾸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불순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열정적으로, 어떤 이들은 미약하게나마,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치르는 그 싸움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39. 여전히 악덕과 정욕, 우상 숭배가 너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며,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 너희의 영혼은 이러한 계시의 형태로 나를 받아들이고, 이 소통 수단을 통해 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준비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해 온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오며 품어 온 수많은 성향을 버려야만 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이 계시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족 내에서 분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이유로 인해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들; 부모를 심판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자녀들; 예전에는 서로 이해했으나 오늘날에는 마치 낯선 사람 인 양 서로를 바라보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한 사람은 믿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거부하는 부부들 말이다.

40.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사기이자 거짓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41. 만일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렸더라면,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42. 나는 너희에게 예외 없이 모든 이웃을 내 식탁에 초대하라고 말하였다. 비록 현재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43. 그 당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소는 나에게 항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성전 현관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강가나 바닷가, 혹은 산 정상에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44. 오늘날에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목소리 전달자’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이다. 내 광채에 휩싸여 거리나 길을 따라 광장이나 도시로 나아가 군중들에게 내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 하찮은 피조물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너희를 소박한 기도실에 모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는 대신, 그들이 나를 듣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게 오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동료들을 내 나무 그늘 아래로 불러내어,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라.

45.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위대한 영성과 고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6. 앞으로 3년 동안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겠으니, 시간이 멈출 수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3년은 마치 3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47. 오, 백성들아! 내 사역 속에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관용과 양보가 베풀어졌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양보들도 끝이 나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머지않아

너희는 진정한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모든 면에서 진정한 경외심을 품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48. 나의 사역은 수많은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며, 세상에 또 하나의 종파가 아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계시는 영원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너희는 영성과 이해력 의 부족으로 인해 이 법에 얼마나 많은 의식을 덧붙였고, 얼마나 많은 부정한 요소를 끼워 넣었는지, 결국 그것을 왜곡해 버리기까지 했다. 너희는 내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의식을 도입했는가?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영감을 받아 지시된 것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 말이다.

49. 이제 너희의 눈이 열리고, 영성주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사역은 너희가 세상에서 그것으로 여겨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너희의 회개를 통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지극히 단순하게 실천함으로써 새롭고 더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영성주의가 되리라.

50. 1866년, 이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을 때부터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그들이 받은 영적 본질을 활용했다면,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51. 너희가 나의 계시가 끝났음을 보지 못한 한, 오류에 빠지고 가르침 중 일부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의 이해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오류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52. 너희는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긴 목적이, 일부 사람들이 처한 물질적 빈곤을 해소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자비, 위로, 치유와 같은 영적인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에 너희는 놀라워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선물을 가장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53.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웃에게 베푸 봉사에 대가를 요구한 자는, 그가 팔아넘긴 나의 사역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의 대가를 정한 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54. 내가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내가 그를 가혹하게 징계했다거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속죄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가르침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55. 세상의 보상이 너희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베푼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56. 또한 선의를 품은 사람들이 되라. 너희가 평화를 사랑하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평화와 비교할 만한 보물은 없다.

57. 너희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이제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너희가 기쁜 소식을 전파하러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빛의 시기가 온전히 도래할 것이며, 주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내려올 것이니, 마치 그 당시 내 사도들에게 내려와 그들 각자에게 ‘말씀’ 또는 그 순간 그들에게 허락된 말씀의 은사를 상징하는 불의 혀를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내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내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한다. 내 사역을 위해 모욕을 당해야 한다면, 인내로 견디고 용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모욕을 당하셨으나 반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보라.

58. 내가 너희에게, 왼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용서의 표시로 오른쪽 뺨도 내밀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가르침을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게 했다.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 동안, 나는 얼굴과 몸에 채찍질이나 구타를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분노하지 않았고, 내 눈빛에도 원한이 드러나지 않았습시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던 나의 온유함과 자비로움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회심을 일으켰다. 구세주 예수께서는 겸손을 통해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59.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에 신성한 겸손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순결한 한 여인이 기쁨에 차서 마구간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던 그 추운 밤부터 말입니다. 그 밤, 주님의 품에서 세상의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열린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내 요람이었던 그 구유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랑과 겸손의 교훈이 시작되었다.

60. 오늘날 너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고,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금 너희에게 겸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이 시대에 인류를 뒤덮고 있는 어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의 어둠보다 더 짙다. 내 재림의 소식을 들은 이들의 굳은 마음은, 어린 신이 이 세상의 빛을 향해 눈을 뜬 그 동굴의 바위와 같았습니다. 영원한 존재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결핍은 그 축복받은 밤의 차가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지성 기관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마음의 거칠음은 구유에 깔린 딱딱한 짚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금 나의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노니, 내가 그 가르침을 그때처럼 십자가 위에서 끝내게 될 것인가?

61. 나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라. 그 길에서 고통과 희생, 포기, 굴욕을 마주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힘을 보내고,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나의 팔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8

1. 겸손함으로 내게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이제 내가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남겨 두어, 그들이 내 오심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때가 왔다.
3. 내 제자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내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때, 그들은 시련의 순간에 내가 그들에게 달려가 도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마음속에 품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사랑과 임재의 증거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4. 슬픔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기도가 들릴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너희가 아버지께 부르짖는다면, 너희는 위로와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으실 때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정한 어루만짐이다.
5. 사람의 삶이 함정과 고통으로 가득 차 보일 때, 그가 아버지의 위로를 간구한다면 — 그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진정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인 데, 내가 왜 그에게 가서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
6. 신성한 사랑은 매 순간 인류에게 흘러넘치고 있으며, 이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깊이 느낀 이들이 증언하고

있다. 내가 전능하시지만, 인간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라. 그 방식은 너희의 것과 모두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모든 이에게 내려와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계시해 주었다. 나는 나를 찾는 누구 앞에서도 숨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너희가 영적인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이유와, 또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진 나의 계시를 믿었다는 이유로 너희를 단호히 정죄할 것이다. 이 형태로 나의 계시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의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오직 이 백성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련을 견뎌내게 했으니, 이는 이 가르침이 큰 논쟁을 견뎌낸 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들 가운데서 스승이 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이 인류는 점차 영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은 나의 계시와 계시들 속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는 것, 즉 스승께서 사랑과 지혜와 자비 안에서, 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받아들여려는 마음이 열려 있고 나의 신성으로 깨달음을 얻은 전달자들을 통해 흘러나오셨다는 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아직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내가 곧 순수 그 자체이기에, 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본능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성적 도구를 이용했다.

만약 사람이 내가 신빙성을 얻기 위해 오직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며, 나는 그에게 묻겠노라: 종교 공동체에 있는 나의 신성을 대변하는 자들이 과연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온 땅의 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의로운 자도 찾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계시된 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매개자들은 나의 대표자도, 나의 종들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10.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호화로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으며, 너희와 같은 또 다른 죄인 앞에서 너희의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 왔다. 나를 경배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교회는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이며, 너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와 싸울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오점을 씻어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경험하는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11. 나 안과 나의 사역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데도, 사람들은 왜 “초자연적” 이라고 말하는가? 오히려 사람들의 악하고 불완전한 행위가 “초자연적” 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나온 근원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항상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깊은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어둠 속에 남지 않는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비로 둘러싸여 보이는 모든 것을 “초자연적”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 영혼이 공덕을 통해 고양되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 창조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12. 몇 세기 전 인류에게 오늘날 인간이 이를 진보와 발견들을 예고했다면, 과학자들조차 의심했을 것이며 그러한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발전하여 인간 과학의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기에, 비록 경탄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기고 있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일, 인간과 그의 하나님 사이의 영적 대화가 온 땅에 퍼지게 될 때, 인류는 이러한 계시들에 익숙해질 것이다. 인류는 내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나를 드러냈다고 믿게 될 것이며, 내가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러한 계시들을 불가능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14. 내일의 사람들은 내 말씀이 기록된 경전을 통해 내 가르침의 위대함과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설명했던 그 단순함,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제시했던 그 단순함이 그들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5. 그러므로 내 말씀은, 이 지식을 갈망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킨다.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연과 서적을 탐구하며 평생을 보낸 과학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왜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으며, 과학이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미리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16. 그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단순함 속에 지혜가 담긴 신성한 말씀의 핵심에는, 인간이 성취하게 될 것과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예언이 담겨 있다.”

17. 제자들아, 오늘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계시를 통해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사람들의 학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 길을 택하고자 한다면, 나는 지금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로 인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8. 내게로 오기 위해 학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영적 고양을 갖추고, 예수께서 제2시대에 계시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대로, 즉 온통 단순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말씀을 표현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과연 과학적 학식이 을 계시했는가? 과연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19. 나는 오직 영에게만 말한다. 나는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길만을 가르쳤으며, 너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 곧 영에게 말하고, 지평선 너머에 ‘약속의 땅’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것이다.

20. 나의 가르침을 정직하고 왜곡 없이 전달하며, 사람들이 탐구하고 조사하며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나는 이를 비난하지도, 막지도 않는다. 각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21. 씨를 뿌려라. 너희의 씨앗은 내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를 거두는 이가 미래 세대일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22. 내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에 깊이 몰입하라.
23. 나는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것이지, 너희의 결점과 죄성을 살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24.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강자”이기 때문이다.
25. 너희는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다.
26. (전쟁의) 공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잠든 동안 사람들은 자비를 간청하고, 나로부터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인류가 내 백성의 준비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27. 너희는 순종과 복종에 힘쓸 때, 아버지의 본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28. 때가 되면 너희는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낮은 땅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실감 나게 임하실 때가 올 것이다.
29. 나는 너희의 인간적인 허영을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너희의 마음과 영이 나를 찾았다는 사실만을 보며, 너희를 주님의 사자로 각 지방에 보내리니, 너희는 제2시대의 예수님처럼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게 될 것이다.
30. 그렇다, “이스라엘”아, 영생의 생명수인 나의 말씀을 전하라.
31. 너희의 사명은 내 명령을 이행하여 세상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너희는 제3시대의 빛과 은총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32. 나는 사랑으로 다가와 너희를 다시 은혜의 삶으로 끌어올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이다. 너희는 제2시대에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으나, 이제 나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나의 완전한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나의 “신성한 말씀”을 다시 너희에게 준다.
33. 나는 매우 정교한 꿀과 같은 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듬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마음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34. 이는 스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는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35. 예언자들은 나의 임재를 증언하였고, 내 영의 빛을 보았습니다.

36. 그들은 내면적으로 준비하며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예언적인 말씀이 흘러나왔다.

37.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단련하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들이 말할 것이다.

3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강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 마음에서 사랑이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원한다.

39. 백성아, 준비하라. 비록 너희는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 마을과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 집회 장소로 모여들 것이니라.

40. 기도로 일어나라. 이웃을 도와라. 내 말씀을 연구하라. 나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법을 몰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아니, 백성아. 한 알, 두 알, 혹은 세 알의 씨앗을 내 앞에 가져오되, 너희의 씨앗은 순수해야 한다. 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희의 몫이다.

41. 나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며,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다가간다. 심판자로서는 내가 무자비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여 언제나 나를 아버지로 볼 수 있도록 하라.

42. 큰 싸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앞으로 3년 동안 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는 신자들의 무리가 가르침을 받은 채로 남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내가 모임 장소에 교회 지도자로 남겨두는 너희는 잘 준비해야 한다.

43. 분별력을 얻고, 세상이 너희에게서 내 말씀의 생명력을 빼앗아 그 본질이 나의 신성한 보좌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44. 세상에서 물러나고, 너희에게 “과거의 너희 모습은 오늘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지금의 너희 모습은 내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 말씀을 기억하라. 새롭게 되어라. 불필요한 것과 악한 것을 물리쳐라. 나는 위선자도 광신자도 원치 않는다.

45. 첫 번째 시대에는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보내었고, 두 번째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있었으며,

오늘날 너희는 성령으로서 나를 모시고 있다. 나는 너희 영혼들이 ‘야곱의 사다리’ 위에서 내 성령의 은총과 빛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다.

46. 너희 모두는 하나의 백성을 이룬다. 너희 모두는 내가 평화의 입맞춤을 주는 단 한 명의 자녀이다.

47.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전하라. 이제 길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민족에게로 올 것이다. 그들에게 최고의 ‘잔치’를 베풀고,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어, 그들이 너희를 성령의 제자로 알아보게 하라.

48. 너희 각자에게는 너희를 보호하는 영적 존재가 곁에 있다. 때가 되면 그 존재는 내 앞에서 너희를 위해 책임을 지고, 너희는 그 존재를 위해 책임을 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짊어진 책임은 크다.

49.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을 품고, *하나의* 이상과 단일한 의지 안에서 단합하라. 너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심장 박동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나의 공의 앞에서 견고히 서라.

50. 시간은 소중하다. 너희는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랑으로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미 제자로서, 다른 이들은 학생으로서 말이다.

51.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맡기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품으라. 때가 되면 너희는 이 행성에서 이룬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2. 너희는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니, 너희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53. 나는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한다. 너희가 더 이상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나와 영과 영이 서로 대화해야 할 것이다.

54. 오늘 나는 너희가 제2시대의 사도들을 본받아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며, 너희가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다.

55. 너희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신 풍성한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56. 나는 너희 가운데 내 지혜를 쏟아 부었으나, 양의 가족을 쓴 굶주린 늑대가 너희를 삼키려 하며, 너희를 타락시키기 위해 최악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본성이 굴복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볼 때, 나는 너희가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아버지로서 너희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

57.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나를 섬기려는 뜻을 가진 무리는 적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율법 안에서 너희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히 버티라.

58.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 되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버지를 의지하면, *나도* 너희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 한 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59. 내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내 계시의 시간이 짧음을 깨달으며,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너희 영혼에 심어 놓은 빛이 얼마나 큰지 자각하라.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와야 함을 깨달아라.

60.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내가 내세에서 너희를 위해 간직하리라.

61. 바로 이 식탁에서 나는 너희 모두를 기다린다. 내 면전에서서는 인종, 계급, 혈통이 사라진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동등하게 속해 있으며, 너희 모두는 귀중한 보석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영혼을 향해 내가 말을 건네는 것이다.

62. 너희가 알고자 한다면, 이곳은 내가 세상에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장소였으며, 너희는 이곳에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구름 위”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63.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모든* 이에게 내려오지만, 모든 이가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한* 민족은 나의 가르침과 행적을 직접 목격했고, 지상의 다른 민족들은 그 증언을 바탕으로 믿게 되었다.

64. 오늘 나는 그 백성의 영혼들을 모아, 그들이 스승의 말씀 아래에서 그들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리라.

65. 나는 그들에게 세속적인 왕국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원한 빛의 왕국을 약속한다.

66. 지금 아직 이웃의 궁핍함 앞에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영혼들은 “내일”에는 관대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유산을 동료 인간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67. 당시 메시아의 오심을 지상의 왕으로 기대했던 이들은, 그분이 신성한 겸손함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혼란에 빠졌다. 너희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전의 사례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오늘날 왜 그들을 흉내 내며 혼란스러워해야 하느냐?

68. 나는 내일, 이 형태로 나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줄 한 무리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 나를 듣는 이들은, 큰 사랑으로 곧 있을 이별을 알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그 이유로 아버지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고 계신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이며, 어떤 자녀도 흐느끼며 남겨두고 싶지 않으시며, 모든 이가 그분의 유산을 누리기를 갈망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69. 이 백성이 다가올 싸움, 즉 위대한 영적 싸움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니, 그분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비를 내려 내 씨앗이 다시 싹트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70. 그렇다, 백성아, 내 이름이 다시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며, 내 뜻이 모든 이의 마음에 깃들고, 내 법이 모든 이의 양심에 드러날 것이다. 이 신성한 일에 동참한 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 영적 기쁨이 그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신성한 스승께서 심으라고 가르쳐 주신 씨앗을 사랑으로 지켜냈음을 기억할 것이다.

71. 오, 백성들아, 너희 영혼을 위해 이 평화를 얻으라. 영원 속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라.

72. 스승인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 너희 영혼을 인도하리라. 그러므로 내 제자들의 행실이 분명해야 하니, 그러면 너희를 바라보는 자들이 너희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세상은 굶주려 있고, 너희는 생명을 복돋우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가 그들처럼 나를 따를 때, 모든 악과

싸울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안다면, 모든 자연의 힘이 너희의 사명을 돕게 될 것이다.

73. 오늘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핍과 가난,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근심을 보지만, 너희는 그러한 궁핍을 겪지 않고 살아왔다. 이는 내가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 시간의 일부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바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 투쟁에 지친 마음을 위한 안식처를 이 땅에서 찾고 있으며, 그들은 축복받은 땅, 은혜가 풍성한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들과 빵을 나누고, 그들은 보호를 얻으며 이곳에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74. 백성아, 깨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낼 시간이 이제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영과 영이 서로 교감하며 나를 찾으라. 너희가 고아처럼 느껴질 그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 나는 너희가 시련 속에서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때가 되면 영적 세계는 더 이상 너희에게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저 세상에서 들려오던 그 “연주”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니, 따라서 너희 영혼을 계속해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영적으로 고양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75. 완전한 것에 가까이 다가가라. 너희의 뜻을 나의 뜻과 하나로 합쳐라. 너희 영혼을 위한 모든 선을 추구하며, 세상의 재물에는 덜 집착하라. 인류는 내가 그들을 막아 설 경계에 도달했다. 어둠은 사라질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초는 뽑혀 묶여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에 대비하게 하노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고, 너희 이웃들을 깨우치게 하려 함이라. 속량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구원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 이유로 너희가 배척당하거나 상처를 입는다면, 신성한 수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본보기로 삼으라.

76.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모욕을 용서하라. 너희는 ‘적’을 두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운다면 사랑과 빛이라는 무기를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때, 너희는 완전함에 이르러 지상에서 평화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씨앗을 주니, 너희의 임무는 그것을 심는 것이다.

77. 내가 오셔야 할 시기는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이 예언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죄와 물질주의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길처럼 나라에서 나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증오와 악의는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 들판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해졌다.

78.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너희가 나를 잊게 될 것이며, 내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재림을 예고했다. 그 빛은 어두워졌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 밤처럼 차갑고 무감각해졌으며,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셔서 목자와 양 떼가 있는 시골의 거처에서 피난처를 찾으셨던 그 밤과 같다.

79. 오늘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태를 준비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영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토록 큰 완고함과 불신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발견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나를 영접할 마음을 준비했다. 너희는 내 말을 경청했고, 너희의 믿음은 불타올랐다.

80.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 말씀을 따르라. 내가 너희가 지는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를 믿는 이 백성이, 내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처럼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늘 너희는 누가 끝까지 신의를 지키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수는 적을 것이며 때로는 외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열려 있을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해내어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199

1. 성령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2.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나는 지치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때 너희가 나의 사역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그 사역을 언제나 온전한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원칙들을 너희에게 익히게 하였다.
3. 나의 가르침은 세상을 하나의 이상으로 통합할 것이며, 일단 이러한 생각과 마음, 의지의 통합이 현실이 되면,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되고 영혼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깨닫게 될 것이다.
4. 이 시대에는 세계관과 신앙 교리 간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기심과 사리사욕이 뒤얽힌 이 투쟁 속에서 과연 누가 옳은가? 과연 누가 진리의 소유자인가?
5. 스스로가 완전한 길 위에 서 있으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는 겸손해야 하는데, 다른 이들의 믿음에 담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겸손함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말했노라.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6. 동료들의 믿음과 신념을 비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니, 이는 그의 교만과 경솔함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기 때문이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실하게 행동하고, 영혼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8. 자신이 받은 은총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나’를 넘치도록 베풀어 준다 해도 결코 오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불균형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세속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다른 이들은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오직 사랑의 무기만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유산 외에는 다른 조국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9. 내 백성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여기저기서 택하여 한데 모으고 연합시켰음을 알고 있다. 길과 같은 모든 종파와 교회 안에는 영성주의자들, 즉 내가 이 가족을 만들어 준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하나의 모임 장소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법, 곧 오직 하나뿐인 사랑 안에서 연합시켰다. 왜냐하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뛰는 사람은 누구나 이 백성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성주의에 대해 내 말씀이 전해지는 이 모임 장소에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영성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때문에 영성주의자가 될 것이다.

10.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념과 관습, 그리고 오류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너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되며, 너희의 수가 적다는 사실도 너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이 속박과 무지의 사슬을 끊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11. 영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 그리고 세속적 의무를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미덕의 발자취를 남기는 영성주의자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인간 사법 제도의 피고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가르치지 않은 모든 것을 경계하라. 오늘 나는 제2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힘을 찾지 못할 것이다.

12. 너희가 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따르고,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들을 존중하라.

13. 나는 너희가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내 말씀을 너희에게 맡긴다.

14. 너희 목자처럼 사도로서 길을 떠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

1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너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6.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리니, 그 길은 좁으나 너희를 만족과 평화로 채워 줄 것이다.

17. 나는 너희가 스승을 따라 지극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의 길을 따르지 말라.

18.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들은 지금 내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매일 새로운 날의 몇 순간을 나에게 바치도록 새롭게 가르치러 왔다.

19. “일꾼”들이여, 1950년 말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힘쓰고 일하십시오.

20. 너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곳에서,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의 품 안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1.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준 유산은 과거에 너희가 가졌던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오래전에 나와 맺었던 사랑과 선의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너희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돌아와야만 했다.

22. 인류가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 그러나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그러면 너희는 힘을 얻고 혼돈 속에서도 온전함을 누릴 것이다. 교회가 요새와 같고, 견고한 성벽과 같으며, 찢어질 수 없는 사슬과 같아지도록 단결하라. 그 사슬에서 각자는 튼튼한 고리이다.

23.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 나는 모든 이에게 나의 사랑 어린 도움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며 아직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임무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다.

24. 내 자녀들아, 너희의 것이 지켜지도록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

25. 내가 너희에게 몸을 준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 영혼들이여, 이 몸을 사랑으로 지켜라.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의 고통은 클 것이기 때문이다.

26. 너희는 너희 몸을 이끌어야 하며, 그 몸이 너희를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27.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싹을 틔워 번성하여 아버지의 곡창으로 돌아오게 하라.

28. 너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나 너희 중 많은 이가 완고함 속에서 나의 도움을 간구했다.

29. 너희가 내 옷을 입은 것을 보노라. 내가 그 옷을 너희에게 준 것은 시대의 역경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도중에 버려두라고 한 것이 아니다.

30. 1866년부터 너희는 내 새로운 사랑의 계시를 품고 살아왔는데, 과연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31. 인내로 고통의 잔을 다 마신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고통은 은혜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32. 성소를 단장하라.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33. 너희에게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라. 그러면 모든 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34.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니, 이를 위해 내 힘을 너희 안에 두라. 내가 너희에게 길을 주었으니, 그 길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발자취를 따라 산을 오르라.

35. 어떤 이들은 나에게 돈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첫 번째 시대에 너희는 땅에서 큰 부를 누렸으나, 나의 율법에는 불순종하였다. 오늘날 너희 식탁에는 빵이 부족하지 않으나, 너희가 사명을 완수할 시간은 짧다. 너희 이웃들에게 나의 씨앗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말고, 생의 여정이 끝날 때 그 씨앗이 배가되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

36. 이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신성한 공의를 두려워하라.

37. 너희 모두는 나의 자녀들이며, 때가 되면 너희 모두는 내게로 올 것이다.

38. 스승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너희를 통해, 내가 너희가 아무리 멀리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리라.

39. 목자가 준비해 둔 밭, 곧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어라.

40.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슬피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양에게 달려가서 양 우리로 데려간다.

41. “이스라엘” 아, 너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42.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면, 저 세상에서 큰 기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43. 천국의 문은 열려 있으며,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초대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양심 속에서 이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4. 오늘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의 식탁에 모시어, 영의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45. 나의 신성의 자녀들이여, 스승의 제자들이여, 내 사랑이 너희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의 빛이 너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라.

46. 오, 지치고 병들며 슬픔에 잠긴 영혼으로 내게 오는 백성들아, 환영하노라.

47. 내 신성한 광선의 빛 속에서 환영받으라. 그 빛 속에서 너희는 힘과 치유와 기쁨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48.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49. 내가 이 육신 안에 있다고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다. 아니, 나는 단지 이 마음이 나의 영감을 받아들인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마치 거대한 샘이 목마른 들판 과 정원에 그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나의 지혜가 깃든 보물창고이며, 내가 그곳에 나의 빛을 쏟아붓고 있음을 명심하라.

50. 나는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말로 내 생각을 담아,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치유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는 너희에게 그림자와 우상 숭배, 광신주의의 제단이 아니라 진리의 제단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쳤다.

51.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오늘 그 장막이 찢어지게 하여, 너희가 나의 새로운 메시지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라.

52. 나는 너희가 책 없이 오직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계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상징만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의 본질을 파헤쳐 그 진리를 해석할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너희는 천국의 천사들이 영원히 신성한 합창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 상징에 대해 생각할 때, 천국에서도 너희가 지상에서 듣던 것과 비슷한 음악을 듣는다고 믿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주의의 완전한 오류에 빠진 것이다. 반면, 하늘의 음악과 천사들이 그 음악을 들으며 누리는 행복에 대해 들을 때, 이 신성한 합창 속에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떠올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것이다.

54.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영혼 속에 우주적 콘서트의 음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들은 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 왜 어떤 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일까요?

55. 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이해력이 미약하거니와 — 기도를 통해 빛을 구하라. 명상 중에 나에게 묻거라. 너희의 질문이 아무리 광범위하더라도, 나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에게 답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니, 그리하여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리라.

56. 천상의 음악은 너희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며, 너희가 영적 아름다움인 진정한 고양에 도달하게 되면, 그 콘서트 한가운데서 *너희의* 음색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음악이자 천사들의 노래이다. 너희가 이를 그렇게 체험하고 느낄 때, 진리가 너희 존재 안에서 반짝일 것이며,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은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신성한 콘서트를 선사할 것이며, 그 모든 음률 속에서 여러분은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음들이 이루는 완벽한 조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음이, 때로는 힘찬 음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음들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모호한 음들로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으려면, 감각과 정욕, 그리고 물질주의의 그림자를 뒤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57. 너희는 우주의 계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나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영의 진동이 인간의 사고 능력을 초월하여 불가능해 보일 수 있겠는가? 천사들과 세계들, 우주 공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왜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겠으며, 왜 그것을 스스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58.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스승이며, 이 행성은 영혼을 위한 학교이다. 삶과 나의 가르침은 완벽한 교육 과정이다. 내가 내 의무를 저버리고, 내 제자들을 잊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을 수 있겠느냐?

59.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말하노니, 신성한 교향곡의 선율이 너희 주위를 감돌고 있으며, 그 조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이 고양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그 선율들이 우주 공간에서 계속 울려 퍼지게 내버려 둘 것이며, 그 선율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다른 이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60. 나는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이토록 많이 울고 고통받는 이 땅에서의 슬픔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61.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깨어나서, 오늘 내가 너희가 듣도록 허락한 내 교향곡의 그 부분을 들어라. 지금까지 너희의 귀는 인류의 탄식과 전쟁의 소란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는 너희의 불화와 조화의 결여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곳곳에서 이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62. 형제상살의 전쟁과 이념의 전쟁이 절정에 달했다. 크고 작은 자, 강하고 약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혼란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가지치기의 때가 가까웠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가지치기를 당할 것이다.

63. 고통과 시간, 그리고 진리는 잡초를 뿌리째 잘라내는 무자비한 낫이 될 것이며, 그 잡초는 나중에 지혜의

불길 속으로 던져져, 그곳에서 모든 그릇된 것이 소멸될 것이다.

64. 이 혼돈 속에는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직 나만이 이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세상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65. 너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에 너희를 돕기 위해 달려갈 것임을 잊지 말라.

66.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평화를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현재 나의 가르침을 통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가르침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랑과 정의의 왕국에서 온 메시지로서, 사랑스럽고 조화로운 연주처럼 내려왔습니다.

67. 나는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에 말씀할 것이다. 하늘 또한 너희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너희의 이성을 통해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68.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리스도와와의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마치 머리가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고, 행성이 없는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69. 너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아름다움은 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영혼에게 선사하는 그 거룩한 자유를 얻게 된다면, 너희는 사고력을 통해 하늘과 우주 공간, 그리고 여러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

70. 나는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예고했던 이 환난의 시기에 너희를 위로한다. 이 시대의 나의 사자인 로케 로하스는 곧 닥칠 시련에 대해 너희에게 말했고, 나의 첫 번째 대변인을 통해 나는 예언들이 이제 성취될 것임을 너희에게 알렸다.

그 당시 이미 나를 들었던 이들은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보라, 삶은 변할 것이며 인류는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서로를 경멸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외면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불륜을 저지를 것이며,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처럼 자라날 것이다. 만연할 타락과, 더욱 심해질 기근과
죄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71. 보라, 불과 몇 년 안에 이 모든 불길한 사건들이
거센 산천처럼 삶과 가정, 민족, 신앙, 제도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듣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노니, 그들이 이 거센 산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72. 가족의 덕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라. 가장 가난한
자들조차도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라.

인류 가족이 영적 가족의 구체화된 모습임을
깨달으십시오. 그 안에서 남자는 아버지가 되며, 이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진정한 닮음을 갖게 됩니다.
다정함으로 가득 찬 모성적인 마음을 지닌 여인은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며, 그들이 함께 이루는 가족은
창조주의 영적 가족을 구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수양에
힘썼다면, 가정은 여러분이 나의 법을 실천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소입니다.

73. 부모와 자녀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는 서로의 사명과 속죄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74.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십자가는
얼마나 가벼워지고 삶은 얼마나 건널 만해질까! 가장 힘든
시련도 사랑과 이해를 통해 덜어질 것이다. 신의 뜻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평화라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75. 지상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제도는 결혼이었으니, 이
결합은 첫 번째 여인과 첫 번째 남자가 등장한 이래 창조주에
의해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나의
법과 계시는 이 사명의 위대함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나는 부부와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을 기뻐했다. 가정에 임하신 나의
현존은 그 결합을 거룩하게 하고 그 결실을 축복했다. 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성인들에게 말했고, 집사 소년과 가장,
하녀, 주부, 어머니에게도 말했다. 이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영적 삶의 한 발전 단계인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할 때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있거나 품에 안은 채 서둘러 다가왔다.
그 소박한 마음의 사람들이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다고 느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승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을 찬양합니다.”

76. 나의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나, 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변함없다. 그것은 너희가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너희의 삶을 고양시켜 완전함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한다.

77. 만일 너희가 나의 율법대로 살았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과연 내가 물질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78. 나는 내 말을 통해 다른 때에 뿌려 놓은 씨앗을 가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말하겠는 것은 1950년까지만이다.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의 영혼을 돌보겠지만, 나의 계시는 더욱 미묘하고 고차원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사람들이 짓밟아 온 몇 가지 원칙들을 너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왔다. 이제 나는 천상의 조언으로 다시 한번 결혼과 가정을 축복한다. 그러나 너희의 영적 지평을 넓히고 너희가 이기심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이 민족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을 형성하기 시작하도록 가르친다. 너희는 무한한 곳에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는 너희의 모든 이웃을 형제자매로 여기게 될 것이다.

79. 너희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이, 자신의 집과 민족, 심지어 조국까지 떠나 자신의 말과 모범으로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때, 더 강하고 당당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남겨두고 가는 것들을 지켜줄 것이며, 두 번째 여행 짐을 챙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노라.

내가 너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미리 길과 문, 그리고 마음을 준비해 두겠다. 비록 너희가 몇 가지 즐거움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피의 제물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 중 한 명이 지방으로 떠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가족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이제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준비된 상태로 떠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 너희의 직관이라는 은사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어느 곳으로, 어떤 길을 따라 가야 할지 알게 해 줄 것이다.

제자들은 홀로 걷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 빛의 영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단이 그들 곁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며, 모든 이 위에 영적 목자 엘리야가 길을 밝히 비추고 그의 양들을 돌보실 것이다. 내 뜻은 너희의 행실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80. 이 사명을 짊어질 이는 너희만이 아니다. 저 세상에는 이미 너희 뒤를 이어 환생하여 너희가 뿌린 씨앗을 이어갈 이들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은 변하겠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81.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빛이 되게 하라. 너희 인간들아, 너희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된다면, 너희의 소명이 영원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0

1. 천국의 문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영 안에 있다.
2. 너희가 나의 빛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너희의 영과 나의 영 안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3. 병든 자, 슬픔에 잠긴 자, 영적인 사랑이 필요한 자들아, 환영하노라. 나 곁에서 너희는 그토록 간절히 갈망해 온 치유의 연고와 빛, 그리고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4.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니, 그러므로 너희의 고통과 근심, 두려움을 없애고, 너희가 내 사랑에 감싸여, 너희를 노리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지도록 내 빛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나의 자비의 샘물은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위로의 영은 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모든 삶의 세계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5. 너희가 나에게서 양식을 얻고,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나를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빵을

경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의 존재는 감사와 사랑의 끊임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6. 너희는 약속된 천국의 기쁨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가? — 너희는 지성으로 완전한 존재들의 삶이 어떠할지 그려보려 했으며, 노래와 아름다움, 순결,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세상에는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

7. 너희는 결국 모두 그 합창의 일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온전해져서 내게로 올 때 그 행복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가 내게 바치는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천상의 음악은,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서 나의 임재를 발견하고, 내가 너희를 그 일의 동참자로 삼기 위해 너희 눈앞에 펼쳐 보일 나의 업적과 창조물을 묵상하며 황홀해할 때, 너희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언젠가 너희가 내 곁에 있게 되면, 너희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가장 달콤한 노래가 너희의 영에서 나의 영으로 솟아오를 것이다.

8. 그때 너희가 내 임재가 너희 안에서 그토록 빛나고 있음을 느낄 때, 너희는 매 단계마다 하나의 연주회를, 매 음표마다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에게 그토록 가까이 있게 되어, 마침내 나를 너희 존재의 유일한 이유이자 유일한 목표로 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마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여 자신의 성취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자각한 방랑자를 맞이하듯,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9. 백성아, 너희는 아직 이 아름다운 음조의 음악을 듣지 못했으니, 이는 너희가 아직 너희 영혼을 비물질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연주회는 너희가 도달할 수 있었던 세상을 넘어 울려 퍼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곧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다.

10. 너희는 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지는 나의 계시를 어렵게 여기는가? 내가 언제나 너희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가? 창조물이 나로부터 양분을 얻고, 모든 영혼이 마치 나무의 가지들처럼 그 나무로부터 살아가며 그 수액을 먹고 산다면 — 내가 너희의 스승이자 의사이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11. 들으라. 세계관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 육신을 가진 영혼과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혼란의 바다 속에서 격앙되어 있다. 모두는 고통과 악의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는 서로를 해치고 죽이려 하며, 모두는 파괴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은 그들 역시 똑같이 덮쳤다.

오늘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를 베어내라는 사명을 띤 추수꾼이 현존하고 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오직 정의와 진리만이 승리할 것이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일부는 남을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진리가 빛날 것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오직 기만만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낮은 지상에 있는 모든 씨앗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베어 나갈 것이다.

12. 그 시절에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이상과 고향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지식은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인문학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가르침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영혼이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밝혀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법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제들이 내게로 올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심시킬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질 것이며, 다른 이들은 겸손히 내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므로 그들에게 증거를 주리라.

14.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와 의심을 해소해 주지 못할 때, 그들은 내게로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요, 모든 이에게 그토록 사랑이 넘치는 이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바로 스승께서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숭고한 계명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언어이다.

15. 너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미 고통의 탄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너희를 평화시키고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뒤를 이어 새로운 사도들이 올 것이다.

16. 나는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굳건함을 주어, 너희가 속죄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나는 너희가 원수를 친구로 삼아, 너희의 투쟁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되기를 원하노니,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 모든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소명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항상 아버지와의 연합 속에서, 창조된 모든 존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18.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버림받은 아이를 어루만지거나, 곤경에 처한 이를 돕거나, 무방비한 존재를 보호할 때 —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그것은 양심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본보기로 삼았기에 그 자녀를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19. 너희가 나의 신성을 지닌 합당한 자녀가 되고, 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상속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정화해야 하며, 이제 너희는 선한 행실이 가장 훌륭한 정화의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왕국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가 오늘 그분께로 이끄는 길 위에 서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각자를 사도로, 그리고 각 사도를 스승으로 삼고자 한다.

20. 나는 인류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떤 종교 공동체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쳤으며,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인류를 구원해야 할 것은 어떤 교회나 한 명의 사제, 혹은 많은 사제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목자, 너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친 이가 바로 나다.

21. 그 당시 사람들은 내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나를 파멸시키고 내 가르침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그로 인해 오히려 희생으로 얻은 더 큰 생명과 더 높은 영광을 나에게 안겨주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시대의 사도들, 즉 나와 같은 길을 따라온 모든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22. 마찬가지로, 현재 이 시대에 나를 영접하고 나의 사역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축복을 내린다.

23. 이스라엘아, 지친 나그네여, 너는 제3시대에 네 운명을 완성하고자 내 말씀을 갈망하며 다가오며, 입술에는 쓰라림과 마음에는 아픔을 안고 내게로 온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 내 영의 부르심을 듣고는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서둘러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

24. 어떤 이들은 나의 명령을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다.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죄를 지은 뒤, 내 면전에서 회개를 느낀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의 가르침을 살피며, 그것을 정죄할 어떤 오류라도 찾으려 한다. 나는 너희를 알고 사랑하며, 오늘 이 날 모두를 받아들인다.

25. 나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 나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조만간 전할 것이다. 죄를 지은 자를 나는 수정처럼 맑은 물과 같은 내 말씀으로 정화하리라. 그가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탐구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내가 빛을 비추어 주고 증거를 주어,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를 증언하게 하리라.

26. 그 때 너희 모두가 준비가 되면, 나는 너희를 지성이 단련되고 말씀씨가 뛰어난 이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영적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7. 과학은 머지않아 멈춰 설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영혼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지식을 무용지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면, 나를 찾게 될 것이며, 영적 삶의 본질과 목적을 알고자 할 것이며, 겸손히 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할 것이며, 나는 내 뜻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이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28. 나를 가장 충실히 따를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이 위대한 영적 지식의 보화를 받게 되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시대에 내가 세상에 오셨음을 증언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예언자처럼 나타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말씀의 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모두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의 일을 행할 것이다.

29. 멸시받던 그 나라들, 누더기를 두른 그 민족들이 깨어나 나를 사랑하고 인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고통 속에서 정화된 위대한 영혼들이 있다. 이 피조물들의 심장 깊은 곳에는 나의 사자들, 나의 사도들이 숨어 있다. 나는 모든 나라를 불러 모을 것이며, 머지않아 나의 말씀의 영감을 이해하고 나의 선구자가 될 자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30. 이스라엘아, 그곳에는 내 명령을 기다리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전우들이 있다. 그들이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동안, 다른 이들은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땅을 보고 싶어 하며, 더 따뜻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신성한 법을 실천하며 영혼을 꽃피울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31. 사람들의 종교적 실천에 있는 불완전함은 영성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거짓 우상들에 지친 영혼이 나의 임재와 나의 말씀을 갈망함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강가에서도, 산에서도, 계곡이나 사막에서도 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며, 그곳에 나를 사랑할 성전을 세울 것이다.

32. 너희는 세속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처지에서 그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큰 시련을 겪은 후,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갈망하게 되고, 그들의 미덕을 바탕으로 상승하며, 내가 인간에게 베푸는 은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1950년에 너희는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3. 메마른 밭과 같았던 많은 마음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돌보아 온 너희에게 말하노니, 준비하여 내 씨를 뿌릴 준비를 하라.

34. 그 해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깨어 기도하며 내 율법을 실천해 온 자들만이 다른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35.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준 것은, 너희가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이웃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36.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 지금 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직 내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분들도 모두.

37.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는 투쟁의 시기, 영적 투쟁과 세계관의 투쟁이 벌어지는 시기이다.

38. 이 말씀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르침의 신비를 끊임없이 파헤치려 하는 자들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다양한 신앙 고백을 가진 수많은 남녀들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모든 교회나 교파에는 선의를 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는 완전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9. 나의 은총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이가, 비록 단 한 순간일지라도, 나의 신성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불태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40. 땅 곳곳에는 여전히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는 이들이 흩어져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한 결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41. 나는 너희에게 모든 곳, 모든 나라, 모든 대륙에 빛이 비추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빛은 인간의 영적 수련 수준에 따라 비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 창조에 대한 새롭고 더 정확한 관념, 영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정신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42. 마침내 모든 지성인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신성하고 영원하며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명확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진리는 더욱더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그 진리는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적 연합이 현실이 될 것이다.

43.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가르침과 내가 너희에게 준 규칙들은 널리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해야 할 것은 내 말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 의미라는 점을 명심하라.

44. 또한 너희 예배의 외형이 변한다고 해서 상심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행위의 본질과 순수함만이 아버지께 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45. 너희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며, 그들이 영성주의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너희가 여전히 붙들고 있을지 모르는 숭배에 대한 광신적 태도의 마지막 잔재마저 버리도록 너희를 강요할 것이다.

46. 내가 너희 곁에 다가가 대변자를 통해 내 뜻을 전할 때, 나는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듣기만 하는 자들을 발견한다. 또한 단지 호기심에 이끌려 온 자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세계를 시험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필요한 경외심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입증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더 높은 힘의 소행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이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47.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곳들에서 축복받은 물을 가져가며, 그 물로 기적을 행한다. 그러나 스승께서 너희에게 묻는다. 과연 그 물 속에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힘은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 행위의 순수함 속에 있다. 주님께서는 자연과 온 창조물 안에 계시듯이, 너희 안에도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 당시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48. 나는 너희의 이성에 빛을 주고, 너희의 감정을 움직여 선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기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아버지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오직 영혼의 감수성을 통해서만 인지해야 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49.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나의 영적 세계가 너희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하였고, 너희가 모두 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의 현존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너희의 이성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은사를 너희에게 베풀었다.

영적 존재들의 계시는 내 사역을 탐지하는 자들의 악의적인 해석을 부추길 것이며, 그들은 이를 무기로 삼아 너희를 해치고, 비방하며, 마법사로 단죄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시가 씨를 뿌린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은사가 계속 남아 있고,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직관적으로 너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50. 내 말씀을 깊이 탐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정해진 행동 양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51. 너희가 간직하고 삶의 여정에서 뿌려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사랑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모임 장소들조차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길 위에서, 너희의 침실에서, 산속에서, 그 어떤 곳에서나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의 삶의 환경도 제각각이겠지만, 그 환경은 언제나 너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각과 행동, 말, 심지어 눈빛으로도 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52. 양심을 너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자로 삼는 데 익숙해지라. 그러면 양심이 너희가 내 안에 심어 놓은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알려 줄 것이다.

53. 내 사역에 동참하는 형제자매들이 내 계시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54. 오직 믿음의 사도들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나 이는 *내가* 어떤 이들은 택하고 다른 이들은 배척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모두를 부른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와 함께 머무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멀어져 간다.

55. 많은 이들이 내게 왔고, 앞으로도 내게 올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안에 이웃 사랑을 심은 자들만이 남을 것이다.

56. 이 말씀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영적 군대들도 듣고 있다.

57. 나는 너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한다.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너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대변자를 통해 전해진 나의 말씀이 너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나를 찾으라. 나를 따르는 모든 이는 마음속에서 나를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58. 나는 너희를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로 연합시키며, 결코 갈라놓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니, 때가 되면 너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리라.

59.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온기를 갈망하며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처럼, 혹은 삶의 길로 인도해 줄 지혜를 갈망하며 오는 아이들처럼 본다.

60. 너희는 미미한 존재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은 너희의 연약함 때문이며, 내가 너희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는 교훈들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1. 내 이름과 내 말씀을 아는 자는 자신을 무지하거나, 하찮거나, 약하다고 부를 권리가 없다. 내가 한때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사랑의 길을 걷고, 내 지혜의 빛으로 양분을 얻는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영혼은 이미 눈물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62. 왜 너희는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지 않는가? 내 가르침의 진의가 바로 그 아름다운 목표, 즉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 위에서 평화가 있기를” 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인 평화이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름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화이다.

63. 이것이 바로 평화를 얻는 비결이다. 나는 이를 세상에 계시하고, 그 왕국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주었다. 인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의 길을 통해 평화와

위대함, 지식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상대로 세상을, 자신의 취향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했다.

64. 그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애라는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은 무효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오늘날 그의 허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인간은 과학의 진보에 대한 자부심 속에서 자신의 발견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대신, 사랑을 담지 않은 자신의 업적의 결과를 실감하게 될 때, 고통과 공포, 그리고 후회의 신음 소리가 가슴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65. 내 말씀이 너희에게 쓰게 들리는가? 그것은 단지 진실을 말할 뿐이다.

66. 나의 말씀은 썩기풀이 아니라 밀이며,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67. 내 뜻을 행하면 너희는 울지 않을 것이다. 내 가르침을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온전한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가르침 201

1. 백성들아: 진리의 영이 모든 영혼 위에 그 빛을 비추는 이 시대에, 나는 이 형태로 나를 들을 운명을 가진 자들이 집중하고 깊이 성찰하기를 원하노니,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들이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신성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내가 너희 영혼에 새겨 넣는 책이며, 인류가 태초에 이미 받아들였던 율법에 대한 신성한 해석이며, “일곱 봉인의 책”에 담긴 본질의 핵심이다. 나는 내 말씀의 빛으로 너희 영혼을 비추어 그 비밀을 차츰차츰 너희에게 드러내고 있다.

2. 내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겠지만, 너희 마음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3.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피로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는 영감의 빛을 통해 내 계시를 너희 영혼에 새길 것입니다.

4.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 전달자들의 불완전함을 보고 의심하게 된다면, 그 불확실함에 머물러 있지 마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앞으로 나아가라. 내 소망은 너희가 내 계시에 담긴 위대함과 진실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이 백성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방과 부족, 마을, 심지어 여러 나라로 나아갈 때, 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너희는 아직 사명이 성취되는 순간을 간절히 바라는 무지한 아이들일 뿐,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함정과 시련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되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6. 이 시기에 내가 베푼 가르침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니, 이는 많은 이들이 나를 들을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과거에 너희에게 했던 약속, 즉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눈이 영적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여, 너희의 희망과 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되살리기 위함이었다.

7.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였으니, 그 안에는 내일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예언과 예고,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억은 종종 너희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8. 나의 말씀은 전 세계의 남녀로 이루어진 깨달은 백성을 양성하며, 그들의 힘은 영성에서 비롯될 것이다. 나는 이 백성에게 세상 평화와 정의, 도덕, 그리고 참된 신앙의 회복을 맡길 것이다.

9. 오늘날 인류는 겉보기에는 잠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들이 나의 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마치 꽃들이 태양 빛의 온기와 어루만짐을 받아들이기 위해 피어나듯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젖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온 땅을 뒤덮을 때까지 성장해 나갈 그 백성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물질주의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영혼과 영혼의 대화를 전파하며, 큰 시련이 닥쳐올 때 동료 인간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10.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내일 솟아날 백성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백성의 의무는, 그들을 채찍질할 수 있는 시련과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흩어진다면, 전투는 패배로 끝날 것이며, 그때까지 그들을 인도해 온 별은 사라지고, 그들은 사막의 헤아릴 수 없는 고독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진리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11. 사랑하는 제자들아,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와, 내 신성한 현존과 내 말씀을 너희를 통해 감지할 수 있게 하였으니, 너희 스승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업적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 사랑해 온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 신성한 가르침의 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12. 제자들아, 너희가 영적 은사를 갖고자 한다면, 사랑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을 너희에게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게 하라. 너희의 허영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즉 너희가 동료 인간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내

은총을 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은사들을 통해 고리대금을 통해 너희의 행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베푸는 선행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노니, 너희가 이러한 은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에게 붙여넣는 것은 사랑이어야 한다.

13. 이 길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사리사욕과 이기심, 허영을 비워내야 한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만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14. 너희 중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고 있거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나의 신성한 사랑이 그에게 나의 치유의 향유 한 방울을 내려주며, 내가 그에게 그가 구한 기적을 허락하리라.

15. 바로 이 순간, 이웃을 위해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아이에게는 지대한 기쁨이 넘쳐흐르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그 아이가 간구한 바를, 나의 은혜를 받은 곤경에 처한 이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삶의 여정에서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임무를 가진 자가 자신의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한다면, 그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며,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된다. 그는 결국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것이다. 이 나쁜 “일꾼”은 자신의 길에 밀 대신 잡초만 뿌린다. 그가 악한 행위를 저지른 후에는 매우 쓰라린 맛과 불만, 불안이 남게 되며, 아버지의 자비로운 얼굴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복하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자신의 영적 은사가 미치는 영향을 느끼게 할 수도 없다.

16. 만일 병자가 낫거나, 슬퍼하던 자가 위로를 받거나,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은 그 “일꾼” 덕분이 아니라, 무지함 속에서 주님의 나쁜 제자에게 온전히 신뢰를 두었던 곤경에 처한 자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한 연민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한 종은 기적이 일어나면 이를 자신의 중보 기도나 영적 은사 덕분이라고 돌리며, 그 증언을 이용하여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린다. 그러면

나의 공의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이 길을 잃게 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행위의 그릇됨을 반성하며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17. 나의 의로움에 의한 첫 번째 심판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릇된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모든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를 통해 영혼의 만족이 세상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한 행실이 남기는 평화를 경시하고, 아침이나 동전 한 닢이라는 보잘것없는 대가를 받아들였으며, 전자가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반면 후자는 영혼을 작게 만들고 비하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18. “내 발의 일꾼”인 모든 이는, 내가 그를 보내어 나에 대해 증언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진실되려면, 그는 자신의 행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선한 말과 선한 생각을 통해 그 증언이 정당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19. 한때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했던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행적을 통해 너희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에게 비추어 오신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이제 나는 내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 내가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너희에게 말한다.

20. 이 백성이 마침내 나를 이해하고, 이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참된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깨어나 자신의 행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이끄는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일을 신성한 계시로 여길 것이며, 또한 그것을 종교, 교리, 혹은 세계관이라고 부를 것이다.

21. 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밝힌 사명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깨달아라. 너희의 책임을 명심하고, 너희의 모든 행실을 점검하여, 그것들이 모두 내 가르침의 진리에 부합하도록 하라.

22. 많은 단체와 수도회, 교구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 그들의 입술은 “형제”라는 사랑스러운 말을 내뱉지만, 대개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23.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시간을 내어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다면, 너희가 태어난 생명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자애를 깨닫게 될 것이며, 서로가 얼마나 거리감을 두고 살아왔는지, ‘낯선 사람’이라 부르는 이들을 바라보는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가하는 상처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회개의 떨림으로 이끌 것이다.

24.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형제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마리아 안에서 육신을 취하고 여러분을 나의 형제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신성하고 유일한 율법을 너희 앞에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 너희의 온 삶과 행실을 나의 본보기에 따라 이끌어 가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모든 길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 사랑의 참된 증거를 보여 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고양시키기 위해 모든 능력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나의 임재를 온전히 느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나누고, 어떤 이들은 사랑을 베풀며, 또 어떤 이들은 도움의 손길과 학문, 영감을 기여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단 한 명의 깨달은, 위대하고 선하며, 따라서 강력한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강하고 하나된 인류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내 사랑의 법을 새겨 놓고 있는 인간입니다.

26. 그의 마음의 바위는 단단하지만, 내 말씀이라는 신성한 끈의 날카로움을 견뎌내지는 못할 것이다.

27. 나는 인류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시대를 너희에게 예고한다. 이는 오래전 나의 선지자들도 너희에게 예고했던 바이다. 그때 너희는 여러 나라가 형제처럼 화합하며, 그들의 양식과 힘, 지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전에는 오직 전쟁과 적대감 속에서만 살아가는 법을

알았던 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이룩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진정한 인류의 의사로서 병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8. 이제 너희는 진정으로 내 율법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가? 내가 왜 이미 그 옛날에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나의 가장 높은 계명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하는가?

29. 나는 이 시대에 그 최상의 계명을 너희 마음에서 지워버리거나 다른 계명으로 대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 계명은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다. 나는 단지 너희가 그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지혜인 그 본질을 깨닫도록 설명해 줄 뿐이다.

30. 인류는 언제쯤 그 율법을 실천하는 데에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화와, 오늘날 결핍하고 있는 건강, 그리고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인가?

31. 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곳에 도달하면 마침내 진리의 빛을 향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32.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후, 너희가 이웃 중 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느끼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33.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맞이한다. 비록 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수가 적더라도, 나는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34. 너희의 이성은 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 빛은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없애 줄 것이다.

35. 나를 따르는 이들의 수는 적고, 나는 여전히 그들이 힘없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나의 말씀은 그들을 힘차고 굳건한 전사로 변화시킬 것이며, 그들은 언젠가 비록 지치고 상처 입었더라도 오른손에 평화와 형제애의 상징인 깃발을 휘날리며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너희의 승리는 많은 이들이 너희를 따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36.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완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혼은 성장하기 위해 확고한 결심과 힘,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부족하면 발전은 더디며, 영혼은

완전해지기 위해 수많은 지상생을 거쳐야 한다. 사람들은 영혼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인 나의 모든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직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결코 그 길에서 멈춰 서지 않고, 시간과 기회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며,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지식도 필요하다.

37. 삶은 육체보다 영혼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존재하는 은총, 즉 창조주가 인간 안에 심어 놓은 그 신성한 불꽃을 드러낸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38. 사람들이 자신의 영 안에서 투시력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39. 영은 나의 『신성한 지혜의 책』과 같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가! 영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주는데, 때로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계시들이다.

40.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존재하는 그 빛의 불꽃은, 인간을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 주는 끈이며, 그를 저 세상과 그의 아버지와의 접촉으로 이끄는 바로 그것이다.

41.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모든 것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생, 그리고 매일, 혹은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 영생 말입니다.

42. 나는 내 발에서 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법을 배우는 일꾼들, 맑은 정신과 선의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은사를 받은 많은 이들이 ‘탕자’가 되어, 잠시 동안만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가 그 후에는 쾌락만을 좇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가는 길에서 나의 무자비한 공의를 마주하게 될 것이나, 내게로 돌아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자비로운 아버지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43. 오, 수많은 사람들아, 길을 떠나 이 사역의 사자로 나아가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내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빛이 인류를 잠에서 깨울 것이다.

44.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길을
알아가라. 그것은 내 율법의 넓은 길이다. 그 길 위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때로는 매우 쓰라린 잔을 마셔야 할
것이나, 너희 영혼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경험할 때 끝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45. 내가 앞장서서 길을 표시해 주리라. 너희는 양처럼
순종해야 하며, 그러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라: 영혼의
지극한 행복으로. 사랑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여정에서 파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있으며,
그 의무들 또한 거룩하며 너희 영적 소명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46. 나는 매일 짧은 영적 기도 하나만을 청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그 순간들에는, 모든 인간적인
비천함과 비참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의 임재 안에
이르러 나의 어루만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 너희 모두는 영적으로 각기 다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들은 길을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 곁을 떠나야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가족의 품 안에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48. 어떤 이들은 스승께서 비로소 이 시대에야 비로소
너희에게 영적인 임무를 맡기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큰 오해에 빠져 있다. 너희 영혼은 그 기원에서부터 발전의
길을 스스로 그려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도,
과거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나는 단지 너희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다.

49. 오, 제자들아, 너희 동료들이 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이끌기 위해 사랑으로 너희의 사명을 받아들여라.
너희는 이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의 영혼과 몸 안에는
시련을 이겨내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깃들어 있다.

50. 너희의 영혼이 너희 몸의 키가 되어야 하며, 너희
정신의 빛이 너희의 길을 비추고 육체의 정욕과 충동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51.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 씨앗을 배가시켜 내 곡창에 저장되도록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를 통해 너희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52. 투쟁이 내미는 고통의 잔을 인내로 마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그의 고통은 행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용기를 가득 품으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신을 두려워하라. 한 번의 약함이나 실수가 너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뒤덮은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 너희 동료 중 누군가가 교활하게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리라.

53.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 십자가의 짐을 지라. 그리고 이 현세에서의 삶과 너희의 어려운 영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왕국으로 너희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알라.

54. 너희가 지상에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면, 저 세상에서도 그것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2

1. 너희 영혼의 눈으로, 너희를 아버지의 임재로 인도하는 별을 바라보라.
2. 여기, 삶의 고통스러운 순례 여정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희 영혼에게 필요한 신성한 온기를 그분의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3. 고통 때문에 내게 다가오면, 나의 사랑이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계시의 엄숙한 순간에 동참하라.
4. 나는 너희 곁에, 너희 마음 가까이 머물러 너희가 나의 현존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하리라. 나는 이 밤의 조화와 따뜻함 속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첫 빛이며, 신성한 약속이자, 너희 영혼을 온전하게 하여 하느님께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승임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5. 비록 한 시간뿐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 곁에 있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를 진심과 희망, 그리고 치유의 향유로 가득 채우고자 하며, 너희가 바로 이런 밤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 나의 삶과 모범적인 행실을 통해 천국으로 이끄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6.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나는 기도가 이 엄숙한 시간에 하늘의 모든 찬송과 하나가 되게 하라.

7. 모두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이들, 슬픔에 잠긴 이들, 갇힌 이들, 병든 이들, 고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슬퍼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8. 너희 중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도 이 순간에 내면이 감동받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타인을 생각하려면 먼저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러면 이 영적 교제의 시간에 그들과 너희,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9. 나는 너희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너희를 찾아왔으며, 오늘의 가르침이 끝날 때면, 내 임재의 흔적으로 이 백성에게 잇을 수 없는 향기를 남기리라.

10. 너희가 슬픔과 상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시든 꽃들을 내가 거두게 하라. 그러면 그곳에 믿음과 희망의 등불을 남겨 두리라.

11. 오늘 내 영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며, 이를 통해 인류의 마음속에 다시 부활하고자 한다.

1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말씀을 너희의 법으로 삼고, 나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수 세기 전에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불멸의 씨앗을 가져다주었던 그 신성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서 피어날 것이다.

13. 너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제 나 자신이 와서 그 사랑의 근거를 설명해 주려 한다.

14. 너희 영혼은 내 말씀을 들으며 떨며 내게 말하되, “주님, 그 시절에 제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승님, 이 불확실함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1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당시 영적 존재들과 인간들은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나의 사역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16. 너희의 영혼은 다른 세상에 살았거나 다른 육신을 지녔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것이다. 오늘날 그 영혼은 다른 눈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으며, 그 질문들도 여전히 똑같다. 그 영혼 또한 나에게 묻고, 나를 뵈거나 발견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나는 그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무한한 삶이 끊임없는 탐구임을

깨닫고, 신성한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끈기 있으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17. 너희는 종종 먼저 큰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먼저 너희 자신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라. 너희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너희 존재의 불꽃으로부터 영양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그 불꽃을 지펴 주셨기 때문이다.

18. 너희는 이 가르침을 막연하게만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의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건대, 자신의 존재 내면, 즉 자신의 영혼이라는 성전에서 나를 찾는 법을 아는 자들은 수세기 동안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머지않아 얻게 될 것이다.

19. 사람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반항심이 있다면, 그 좁은 마음으로는 무한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스승이 아버지의 위대함에 대해 아무리 많이 말씀하시더라도, 사람은 그 진리가 담고 있는 바를 파악할 수 없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그 지식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에 깊이 파고들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깨닫는 것은 너희가 이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21.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신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십니다.

22. 백성들아, 이 순간 우주가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그 깊은 고요함을 깨달아라. 모든 것이 사랑의 헌신과 숭고한 묵상, 깊은 경배 속에 잠겨 있다.

23. 그 이유는 모든 존재와 모든 피조물이, 바로 지금 내가 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던 바로 그 말씀으로, 사람과 자연계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불치병들이 물러나야 했으며, 죽은 자들이 부활했던 바로 그 말씀이다.

24. 준비하고 고양되는 법을 아는 이들을 위한 이 영적 축제의 밤에, 너희는 보이지 않는 곳, 만질 수 없는 곳에서 너희가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현존과 방문을 경험하고

있다.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하는 법을 안다면, 들판과 도시, 가정, 그리고 우주 전체가 빛과 평화, 사랑의 사자인 무수한 존재들의 천상의 광채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5. 하늘이 땅에 다가오고 있으며, 그 빛은 목상의 시간을 갖는 자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를 잊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있다.

26. 기뻐하라, 오 인간들아, 적어도 이 밤만큼은 기뻐하라. 너희가 아직 이 평화를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27.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 기쁨은 진심과 선함으로의 회귀이다. 그렇다, 영의 황홀함으로 즐거워하라. 그 황홀함은 영원한 깨달음이다.

28. 너희는 랍비가 세상에 태어나신 그 밤을 기념하며, 오늘 밤을 “성스러운 밤”이라 부른다.

29. 이러한 기억들이 주는 신성한 영향 아래,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멀리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가한 상처를 용서하고,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친구들은 서로를 찾아가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두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바로 *이* 밤, 사람들은 굳어진 마음에 약간의 온기를, 어떤 이들은 물질주의 속에 약간의 영성을 스며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오직 이 밤만이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금의 사랑만으로도 너희 삶의 모든 밤과 낮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삶이 매 순간 거룩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30. 너희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이* 밤은 우리가 매년,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밤을 기념하는 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 시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태어나신 순간을 알리는 것이었으나, 내 영은 그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셨다.

31. 그러나 너희가 매일의 삶을 온전히 율법과 진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전념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적어도 이 기념의 밤에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32. 너희 모두 나를 찾으라, 모두 내게로 오라. 그러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며, 너희 주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라.

33. 누구도 오만함이나 허영심을 품고 오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궁핍하고 죄인일지라도, 내 용서의 수정처럼 맑은 물로 자신의 오점을 씻어내는 겸손한 자들이 더 사랑스럽다.

34. 아, 너희가 영으로 나와 함께 와서 이곳에서 인류의 온갖 비참함을 볼 수만 있다면!

35. 권력자들과 부자들, 그리고 안락함에 둘러싸여 사는 자들이 오늘 밤 나 곁에 있고자 한다면, 나는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고통과 가난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36.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잠시만이라도 너희의 잔치를 떠나, 가난한 형제들이 사는 곳을 함께 방문해 보자.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의 밤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축제의 밤인 이 축복받은 밤을 그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보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지요.

“단 몇 순간만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여러분의 축제와 즐거움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데려가며, 비참한 잠자리의 고독 속에서 자신의 희망이었던 자녀들을 전쟁으로 잃고 슬퍼하는 한 노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37. 이 여인은 추억과 기도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쾌락에 취해 있는 동안, 그녀는 고통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람들에게 품었던 희망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38. 그 후, 나는 그들에게 사람들 사이를 방황하며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여 주겠다.

39. 나는 이 사람들이, 인간의 무지 속에서 그토록 많은 불의와 증오, 이기심, 잔혹함의 원인을 묻는 아이들의 심오한 질문을 듣게 하리라.

40.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폭풍이 휘몰아칠 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겪은

병자의 숨 막히는 신음과 탄식이 들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은 병자들, 패배자들, 잊혀진 자들이다.

41. 그 후, 나는 감옥의 문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여, 사랑과 자비, 빛과 정의, 평화의 부재로 인해 감옥의 어둠 속으로 내몰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보게 할 것이다.

42.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이끌며, 단 하나의 그림을 통해 권력 추구, 탐욕, 증오, 물질주의, 그리고 거짓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갈망이 초래한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력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정당한 권리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소유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자들이다.

43.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양심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4. 그러나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백성아, 너희는 궁핍과 고독, 추위, 그리고 고아의 처지를 겪어 보았기에, 정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울부짖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함께 영 안에서 병든 자와 슬픔에 잠긴 자,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와 잊혀진 자들을 찾아가자.

45. 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망토를 펼치고 너희의 망토와 합쳐 온 인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라. 오라, 그리하여 울고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삶의 길에 빛이 되는 믿음과 희망으로 깨어나라”고 말하는 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인류를 위한 이 고통의 날들은 단축될 것이다.

46. 그렇다,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나를 듣기 위해 쉬고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 너희 영혼을 나의 거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인류 곧 너희 형제들의 비극을 더 잘 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하라.

47. 저기 황홀함에 휩싸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느냐? 그들은 전투 도중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나에게 몇 분간의 기도와 추모의 시간을 바치기 위해 모인 병사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황홀함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달래기 위해 먹고 마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백성아, 그들은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그들에게 고문과도 같은 이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기억은 가시와 같고, 그들이 떠올리는 모든 이름이나 얼굴은 상처입니다.

48. 여러분은 근심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부모와 자녀, 아내를 볼 수 있는 반면, 그들은 그들을 껴안을 수 없다는 쓰라림과, 어쩌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49. 그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며,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고통과 슬픔, 눈물을 뿌릴 때 고통을 겪으며, 결국 가족의 품과 평화로 돌아갈 모든 권리를 잃었다고 믿게 됩니다.

50.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죄가 없으며, 마음속에 증오나 파괴의 의지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들이 희생자이며, 진정한 악의 노예이자 도구라는 것을 압니다.

51. 오직 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오직 나의 사랑만이 그들을 보호하는 덮개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그들은 버림받았다.

52. 이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오늘 내 말씀을 통해 마음속 가장 감수성 깊은 현이 울린 너희 백성아, 그들에게 자비와 빛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마침내 이 살육의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희망하게 될 것이며, 요란한 전투 소음 대신에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에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53. 백성아, 기도하라. 그리하여 세상이 새로운 날의 빛을 기대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의 약속 — 더 나은 시대와 영성, 그리고 번영에 대해 말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

54.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눈을 돌려, 모든 것이 부족한 이들을 찾아가자. 그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잠들어 있는데, 침대가 매우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품지 않는다.

55. 오늘 식탁 위에는 빵 한 조각도 없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날을 믿으며 평안히 쉬고 있다. 그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며,

몸에 온기가 부족함에도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지상의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악의 없는 그들의 미소에는 하늘의 순수함이 비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56. 오, 순수함이어! 그들에게 너희의 가장 좋은 망토를 덮어주라. 그들의 것이야말로 천국이니!

57. 너희 모두는 이 밤을 “성스러운 밤”이라 부르니,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의 홍수를 쏟아 붓는다.

58. 내가 너희의 것이며, 너희가 나의 것임을 알라. 내가 너희, 즉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며,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시덤불 속에서 고생하고, 궁핍 속에서 죽음으로써 내 사랑을 증명했음을 기억하라.

59. 내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단지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60. 나는 또한 노인들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미 삶의 봄을 오래전에 지나쳐 이제 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이들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에게는 힘과 에너지, 건강이 부족해진다. 일은 힘들어지고, 몸은 둔해지며, 더 이상 그들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61. 그리하여 노인들은 다른 이들의 삶의 투쟁에서 배제된 채, 홀로 버려진 자신을 마주하게 되며,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은 슬픔에 잠기고, 궁핍과 비참함, 굶주림, 고독을 겪게 된다.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백성아,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적 잔치의 큰 식탁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스승을 따르며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너희는 복이 있도다.”

62. 그러니 너희 안에 연민을 키워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손을 사용하여 그 손을 통해 나의 축복을 전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의 것을 형제에게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다시는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게 “주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63. 너희 삶에서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행해 왔다면,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 문 앞에 찾아오는 첫 번째 고통받는 이로부터 시작하라. 그 사람이

영혼이나 육체가 병든 자이든, 위로를 잃은 마음이든, 과부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64.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예수님을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셔서 너희에게 “내가 목마르다” 고 말씀하시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다.

65. 인류가 보여주는 엄청난 고통과 비참함의 광경을 마주하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고통받지 않는 이들이 자신의 시선으로, 그들이 소유한 보물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보다 더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것을 본다.

66.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고통받는 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나와 함께해 주었다. 그 일로 인해 축복을 받으라. 내가 부자와 권력자들을 잇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겉보기에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들의 비참함과 고통, 그리고 불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믿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내가 병자, 천민, 슬픔에 잠긴 자들의 그리스도인 이상, 도대체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그들은 내가 그들을 거짓된 영광에서 구해내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지 못한다.

67. 너희 외에 누가 내 말씀을 그토록 깊이 경청하고, 사랑으로 인해 영혼이 떨리는 것을 느꼈는지 아느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창조주의 품에 머무르는 어머니 같은 영혼이며, 그 내면은 영원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 될 것입니다.

68. 그녀가 이 세상을 거닌 시간은 짧았으나, 나보다 더 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오셨고, 나보다 늦게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짧고도 사랑스러운 말씀들은 천상의 어루만짐과도 같았습니다.

69. 영 안에서 그녀를 느끼고, 그녀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그녀께 의지하십시오. 알아두라: 너희가 자비의 행위를 행할 때마다, 고통받고 피 흘리는 세상 위에 중보와 모성애의 망토를 펼쳐 주시는 그녀가 너희 곁에 계실 것이며, 너희가 슬퍼하거나 근심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70. 백성아,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 이 축복받은 밤에 나의 숨결이 너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고생을 잊게 하였다.

71. 너희 구세주의 빛이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 오늘 너희가 건너고 있는 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헤쳐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3

1. 너희 존재의 지극히 높은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너희를 환영한다.

2.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행복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를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너희는 이를 이룰 수 없다.

3. 인간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을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눈가리개를 벗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육체적 쾌락으로 유혹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정욕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절름발이와 같게 내버려 두는 이유이다.

4. 모든 분야에서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며, 어디를 가나 약한 사람들만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빠져 있는 오물에서 벗어나고, 물질에 묶어두는 족쇄를 만드는 나태함을 극복할 용기와 충분한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악덕과 모든 잘못의 근원입니다.

5.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힘, 즉 의지를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6. 의지는 제한 없는 입법자가 되어야 하며, 최상의 지도자가 되어 이성을 뒷받침으로 삼아 싸워야 한다. 힘 대 힘, 지배 대 지배: 한쪽에는 정열과 욕망이, 다른 쪽에는 이성과 의지가 서서, 후자가 전투에서 승리하여 너희가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깨달은 자, ‘초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야생 동물들과 함께 살며 파충류들과 놀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을 짓누르는 과오들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작은 형제들을 두려워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호랑이보다 더 사나우며 코브라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7. 고대의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그것은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여 성전의 진정한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과오와 정욕에 노출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비추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성한 힘이며, 불멸하고 순수한 본성이며,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을 지극한 행복으로 이끄는 파괴될 수 없는 본질이다. 이 파괴될 수 없는 본질은 모든 사람이 지닌 순수한 요소이다. 그러나 인간은 세속적인 쾌락으로 스스로를 오염시켰고, 그로 인해 이 파괴될 수 없는 본질, 이

불멸의 존재는 필멸의 외피로 덮이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지닌 힘으로 인해, 점차 필멸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인간은 불멸의 열매가 주는 기쁨을 갈망하게 되고, 나쁜 열매가 가져다주는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 너희가 진정한 성전의 일꾼으로서 일하기 위해 너희의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를 벗어던져, 선명하게 보고 실족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9. 나는 너희가 ‘비밀’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온전한 빛을 깨닫기 위해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10. 나는 너희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도 자연도 인간에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성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참된 법을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곳저곳, 이쪽저쪽으로 방황하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영 안에 계시고 언제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11. 참된 법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종교나 저 종교를 실천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의 행실과 생각이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천국을 물려줄 날이 올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라 불릴 것이다. 그때 비로소 율법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할 것이며, 누구를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한 사람처럼, 하나의 존재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참된 성전 봉사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이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이 행성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으니,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섬기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진리의 빵을 취하고, 사랑의 횃불로 마음을 밝히며,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를 벗어 던지고, 정욕의 족쇄를 끊어 버리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지극히 높은 빛으로 너희 자신을 비추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오셔서 저와 함께 찬송을 부르십시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이제 땅에는 평화의 언약이 세워지기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저의 자비로운 이슬과 저의 만족을 받아들이십시오. 너희의 고통을 내게 맡기고, 너희의 근심을 내게 맡기며,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나와 함께 노래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하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12. 너희가 하늘의 합창과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싶은 가장 작은 욕망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불멸의 본성이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빛나도록 할 것이다. 식탁에 오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식탁이 차려져 있고, 내가 너희의 시중을 들며, 너희를 인도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13. 성전과 회당에서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식했다고 말하게 하려다, 그 후에는 자신의 악함과 욕망에 재갈을 풀어버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모임 장소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늘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공적·사적 삶에서 덕의 살아있는 거울이 되며, 어디를 가나 사랑과 진리와 선함을 남기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14.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백성을 바라보고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나는 이 대변자들을 통해 전한 나의 계시를 너희에게 기억으로 남긴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단 한 순간도 침묵한 적이

없으며, ‘말씀’인 내가 끊임없이 너희와 대화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의 목소리-그것이 그들의 이성이든, 영이든, 마음이든-는 격려이자, 힘의 원천이자, 희망이자, 영감이며, 때로는 심판의 선고이기도 하다.

15.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를 찾아왔으니,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열의를 가지고 찾아왔다.

16.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나를 찾게 하려고, 너희가 그것을 찾을 때 나를 만나게 하려고,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지식과 계시들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과 자비를 결코 거절한 적이 없으니, 심지어 너희가 청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기까지 했다.

17. 이 영적 계시와 신성한 말씀의 시간은 축제이자 잔치였으며, 너희는 그 음식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 초대받았다. “벌거벗은” 채로 온 자는 몸을 가릴 수 있는 단정한 옷을 얻었다.

18. 긴 여정과 고된 노력 끝에, 너희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하며, 매 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속삭임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너희는 조금씩 훌륭한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19.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준 후, 나는 너희가 열정적으로 이 대의를 위해 계속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너희는 이 사역을 그 본연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깨달았다. 이제 너희는 열정과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활동할 때, 사람들의 길에서 많은 영경귀와 가시를 치워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부름에 응답하여 군인이자 제자가 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20.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따르며, 오직 나만이 아는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나에게 바치기 위해 왔습니다. 오직 나만이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현재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누가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행실을 갈망하고, 사랑을 목말라 하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맞아들이시고, 너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며, 너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다.

21. 너희가 나의 신성한 사랑을 깨닫고 느꼈을 때, 너희는 너희 마음이 닫아두고 세상으로부터 숨겨 두었던 모든 것을 포괄적인 고해성사를 통해 나에게 맡겼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너희의 회개는 진실했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이미 나의 빛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22. 나는 너희가 준비되기를 원한다. 다시 나를 만날 때, 너희의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 내 신성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공경하기를 원한다. 비록 너희가 지금 나를 아버지로서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심판자로서 너희에게 오아야 하기 때문이다.

23. 나는 누구도 잠든 채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늦게 깨어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4. 너희는 앞으로 단 3년 동안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를 가르쳐 왔다. 언제 너희는 스승이 될 것인가? 너희는 내 자리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내 말씀은 마치 깨우침과 같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너희에게 있어 내 말씀이 절정에 달한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25.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 것은, 너희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품고 길을 떠나며, 형제처럼 서로를 포옹하기 위함이다.

26. 너희는 모두 평등하며, 너희 가운데 주인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 모두가 나의 대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

보라, 내 말씀의 역사는 내가 ‘황금 깃펜’이라 부른 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으며, 나는 후세 사람들이 이 기록을 통해 너희 사이에 분열을 발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도 이를 원해야 한다. 너희의 행실로 기록된 본보기를 그들에게 남겨 두어라. 그러면 그들도 너희가 너희 신앙의 형제들에게서 격려를 얻었던 것처럼, 그 길을 나아갈 것이다.

27. 나는 모든 이를 어루만지고, 내 망토로 그들을 덮어 주기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이 인류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귀머거리처럼 남아 있다. 나는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공의를 느끼게 했으나, 그들은 나의 공의 앞에서 도망쳤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말하여 너희가 이를 증언하게 하였으나, 너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시대를 깨닫지도 못하였다. 너희 모두는 영적으로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자로 준비시키고, 다른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28. “일꾼” 으로서 나가라. 항상 내 뜻에 복종하며. 너희 자신을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내 신성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9. 나는 나의 완전한 일을 죄 많은 손에 맡겼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아니다. 너희가 합당하지 않다면, 나의 사랑이 너희를 합당하게 만들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30. 나는 전능하므로, 나의 피조물들이 궁핍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나의 보화와 재물을 죄 많은 손에 맡겨,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풍성하게 베풀게 하노라.

31. 자신의 영혼 속에 지니고 온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무지했던 자는 자신 안에 있던 것을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나사로’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눈먼 자들이 보게 하라.

32. 내 말씀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시험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 자신일 것이다. 너희가 말하거나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마치 거울과 같아야 한다. 그 거울 속에서 이웃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너희가 나의 사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33.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라. 그러면 그 일을 마치면, 너희는 크고 잠긴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너희 손에 열쇠가 있으니 그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문 너머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낮선 열쇠로는 그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며, 두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일곱 단계는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야 할 영적 완성을 향한 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4. 나는 너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너희가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이상을 품고 남을 수 있도록 하리라.

35. 지금 이 순간, 태초부터 너희에게 법과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의로움과 고상함으로 행하며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의 열매는 빈약하며,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베풀어 온, 곧 사랑과 선함과 자비인 그 빵의 본질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계시를 숨기고, 너희의 은사를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가난하며, 언젠가 그들은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너희의 책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엄중한 심판을 너희가 겪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힘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씨앗을 배가시켜 주리라.

36. 너희가 어깨에 매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비난과 참회, 그리고 정죄가 너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책임을 훨씬 더 무겁게 느끼게 될 것이다.

37. 지금 이 시점에는 기쁜 소식이 널리 퍼졌어야 했고, 내 제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았어야 했다. 너희가 고쳐 준 병자들은 어디에 있으며, 너희가 회개시킨 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은 너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와 같으니, 그것은 포기, 희생,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이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짊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찢린 마음을 안고 내게로 올 것이나, 나와 화해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올 것이다.

38. 너희가 여기 보고 있는, 너희 형제인 교회 지도자들 위에, 너희 영혼을 비추고 영감을 주는 엘리야가 솟아오른다. 또한 너희의 신성한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그분의 피조물들을 내 앞에 모시고 그들에게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니, 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항상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마리아는 너희의 변함없는 중재자이시다. 그분의 눈에는 너희 모두가 작고 연약한 자녀들이다. 그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가. 사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모성적인 영혼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정의는 그분의 중보로 인해 수없이 많은 번에 걸쳐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나에게 반대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신성한 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나의 자비심을 구현하며 모성애의 본보기입니다.

39. 이 시기에 기도와 내 가르침을 잘 실천함으로써 준비하는 모든 사람은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면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며, 너희 모두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 자연의 요소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열을 정화하고 줄여가는 동안, 너희는 “깨어 있고 일하며” 동료 인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40. 나는 너희가 세상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단합할 것을 이미 여러 번 요구해 왔다. 너희가 분열되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너희의 속죄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뜻과 너희의 어려운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규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단합하고, 하나의 영과 하나의 뜻으로 남아라. 서로 사랑하라.

41. 너희는 내 면전에 있으면서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너희는 선한 행실 없이 왔으며, 내가 너희를 장식해 준 은혜의 옷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내 계명을 무시하고, 내가 한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불완전하다고 단정 지었다. 너희는 인간이 신성한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있다.

인간은 나의 영을 지니고 있으며 나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나의 대변자로 삼았고, 세상을 향해 나를 알리기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다.

42. 너희는 영혼 속에 한 권의 책을 지니고 있는데, 그 안에는 너희가 지상에서 겪은 여러 환생 동안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심판의 시기인 지금, 나는 어떤 이들은 속죄하러 보내고, 다른 이들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러 보냈다. 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인류 가운데 정화의 사역과 갱신의 사역, 그리고 영적 고양의 사역을 이루게 하려 한다.

43. 세상은 내가 왜 너희 같은 무식한 자들과 죄인들을 선택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존재의 운명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지금 너희를 다듬어 나의 사도들로 만들고 있으며,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화의 시기는 끝날 것이다.

44. 엘리야는 너희가 여섯 번째 단계의 시작, 즉 모든 영혼에게 은혜와 빛을 가져다준 ‘열린 여섯 번째 봉인’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너희의 이해력을 단련시켰다. 너희는 비밀을 밝히고, 길을 열어주며, 모든 피조물 안에 빛을 밝혀준 나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받아왔다. 너희는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처럼 큰 시련을 마주하며 깨어났고, 이제 내 가르침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다.

45. 나는 1950년까지 나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그 해가 끝나면 나의 대변자들은 더 이상 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형제애와 일관성을 갖추 것을 부탁하노니, 그리하여 그들이 오류 없이 전할 수 있고, 모든 공동체에서 나의 가르침이 동일한 본질을 갖도록 하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의 스승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이 나의 뜻이었다.

46. 너희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 가운데 평화와 사람들 간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지키고” 있는, 내가 선택한 신앙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나의 계시와 너희의 종교적 실천을 소중히 여기도록 허락한다.

47.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 계명을 따르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무지나 광신의 열매를 주지 말라. 너희의 불완전함을 바로잡고 마음을 섬세하게 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순종을 위해, 너희 이웃과 너희 자신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연의 힘을 막아 주리라.

48. 잠시 동안만 더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정한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 들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나를 본보기로 삼으라. 스승께서 제2시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셨음을 기억하라. 겸손히 너희의 사명을 받아들여라. 너희의 고통이 내게 전해지며, 너희의 눈물은 나의 눈물과 섞이느니라 — 인류를 위한 사랑과 고통의 눈물이다.

49. 사랑과 자비의 일을 행하고, 내 뜻대로 열정과 의로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라.

50. 1950년이 끝난 후, 너희가 내 가르침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고 백성이 모든 나라로 흩어지도록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주노니,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 이 시기가 지나면 너희의 길은 험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51. 너희가 나를 환영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52. 나는 너희에게 이 계시, 그리고 오랫동안 너희에게 허락해 온 이 말씀에 대한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남겨 주리라.

53. 내 말씀이 너희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었으나, 결코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오직 나만이 너희가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가 될지를 알고 있다. 영혼에 굶주림과 갈증을 안고 온 이들은 내 말씀을 듣고 그 갈망을 채웠으며, 오늘날 그들은 나의 종들이 되었다. 이 종들은 내가 여섯 번째 봉인의 빛을 보여준 제자들이다.

54. 오늘 너희는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내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져 너희를 이 모임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55. 나는 너희를 심판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양심과 직관이 너희의 책임과 너희 행위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 줄 것이다.

56. 오직 너희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길에는 나를 찾고, 나를 따르며,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 단련되어, 나를 불완전하게 또는 불순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인류에게 예언과 영감, 그리고 (내면의) 말씀의 은사가 분배되어 있다.

57. 잠들지 마라. 너희가 이 형태로 나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이제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 이 가르침의 스승이 될 것인가?

58. 오늘 내가 너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너희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너희가 참된 영적 사랑에 대한 이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내 뜻에 따라 너희 가운데 주인도 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

말씀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너희의 불완전함이 기록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님을 명심하라.

59. 설마 너희는 후손들에게 너희의 과오를 나쁜 본보기로 남기려는 것이냐?

60. 나의 사업은 거룩하고 신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죄인들의 손에 맡겼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들이 가장 큰 사랑과 충성,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61. 게다가, 이 땅의 의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62. 제자들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온 힘을 다해 선한 의지를 발휘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 가르침을 통해 온전하게 다듬어 두고 떠나게 하리라.

63. 너희의 서툰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 나야말로 바위조차 말하게 할 수 있으니.

64. 너희의 길과 삶에는 사람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에게 이르는 사다리가 있다. 너희 영혼이 지극한 완전함에 도달하여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라.

65. 엘리야는 이 시대에 너희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그는 시련 속에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며,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66.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말씀을 듣는 “일꾼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바로 자신의 길에 건강과 평화, 기쁨을 뿌리는 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4

1. 내가 너희를 맞이한다, 백성아. 내 왕국의 문이 열려 너희를 환영하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쏟아 붓는다. 나는 이 순간, 한 사람에게는 믿음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다.

2. 나는 너희 마음의 성소를 찾으며, 너희에게 진리의 빛을 준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며, 그 강력한 힘은 창조물을 움직이고 그 안의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균형 속에 유지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도록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너희의 사랑이 슬픔에 잠긴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노래와 같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3. 너희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완수하는 것은 너희 손에 달려 있다. 너희의 소명은 영혼이 모든 비참함과 죄를 이겨내게 하고, 너희의 온 존재를 고양시키며, 너희를 고귀하게 만들고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강압 없이, 지혜와 동시에 자비로 너희 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나의 법을 논하기보다 사랑 어린 순종으로 이를 실천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첫 사람들이 불순한 생각과 행위로 더럽히기 전, 순수함과 순종 속에서 누렸던 그 낙원과 같은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4. 만약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물질적 축복과 영적 고양의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힘들이 가져오는 역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니, 그 힘들과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모든 인간이 한 음표가 되어 함께 연주하는 신성한 콘서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신성한 법칙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포로가 되고,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인간은 사슬을 끌고 다니며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행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그에게 정당하지 않은 눈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류가 겪는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양심이 지시하는 길을 걷는다면 너희 영혼은 나에게로 올라갈 것이다.

6. 영원 속에 속한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삶을 왜 원하느냐? — 너희는 질병과 눈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왔으면서도, 약간의 선함만으로도 너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조차 원치 않는다.

7.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먼저 세상을, 그다음 온 우주를 품는 현자가 될 것이다. 온 창조물 속에서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아라.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며, 완전한 말씀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우주의 심장인 그 사랑은, 모든 존재가 생각을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될 때까지 너희의 존재를 고양시킬 것이다.

8. 백성들아: 한 해는 365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 너희는 자비와 사랑의 행위를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궁핍한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진실한 행실로 그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매 순간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심판하며, 자기 내면에서 나의 기억과 본보기를 파괴하고, 나의 행실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시관과 또 다른 십자가 처형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곁에 서 있을 때 — 왜 너희는 나를 그곳으로 따라가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청하는 이들에게 조금의 자비조차 베풀기를 거부하느냐? 너희가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말한 이유를 깨달아라.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사상적, 도덕적, 영적 창조물을 통해 아버지의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

10.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유를 베풀고, 깊은 연민에서 우러나온 자비를 실천하는 자이다.

11. 너희로 인해 내가 겪은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 고통은 너희의 무지와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2. 이 제3의 시대에,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되풀이하기 위해 돌아온다.

13. 백성아, 내 치유의 향유를 받을 준비를 하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는 누구나 건강해질 것이며, 약한 자는

누구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집중하고, 너희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리며 희망을 품으라. 나는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요함 속에서 받아들이라. 고요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희망의 태양이니라, 사랑하는 양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도 베풀어라. 마음을 좁게 갖지 말라. 무언가를 줄 때, 그것으로 인해 자녀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14. 이웃의 삶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럽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양심의 지시를 경청해야 한다.

15. 더 순수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며,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그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16. 진실로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이 아침 묵상부터 세 시기를 상징하는 비유가 현실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할 남은 3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빛이 너희의 이해력을 열어주고 너희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으므로, 이제 나의 가르침은 더욱 심오해질 것이다.

17. 너희는 더 이상 원시적인 상태에서 영적 법칙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모두 오직 한 분의 신성한 존재에 대해 말했고, 그리하여 인류 속에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야곱, 그리고 영감과 율법을 통해 모세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더욱 넓혀 주었습니다.

18. 그 사람들은 한 시대의 선구자들이었듯이, 너희도 또 다른 시대, 즉 영성화의 시대를 위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19. ‘첫 번째 시대’를 상징하는 이 1948년에, 너희는 내 말씀 속에서 그 시기와 관련된 많은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시대’에 구원받고 ‘두 번째 시대’에 영적으로 해방된 유일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백성은 모든 인종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종교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민족은 온 인류에게 본보기와 교훈을 주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영적으로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이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 역사 안에는 내가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었던 위대한 계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 그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창조된 모든 것보다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위대한 영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삶과 행적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의 믿음과 힘, 순종, 그리고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나무의 진정한 뿌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그 시절에는 자연의 힘을 신으로 숭배하며 불결한 제사를 바치던 우상 숭배자들과 이교도들이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전파했는데, 그것은 진리와 정의의 빛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고 불신에 찬 사람들은 그 족장을 시련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모든 함정과 박해를 피하고, 그들을 선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나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22. 보라, 인간들 사이에서 이러한 영적 투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그러나 그 투쟁이 끝난 후에는 언제나 진리의 빛이 비추어 왔음을 깨달아라.

23.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예배와 경건한 행위를 단순화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세상의 재물을 경멸하거나 너희의 의무를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가 육신에 있는 한, 너희는 인간의 필요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가 영혼의 유익을 위해 법을 준수하며, 이 땅에서 나온 것들조차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나의 율법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24. 이미 태초에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목자를 인도자로 주었으니, 그는 동시에 내 백성 가운데로 내가 오실 길을 닦은 자이기도 했다. 너희는 이 교훈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무지함으로 인해 자연의 힘이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잘못된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25. 진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쏟아 부어 주었든, 너희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었든, 혹은 너희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었든 간에 말이다.

26. 예전에는 너희가 주인이었고 풍요롭게 살았으나, 이기심과 허영심에 이끌려 평범한 사람들을 하인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고, 아버지로서 오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모두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 청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기에,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태초부터 내가 맡겨 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설 그 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왔다.

27. 나는 정의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조차도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고난과 고통은 오직 너희를 정화하기 위한 목적뿐이다. 내 율법에 대한 너희의 불순종이야말로, 너희에게 정화, 속죄, 그리고 영혼의 순수함이라는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혼의 발전과 구원을 향한 확실한 길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사명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양심에 물어보아, 인류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나의 법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는지, 그리고 나의 사역이 진전을 보였는지 묻는다면, 양심은 ‘아니오’ 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2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 말씀에 익숙해지고 있다. 믿음을 얻기 위해 내가 단순하고 배움 없는 마음을 선택하여, 그들을 매개로 나를 드러냈음을 깨달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심했고, 심지어 너희에게 말하는 이가 인간이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지지 않은 평소의 모습 그대로 관찰하여, 그들의 무학함과 무지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나는 너희에게 겸손과 자비를 가르쳤고, 너희를 준비시켰으며, 내 백성들에게 사명을 분배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명을 받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오만해져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첫 번째가 되고자 한다.

29. 첫 번째는 오직 나뿐이지만, 나는 너희를 낮추지도 않고, 너희를 나의 노예로 만들지도 않으며, 오히려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긴다. 나는 아버지이기에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어,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너희가 누구 곁에 있으며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30. 너희는 화합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기에, 교회와 종파들 사이에 형제애와 조화가 결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다툼과 분쟁은 우월감을 부추기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31. 너희는 아직 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 길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나, 너희는 종종 어둠 속을 걸어왔다. 너희는 끊임없이 스승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선을 부추기고 있다. 너희는 끊임없이 도덕과 미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 안에는 악한 행실과 생각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중에 온 자들은 내 제자들에게서 위선을 보며 조롱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내 계시를 목격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내 보편적 광선의 발현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며, 절름발이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되돌려 주는 등, 이 시대에 내가 너희 가운데 오셨음을 믿기 위해 인간이 반드시 목격해야 할 모든 증거들을 통해 위대한 권능의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32. 영혼이 그 사명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되고 내 뜻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육체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영혼에게 칼을 주었으니, 이는 영혼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육체는 영혼에게 속죄의 기회나 시련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3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의 구세주이며,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알고 그곳에 거할 기회를 제공한다.

34.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잘 활용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고,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베풀며, 참된 사도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 사람들에게 신성한 자비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리라.

35. 큰 시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라! 나는 너희가 내일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지녔음에도 타락하거나 궁핍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나의 잔치상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누리게 해 준 내가, 나중에 너희가 비참과 고통의 사슬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36. 너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미래를 자초하게 될 것이며, 첫 번째가 되는 대신 마지막으로 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은 너희에게서 사랑하는 이들을 앗아갈 것이며, 내가 내 빛과 평화로 행복을 주기 위해 선택한 이 땅이 무고한 피로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의 멍에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의 노예가 되어 참된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37. 나, 창조주인 나는 너희를 강요하지도 않고, 내 율법을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 율법을 따르고 겸손해지기를 간청하기 위해 내려왔다.

38. 백성아, 네가 선한 마음으로 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39. 나는 너희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하늘의 물로 적시는 신성한 정원사이며, 이 땅의 그토록 큰 괴로움 위에 신성한 사랑의 한 방울을 쏟아 부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준다. 그 길은 너희가 결코 끝을 찾지 못할 길이며, 오히려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길이다.

40. 오늘 내 말씀은 너희를 다듬어 형태를 갖추게 한다. 나는 내면의 사람, 곧 영혼을 가다듬는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법을 배우라. 내가 너희의 일을 축복하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리라.

41. 나는 너희의 스승이지만, 나를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말라. 나는 곧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성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성령은 하나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의 나의 계시 속에서, 다양하고 각기 다른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나타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것은 마치 수많은 페이지와 수많은 사랑의 교훈이 담긴 단 한 권의 책과 같다.

42. 너희의 행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무지와 죄의 어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그 빛을 너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43.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씀으로 빚어지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느냐? 예전에는 지금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너희는 오늘의 삶을 과거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 예전에는 너희는 존재를 비추고 그 안에 희망을 불태워 줄 빛 없이 길을 걷던 외로운 방랑자들이었다. 오늘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그분의 사랑의 샘에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하고 상처를 씻어냈다. 나의 사랑은 너희 안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며, 너희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다면, 그 못들도 마찬가지로 뽑아내리라.

44. 나는 이 세상과 모든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빛으로 옷을 입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은 치유의 연고이니, 그것을 들을 때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치유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병들고, 고통받고, 울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고쳐야 할 것은 모두 고쳐라. 정화해야 할 것은 모두 정화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그 그릇을 안팎으로 깨끗이 하라.” 이는 너희의 내적 존재가 의지와 영감의 차원에서 너희의 육체적 또는 인간적 존재 부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45. 나는 너희의 내면적인 삶을 빚어내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삶이다. 너희의 겉모습을, 그 보이는 면이 너희 영혼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다듬어라. 그러면 너희의 행실은 진실하고 정직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한쪽 얼굴만 보여주고 다른 쪽은 숨기는 이유이다.

46. 너희는 이미 너희의 상처를 살펴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연고로 치료했느냐? 내 연고의 효능을

의심한다면, 다시 치료해 보아라. 그러나 믿는다면 그 치료제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내 사랑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상처를 찾으려 해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생각의 힘을 통해 건강을 되찾도록 허락하리라.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와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합쳐 너희를 치료하고 치유해 줄 것이다.

47. 영성가는 말한다.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 즉 유물론자는 말한다. “인생은 얼마나 쓰라리고, 슬프며, 암울한가!” — 내면이 고양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에 걸려 넘어지고, 모든 것이 그를 상처 입힌다. 내면이 고양된 사람은 길 위의 역경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고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의 미덕을 칭찬하거나 실수를 용서해 줍니다.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열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비난하고, 비방하며, 타인의 실수를 드러내어 즐거워합니다.

48. 남을 비난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에게 내가 묻노라. 너희는 자신의 죄의 짐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죄를 얹어 더 무겁게 만들려는 것인가? 너희가 이미 *자신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 왜 타인의 집을 얹어 더 무겁게 만드는가? 왜 너희는 이웃에게서 너희를 풍요롭게 해 줄 영적 가치를 찾는 대신, 스스로 더러움을 짊어지고 짐을 지는 것을 선호하는가?

49.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처소가 있다.” 그러나 높은 영적 영역에 거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거나, 그 짐을 지는 것을 돕지만,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그들의 비참함을 즐기지 않는다.

50. 나는 너희가 어떤 날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날에는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희가 나의 계시를 부인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는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희가 어떤 날에는 비방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날에는 너희가 비방했던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시 악에 빠지지 않아 바로잡을 일이 생기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떤 날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을 베푸는 것을 보았고, 또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가르침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어 준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가 때때로 도움이 되고, 고귀하며, 자비롭고, 동정심 넘치는 모습을 보았음을 말하노니, 이러한 공로는 내가 항상 주목하고 인정해 왔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잡초보다 밀이 더 많아야 한다.

51. 마음과 영혼 속에서 내적으로 고양되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한 채, 입술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기도하지 마라.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며 기도하라. 과거에 너희가 거짓 서약을 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52.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남의 것을 가져간 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고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는 누구도 고발하지 않겠지만, 각자가 내 말씀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53. 너희가 무지와 미성숙, 그리고 물질주의의 어둠 속에서 길을 걷던 시절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내 법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금지된 것, 부정한 것을 고집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양심 속에서 너희에게 무자비하게 나타나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4. 너희 모두는 나의 씨앗이며, 스승이 그 씨앗을 거두신다. 좋은 씨앗 사이에서 잡초가 싹트더라도, 나는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어 황금빛 밀로 변화시키리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잡초와 더러움, 범죄, 적대감이 싹트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이 씨앗을 어루만지며, 햇볕 아래 밀처럼 빛날 때까지 정화합니다.

55.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정화한 후, 너희를 내 정원에 심어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희를 합당하게 만드는 일은 나의 신성한 사역의 일부이다.

56. 나의 사랑은 너희를 축복하고, 용서하며, 내 말씀을 들을 자격을 갖추게 한다.

57. 내 말씀은 길이다. 나는 너희의 발걸음이 언제나 선과 정의의 길 위에 머물 수 있도록, 태초부터 이미 너희에게 내 율법을 가르쳤다.

58. 이 가르침은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것, 곧 사랑의 가르침이다.

59. 너희의 영적 영혼은 창조주의 완전한 사랑의 자녀이다. 감정이 싹트는 그 기관인 너희의 마음은 사랑의 상징이다.

60. 그러므로 사랑을 베풀어라. 사람들은 사랑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굶주림이 있고, 영적 위축이 있으며,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

61. 여기 계신, 내 말씀을 들으신 수많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양육되었으니, 이제 지친 영혼과 마음들에게 양식을 베풀 수 있습니다.

62. 잘못된 믿음이나 그릇된 생각을 마주할 때, 너희는 나의 빛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내 가르침을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다르게 대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고통 깊은 곳에서 넘어서 신음하는 한 형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고통에 마음이 움직여, 너희는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의 연민은 별거벗은 자를 감싸 줄 것이다. 너희는 평안을 얻지 못한 자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의 길 위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사명을 다한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스승’이라 부를 자격이 있을 것이다.

63. 나의 가르침은 새로운 무리를 모으기 위해 집회소를 세울 필요가 없다. 나의 뜻은 마음속으로 세워지는 보편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64. 제2의 시대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라.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모임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들판을 찾아가 그곳을 가르침과 비유를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삼으셨다.

65. 그러나 사람들의 무지나 고통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고 모임 장소를 이용하는 자는 나의 빛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영성주의자라고 자칭해서도 안 된다.

66. 너희는 싸워야 할 것이며, 그 싸움의 장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너희 집 안에서도, 육체 노동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다.

67. 그곳에서 적절한 순간이 오면, 너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영감에 따라 말해야 하며, 너희의 말을 듣는

자가 자신의 양심을 통해 누가 그에게 말했는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68. 사람들이 자신의 관습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또한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된 자’라고 부른다고 해도 놀라지 마라. 제2시대에 내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오류로 여겨졌으나, 그 후에는 지극히 높은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5

1. 내 가르침의 정수를 마음속에 새기고, 영혼을 고요하게 하며, 이성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

2. 스승의 평화 속에 깊이 잠긴 듯한 느낌으로 내게 다가오라.

3. 너희가 이곳에 온 것처럼, 먼 나라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들은 모두 이 메시지의 빛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나는 모든 이에게, 나중에 영혼을 위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첫 번째 교훈을 줄 것이다.

5.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각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항상 내 가르침의 핵심인 본질을 찾아라. 너희 인간들이 내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 법칙이 너희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6. 만일 내가 너희가 내 뜻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뜻대로 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결코 영적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너희 영혼이 발전하고, 꽃피우며, 완전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못할 것이다.

7. 보라, 종교 안에서 나태해진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신성한 법이 명하는 바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신화를 끼워 넣고 그릇된 교리로 채움으로써 법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8.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 영으로 나를 찾고,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모든 특성, 은사, 능력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9. 바로 이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자들이다.

10. 나는 너희가 걷고 있던 여러 가지 결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나의 계시가 빛나고 나의 메시지가 메아리치는 이 길로 인도해야만 했다. 나는 너희가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자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1. 영혼이 없는 육체는 무엇인가? — 영혼이 깃들지 않은 세포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나,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12.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그분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너희 안에 계신가? 혹시 드러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느껴지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숨어 계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13. 내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시면서도, 왜 너희가 ‘영혼’이라 부르는 그 부분, 즉 너희 존재의 그 일부 안에 계신 것일까? 왜 그분은 너희가 그분의 계시를 위한 기꺼이 순종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제자들아, 아직 너희는 나에게 대답할 수 없다. 아무도 너희를 내면의 묵상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왜 너희의 행위를 통해 그분을 표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내 가르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전념한다면, 머지않아 이 질문들과 그보다 더 심오한 다른 질문들에 답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단 이 지식의 빛을 얻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분의 모든 자녀 안에 거하시는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14.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그분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5.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그 신성한 본질의 영적 자녀임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드러내게 하셨는지 자주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16.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은 긴 여정을 걸어갈 것이며, 어느 날 멈춰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실천하신 스승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17.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때로는 이 메시지 중 단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달한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깨닫게 해준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너희로 하여금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의 영적 유산을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영혼으로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에 자신의 영혼의 힘을 드러내고 그 지식의 샘에서 길어내어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19.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알아야만, 너희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승천을 향한 투쟁이 얼마나 평온하고 온화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 비참함과 고통, 질병은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몰아낼 영의 힘으로 사라질 것이다.

21.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주님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된 영적 준비의 시간을 자주 가지라.

22.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존재 안에 하느님을 품고 있다고 믿는다면, 질병이 너희를 덮치거나 유혹이 너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육신의 미약한 힘이 너희를 지배할 수 있겠느냐?

23. 내가 너희를 자유롭고 강하게 만들어, 너희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24. 너희가 이 지성 기관을 통해 이미 완벽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믿지 말라. 또한 때때로 너희의 지성을 깨우치는 단순한 직관도 아니다. 너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교감, 가장 깊은 교감은 결코 너희의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5. 제자들아, 육체는 단지 겉껍질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향수병’이 있는데, 그 향수나 정수가 바로 영혼이다. 그 향기가 온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수가 봉인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집’은 오늘은 여러분의 집일 수 있고, 내일은 세상이 될 것이며, 나중에는 끝없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26. 백성들아: 너희 내면의 성전을 열어,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만약 여러분이 겉에만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이상 나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짊어졌던 짐, 즉 고난과 질병, 실망의 짐을 계속 어깨에 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27. 무엇보다도 영혼 속에 존재하는 내면의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이미 나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배우라. 그들은 나의 사랑의 메시지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있다.

28. 너희에게는 얼굴을 들어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도 불신도 없이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볼 믿음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미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29. 너희는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주 병들어 있느냐? 너희는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재앙이 뒤쫓아오고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생각으로 어두운 힘을 끌어당겨, 그것으로 너희의 물질적 삶과 영적 성장의 길을 어둡게 가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삶과 진리, 영원함, 그리고 완전한 평화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불태우기 위해, 또한 너희가 빛을 끌어당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30. 제자들아, 신성한 계획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장을 위해 온전함에 대한 개념을 허락하셨다면, 왜 아버지께서 너희의 본성 속에,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심어 놓으신 이 진리의 빛을 어둡게 가리는가? 사람은 우주와 같고, 우주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라. 우주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대한 거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 위해 거쳐야 할 수많은 삶의 공간이 있으며,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의 주님께서 거하실 성소입니다.

31.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한다면, 곧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오늘 당장 제 내면의 성전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생명과 건강, 지혜와 힘이신 아버지의 본질이 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3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영혼이 그 사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너희를 통해, 심지어 너희의 몸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몸은 하찮은 것이지만, 그 형태 속에는 위대함이 담겨 있다.

33. 오늘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일은 지구 너머의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며, 너희는 각 세상에서 너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활용할 것이다.

34. 너희는 어디에서나 형제자매들을 만날 것이다. 우주는 피조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35. 태양, 별, 세계, 자연계, 온갖 종류의 존재들, 원자, 힘, 가장 높은 천사부터 알려지지 않은 기어다니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절대 존재의 자녀들이며,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는 주인이 없는 부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우주적 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36. 자,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병들 수 있겠느냐? 이 가르침이 너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슬퍼할 수 있겠느냐?

37.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며, 오직 영혼의 스승인 나만이 너희에게 이를 줄 수 있다.

38. 너희가 영혼이라기보다 육신으로 자신을 느껴왔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육신보다 영혼이 되고, 영혼으로서 자신을 느끼도록 가르치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구제이며, 평화이다.

39. 때때로 너희는 왜 이 시대에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지, 그리고 왜 예전에는 없었던 영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와야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과 빛의 길을 따라 영적으로 걸으며 신성한 산의 정상에 도달하려는 이 과제는 언제나 너희 영혼 속에 존재해 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오래된 빛들이 쌓여 왔으니, 바로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과 완수되지 못한 사명들이다.

40.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의 공의에 반항하며, 자신의 속죄 의무를 처벌로 여길 것이다. 반면, 새로운 삶 속에서 빛을 갇고 오점을 씻어낼 기회를 알아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41.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니, 어린아이답게 진실해야 한다. 기도할 때 사소한 것들을 나에게 구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42. 기도하고, 나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퍼져 나가는 믿음과 힘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으라.

43. 내일, 너희의 기도가 더 이상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활력을 얻는 데 목적이 될 때, 너희 영혼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을 헤매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희의 빛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메시지를 가져오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영혼을 위한 격려와 기쁨을 받게 될 것이다.

44.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과 육신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알게 될 때, 너희 입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이다.

45.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너희는 자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당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지혜의 표현인 ‘말씀’은 육신을 입으셨고, 그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46. “말씀”이 말씀하신 그분의 제자인 너희가, 영혼과 심지어 육신을 통해 이를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47. 오늘날 너희는 아직 제자일 뿐이며, 나의 가르침을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 영혼 안에서 울려 퍼질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일 것이며, 너희는 점차 그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목소리에 익숙해질 것이다.

48.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 받는 메시지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고, 결코 그 메시지를 너희의 길을 잃은 영혼이 내뿜는 목소리나 생각, 심지어 계시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명상 속에서만 여러분은 각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49.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빛의 어느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겠는가? —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묵상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그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나쁜 영감과 거짓된 메시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50. 힘내어, 영의 영원한 빛으로 이끄는 지식, 즉 너희의 기원이자 목표인 그곳으로 이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51. 내 말씀은 건강의 흐름을 퍼뜨린다. 너희가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건강을 얻게 된다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치유받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52. 구하고, 기도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더욱 많이 이끌어 줄 것이다.

53. 현재 함께 있는 형제자매와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 보이는 형제자매와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 모두와 함께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너희의 삶이 점점 더 조화롭게 되도록 하라.

54.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신성한 계명을 따르는 데서 비롯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55. 사랑하는 “일꾼” 들아: 내가 너희가 부지런히 밭을 갈고, 땅을 준비하며, 내일 너희에게 열매를 맺어 너희의 수고를 보상해 줄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고 있다. 씨앗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엎으라. 너희는 이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서 나를 드러낼 마지막 3년 중 첫 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은 짧으니, 너희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연약한 어린아이들로 남겨두지 않고, 이미 스승이 될 단계에 근접한 성숙한 제자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다.

56. 내가 떠난 후, 너희는 말과 행실을 통해 내 가르침을 해석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의 행실과 삶을 보고 내 가르침을 평가할 것이다.

57. 내 영감은 너희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감을 통해 너희는 말해야 할 순간과 말해야 할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명확하고 정확하며 소박한 말로,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내세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위한 영적 길을 닦아야 하며, 언제나 너희의 말을 행동과 모범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58. 너희는 점차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의 영혼이 나의 가르침으로 충만해지면, 고양되어 거리를 극복하고 저 세상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오직 하나임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바로 아버지이시며, 그분 안에서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인 것이다.

59. 그러나 너희의 영혼만이 내 사역 속에서 발전을 위한 자극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내면에서 영적 영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예전에는 명확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늘어나며, 신비들이 밝혀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너희의 이성적 능력 또한 발전했다.

60. 너희가 영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물질의 압박과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었으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성 앞에서 어떤 행복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불완전함으로 가득 찬 자가 어떻게 정화를 얻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61. 만일 인간의 이성이 내세에서 순수한 영혼이 누리는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인간이 가진 한계만큼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곳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짐작할 수는 있다.

62. 마찬가지로, 양심이 영혼을 나의 신성 앞에 데려갈 때 그 영혼이 겪는 고통의 강도를 너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노니,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고양하라. 너희 영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르침들이 계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이곳에서 그 진리에 대한 엿보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영혼과 이성 사이에는 진정한 조화가 존재해야 함을 깨달아라.

63. 나는 너희의 지성이 성장하여 무한 속에서 필요한 빛을 찾도록 허락하였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계명을 너희의 의지 위에 두었다. 그 법 안에서 너희는 올바른 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너희의 행실을 정화할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길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그 길에서 돌아설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것이며, 너희의 양심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설령 너희가 — 이미 육신을 벗은 채 — 내 앞에 서게 되더라도, 그 내면의 양심이라는 심판자가 너희를 심판하며, 어떤 정화의 길을 따라야 할지 말해 줄 것이다. 그 정의의 빛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일부이며, 그분은 너희에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신다.

64. 이 준비 기간 동안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너희의 말씀이 필요한 마음이 많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악행에 지쳐 있는 이들이 있고,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65. 이 사역의 제자들은 영적 양식을 창출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품어 온 그릇된 관념들을 바로잡으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시대가 가져올

세계관과 삶의 발전을 예고하며, 계급, 종파, 종교, 인종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모든 영적·육체적 필요를 돌볼 것이다. 이 제자들은 난파당한 자의 배를 비추는 등대처럼 될 것이며, 밤중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를 구원하는 별이 될 것이다.

66. 그들은 돌로 된 교회를 짓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제단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서로 하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로 삼아 거대한 영적 대성당을 세울 것이다.

67. 지난 3년 동안의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이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이 1950년 이후에는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가 내 뜻에 따라 하나 되어 진정으로 내게로 올라와야 할 그 시기에, 나는 너희가 위대하고 근본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영감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어 주리라. 그러나 이에 대비하라.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나는 더 이상 대변자를 통해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8. 스승과 직접 대화할 시기를 준비하는 나의 모든 자녀들 안에서 나의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역을 팔아넘기고 장사꾼이 되는 자들 안에서는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1950년에 나의 말씀이 끝날 때, 너희가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있도록 준비하라. 왜냐하면 — 잘 들어라! —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69.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뜻에 따라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방식을 깨달아라. —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류가 수세기 동안 이어온 관습을 순식간에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그릇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이 지닌 설득력은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줄 것이며,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한때 그들의 눈에 그릇된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무한한 빛 속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70.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 곁에 머물며 너희 마음을 어루만져, 너희 마음속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였노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6

1. 너희에 대한 나의 자비는 나의 사랑에서 비롯되며, 모든 존재에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끊임없이 축복하고 용서하며, 너희가 발전의 길에서 성장하여 나에게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다.

2. 내가 너희에게 내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그 율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 정해 놓은 길이며, 너희가 너희의 행실을 세울 기초이자 토대이다. 이 율법은 너희에게 필요한 원칙들을

보여 줄 것이니, 그 안에는 나의 지혜로운 계명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해 온 가르침의 연속이며, 시작도 끝도 없기에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성장해 가는 만큼, 너희는 나의 지혜로운 교훈과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4. 나는 너희가 나를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나의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화를 너희에게 불어넣는다.

5. 너희가 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너희는 힘을 얻고 온전히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시대에 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온 인류를 향해 사랑으로 말해야 하며, 연민의 감정이 너희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울 것이다. 너희는 이웃들에게로 마음을 돌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마치 너희 손에 쥐어진 거룩한 보물인 양, 내가 너희에게 남긴 모든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6. 인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믿음에 기반하여 삶에 대한 갈망,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그들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은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배 의식에서 발견하게 될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바로잡을 줄 알 것입니다. *너희*는 이 사명을 시작하며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 노력할 것이다.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 속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너희의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너희의 깨달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말라. 나의 재림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지 말고, 과거의 성서를 소유한 자들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7.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나를 기다려 온 이들의 조바심을 달래주라. 너희 이웃을 도와주면, 내가 너희 가족과 재산을 지켜 주리라.

8.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행한다면, 너희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항상 내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들에게 기대해 온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9. 너희의 행실이 진실하도록 주의하라. 항상 진실을 말하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훗날의 사람들, 곧 나를 따르고 나를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

10. 1950년이 지나면, 기도하거나 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지 마라. 대신 집이나 야외의 한 곳, 혹은 너희가 생계를 꾸리는 곳을 선택하라. 내 열두 제자를 본보기로 삼으라.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찾을 줄 알았으니, 그 성전이 바로 그들 자신 안, 즉 그들의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행위에 담긴 위대함과 숭고함은 그들의 고양과 나와 교제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11. 지상에 고통이 있는 한, 비참함이 있는 한, 마리아의 증보는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영은 모든 피조물의 삶을 비출 것이다.

12. 너희는 너희 마음의 거처를 나에게 바쳤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자 나는 지체 없이 그 만남의 장소로 달려갔다.

13. 내 길을 따라가며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영적 평안을 경험하였다. 너희 입맛을 만족시킬 달콤함을 갈망하며, 너희는 내 말씀의 꿀을 찾을 때까지 수많은 길을 걸어왔다.

14.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거쳐 성숙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안개가 너희의 발걸음을 가로막았기에 지칠 줄 모르고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내 영의 빛이 너희 앞에 나타났고, 그날은 너희의 부활의 날이었으니, 이는 너희가 태어난 날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었다.

15. 너희가 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날을 잊지 말라. 그 순간이 바로 너희가 빛의 삶으로 돌아온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16. 너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내 말씀을 탐구하였으니, 어떤 이는 겸손하게, 어떤 이는 교만하게, 그러나 모두 내 임재의 권능에 이끌려 왔도다. 너희는 **받드시** 내게로 와야만 **했도다**.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의 어루만짐을 경멸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며 불확실한 길을 택한 반면, 다른 이들은 내 곁에 머물러 내 말씀을 기뻐하며 내 사역에 헌신했다.

17. 나는 모든 내 자녀들 안에, 심지어 살인자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나는 누구에게도서 멀어지지 않으며, 스스로 가장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18. 이곳에 온 너희는 넘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그들도 결국 빛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 너희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가 새롭게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기생식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보를 막아야 한다. 나는 물을 주고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식물들처럼 사람들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갖 길을 통해 내게로 올 것이며,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내 제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길에서 버려두고 온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너희가 돌보지 않았던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너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굶주린 자에게 줄 빵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속죄를 찾으려 하는가?

21. 인간의 과학은 위대하지만, 과학자의 영혼은 잠들어 있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손에 치유의 연고를 맡겨, 너희가 인류의 의사가 되어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게 하려 한다.

22.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며, 인류의 상당수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과학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질병들이 될 것이다.

23. 온 세상이 잡초로부터 정화될 것이다. 나의 심판은 이기심과 증오, 끝없는 권력 추구를 없애 버릴 것이다. 거대한 자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24. 여러 나라가 황폐해지고 광활한 땅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너희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경종일 것이다.

25. 길은 이미 마련되었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이며, 너희 삶의 여정에서 너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26.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주님의 임재 안에 환영받으라 —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는 그 주님. 그러나 내가 나타나시는 곳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 거처는 너희 마음속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고양되는 순간 나에게 바치는 그 곳이다.

27. 나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안다. 그 말씀이 없다면, 내 백성아,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찾아온다. 나의 말씀은 너희에게 조언을 주고 너희를 고양시킨다 — 이는 사람의 손으로 쓴 그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순수하고 빛나는 말씀이다.

28. 나를 들은 과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 앞에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를 깨닫고 있다.

29. 나는 이 길을 통해 너희가 이전에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영혼의 평화를 느끼게 해 주었다. 너희는 많은 길을 걸어왔다. 무지한 별새처럼 꽃에서 꽃으로 수많은 꿀정원을 찾아다녔으나, 너희 입맛에 더 달콤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너희 입술 위에서 꿀이 된 이 말씀은, 너희가 예전에 맛보았던 온갖 맛을 모두 지워버렸다.

30. 너희는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매며 여러 가지 길을 발견했다. 너희는 어둠과 싸웠으나, 너희의 빠른 발걸음은 느려지고 지쳐 버렸다.

31. 그러나 나의 신성한 영의 빛이 너희를 위해 비추었으며, 너희의 영과 영혼에게 잊을 수 없는 그 날은 저 세상의 기억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 너희는 영적인 눈으로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과 스승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날은 너희 영혼에게 은혜의 삶으로 부활하는 날이었다.

32.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성공한 자로서 이곳에 왔고, 다른 이들은 궁핍한 자로서 왔다. 어느 쪽이든 그 시기는 정해져 있었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너희를 환영하시고, 영적인 삶으로 부활하게 하신 너희 아버지께로 와야만 했다.

33. 너희는 나의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너희를 감싸고 있는 육체적 물질이 너희가 나의 축복받은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나의 고귀한 뜻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제자는 헌신적이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이 물질적 육체를 통해 빛의 길은 물론 거짓과 어둠의 길도 모두 알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서 번영의 열매를 누리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것이다. 너희는 푸른 야자나무 그늘 아래서 기운을 차리고, 그 잎사귀가 애벌레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또한 맹금류가 그 위에 동지를 틀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다.

34. 나는 너희가 온갖 종류의 꿀 맛을 알아보고, 마침내 너희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희의 길을 내버려 두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신성한 원자의 숨결에 이끌려 분별력을 갖추고 항상 선을 향할 수 있도록, 두 극단을 경험하게 했다.

35. 스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음’이라 부르는 그 문 뒤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바로 나다. 죽음이란, 너희의 눈을 멀게 하고 내 곁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줄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기도다. 기도는 너희에게 강하다는 느낌을 주고, 나의 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길을 걷게 해주는 무기이다.

36. 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품에서 그 누구도 외면한 적이 없으니, 유혹에 현혹되어 심연으로 떨어진 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다. 지상에서도, ‘영적 계곡’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는 없다. 너희 중 누가 죄인이라거나 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 품에서 쫓겨날 수 있겠느냐? 나는 양심의 목소리가 내미는 부르심을 귀담아듣지 않아 내 신성한 영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완고한 죄인의 마음속에도 살아 계신다. 그가 저지른 일련의 악행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 중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이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내 백성 중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37. 너희는 길을 잃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영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어 그가 깨어나 유혹의 족쇄를 끊고, 그를 눈멀게 한 어둠을 몰아내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38. 그러나 이스라엘은 잠들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로 갱신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 임무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9. 그러나 너희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율법을 누구에게 맡겨 두었느냐? 혹시 완고한 죄인들의 손에 맡겼느냐? 율법은 너희 손에 있다. 그렇다면 내 계명이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너희는 너희의 열매를 땅 위에서 기생하는 식물로 만들었느냐? 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죄인이 제멋대로 달리는 길을 계속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를 내게 더 가까이 데려오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지 않느냐? 어둠이 계속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중재를 통해 어둠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40. “일어나거라, 백성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내가 인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모든 나라와 그 통치자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주민들에게 위대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리라.

41. 너희 가운데서 위대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계절이 변할 것이다. 겨울은 혹독할 것이며, 너희는 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시기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내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비는 막혀서 너희 밭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백성아, 준비하라. 너희 가운데 혼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투쟁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42. 너희 가운데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 평화를 지키라! 너희 마음에서 이 평화를 쫓아내지 말라. 이 나라는 내가 택한 것이며, 내가 이 나라가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준비하라. 너희가 영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이 나라와 인류가 빛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3. 이스라엘아, 내가 여기 있다! 너희는 나를 볼 수는 없지만 오직 나의 목소리만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종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라.

44. 나는 너희가 밤을 지내는 곳의 구석구석까지 너희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따라간다. 너희의 고통 중 그 어떤 것도 내가 외면할 수 없으며, 나는 너희에게 몸과 영혼의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리라.

45. 나는 너희에게 거짓된 부를 주지 않으니, 너희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이 생이 끝난 후 내 오른편으로 들어올리려 한다.

46. 영혼을 위한 부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영혼은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고 몸만 꾸미지 말라.

47. 처음 두 시대에 인간에게 주어진 나의 법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너희 곁에 왔다.

48. 1866년부터 이 나라에서는 내 말씀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샘에서 솟아나 영적으로 목마른 이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기 위해 머물고 있다.

49. 아, 모든 이가 나를 듣기 위해 모여들기만 한다면! 그러나 어떤 이들은 — 비록 나를 들었음에도 — 주님의 빛나는 길을 걷기보다는 자갈이 가득한 울퉁불퉁한 길을 택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너희의 형제, 즉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며, 영생의 양식 대신 세상의 쓴 빵을 먹는 자이다.

50.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 곁에 머무르는 너희는 복이 있다.

51. 너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너희를 지도하셨으니, 그 영적인 가르침은 광신주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너희로 하여금 신성한 법과 인간의 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52. 나는 너희가 나의 용서를 얻기 위해 너희 몸을 해치거나 죽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서 받아들이는 유일한 참회는, 비록 종종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서라도 해로운 것이나 나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너희 마음은 내 영의 평화를 느꼈다.

53.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영혼의 진정한 세계가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혼이 땅의 흙위를 기어다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54. 이 생이 끝난 후 여러분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배우고 실천하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머지않아 이 나그네 생활은 끝나고 여러분은 나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55. 세 시대에 걸쳐 나는 인류에게 다양한 형태의 계시를 선택하였다. 첫 번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너희의 발걸음을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였고, 두 번째 시대에는 내가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구원의 흔적을 남겼다. 오늘 나는 ‘하얀 구름’ 위에, 평화의 무지개로 내려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의 빛을 갈망하며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나서기를 원치 않으니, 다가올 시대는 더 큰 고통과 더 무거운 시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56. 이제 나는 너희가 이를 연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3의 성서를 남긴다. 이미 1950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57.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스승이 너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설마 너희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전염병과 기근이 퍼지고, 슬픔과 고통이 너희 가정에 닥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58. 나는 너희가 단합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남기를 원한다. 서로를 오해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면 평화가 온 세상을 감쌀 것이다.

59. 내일 너희 중 누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먼 땅에 발을 디딜 것인가? 누가 내 말씀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 가족과 자녀를 떠나야 할 것인가?

60. 깨어 기도하라. 1950년이 되기 전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빵을 혼자서만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음식의 남은 것을 숨기려고 손을 짝 쥐었고, 목마른 이들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물을 숨겨 두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할 이 마지막 3년이

지나면, 너희는 스승으로서 초보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여러분의 많은 불완전함을 깨끗이 씻어내어, 순결해지고 교회와 종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준비하라. 현재 나를 듣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 중에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겨주고 팔아넘길 자가 있다.

61.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내일 “그분은 단지 말을 하던 사람일 뿐, 너희의 하느님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누가 나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인간이 나처럼 백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62. 머지않아 너희는 이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겠지만, 1866년부터 1950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나를 들었으나 그들 중 일부는 내 말씀을 마음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영원토록 아버지 곁에 있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207

1. 내 임재를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나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적 표현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이는 너희가 영성화를 향해 내디딘 한 걸음이다.

2. 너희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 그곳에서 끝없이 가르침을 하나씩 공부할 수 있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사는 이 한 생애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은 이후로, 너희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너희 눈을 가리던 장막이 찢어졌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 빛을 본 자들 중 누가 다시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겠는가?

4. 너희는 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더 이상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게 되었으며, 영적인 기도와 행동을 통해 나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이성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인위적이고 고른 말들로 가득 찬 외운 기도들을 잊어버렸다. 그 당시 너희에게는 너희의 하느님께 말씀드리기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없었다.

5. 오늘 여러분이 이웃의 곤경, 비참함, 혹은 고통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자비와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해 선을 바라는 여러분의 열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6. 오래전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숭배하기 위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지배력을 깨닫고 스스로를 감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며, 강하고 위대하다고 여겼습니다.

7. 나는 너희의 이러한 오만을 꺾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겸손함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의 가치와 힘을 뒷받침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로 인해 너희가 자만할 수 없으며, 그 무언가가 바로 너희의 영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었다. 그 위대함은 너희가 육신의 본성에서 느끼는 자만과는 거리가 멀다. 영은 하나님의 일부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 안에 심어 놓은 진정한 위대함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만 발전의 길에서 공로를 쌓아 승화를 이룰 수 있다.

8. 예전에는 너희의 삶이 정욕에 지배당했을 때, 너희의 영은 죄사슬에 묶여 억압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이러한 정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교만도, 이기심도, 증오도 자리 잡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의 영혼은 삶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모든 발걸음을 이끌기 시작하며, 이러한 복종은 너희가 저지른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속죄와 같다.

9. 그리하여 영은 선함 속에서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마칠 때, 그 영광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만함의 흔적이나 슬픔의 자취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온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10. 이러한 겸손과 고양된 마음으로 저 세상으로 가는 자는, 이 땅에서 뒤로 남긴 고난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길을 잃은 자들의 보호자이자 수호자가 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11.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은사를 꽃피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성 수양과 철저한 준비를 지키는 자 앞에서는 재앙과 전염병, 질병들이 물러날 것이다. 이는 그가 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육체적인 힘으로 이를 이룬 것이 아니라, 겸손을 통해 힘을 얻은 영을 통해 이를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와 하나가 되어 내 말씀을 들으라.

13.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며, 나로서 내 가르침을 옹호할 선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14. 지금은 인간이 자신의 영적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시기이다.

15. 내 말씀을 듣고 깨어난 이들의 수는, 내 계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 비해 매우 적다. 직관적으로 영적인 존재의 가까움과 임재를 느끼는 이들도 일부 있다.

16.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손길과 그 목소리는, 큰 노력을 통해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할 영적 지식을 전할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될 것이다.

17.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내가 예고한 모든 일을 겪어낼 힘과 용기를 갖도록 너희를 훈련시켜 왔다. 이 대립 속에서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과 세계관 간의 갈등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그 가르침을 따랐다면, 세상은 평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 대신 이기심이 지배한다면 — 어떻게 마음속에 명료함이 있고, 삶의 행위에 영성이 깃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영이 육체의 반항을 이겨내고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18.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비참함을 없애기보다는, 그로부터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얻으려고만 한다.

왜 사람들은 영에 더 걸맞은 더 순수한 감정과 열망을 심어줄 이상을 갈망하며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궁핍과 세속적인 쾌락, 그리고 물질주의적 과학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육신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많은 부와 쾌락을 누리는 데만 쏟아부었습니다.

상향적으로 발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대신, 인간은 무지한 오만함 속에서 더 낮은 차원의 존재 수준으로 추락하며, 신성과 영적 삶이 그에게 말을 걸어올 때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러한 경고들에 대해 “생각을 낭비” 하지 않기를 선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는 물론, 영적·육체적 상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가 이런 식으로 살고 생각하는 한, 그가 먼지와 비참함 그 자체일 수밖에 있겠는가?

1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보라,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마음속에 다른 관념을 품고, 영혼의 삶인 그 더 높은 삶에 대해 깊이 사색하느니라. 사람 안에 내 신성한 은총이라는 더 높은 것이 존재함을 깨닫는다면, 이미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느니라.

20. 이를 통해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나 힘이, 그분의 완전함을 반영하는 자연 속에서 그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인류가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피조물들 속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줄 알게 된다면, 인류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더 넓은 지평을 향해 이해력이 열리므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들을 가두었던 벽은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21.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배운 것만으로는 내 뜻이 무엇인지 모두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너희는 이 광활한 길을 아직도 오랫동안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지의 장막을 찢어 버릴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너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천상의 노래를 들은 자는 더 이상 나의 영감에 귀를 닫을 수 없을 것이며, 그의 입술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2. 오늘 너희는 매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서로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이성과 책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말들을 읊조리곤 했다. 이제 너희의 기도에는 더 이상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내면이 고양될 때마다, 너희는 투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 — 입술의 말 대신, 너희 영혼에 다가와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영감이 있다. 오늘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너희의 입술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온 존재가 그분의 자비를 증언하고 있다.

23.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바로잡으십시오. 모든 영혼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이 열망을 품고 자신과도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본성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정욕과 나쁜 성향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할 때,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24. 그러나 과거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고, 스스로를 영원하고 강하며 위대하다고 여겨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성전을 세웠던 그 유산은, 영적·물질적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사라질 것이다.

25. 너희의 힘과 영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허영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위대함은 세속적인 위대함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26. 영은 빛의 불꽃이며, 사랑의 씨앗이며, 생명의 싹이다.

27. 위대함을 얻으려는 시도에 있어 오직 세속적인 야망에만 재갈을 풀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택했는지 깨달으십시오.

28. 이제 여러분은 점차 영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생의 끝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빛과 깨달음, 그리고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29.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30. 민족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각국 대표자들을 돕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해결책에 대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백성들아,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양심 속에서는 그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적 이익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민족들의 운명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그때 — 자신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 모든 이의 복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불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31.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나의 길로 돌아와 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세상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32. 오늘, 나의 우주적 광선이 너희 영혼 위로 내려와 영생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이리라. 너희를 부른 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늦게 온 이들을 보는데, 그들에게 내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고 초대한다. 어떤 이들은 불신하고,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며, 어떤 이들은 온순한 양처럼 우리 우리로 들어오고, 또 어떤 이들은 얼굴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나의 현존을

의심하며, 내 가르침을 속으로 비웃는다. 창조주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3. 만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증거들을 제시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덕의 길을 가르치지도 않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는 어둠 속에 있다.

34. 그 음성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참 하나님, 아버지, 생명, 그리고 빛이다. 나는 이 모습으로 내려와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탐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릇된 길, 잘못, 그리고 저급한 정욕들을 없애기 위해 나를 드러낸다.’

35. 나는 너희를 다른 이들에게 밀고하지 않으니, 너희는 나의 잔치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영 안에 있는 나의 빛을 통해, 나는 너희 영혼에게 말하여 그것이 흔들리고 깨어나게 하리라.

36. 나는 너희가 제2의 시대에 정죄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 시대들은 나의 뜻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37. 그 시절 너희가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갔을 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렸으나, 너희가 메시아를 그 원인을 분명히 알면서도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고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나는 스승을 따르며 인류 가운데 내 가르침을 전파한 열두 사람을 너희의 보호자로 남겨 두었다.

38. 오늘 나는 너희 가운데, 다른 시절에 목청껏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마법사다!” 라고 외치던 자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내가 베푼 은혜를 그토록 오해했던 자들이다.

39. 그 시절은 지났고, 너희 영혼들은 내 뜻에 따라 이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신성한 말씀’, 즉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0. 보라,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희 마음을 어루만져,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노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너희 영혼을 갈망하며 내려오노라.

너희는 그 영혼을 죄에 묶어 두어 그 빛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41. 너희의 지성이 빛을 발할 때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도다. 너희의 사랑은 안락과 물질적 만족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무뎌져 버렸기 때문이다.

42. 너희는 영혼의 영생을 잊고, 결국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다. 너희는 내가 사람들 사이의 유혈 사태를 막지 않는 것을 보고, 점차 나의 존재와 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심판자로서 무자비하며, 고통을 통해 죄의 속죄와 정화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43. 너희 마음을 열어라! 너희 영혼을 고양시켜라! 너희가 듣는 그 목소리가,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완전함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온 바로 그 목소리임을 너희 영혼이 말하게 하라. 제3의 시대가 너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제2의 시대 때처럼 나를 인간으로 보고자 하는 욕망을 품지 말라! 내가 “구름 위에서” 오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나의 신성한 영이 너희에게 내려오며, 그러므로 나는 완전함의 사다리에서 목소리의 매개자에게 나의 광선을 내려보내니, 그리하여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도 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

44. 내 말씀을 듣는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다. 나, “말씀”은 온 지구에 내 빛을 비춘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에게 저 세상에서 내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일까?

사람들이 죄와 광신에 사로잡혀, 양심이 그들에게 보내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길을 귀머거리처럼 걷고 있기 때문이다.

45. 1866년부터 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온 지구상에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될 길을 알려주는 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46. 나는 너희 영혼들에게 주님께 대한 죄를 갚아야 할 어려운 사명을 맡겼다. 나는 지금 잡초를 뽑아 다발로 묶어 재가 될 때까지 불에 던져 넣고 있다. 마침내 빛이 비추고, 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47. 인간은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낼 것이나, 더 이상 그들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평화와 조화, 형제애가 깃들 것이다. 마음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며, 살인적인 손길도 더 이상 뻗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너희를 정화할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영적 계곡에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지상에 머무는 자들은 1950년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48. 백성아: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도록 내가 정해 놓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길은 빛으로 표명되어 있다. 그 길 위에는 생명과 기도가 있다. 그것은 영혼의 길이다. 너희가 그 길을 걷는다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걷는다면, 세상에 영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나의 계시에 대해 증언하며, 너희 이웃들에게 완전한 기도를 통해 나에게로 나아오도록 가르쳐라.

49. 백성아, 내가 올리브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 아버지께 용서를 간구했을 때 너희에게 보여준 그 기도의 본보기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엎드렸지, 어떤 형상 앞이 아니었으며, 나는 인류를 위해 유산으로 남긴 바로 그 하늘을 향해 내 말을 드렸다.

50. 다시 한번 나는 너희 가운데 내 자비를 쏟아 부으며 사랑으로 너희를 품에 안는다. 삶의 순례자, 제자, 어린 학생들아: 오늘은 스승의 음성이 너희를 어루만지기 위해 내려오는 은총의 날이다. 나는 엄한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아버지로 나타나며, 나의 말씀으로 너희가 멀어졌던 내가 닦아 놓은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51. 너희 모두는 투사들이다. 나는 어떤 이들은 낙담한 채로 오는 것을 본다. 어떤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 이 싸움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결말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씨를 뿌려야 할, 아직 알지 못하는 밭들은 매우 광활하다. 그러나 너희는 씨앗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뿌릴 수 있을 것이다.

52.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헌신적이고 강인한 반면, 다른 이들은 피로에 휩싸여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보는 눈, 모든 것을 듣는 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이 되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눈은 더 이상 뜨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너희는

내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은 슬픔에 잠겨 일어설 것이다. 너희 영혼은 마치 지금 이 시간처럼 나를 듣고자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닿을 것은 오직 엄한 목소리, 곧 너희를 떨게 할 양심의 목소리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 내 가르침에 귀를 막지 말라. 이 가르침의 의미를 마치 너희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거룩한 경전처럼 받아들여라. 이는 곧 율법이기 때문이다.

53. 내 가르침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의 맹목은 그들의 죄와 고통의 결과이다.

54.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진리는 영혼을 위한 생명이며, 슬픔에 잠긴 모든 영혼을 위한 치유제이다. 이는 마치 메마른 들판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55. 아직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양심에 물어보라. 그러면 양심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땅에 선한 본보기를 뿌리고, 덕을 심으며, 내가 너희 영혼을 창조할 때 부여한 재능을 드러내라. 나쁜 정욕을 벗어 던지고 선한 행실로 옷을 입혀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참된 자녀가 되고, 나의 신성을 구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56. 나는 너희 각자에게, 인류가 논의하게 될 나의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적 사역을 널리 알릴 책임을 맡겼다. 이 사역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이 사역의 시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최종 목표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57. 나의 씨 뿌리는 자들은 잠들어 있으며, 순수하고 맑은 나의 사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그 사역에 섞어 놓았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 선포를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너희가 잠들어 있다면, 내일 너희 마음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실 분은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너희의 양심일 것입니다.

58. 너희가 이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950년 말에 누가 내 곁에 있을 것인가? 너희 중 누가 수확한 풍성한 밀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59. 세상은 깊은 무기력 속에 잠들어 있으며, 너희가 와서 그들을 생명의 세계로 일으켜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아직 ‘죽은 자들’ 에게로 향하는 길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는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의 사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했거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60. 나는 “영원한 말씀” 이기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데 지치지 않았다. 나의 말씀은 돌 같은 마음을 깎고 다듬는 끌이며, 그 속에서 나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게 한다.

61. 이 고통과 비극의 시기에, 나는 너희가 나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의 온전한 신뢰를 나에게 두어라. 그러면 너희 주변 사람들은 영성주의의 빛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라. 십자가의 짐은 너희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62. 백성아, 너희가 겪은 큰 시련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에게는 나의 말씀이 있다. 너희는 나의 사역을 위해 너희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경멸당해 왔다.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의 방탕과 쾌락에 빠져, 모든 방종이 영혼에 가하는 타격이 되어 영혼을 타락시켰는가. 그러나 결국 누가 너희를 그 길에서 돌이키게 했는가? — 바로 너희의 스승이다. — 너희는 나의 사랑을 깨달았고, 너희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

63. 너희는 너희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시선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으며, 너희가 나의 존재와 현존을 의심하지 않도록 너희 삶의 책을 읽고 있다.

64. 이 시대에 나는 제2 시대에 사도들을 내 곁에 모았던 것처럼, 너희를 내 제자들의 자리에 앉혔다.

65. 나의 말씀은 내 발자취가 남긴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는 이미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으나, 여전히 너희 입술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 너희는 아직 싸움 한가운데에 있으며, 생의 여정이 끝날 때 비로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강해 보이고, 어떤 이들은 지쳐 보인다. 내가 너희에게 휴식 시간을 주리니, 그 시간 동안 깊이 성찰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누구도 낭비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66. 내 지시를 무시하지 말고, 내 목소리에 귀를 막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헤아려라. 너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그 위대함을 깨달으라. 그 안에

너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메마른 밭에 내려주는 이슬이며, 너희가 인류에게 전해야 할 씨앗이다. 내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씨를 뿌리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 씨앗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다려라.

67. 너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항상 방해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너희 마음에서 떨쳐내라. 너희 영혼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모든 흠을 벗어던지고, 그 다음에 너희의 선한 행실의 빛으로 그것을 감싸기 시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법을 전파할 자격이 있다고 내면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탐구하게 하라. 내 사역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그 시작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68. 나의 가르침은 너무나 순수하여,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로도 사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너희가 그 가르침에 무언가를 덧붙였기 때문이거나, 너희의 삶이 너희가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지내고 싶어 하겠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의 모범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69. 세상은 자신들에게 뜻밖에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일들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이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잠들어 있다면 — 그때 깨어났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겠느냐!

70.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 누가 내 곁에 있을 것인가? 누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내 율법을 순수하게 지킬 것인가?

71. 그 때부터 너희는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은 너희에게 보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 몸속에 품고 있는 유혹에 치명타를 가해야 한다. 훌륭한 제자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약점과 정욕을

극복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72.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소박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제2시대에 드러났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시절에 나는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였고, 내 말씀과 모범을 통해 사람을 고양시켜 그가 하나님과 닮게 하려 했던 것이다.

73. 내 도구가 되되, 내가 마음속에 다다르는 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가? 너희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 분명 너희 아버지로부터 비슷한 점을 물려받았을 터인데, 너희 아버지는 선하시다.

74. 너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모든 역경을 딛고 신성한 스승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내 존재를 드러내니, 너희는 나를 듣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 너희의 포기함과 희생이 나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 하루도 너희 운명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말라.

75.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가 이룬 모든 것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76.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때로는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는가? —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77. 이 가르침 속에서 너희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초이자 짧고 확실한 길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영성화의 가르침이다. 너희가 이를 이해한다면 — 너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실 속에 얼마나 많은 빛이 비칠 것인가! 입술로만 ‘우리는 영성주의자다’ 라고 되풀이하지 마라. 일단 진정으로 영성주의자가 된다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떠벌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78. 내가 지금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전해 주는 이 가르침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내일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이를 가르치기 위해 그곳에서 이 가르침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목차

가르침 175	구절 번호
영성주의와 이기적인 물질주의 간의 투쟁	4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활용되는 과학을 축복하신다	8
신의 정의는 환생을 허락하신다	11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 안에서 한계를 두신다	15
영혼이 고양되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16
죽음과 영원한 저주,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17
모든 영혼은 신성한 영의 일부이다	22
영적인 것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27
묘지에서 드러나는 물질주의와 광신주의	29
업적, 말, 그리고 기도	36
하나로 통합된 세 가지 유언	49
“황금 송아지”	55
성막과 언약궤	56
다윗과 솔로몬의 교훈	62
영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68
지금 실현되고 있는 예언들	70
자유 의지와 양심	76
가르침 176	구절 번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본보기	1
세계 평화의 조건	15
사자들의 사역	18
조화로운 발전	25
영적 영역에서의 사명 수행	33
거대한 영적 계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38
세상은 노예들로 가득 차 있다	50
가르침 177	절 번호
평화와 영적 고양을 위한 투쟁	1
하나님께서서는 분노가 없으십니다	19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21
시련과 투쟁 속에서의 기도와 내면의 평안	39
정화의 유익	44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많다	46
모든 형태의 신적 소통에는 끝이 있다	50
영과 영 사이의 소통	68
가르침 178	구절 번호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2
사람 안에 있는 영	7
성취를 위한 준비	14
진정한 영성가	30
하나님께는 어떤 형상도 없다	39
영적 삶에 대한 계시	45
영적 투쟁은 보편적이다	64
영적 소통	72
영적 승화에 대한 계시	74
가르침 179	절 번호
영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명	1
이 시련의 시기에 필요한 준비와 믿음	15
영은 육체보다 앞선다	35
예언된 세 번째 재림	36
우리의 영은 신성한 영의 일부이다	49
영적·물질적 차원에서의 멕시코의 준비	52
이 지상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큰 기회	64
가르침 180	구절 번호

양심의 빛은 제자의 길잡이이다	1
“부유한 청년들”	8
진화의 법칙	29
영적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34
멕시코에 대한 예언	38
골고다의 비극에 대한 가르침	48
이 세상을 떠날 준비	52
영혼의 육화 이유	63
정욕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쪽이나 저쪽 편을 들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77
1950년 이후	84
가르침 181	절 번호
보편적 광선의 편재성	1
하나님 안에는 분노도, 형벌도, 복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성이 아니라 영성이 신성을 발견한다	14
빵과 포도주의 의미	18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속의 자비	22
부활과 생명	33
구름 위에서의 주님의 약속된 재림은 이 시대의 부활이다	52
2000년 무렵에 나타날 영적 은사들	56
모든 화신은 사다리를 형성한다	63
주님의 새로운 재림	74
가르침 182	구절 번호
양심이나 직관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1
다음과 같은 실천을 위한 정해진 시간은 없다 신성한 본보기를 실천하는 데 정해진 시간은 없다	16
물질 과학과 영적 세계의 지혜	19
절대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23
예언들	34
영적 왕국	40
악의 왕국	42
지옥의 의미	45
인류는 진정으로 기독교적이지 않다	54
과거와 오늘날의 엘리야	56
신성한 빛으로의 각성	60

말 없는 기도	64
영적 존재들 간의 조화가 주는 힘	66
진리	77
가르침 183	구절 번호
혼란이 닥치기 전 제자들의 준비	1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	7
운명 속에는 정의가 있다	22
멕시코의 위대한 사명	33
영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환생	34
부활에 관한 설명	35
“탕자” (E1:61) xxx	40
성령의 시대	42
인간의 죄로 인해 혼돈이 닥칠 것이다	48
가르침 184	구절 번호
신의 정의, 혹은 인간의 어리석음	4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영적 존재들도 또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7
단어를 번역할 때 신성한 본질은 정신적인 덧붙임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20
진리는 형식과 상징을 초월해 있다	28
사랑은 영이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38
천지와 지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40
한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의 영의 발전	44
영과 물질의 조화를 향하여	55
가르침 185	구절 번호
자유로운 영적 고양을 위한 능력	1
제3시대에 세상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	17
영이 발전함에 따라 잘못된 개념들을 지워 나간다	29
우리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33
물질화 없는 영적 승배	37
인간의 지성을 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43
성취된 예언들	46
가르침 186	절 번호
빛과 어둠의 대격전	4

영혼의 불멸에 대한 해설	15
양심은 영감의 원천이다	20
제3시대의 현현	22
처벌 대신 빛과 용서	28
영성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37
진화의 길	43
환생은 영적 진보에 부합한다	45
가르침 187	절 번호
충실한 추종자들	3
영과 물질의 관계	19
영은 사랑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는다	26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27
오직 영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31
명료함과 진리가 영성가를 구별한다	39
미래의 평화에 대한 예언들	45
인간은 자신의 영적 후진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8
양심의 중요성	63
자신의 공로로 우리는 하느님께 이르게 될 것이다	66
가르침 188	구절 번호
성령께서는 길을 선택하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니다	6
환생은 속죄의 수단이다	7
영적 재인식	16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28
제3의 성서	29
영적 존재들의 실재	39
영매주의의 위험성	42
모든 영혼은 영원하다	43
끔찍한 이념 전쟁에 대한 예언	52
신성한 법과 인간의 법	62
빛과 정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69
가르침 189	구절 번호
선구자 엘리야	2
제자의 책임	11

올바르게 이해된 영성주의	25
오직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으시다	31
멕시코와 그 책임	36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호소	47
멕시코의 사명	57
생명의 책	58
새로운 전쟁을 막는 방법	67
발전의 법칙	74
가르침 190	절 번호
엘리아스의 중요성	1
1866년부터 1950년까지의 신성한 계시	10
소위 부자들의 허영	18
“천국”으로의 영적 승화	27
선한 일을 위해 육신을 입은 천사들	51
솔로몬의 부정적인 본보기	52
영의 생명은 영원하다	57
물질적 유혹의 힘은 실재한다	61
영과 육체의 관계	65
가르침 191	구절 번호
영의 발전과 승화를 위한 준비	1
불순종으로 인한 혼란, 1950년 이후	16
제3시대의 사역의 중요성	18
영적인 모습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22
선(善)의 힘은 만물의 원리이다	26
악은 영원하지 않다	27
하늘의 의미	37
영적 은사	52
공부와 명상	66
가르침 192	절 번호
9월 1일	1
영원한 저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	4
영의 존재와 영원	13
이단과 분파의 기원	17
새로운 교리는 없으나 새로운 계시가 있다	18
신성한 영도, 인간의 영도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다	19
영적 세계의 영향	31

영의 길	34
인간의 오만과 신의 지혜	53
제3시대의 현현에 대한 설명	63
가르침 193	구절 번호
영성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2
직관의 은사	9
목표는 영적으로 완전한 세상이다	27
영적 수행자의 특징	34
영적 발전을 방해하려는 자들	38
영혼의 시련과 발전	41
신은 벌하지 않으시니, 각자는 스스로의 심판자이다	50
1950년의 중요성	60
목소리의 주인	71
신성한 사자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74
가르침 194	구절 번호
영적 존재들의 목적과 사명	7
새로운 시대가 인류를 놀라게 한다	9
국민들 사이에서 영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16
영성은 물질적인 한계가 없다	23
영적 빛의 시대	31
개념들은 변모할 것이다	33
환생의 이유	35
인간의 영혼은 원자이며 창조주의 소유물이다	50
징조들이 이루어졌다	66
영혼은 끊임없이 완성되어 갈 것이다	70
가르침 195	구절 번호
신성한 말씀은 모든 존재를 깨우친다	2
온 창조물은	17
신성한 법칙의 리듬에 맞춰 울려 퍼진다	
전능자의 편재	20
영적 성장은 이성을 깨우친다	21
자연의 격변이 일어나는 원인	26
영적 세계	36
영적 거처들	38
환생의 법칙	46
몸과 정신 모두 그 나뭇의 중요성을 지닌다	49

운명의 의미	53
초기 시대의 사도 모세	65
메시아의 새로운 가르침	71
1866년부터 이어져 온 성령의 계시	75
가르침196	절 번호
종들에게 보내는 부르심	2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직접적인 소통	12
영은 싸움을 위해 무장되어 있다	17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20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23
우상 숭배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41
가르침197	절 번호
묵시록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를 드러낸다	3
진정한 영성가	11
가난과 부의 의미	24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분열	39
진정한 영성주의	49
용서의 중요성과 겸손	58
가르침198	구절 번호
신성한 영의 역사는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3
이 시대를 위한 교훈	10
창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1
이성이 아닌 영의 지혜	17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부름	24
선지자들의 사명	35
제3시대의 소통	59
참 제자의 권한	72
질병에 관한 법칙과 한계	75
성취된 예언	77
가르침199	절 번호
인류는 평화의 토대이다	3
빛은 사슬을 끊어낸다	10
영혼은 육체의 인도자이다	25
1866년부터 1950년까지의 현현에 대한 설명	48
개념에 대한 설명	52
천상의 콘서트	53
형제를 죽이는 종교 전쟁	62
신성함 속의 불가능	68

제3시대의 성취된 예언	70
가족	72
결혼	75
대사	79
가르침 200	절 번호
영적 왕국의 의미	1
제3시대의 이스라엘	23
가난한 자와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들의 사명	28
영적 발전의 새로운 시대	41
힘은 믿음과 인간의 순수함에 있다	47
평화로 가는 길	62
가르침 201	절 번호
세 시대의 메시지	1
영적인 백성이 솟아날 것이다	8
하나님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22
은사의 연합은 무적의 힘을 준다	25
국가 간의 조화	27
정신적 성장은 강인함을 필요로 한다	36
세속적인 의무는 영적 소명의 일부이다	45
영과 창조주 사이의 언약	48
가르침 202	절 번호
크리스마스 이브	1
불멸의 씨앗	12
무한 앞에서 이루어진 심문	16
영적 진리	25
자비	62
가르침 203	절 번호
의지와 이성으로 어둠의 장막이 걷히다	1
그 법은 이루어질 것이다	11
성취의 계획	25
마리아는 신성한 영의 일부이다	38
신성한 영의 대변자	41
영 안의 이스라엘	45
가르침 204	절 번호
바로 그 사람이 낙원을 지옥으로 바꿔 놓는다	4
신성한 사랑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이다	7
세 시대의 의미	16
신의 정의는 결코 별하지 않는다	27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41

고상한 마음과 천한 마음	47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의무를 수반한다	53
마음은 우주적 성전의 일부이다	63
가르침 205	절 번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5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영의 해방	8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12
몸과 정신	25
다양한 영적 거쳐들	30
인간을 통한 신의 현현	45
영성을 통한 건강과 빛	50
가르침 206	절 번호
완벽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1
모두가 빛에 도달할 것이다	18
영적 책임	20
예언들	22
도움받지 못하는 존재는 없다	36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아들이시는 회개	52
인류와 맺은 세 가지 신성한 교감	55
가르침 207	절 번호
성령의 진정한 가치	7
인간의 영적 및 물질적 상황	14
영성은 벽을 허물고 지평을 열어준다	20
영성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46

1866-1950년 멕시코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틀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 6741 1720
『진정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

삶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정한 삶의 책』,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 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의 책』 소개 (무료)

아소시아시온 데 에스투디오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비다 베르다데라
A. C.
오리노코 54번지 5호, 콜로니아 자카후이츠코,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이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들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